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743-01

수탁보고 2024-03



생애초기 적정규모 양육비용 산출 연구

최효미·박은정·조미라·김태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743-01

수탁보고 2024-03

생애초기 적정규모 양육비용 산출 연구

저 자

최효미, 박은정, 조미라, 김태우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 효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은 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조 미 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태 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수탁보고 2024-03

생애초기 적정규모 양육비용 산출 연구

발행일 2024년 3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주소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KT&G 세종타워 B 오피스 1동) 보건복지부 별관
전화 044) 202-3398
팩스 044) 202-3966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인쇄처 (주)승림디자인 02-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743-01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생애초기 적정규모 양육비용 산출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3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	---

I. 서론	4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43
2. 연구내용	46
3. 연구방법	47
4. 연구 수행 절차	48
5. 연구 범위	49
II. 연구 배경	53
1. 생애 초기 양육비용 지원 정책 현황	55
2. 적정 비용 산출 모형 관련 선행연구	75
3. 양육비용 조사 항목 관련 선행 연구	87
4. 소결 및 시사점	92
III. 조사 설계 및 개요	99
1. 가구 조사 개요	101
2. 시장 가격 조사 개요	108
IV. 가구조사 분석 결과	113
1. 응답자 특성	115
2. 침구 및 피복류	123
3.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	134
4. 분유 및 식품류	141
5. 기기/집기류	148
6. 소모품류	162
7. 기타 필수 육아용품	168

8. 공유 경제 관련 소비	172
9.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181

V.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모형 및 산출 결과 185

1. 적정 양육비용 산출 모형 개요	187
2. 침구 및 피복류	196
3.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202
4. 분유 및 식품류	206
5. 기기/집기류/장난감류	215
6. 소모품류	221
7. 보건/의료서비스 등	226
8.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종합	228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35

1.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와 정부 지원금의 커버율	237
2. 영유아 전체 연령에 대한 적정 양육비용 산출 필요성	241
3.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 투입 시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활용	244
4. 합리적 소비 문화 조성 및 공유 경제 소비 활성화 지원	245

참고문헌 249

부록 255

1. 설문지	255
2. 면담 질문지	269
3. 필수 육아용품 목록 선정 절차	276



표 목차

〈표 Ⅰ-3- 1〉 영아 부모 심층 면담 실시 현황	48
〈표 Ⅰ-3- 2〉 영아 부모 심층 면담 참석자 특성	48
〈표 Ⅱ-1- 1〉 프랑스 출산·입양 지원금의 연소득 상한선	58
〈표 Ⅱ-1- 2〉 핀란드 베이비 박스 용품 목록(2023년 기준)	61
〈표 Ⅱ-1- 3〉 스코틀랜드 베이비 박스 용품 목록	63
〈표 Ⅱ-1- 4〉 호주 뉴사우스웨일지 주의 베이비 번들 용품 목록	64
〈표 Ⅱ-1- 5〉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생애단계별 현황 추이: 2019~2022년	68
〈표 Ⅱ-1- 6〉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지원유형별 현황 추이: 2019년~2022년	69
〈표 Ⅱ-1- 7〉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사업 현황: 2019~2022년	70
〈표 Ⅱ-1- 8〉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출생순위별 출산지원금 사업 현황: 2019~2022년	71
〈표 Ⅱ-1- 9〉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예·결산 규모 추이: 2019~2022년	71
〈표 Ⅱ-1-10〉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사업 현황: 2019~2022년	72
〈표 Ⅱ-1-11〉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출생순위별 출산지원금 사업 현황: 2019~2022년	73
〈표 Ⅱ-1-12〉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예·결산 규모 추이: 2019~2022년	74
〈표 Ⅱ-2- 1〉 빈곤의 정의와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76
〈표 Ⅱ-3- 1〉 자녀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월평균, 실질비용)	89
〈표 Ⅱ-3- 2〉 연령별 및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2022년, 명목비용) ..	91
〈표 Ⅱ-3- 3〉 연령별 및 비목별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2022년, 명목비용)	92
〈표 Ⅲ-1- 1〉 출생연월별 월령 기준표	102
〈표 Ⅲ-1- 2〉 월령 및 지역규모별 모집단 분포	103
〈표 Ⅲ-1- 3〉 월령 및 지역규모별 표본 할당	104

〈표 Ⅲ-1- 4〉 가구 조사 주요 설문 내용	105
〈표 Ⅲ-1- 5〉 기타 필수 육아용품 목록_30개 이상 응답 품목	107
〈표 Ⅳ-1- 1〉 응답 가구의 주요 특성	115
〈표 Ⅳ-1- 2〉 아동 특성	116
〈표 Ⅳ-1- 3〉 부모 특성	117
〈표 Ⅳ-1- 4〉 월평균 가구소득 및 가구 소비 지출액, 양육비용	118
〈표 Ⅳ-1- 5〉 육아용품 구매 시 우선 고려사항	119
〈표 Ⅳ-1- 6〉 가구특성별 육아용품 구매 시 우선 고려사항(1순위+2순위)	120
〈표 Ⅳ-1- 7〉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122
〈표 Ⅳ-1- 8〉 가구특성별 첫만남이용권 사용처(1순위+2순위)	122
〈표 Ⅳ-2- 1〉 필수 여부 및 필요 수량_침구 및 피복류	124
〈표 Ⅳ-2- 2〉 구매 경험_침구 및 피복류	125
〈표 Ⅳ-2- 3〉 필수율: 침구 및 피복류 1	127
〈표 Ⅳ-2- 4〉 필수율: 침구 및 피복류 2	127
〈표 Ⅳ-2- 5〉 필요 수량: 침구 및 피복류 1	128
〈표 Ⅳ-2- 6〉 필요 수량: 침구 및 피복류 2	129
〈표 Ⅳ-2- 7〉 구매율: 침구 및 피복류 1	130
〈표 Ⅳ-2- 8〉 구매율: 침구 및 피복류 2	131
〈표 Ⅳ-2- 9〉 최근 3개월 구매 수량: 침구 및 피복류 1	132
〈표 Ⅳ-2-10〉 최근 3개월 구매 수량: 침구 및 피복류 2	132
〈표 Ⅳ-2-11〉 평균 구매 금액: 침구 및 피복류 1	133
〈표 Ⅳ-2-12〉 평균 구매 금액: 침구 및 피복류 2	133
〈표 Ⅳ-3- 1〉 필수 여부 및 필요 수량_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134
〈표 Ⅳ-3- 2〉 구매 경험_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135
〈표 Ⅳ-3- 3〉 필수율: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	136
〈표 Ⅳ-3- 4〉 필요 수량: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	137
〈표 Ⅳ-3- 5〉 구매율: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	138
〈표 Ⅳ-3- 6〉 최근 3개월 간 구매 수량: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	140
〈표 Ⅳ-3- 7〉 평균 구매 금액: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	141
〈표 Ⅳ-4- 1〉 모유 수유 여부	142
〈표 Ⅳ-4- 2〉 분유 소비량 및 구매 경험	144
〈표 Ⅳ-4- 3〉 이유식 섭취	145
〈표 Ⅳ-4- 4〉 이유식 비용	146

〈표 IV-4- 5〉 간식 (우유, 치즈, 요거트, 아기 과자, 과일 등) 비용	148
〈표 IV-5- 1〉 필수 여부 및 보유 수량_기기/집기류	149
〈표 IV-5- 2〉 구매 경험_기기/집기류	151
〈표 IV-5- 3〉 보유 계획_기기/집기류	152
〈표 IV-5- 4〉 필수율: 기기/집기류 1	153
〈표 IV-5- 5〉 필수율: 기기/집기류 2	154
〈표 IV-5- 6〉 보유율: 기기/집기류 1	156
〈표 IV-5- 7〉 보유율: 기기/집기류 2	157
〈표 IV-5- 8〉 보유 수량: 기기/집기류 1	158
〈표 IV-5- 9〉 보유 수량: 기기/집기류 2	158
〈표 IV-5-10〉 구매율: 기기/집기류 1	159
〈표 IV-5-11〉 구매율: 기기/집기류 2	160
〈표 IV-5-12〉 평균 구매 금액: 기기/집기류 1	161
〈표 IV-5-13〉 평균 구매 금액: 기기/집기류 2	161
〈표 IV-6- 1〉 필수 여부 및 필요 수량_소모품류	164
〈표 IV-6- 2〉 구매 경험_소모품류	165
〈표 IV-6- 3〉 필수율: 소모품류	166
〈표 IV-6- 4〉 필요량: 소모품류	167
〈표 IV-6- 5〉 구매율: 소모품류	167
〈표 IV-6- 6〉 구매량(용량×수량): 소모품류	168
〈표 IV-7- 1〉 필수 여부 및 필요 수량_기타 필수 육아용품	171
〈표 IV-7- 2〉 구매 경험_기타 필수 육아용품	172
〈표 IV-8- 1〉 공유 경제 관련 소비 경험 및 절약된 양육비용	173
〈표 IV-8- 2〉 육아용품별 공유 경제 거래 경험 여부	174
〈표 IV-8- 3〉 공유 경제 관련 경험 여부	176
〈표 IV-8- 4〉 공유 경제를 통해 절약된 양육비용	176
〈표 IV-8- 5〉 품목별 중고거래 경험 1	177
〈표 IV-8- 6〉 품목별 중고거래 경험 2	178
〈표 IV-8- 7〉 품목별 대여하기 경험 1	179
〈표 IV-8- 8〉 품목별 대여하기 경험 2	179
〈표 IV-8- 9〉 품목별 물려받기 경험 1	180
〈표 IV-8-10〉 품목별 물려받기 경험 2	180
〈표 IV-9- 1〉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181

〈표 IV-9- 2〉 (가정용) 의약품 구매 경험 및 계획	181
〈표 IV-9- 3〉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병원 이용 전체	182
〈표 IV-9- 4〉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입원 및 외래	183
〈표 IV-9- 5〉 (가정용) 의약품 구매 경험 및 계획	183
〈표 V-1- 1〉 모형별 포함 필수 육아용품 목록	190
〈표 V-1- 2〉 필요량 산출 기준	193
〈표 V-2- 1〉 모형별 포함 필수 육아용품 목록 : 침구 및 피복류(A)	196
〈표 V-2- 2〉 물품별 필요량 : 침구 및 피복류(A)	197
〈표 V-2- 3〉 물품별 시장 가격(C사 베스트5) : 침구 및 피복류(A)	199
〈표 V-2- 4〉 물품별 시장 가격(E사 베스트5) : 침구 및 피복류(A)	199
〈표 V-2- 5〉 물품별 기준 가격 : 침구 및 피복류(A)	200
〈표 V-2- 6〉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 침구 및 피복류(A)	201
〈표 V-3- 1〉 모형별 포함 필수 육아용품 목록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B)	202
〈표 V-3- 2〉 물품별 필요량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B)	203
〈표 V-3- 3〉 물품별 시장 가격(C사 베스트5)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B)	204
〈표 V-3- 4〉 물품별 시장 가격(E사 베스트5)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B)	205
〈표 V-3- 5〉 물품별 기준 가격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B)	205
〈표 V-3- 6〉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B)	206
〈표 V-4- 1〉 기혼여성(19~49세)의 출생아의 월령별 완전모유수유율(2021년)	207
〈표 V-4- 2〉 월령별 분유 권장량	208
〈표 V-4- 3〉 월령별 이유식 권장횟수	208
〈표 V-4- 4〉 분유 제품별 조유 40ml당 스푼 용량(g)	209
〈표 V-4- 5〉 물품별 필요량 : 분유 및 식품류(C)-분유	211
〈표 V-4- 6〉 물품별 필요량 : 분유 및 식품류(C)-이유식	212
〈표 V-4- 7〉 물품별 시장 가격(C사 베스트5) : 분유 및 식품류(C)	213
〈표 V-4- 8〉 물품별 시장 가격(E사 베스트5) : 분유 및 식품류(C)	213
〈표 V-4- 9〉 가구 조사 결과의 끼니당 이유식 비용	214
〈표 V-4-10〉 물품별 기준 가격 : 분유 및 식품류(C)	214
〈표 V-4-11〉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 분유 및 식품류(C)	215

〈표 V-5- 1〉 모형별 포함 필수 육아용품 목록 : 기기/집기/장난감류(D) ……	216
〈표 V-5- 2〉 물품별 필요량 : 기기/집기/장난감류(D) ……	217
〈표 V-5- 3〉 물품별 시장 가격(C사 베스트5) : 기기/집기/장난감류(D) ……	218
〈표 V-5- 4〉 물품별 시장 가격(E사 베스트5) : 기기/집기/장난감류(D) ……	219
〈표 V-5- 5〉 물품별 기준 가격 : 기기/집기/장난감류(D) ……	220
〈표 V-5- 6〉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 기기/집기/장난감류(D) ……	220
〈표 V-6- 1〉 모형별 포함 필수 육아용품 목록 : 소모품류(E) ……	221
〈표 V-6- 2〉 물품별 필요량 : 소모품류(E) ……	223
〈표 V-6- 3〉 물품별 시장 가격(C사 베스트5) : 소모품류(E) ……	224
〈표 V-6- 4〉 물품별 시장 가격(E사 베스트5) : 소모품류(E) ……	224
〈표 V-6- 5〉 물품별 기준 가격 : 소모품류(E) ……	225
〈표 V-6- 6〉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 소모품류(E) ……	225
〈표 V-7- 1〉 보건/의료서비스 등 이용 실태 : 병원 이용 ……	226
〈표 V-7- 2〉 보건/의료서비스 등 이용 실태 : 산후조리 이용 현황 ……	227
〈표 V-7- 3〉 보건/의료서비스 등 이용 실태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	227
〈표 V-7- 4〉 보건/의료서비스 등 이용 실태 : 병원 및 산후조리 이용 비용 ……	227
〈표 V-8- 1〉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종합 : 모형 1 ……	228
〈표 V-8- 2〉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종합 : 모형 2 ……	229
〈표 V-8- 3〉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종합 : 모형 3 ……	230
〈표 V-8- 4〉 비목별 필수 육아용품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종합 ……	232
〈표 V-8- 5〉 생애 초기 보건의료서비스 및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산출 결과 ……	233
〈표 V-8- 6〉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종합 : 보건의료서비스 비용 포함 ……	234
〈표 VI-1- 1〉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과 정부 지원금 비교 ……	238
〈표 VI-1- 2〉 부모급여 중 보육료 지원금을 뺀 정부 지원금의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커버율 ……	241

〈부표 III-1〉 필수 육아용품 목록 선정 절차 ……	276
--------------------------------	-----



그림 목차

[그림 I-3-1] 연구 수행 절차	49
[그림 II-1-1] 첫만남이용권 사업 추진 체계(시군구 지급)	57
[그림 II-1-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아동 현금급여 변화	67
[그림 II-1-3]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지원유형별 재정 비중: 2021년 & 2022년	69
[그림 V-1-1]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절차	187



1. 서론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한국은 2019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로, 저출산의 수렁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정책적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 보완 및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2. 12. 28: 15).
- 생애초기 영아에 대한 출산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양육비용이 어느 정도이며,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한 상황임.
 - 이 연구는 생애초기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육아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양육비용 수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생애초기 적정 수준의 양육비용 지원을 통해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가구 특성에 따른 양육비용 격차를 축소함으로써 생애초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자 함.
 - 출산 직후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영아가구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자녀 양육에 대한 영아 부모들의 과도한 염려를 줄여 후속 출산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 내용

- 생애 초기(0~12개월) 양육비용 지원 정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생애 초기(0~12개월) 적정 비용 산출을 위한 모형 설계 및 필수 육아용품/서비스에 대한 검토.

- 생애 초기(0~12개월) 필수 육아용품/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용 조사 및 소비량 측정.
- 필수 육아용품의 시장 가격 조사.
- 생애 초기(0~12개월) 필수 육아용품 구매를 위해 소요되는 양육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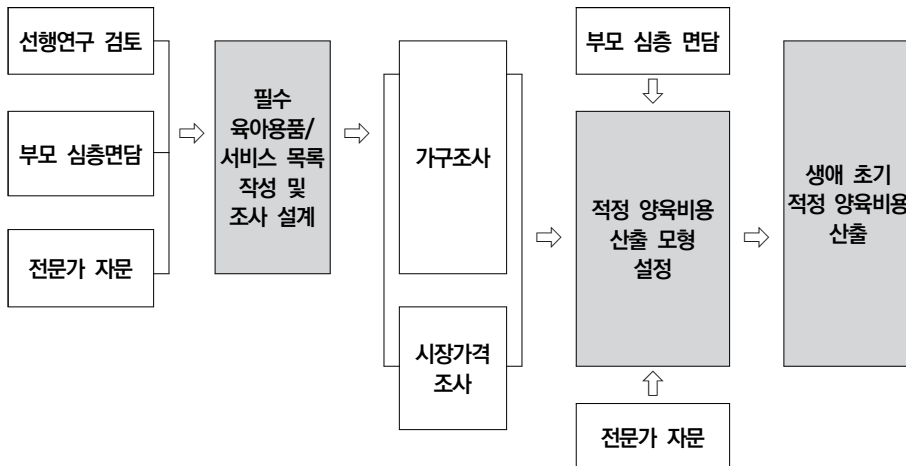
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출생아 현황 및 영아기 출산지원 정책 현황 분석, 영아기 양육비용 및 필수 육아용품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2차 자료 분석 : ‘KICCE 소비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영아기 양육비용의 특징 및 현황 분석
- 가구조사 : 필수 육아용품 및 서비스 소비(혹은 구매) 행태 조사
 - 온라인 조사로 총 600가구(목표 표본 수) 대상 조사 실시
 - ‘첫만남이용권’ 수급 정보(보육진흥원 행복 e-음 DB)를 활용하여 조사 대상 가구 표본 추출
- 시장 가격조사 : 필수 육아용품의 시장 가격조사
 - 물품별 단일 품목 기준 베스트 상품(판매량 기준)의 가격을 조사
 - 2개 온라인 사이트(전자상거래 1위 업체와 대형마트 온라인 몰)에서 각각 물품별 시장 가격을 조사
- 생애 초기 아동(12개월 이하) 부모 심층 면담 (FGI)
 - 총 6회, 생애 초기 아동의 부모 9명에 대한 면담 실시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라. 연구 수행 절차

-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 수행 절차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요약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주: 회색 음영 부분은 주요 연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흰색 부분은 연구 방법과 관련된 부분임.

마. 연구 범위

□ ‘생애 초기’는 태어나서 생후 12개월까지를 의미.

- 생후 12개월까지는 아동 월령에 따라 소비하는 물품 유형 및 종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이며, 자녀 양육의 초기 물품 구입 비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다른 연령에 비해 소비행태를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적정’이란,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대다수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반영한 지나치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의 비용을 적정 비용이라 지칭함.

- 이 연구에서는 가구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시장 가격 등을 반영하여 필수 육아용품 목록을 선정하고, 필수 육아용품별로 기준이 되는 적정 수량 및 가격을 적용하여 적정 비용을 산정.
- 이 연구에서 ‘적정’ 수준(혹은 비용)은 ‘평균’ 혹은 ‘중위수’에 근접한 개념이라 볼 수 있음.

□ ‘필수’의 개념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음. 일반적으로 ‘필수’란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나 일’을 지칭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개념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물품 목록을 작성한 후, 연구진 회의, 전문가

자문, 부모 면담 등을 거쳐 일차적으로 ‘필수’ 물품을 선별하였으며, 가구 설문 조사에 참여한 영아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필수’ 육아용품 목록을 작성함.

- 이 연구의 ‘필수’ 육아용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물품(예: 분유, 기저귀 등)’ 혹은 ‘대다수의 사람이 아동 양육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물품’으로 정리될 수 있음.

2. 연구 배경

가. 생애 초기 양육비용 지원 정책 현황

- 첫만남이용권은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 지원되는 정책임(보건복지부, 2023a: 4).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당 200만원이 출생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어 왔으나,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 아동부터는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보건복지부 보도 참고자료, 2023. 12. 8.).
- 생애 초기 아동에게 지원되는 출산지원 정책 중 한국의 ‘첫만남이용권’과 유사한 해외 정책 사례 중 현금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음.
 - 프랑스 : 출산·입양 지원금 제도.
 - 출산·입양 지원금 제도는 프랑스의 가족 수당제도인 영유아육아수당(Presen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임.
 - 출산 또는 입양 자녀를 둔 가구에 일시불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첫만남이용권’과 유사하나, 모든 아동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자녀수 및 가구형태에 따라 연소득 상한선에 차등을 두어 지급.
 - 출산·입양 지원금의 지급액은 출산 자녀일 경우 자녀 1명당 1,019.43유로¹⁾이며, 입양 자녀의 경우 자녀 1명당 2,038.85유로(2023년 4월 1일 이후 적용)임.

1) 1,019.43유로(€) = 146만 1,179.60원(2023년 12월 28일 환율 기준)
2,038.85유로(€) = 292만 2,344.87원(2023년 12월 28일 환율 기준)

- 일본 : 출산 육아 일시금 제도.

- 공적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 육아 일시금(出産育児一時金)’을 지급하며, 의료보험에서 출산 이후 일시금으로 지급.
- 출산 육아 일시금의 지급액은 2023년 4월부터 42만엔에서 50만엔²⁾으로 상향됨.

- 싱가포르 : 출산 축하금 제도.

- 싱가포르의 베이비 보너스 제도(Baby Bonus Scheme)에는 출산 축하금(Baby Bonus Cash Gift)과 아동 발달 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제도가 있음.
- 2023년 2월 14일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한 출산 축하금을 이전보다 S\$3,000 인상하여 지원 수준을 제고하였으며, 이전에는 일시금 방식이었으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아동이 만 6.5세까지 6개월 마다 출산 축하금을 분할하여 지급함.
- 싱가포르의 출산 축하금은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 지급하는데, 첫째, 둘째아에게는 S\$11,000³⁾가 지급되고, 셋째아부터 S\$13,000⁴⁾를 지급함.

□ 한편, 한국의 ‘첫만남이용권’과 유사한 해외 정책 사례 중 현물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음.

- 핀란드 : 출산보조금(Maternity grant).

- 핀란드의 출산 패키지인 베이비 박스(Baby box)는 1922년 자선단체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핀란드 전역 모든 지자체에서 모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1949년부터 시작됨(Koivu et al., 2020: 22~25).
- 출산 패키지 신청서 제출 기한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이며, 부모는 출산 패키지와 170유로 (면세) 현금 급여 중 선택 가능.
- 2023년 기준, 핀란드 베이비 박스는 침구류, 피복류 및 아이와 산모를 위한 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종 용품을 포함함.

2) 50만엔(¥) = 455만 6,900원(2023년 12월 28일 환율 기준)

3) S\$11,000 = 1,074만 8,320원(2023년 12월 28일 환율 기준)

4) S\$13,000 = 1,270만 2,560원(2023년 12월 28일 환율 기준)

- 스코틀랜드 : 베이비 박스(Baby box) 제도.
 - 2017년 8월 15일 이후에 출생하여 스코틀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생 후 첫 6개월 동안 필요한 핵심 물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임⁵⁾.
 - 스코틀랜드 베이비 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 목록도 핀란드와 유사하게 침구류, 피복류 및 아이와 산모를 위한 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코틀랜드의 경우 도서 및 장난감(아기용 책 2권, 유모차용 책, 애착 인형)이 포함되어 있음.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 베이비 번들(Baby Bundle)
 -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태어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현물 지원 사업으로, 출산한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아기 물품 가방 지급.
 - 지원되는 물품은 아기 블루북(개인 건강 기록과 아동의 건강 및 발달에 대한 정보가 담긴 책자) 크기의 주머니와 놀이매트, 아기 및 산모 위생용품, 구급상자 등을 지원.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베이비 번들은 침구류 및 아기 내복과 같은 피복류는 포함되지 않음.
- 부모급여는 2023년에 도입된 제도로, 보육료 이상의 지급액을 가진 높은 수준의 보편 정액급여로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급.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
 - 2023년에는 만 0세아에게 월 70만원, 만 1세아에게 월 35만원 지급되었으며, 2024년부터 만 0세아 월 100만원, 만 1세아 월 50만원 지급.
-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은 2022년 기준 2,340건으로, 현금 지원 사업 비중이 30.8%임(양미선·김혜진, 2021: 50;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76).
-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포함하여,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화폐 지급 등 상품권

5) NHS inform, <https://www.nhsinform.scot/ready-steady-baby/pregnancy/preparing-for-parent-hood/baby-box/> (2024. 1. 17. 인출).

지원과 보험료 지원이나 이용료 할인 등 현금성 지원을 합산하면, 2022년 41.0%로 2019년에 비해 6.0%p가 증가.

-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2022년 기준 11개 지역으로 이전에 비해 3개 지역 감소.
 - 첫만남이용권이 시행됨에 따라 충북, 전남, 경남 지역에서 출산지원금 사업을 폐지.
 - 2022년 기준으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가 9개이며,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가 11개임.
 - 광역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2022년 기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큼.
 - 지자체 출산지원금 사업의 예·결산을 살펴보면, 2019년에 1,109억46백만원에서 2022년 3,614억1백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
- 출산지원금 사업을 실시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216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에는 222개였으나, 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된 2022년에는 202개로 감소하여 전체 기초 지자체 중 89.4%가 출산지원금 사업을 실시(양미선·김혜진, 2021: 78;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341).
 -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실시하는 기초 지자체의 비중은 2019년 69.9%에서 2021년 85.0%까지 증가하였으며, 둘째아를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 비중은 2019년 86.7%에서 92.9%까지 증가.
 - 기초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2022년 기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광역 지자체보다 지역 간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남.
 - 기초 지자체 출산지원금 사업의 예·결산을 살펴보면, 2019년에 1,795억 52백만원에서 2022년 2,120억78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적었음.

나. 적정 비용 산출 모형 관련 선행연구

- 한국의 최저생계비는 2000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빈곤층 대상의 공공 부조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급여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측되어 옴(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7).
-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

소한의 비용'으로 명시되어 최저생활 수준의 판단 근거로 기능함.

-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되면서 제도 수급대상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최저생계비는 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계속됨.
-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대상(전국 표본 2,800가구)으로 필수품 사용량, 내구 연수에 대한 심층조사 실시, 식료품비 산출 위한 외식 빈도, 내구재 및 의료 소비실태 등을 파악해 마켓 바스켓 구성에 활용.
 - 최저생계비 산출시의 필수품은 절대적 필요가 있는 물품 뿐 아니라 기본적인 품위유지 차원도 고려함. 즉, 최저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품에 더해 보유빈도가 높은 품목을 포함함.
 - (품목 선정 기준) 전문가에 의한 최저개념으로 물품을 구성(영양권장량, 최저주거기준 등)하고, 보완적으로 소득탄력성 또는 로지스틱분석 기법을 이용해 소득 변화에 큰 변화 없이 보유하거나 일정소득 하에서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포함시킴.
 - (사용량의 결정) 사용량은 비목의 성격에 따라 외생적, 규범적으로 달리 정함. 세금 등 사용량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것을 사용량으로 정하고, 최저주거면적, 영양권장량을 충족하는 식품 등 규범적 기준을 적용, 이외 월 평균 지출액을 품목단가로 나누거나 전체사용량을 가구 수로 나누어 정함.
 - (내구연수의 결정)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기간보다는 길게 정하고, 표본수를 구입가구로 나눈 수치, 품목별 평균가격을 월지출금액으로 나눈 수치, 또는 저소득가구 소비수준의 최빈값, 중위값, 평균값과 같은 대푯값을 활용하여 정함.
 - (가격결정의 기준시점) 2023년 1월로 하되 계절변동이 큰 품목은 성수기를 기준으로 정함. 품질은 중품 또는 중저품으로 정함. 자료가 있는 경우 통계청 물가지수 변화를 반영하여 품목별 소비자 가격을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는 실태조사에서 저소득가구 소비가격의 대푯값을 적용함.

□ 주요 비목별 최저생계비 산출 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식료품비는 생활유지를 위한 필수품목으로 비탄력적 성격을 가지기에 규범적 측면에서 표준가구 가구구성원의 연령, 성별을 기준으로 영양섭취기준을 설정하고, 소비가 큰 식품들을 고려해 마켓바스켓을 수정함.

-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가구구입, 수리비용과 가사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구입 비용을 포함.
 - 최저 피복·신발비는 기본적인 필요측면에서 신체보호, 적정 체온유지, 보건 위생측면의 청결유지를 고려하고 노동재생산을 위한 필요성 및 체면유지와 같은 최소한의 문화, 사회적 욕구를 고려하여 정의함.
 - 보건·의료비는 질병 예방, 치료 및 신체의 교정 등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지만, 보건수준에 대한 사회적 기본욕구(basic need) 중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를 충족시키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출.
- 표준보육비용 산출은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산출함.
- 이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항목은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임.
 - 교재교구비는 실내 교재교구와 소모품으로 구성되며, 연령별 교재교구 목록을 작성 후, 교재교구 가격을 조사하여 합계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 목록에 포함되는 각 품목의 가격에 필요수량을 곱하고 내구연한을 나누어 산출값을 구한 후 총계로 산출함.
 - 급간식비는 연령별 표준 식단 및 식재료 리스트를 작성한 후 재료 가격을 조사하여 식단을 만들기 위한 비용(재료)의 합계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을 고려하여 사계절 연령별 표준 식단을 작성하고, 식단에 필요한 식재료 목록과 필요량을 작성함.
 - 해당 식재료의 가격에 필요량을 곱하여 식단에 필요한 재료비 총액을 구하며, 아동 연령별 1일 평균 식단가로 급간식비를 산출함.
- 표준유아교육비는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동운영경비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유치원에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여 산출함.
- 표준유치원 연령별 학급편성 모형을 설정하여, 학급 당 원아수에 따른 유치원 규모별 연령별 표준원아 수와 표준교직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수 모형을 설정함.
 - 표준교육활동경비는 교구비와 재료비 및 설비비 합으로 산출하며, 표준유아

교육비는 표준보육비용과 달리 급간식비가 포함되지 않음.

- 교구비는 연령별로 목록을 작성한 후 각 항목을 유치원 단위 교구비와 학급 단위 교구비 그리고 원아 단위 교구비로 구분함.
- 각 항목에 대한 교구별 소요물량에 단위단가를 곱한 후 내구연한을 나누어 계산한 후 이들의 합으로 연령별 교구비를 산출함.
- 재료비도 교구비처럼 연령별 재료비 목록을 작성한 후 각 항목에 소요물량과 단위단가를 곱하여 총액을 계산 한 후 연령별 재료비의 평균액으로 산출함(다만, 재료비는 학급당 비용으로 구분함).

다. 양육비용 조사 항목 관련 선행연구

□ 생애 초기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 비용 관련 선행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오기는 했음.

- 권미경·이정원·최효미 외(2016)는 ‘작은 육아문화’에 지향점을 두고 육아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육아문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함.
- 출산·육아용품 바스켓에는 출산 및 임신부 관련 용품과 유아기에 사용하는 용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생애 초기 육아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출산·육아용품 바스켓은 신생아 기본용품 등 총 79개 품목이 포함됨.
- 박진아·박상신(2018)은 육아물가 산출 연구로, 주요 육아용품 및 서비스 품목별 물가를 산출함.
- 육아물가지수 산출을 위한 세부조사항목으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비용, 학원, 산후조리원(기본비용), 아이돌보미 등 육아서비스 이용비용과 우유, 두유 등 식품류를 포함한 33개 육아용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짐.
- 육아물가 산출에 초점이 있으므로, 생애 초기 육아용품(예 : 분유, 기저귀)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영유아기 전체 기간 동안 사용하는 필수 육아물품 및 육아서비스 위주로 연구가 진행됨.
- 물가 산출을 위한 조사이므로 육아기 대표 품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생애 초기 육아용품 중 일부 필수 용품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예 : 아기 욕조, 가제 수건 등).
- 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2018)는 영유아기 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연구로,

이전에 수행된 국내외 양육비용 연구를 개관하고, 양육비용 비목 분류를 위해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 품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 온라인 설문에 포함된 육아용품/서비스는 문항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총 44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육아서비스 관련 품목으로 예방접종비,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영화 및 공연관람 비용, 키즈카페 이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상품으로 어린이보험이 포함됨. 단,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비용은 본조사 설문 문항으로, 온라인 조사에서는 제외.
- 최효미·최은영·박은영 외(2020)는 중국의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용품 소비문화와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선호 등에 관한 연구임.
- 육아서비스는 제외하고 물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1개 품목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실시됨.
- 단, 일부 품목은 유사한 2개 이상의 품목을 묶어서 조사함. 예: 물티슈, 화장지, 면봉, 알코올 솜은 하나의 범주로 구분, 침구류(블랭킷, 속싸개, 겉싸개, 방수요 등)도 하나의 범주로 조사함.

□ ‘KICCE 소비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실질비용 기준)은 2018년 66만7천원이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61만3천원으로 약간 낮아졌으나, 다시 상승하여 2022년에는 월평균 65만2천이었음(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 제시된 값은 실질비용(2020년=100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기준이기 때문에, 명목비용을 기준으로는 2022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2018년 대비 약 5만원가량 상승한 수치를 기록.

□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명목비용 기준)⁶⁾은 2022년 기준 0세가 63만8천원으로, 1세(59만7천원)와 2세(60만원)의 양육비용에 비해 약간 높음.

- 비목별로는 0세의 경우 식비와 보건/의료비가 각각 월평균 11만6천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됨.
- 0세의 경우 기기/집기(7만2천원), 피복류(7만5천원), 개인유지비(7만8천원) 등이 다른 연령에 비해 지출액이 많은 비목이었음.

6)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 원자료 분석 결과임.

라. 소결 및 시사점

- 생애 초기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현물 지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책은 아니며, 해외 다수 국가에서 시행 중임.
 - 지원의 방식이 현금 형태인 경우(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도 있고, 현물(핀란드, 스코틀랜드 등)인 경우도 있으며, 가구 특성에 따라 선별적 지원 혹은 차등적 지원(프랑스, 싱가포르 등)되는 경우도 있음. 즉, 국가별로 각국의 상황에 맞는 형태의 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한국의 생애 초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출산 지원 정책(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지자체 출산 지원금 등)은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해 제도 도입이 늦은 편이긴 하나, 포괄 범위(지원 대상)가 폭넓고, 지원금 수준도 높은 현금 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핀란드, 스코틀랜드의 현물 지원(출산 패키지)의 경우 아기를 위한 침구류, 피복류, 아기와 산모를 위한 위생용품 등 신생아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생필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유모차, 카시트와 같은 기기/집기류, 젖병이나 식품류 등을 패키지 지원 물품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 젖병과 식품류의 경우 모유수유 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고, 아기의 특성과 체질에 따라 개인차가 크게 발생하는 용품으로, 현물로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지원 물품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임.
 -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도 현물 지원보다는 현금 지원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
 -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지원 수준이 최소 10만원에서부터 최대 2,400만원까지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음.
 -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의 생존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 이상의 지원은 중앙정부 주도(혹은 지자체 의무 부담)로 전국 공통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또한 생애 초기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활용 및 보유빈도가 높고 필수품으로 인지되는

물품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보다 부합하는 기준임을 알 수 있음.

- 양육비용은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성인 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원이 함께 사용하는 생필품 및 일상용품은 적정 양육비용 산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최저생계비 계측 시 물품의 특성에 따라 산출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적정 양육비용 산출 모형도 최저생계비 모형을 참고하여 산출방식을 품목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0세의 양육비용이 1세의 양육비용에 비해 높다는 점은 출생 후 수개월 이내에 일시적으로 가계 지출에 부담을 주는 소비(물품 구매)가 집중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함.

- 0세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기기/집기류 지출이 매우 높고, 피복류 지출 비용도 높은 편임.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지출 비용도 0세와 1세는 2세 이상 영유아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임.
- 또, 0세의 경우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평균 11만6천원으로, 1세 이상 영유아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4만원 전후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는 출생 전후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이들 비목에 속한 물품/서비스는 생애 초기 양육비용 산출 시 필수 육아용품(의료서비스 포함) 목록과 거의 일치되는 품목으로, 생애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품목/서비스임을 유추해볼 수 있음.

3. 조사 설계 및 개요

가. 가구 조사 개요

□ 조사 대상은 월령 기준 0~12개월인 아동으로, 2022년 10월생~2023년 9월생을 조사 대상으로 함.

- 단, 조사 대상(소비지출) 기간은 아동이 12개월이 되기 전까지의 소비지출로, 육아용품 종류에 따라 소비지출 조사 기간이 상이함.
- 구매 경험은 회고 오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문항에서 최근 3개월(2023. 9~2023.11) 동안의 구매 경험을 조사함.

□ 표본은 월령별 50명×12개월 = 600명을 목표 표본으로 하며, 조사 대상(소비 지출) 기간과 산출 기준 기간을 고려하여, 0~12개월 모든 월령의 아동이 조사될 수 있도록 월령별로 할당 표집.

- 응답 대상 가구는 ‘첫만남이용권’ 수급 정보(보육진흥원 행복 e-음 DB)를 활용하여 표본 추출.
- 응답 대상 가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령별로 50가구씩 할당 표집하였으며, 전체 표본 기준으로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비례 할당함.
 - 2022년 10월생~2023년 9월생 중 첫만남이용권 수급 정보가 확인된 대상자(모집단)는 총 20만5,437명으로, 대도시 거주자 8만2,254명, 중소도시 거주자 9만2,504명, 읍면지역 3만679명이었음.
 - 전체 표본 기준으로 대도시 거주 아동은 240명, 중소도시 271명, 읍면지역은 89명을 목표 표본으로 설정함.

□ 조사 방법 : 구조화 된 설문지에 자기 응답 방식으로 온라인 조사

□ 조사 시기 : 2023. 12. 5. ~ 2024. 1. 3.

□ 가구조사의 주요 설문 내용은 크게 4개 부문으로 구분됨.

-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설문은 필수 육아용품에 대해 필수여부 및 필요수량, 구매경험(최근 3개월 이내 구매 여부, 구매량, 구매 가격)을 질문하는 문항임.
 - 큰 틀에서는 필수여부 및 필요수량, 구매경험을 각 품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육아용품의 특성에 따라 설문의 구성 방식과 질문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구성됨.
 - 피복류는 필요수량을 질문할 때 소요기간을 고정으로 부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한 데 반해(12개월 동안 몇 개가 필요한가?), 기기/집기류는 필요수량이 아닌 현재 보유수량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소모품류는 용량(ml 혹은 g)과 수량(팩/개)을 각각 질문함.
 - 특히, 식품류의 경우에는 섭취량을 기준으로 질문하여, 설문의 구조가 다른 육아용품들과는 완전히 상이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둘째, 공유경제 관련 설문으로 중고거래, 대여하기, 물려받기한 물품 종류와 이로 인해 절약된 양육비용을 조사함.

- 셋째, 육아서비스는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와 관련하여서는 최소한의 문항만 설문에 포함.
 - 병원 방문 횟수와 지출 비용과 가정용 상비약(아기전용 해열제 및 연고 등)의 구매 여부 혹은 구매 계획을 ‘예/아니오’로 간략하게 질문함.
 - 넷째, 가구 특성 및 응답자 특성과 관련한 설문으로 자녀수, 자녀 출생연월 및 성별, 거주 지역, 부모의 연령과 최종학력 및 취업상태,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비 지출액과 자녀 양육비용을 조사하였으며, 소비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육아용품 구매시 우선 고려 사항, 첫만남이용권 주요 사용처를 조사함.
- 필수 육아용품 목록은 신생아(0~12개월) 물품으로 한정하였으며, 부모들이 생각하는 필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물품 포함.
- 필수 육아용품은 선행연구에 포함된 육아용품 목록을 기준으로 연구진 회의, 육아용품 박람회 방문 결과, 부모 심층 면담,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리하여 설문에 반영함.
 - 단, 적정 양육비용 산출 모형에 포함되는 최종적인 물품 목록은 가구 조사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가구 조사 설문에 포함된 물품 목록은 피복류(13개 품목), 수유용품 관련 용품 및 식기류(7개 품목), 식품류(분유, 이유식, 간식류), 기기/집기류(12개 품목), 소모품류(4개 품목)이며, 총 39개임.
 - 일부 물품은 여러개 물품을 하나의 품목으로 질문하고 있어, 실제 품목 수는 39개보다는 약간 많음.
 - 가구 조사 설문에 품목명이 명시된 39개 육아용품 이 외에도 기타 육아 필수 용품을 문자로 기입하도록 하여 조사함.
 - 가구 조사 완료 기준 총 109개의 품목이 응답되었으나, 앞의 목록과 중복되는 물품이나 하나의 범주로 통합 가능한 물품을 응답한 경우가 다수 있어, 데이터 정제 과정 및 보강조사를 거쳐 61개 품목으로 정리됨.
 - 이 중에서 전체 목표표본 600개의 5%에 해당하는 30개 이상 가구에서 응답된 물품은 총 7개로, 방수요, 장난감, 기저귀 갈이대, 물티슈, 역류방지 쿠션, 모빌, 젓병소독용품(젓병소독기 등)임.
- 필수 육아서비스 목록은 생애 초기(12개월 이내) 활용 빈도가 높은 육아서비

스 위주로 필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의료서비스 이용만을 연구 범위에 포함하기로 함.

- 12개월 이하 아동 중에서도 보육서비스(개별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등)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이 시기에는 보육서비스 이용보다는 부모 직접 돌봄의 비중이 매우 높고, 무상보육 지원 정책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육·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의료서비스 중에서도 출산 비용은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제외하고, 산후조리 비용은 적정 비용 산출 시에는 산후조리원 단가 등 기준 단가를 적용하는 형태로 반영하기로 하고 가구 설문에서는 제외함.

나. 시장 가격 조사 개요

□ 시장 가격 조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취합된 91개 품목 중 육아용품박람회 및 연구진 회의를 거쳐 정리된 73개 물품에 대해서 실시함.

- 육아용품에 따라 12개월 이내에 단계가 달라지는 물품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 경우에는 가능한 단계별로 시장 가격을 세분하여 조사함.
 - 단계가 구분되는 물품은 수면조끼(2단계), 내복(2단계), 외출복(4단계), 젖병(제품별로 3단계~6단계 상이), 별도구매 젖꼭지(3단계), 공갈 젖꼭지(2단계), 분유(2단계), 이유식(3단계), 유모차(3개 유형), 카시트(2개 유형), 일회용 기저귀(5단계)임.
-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가구조사를 실시한 육아용품(예: 비누/샴푸/바디워시, 엉덩이발진크림/땀띠 파우더 등)의 경우 각각의 육아용품별 시장 가격을 분리하여 조사함.
- 최종적으로 총 102개 품목에 대한 시장 가격 조사를 실시함.

□ 시장 가격 조사는 2개 온라인 사이트(전자상거래 1위 업체와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조사함.

- 물품별로 판매량이 많은 순으로, 1~5순위 상품까지의 가격을 조사함.
 - 여러개 물품이 세트로 구성되는 상품이 다수 존재하나, 적정 양육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물품별 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일 품목 기준으로 판매량이 많은 5순위 상품까지를 조사함.

- 단, 단일 품목에 해당하는 동일 제품 여러 개가 하나의 세트 상품인 경우에는 가격조사 목록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해당 가격 산출을 위해 규격과 용량, 수량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함.
- 2개 업체 각각에서 판매량 기준 1~5순위를 조사했으므로, 각 물품별×단계 별로 총 10개의 가격이 조사됨.

□ 조사 시기 : 2023. 12. 5. ~ 2024. 12. 27.

□ 품목별 기준 시장 가격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 각 물품별로 산출 모형에서 적용하는 산출 기준(예: 개당 가격, 용량당 가격 등)을 적용하여 시장 가격을 산출하되, 기준 시장 가격은 10개 시장 가격의 평균값을 활용.
- 단, 12개월 이내에 여러 단계가 있는 물품은 모든 단계의 시장 가격을 합산하여 평균함.
- 예 : 분유는 2단계로 구분되는 육아용품으로, 총 20개의 가격이 조사되었는데, 각 제품별로 용량(무게)이 상이하므로 제품별로 100g당 가격을 산출하여, 20개 상품의 100g당 가격의 평균을 시장 기준 가격으로 사용.

□ 기준 시장 가격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P_m = \sum_{s=1}^s \sum_{i=1}^2 \sum_{j=1}^5 p_{msij} / N_p$$

- P_m 은 물품(m)의 단위당 기준 가격 (단, 물품 종류에 따라 단위는 개 혹은 용량 등으로 상이함).
- m : 물품 종류(품목), s : 사용 단계, i : (온라인상거래) 업체, j : 판매량 순위를 의미함. 즉, p_{msij} 는 각 물품별 단계별 i 업체의 판매량 순위가 j 번째 인 제품의 가격을 의미함.
- N_p 는 물품별 가격의 개수로, P_m 산출 과정에서 합산된 가격의 개수를 의미.
- 즉, 물품별 기준 시장 가격(P_m)은 각 단계별로 2개 온라인상거래 업체에서 판매량이 상위 5순위까지만 제품의 단위당 가격을 모든 합산한 후 평균한 값임.

4. 가구 조사 분석 결과

가. 응답자 특성

- 가구조사에 참여한 응답 가구는 총 605가구로, 2022년 10월생에서 2023년 9월생 자녀를 둔 가구가 조사대상임.
- 응답 가구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모(80.5%), 부(19.5%)이며, 응답 가구의 자녀수는 1명이 63.0%로 가장 많고, 2명이 30.7%, 3명 이상이 6.3%임.
 -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44.6%, 대도시 40.2%, 읍·면 지역 15.2%임.
 - 맞벌이 가구 64.1%, 외벌이 가구 33.9%, 기타 가구는 2.0%임.
 -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399만원 이하가 25.6%로 가장 많고, 600만원 초과 22.0%, 500~599만원 이하 20.7%, 400~499만원 이하 19.3%, 299만원 이하 12.4%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06만9천원이며, 가구 소비 지출액은 월 331만 9천원이고 이 중 양육비용은 월 132만4천원임.
 - 응답 대상 아동 605명 중 남아는 47.4%, 여아는 52.6%임.
- 육아용품 구매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점을 2순위까지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는 육아용품 구매 시 안정성 측면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 외에 제품 기능, 가격, 주변 평판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구 특성에 따라 맞벌이 가구는 안정성 인증 표시(65.5%)와 제품 기능(39.9%)을 우선 고려하는 비중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음.
 - 자녀수가 많을수록 육아용품 구매 시 가격과 제품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임.
 -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육아용품 구매 시 주변 평판을 고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품 기능을 고려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성을 보임.
 - 월평균 가구소득이 399만원 이하인 경우 육아용품 구매 시 가격을 고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600만원 초과인 경우 안정성 인증 표시(72.9%)를 고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를 2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첫만남이용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출항목은 산후조리비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출항목은 식비, 보건/의료비, 기기/집기, 개인 유지비 순임.

나. 침구 및 피복류

- 침구 및 피복류는 13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침구 및 피복류에 속한 대부분의 물품이 대체로 높은 필수율을 보임.
 - 필수율이 90% 이상인 품목은 속싸개(92.2%), 손발싸개(92.4%), 턱받이(92.4%), 가제 수건(97.9%), 아기띠·힙시트·포대기(98.3%), 내복(98.8%), 외출복(99.2%) 7개 품목임.
 - 필수율 85% 이상을 적용하면 7개 품목 이외에 배냇저고리(85.5%), 아기목욕수건(87.3%), 신생아모자(88.8%) 3개 품목이 포함됨.
 - 침구 및 피복류에서 필수율이 가장 낮은 품목은 겹싸개(72.1%)이며, 다음으로 아기이불(78.2%), 수면조끼(80.0%)가 낮게 나타남.
- 필요수량이 5개 이상인 품목을 살펴보면, 가제 수건이 32.7개로 가장 많고, 내복 18.3개, 외출복 13.8개, 턱받이 7.3개, 아기목욕수건 5.3개로 5개 품목임.
 - 평균 필요 수량이 2~4개 사이인 품목은 배냇저고리(3.8개), 손발싸개(3.7개), 속싸개(3.5개), 수면조끼(2.7개), 아기이불(2.3개), 신생아모자(2.3개)로 6개 품목임.
 - 필요 수량이 가장 적은 품목은 겹싸개(1.6개)와 아기띠·힙시트·포대기(1.5개)임.
- 침구 및 피복류에서 3개월 이내 구매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아기목욕수건(80.0%)이며, 다음으로 외출복(78.8%), 턱받이(55.0%), 가제 수건(52.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침구 및 피복류 구매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간(2023년 9월~11월) 구매수량을 질문한 결과, 필요수량과 절대값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품목 순위로는 필요수량의 경향성과 유사함.
- 침구 및 피복류의 개당 평균 구매 금액은 아기띠·힙시트·포대기를 제외하고 10만원 미만임.

다.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

- ☐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로 7가지 품목을 조사하였으며, 필수율이 90%를 넘는 품목은 젖병(97.9%) 하나임.
 - 필수율이 85% 이상인 품목에는 (별도 구매한) 젖꼭지(88.1%)와 식기류(89.6%) 2개 품목이 추가됨.
 - 공갈젖꼭지(83.5%), 젖병건조대(74.9%), 수유패드(71.4%), 모유저장팩(63.3%), 순으로 필수율이 낮아짐.
- ☐ 수유관련 용품에 대한 필요수량을 물어본 결과, 젖병은 1년에 평균 9.6개, 젖꼭지 11.4개, 공갈젖꼭지 5.0개 필요하다고 응답함.
- ☐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에 대한 최근 3개월 이내 구매경험(중고구매 포함)은 대체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절반 이상이 구매한 품목은 젖병(69.3%), 젖꼭지(67.6%), 공갈젖꼭지(64.8%), 식기(62.6%) 4개임.

라. 분유 및 식품류⁷⁾

- ☐ 분유만 수유하는 경우가 67.9%로 높게 나타나고 모유만 수유하는 경우는 8.1%임. 모유와 분유의 혼합 수유는 12.1%, 더 이상 수유하지 않음은 11.9%로 나타남.
- ☐ 최근 3개월 동안 분유를 구매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98.3%(476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난 한달 동안 먹은 분유량은 전체 평균 2,679.8g(472명 응답 기준)임.
 - 분유 한통의 개당 구매 금액은 3만1,771원(476명 응답 기준)이었고, 한 달 평균 분유 소비액은 11만4,079원(464명 응답 기준)으로 분석됨.
- ☐ 이유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9.6%(421명)이며, 이 경우 지난 한 주 동안 먹은 이유식의 끼니 수는 16.4끼니(420명 응답 기준)로 하루 2~3회임.
 - 월령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시기별 이유식 권장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임.

7) 분유 및 이유식은 섭취방식 등에 따라 응답자 수가 큰 차이를 보이므로, 주의를 요함. 예컨대, 이유식을 먹는 아이 중 시판 이유식을 산 경우만 구매금액이 응답되어 있으며, 구매금액 평균은 구매한 경우만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임.

- 최근 3개월 간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유식을 구매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의 52.5%(421명)가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이유식 구매 금액은 주당 평균 5만3,172원임.
- 한편, 시판되는 이유식 외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인 이유식의 비용을 응답한 가구는 421가구이며, 이 비용은 주 평균 3만7,596원임
- 이유식의 구매 비용과 직접 만들어서 먹인 비용을 가구 단위로 합산한 후 1주일 간의 끼니수로 나누어 산출한 끼니당 이유식 비용은 4,055원(420명 응답 기준)임
- 자녀가 우유, 치즈, 요거트, 아기 과자, 과일 등의 간식을 먹는 시기인지 질문한 결과, 전체의 63.5%(384명)가 그렇다고 응답함.
- 이들에게 최근 한달 동안의 간식 구매 여부를 분석한 결과, 93.8%(360명)가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간식 구매 금액은 월평균 5만9,977원으로 조사됨.

마. 기기/집기류

- 기기/집기류는 아기욕조 등 12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수율이 90%인 품목은 아기욕조(94.5%), 유모차(97.4%), 카시트(99.0%), 체온계(98.8%) 4개 품목임.
- 필수율이 85% 이상인 품목은 앞서 필수율이 90% 이상인 4개 품목 이외에 아기의자(88.4%), 놀이매트(89.1%), 치발기(85.8%) 3개 품목임.
- 기기/집기류 중에서 필수율이 가장 낮은 품목은 유축기(54.2%)였으며, 다음으로 아기침대(69.1%), 코흡입기(74.0%), 아기서랍장 및 옷장(79.8%), 분유포트(84.6%) 5개 품목임.
- 기기/집기류는 내구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수 여부와 함께 보유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필수율과 보유율이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임.
- 기기/집기류 품목별 보유수량은 중위수 기준 아기욕조의 경우 2개, 치발기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기/집기류의 모든 물품은 1개임.
- 기기/집기류 구매경험(중고구매 포함)은 대체로 80%대의 구매율을 보였는데, 유축기의 구매율은 51.0%로 낮은 편에 속함.

- 기기/집기류는 장기간 사용하는 내구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당 평균 구매금액도 높은 편으로, 유모차의 구매금액이 평균 72만8,346원으로 가장 높고, 카시트 50만8,111원, 아기침대 44만7,309원 순임.
- 개당 구매금액이 낮은 물품은 치발기(1만2,718원), 아기욕조(3만4,416원), 체온계(7만2,385)원 등임.

바. 소모품류

- 소모품류에 포함된 품목은 일회용 기저귀, 목욕용품(비누/샴푸/바디워시 등),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땀띠파우더, 크림, 로션, 오일 등), 유아전용세제(유아용 세탁세제, 유아용 주방세제 등) 총 4개 품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소모품류에 포함된 4개 품목(범주)는 모두 90% 이상의 높은 필수율을 보여, 일회용 기저귀가 97.4%로 가장 높은 필수율을 보였으며, 목욕용품 94.7%, 엉덩이 발진크림 및 보습제 91.4%, 유아 전용 세제 91.4%임.
- 소모품류는 필요량을 소요주기와 용량, 수량 등으로 세분하여 질문함.
- 일회용 기저귀는 한달에 평균 203.9장이 필요하다고 응답되어 하루 6~7장의 일회용 기저귀가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목욕용품은 3개월 기준 평균 452.3ml(혹은 g)이 필요하다고 응답되었고,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도 3개월 단위 기준 평균 360.3ml(혹은 g)이 필요하다고 응답됨.
- 유아 전용 세제는 6개월 단위로 질문하였으며, 평균 2,578.1ml(혹은 g)이 필요하다고 응답됨.
- 소모품류 구매 경험은 일회용 기저귀는 1개월 이내 구매한 적 있다는 응답이 94.0%로 매우 높고, 목욕용품과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는 3개월 동안 각 85.1%, 80.7%의 구매율을 보임. 유아 전용 세제는 82.8%가 6개월 동안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소모품류 구매량은 일회용 기저귀는 1개월마다 평균 258.8장이었으며, 목욕용품은 3개월마다 평균 488.2ml(혹은 g),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도 3개월마다 368.8ml(혹은 g)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됨. 유아 전용 세제는 6개월 기준 평균 4,368.1ml(혹은 g)을 구입함.

- 소모품류 구매금액은 한달 평균 일회용 기저귀 9만7,767원, 목욕용품은 1만 28원,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3만1,966원, 유아전용 세제 9,240원임.

사. 기타 필수 육아용품

- 기타 필수 육아용품에서 30가구 이상이 육아필수품으로 응답한 물품은 총 7개로, 피복 및 침구류에 해당하는 기저귀갈이대(37가구), 방수요(58가구)와 수유관련 용품에 해당하는 역류방지쿠션(34가구), 소모품류에 해당하는 물티슈(36가구), 장난감류로 장난감(44가구), 모빌(30가구), 기기/집기류로 젓병소독용품(48가구)임.
 - 이 중 젓병소독용품은 대체 용품인 젓병건조대가 설문 문항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나치게 고기능, 고가의 물품을 보편적 필수 육아물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필수 육아용품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함.
- 기타 필수 육아용품 필요 수량은 중위수 기준 기저귀 갈이대 1개, 방수요 2개, 역류방지쿠션 1개, 물티슈 48개, 모빌 1개, 장난감 11개임.
- 최근 3개월 동안(2023년 9~11월) 기타 필수 육아용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물티슈를 구매했다는 응답이 94.4%, 장난감 구매가 88.6%, 방수요 구매가 69.0%, 모빌 60.0%였으며, 나머지 물품은 60% 미만의 구매율을 보임.
- 최근 3개월 동안(2023년 9~11월) 기타 필수 육아용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경우 구매 금액은 기저귀 갈이대 4만2,054원, 방수요 1만4,033원, 역류방지쿠션 3만8,529원, 물티슈 4,457원, 모빌 3만8,300원, 장난감 2만8,673원, 젓병소독용품 10만6,040원임.

아. 공유 경제 관련 소비

- 생후 12개월 이내 중고거래(사거나 판매한 경우 모두 포함)를 하나라도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9.7%였으며, 대여하기 경험은 42.5%, 물려받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9.7%였음.
 - 공유 경제 관련 소비를 통해 절약된 양육비용은 12개월 기준 중고거래는 평균 72만9,246원, 대여하기 41만8,977원, 물려받기 95만8,569원으로 100만원 이하임.

- 중고거래 물품으로는 아기띠·히시트·포대기가 4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아기침대가 42.1%로 다음을 이음.
- 대여하여 사용한 물품은 중고거래에 비해 전반적으로 현저히 낮은 비중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 유축기 17.9%, 아기침대 11.6%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물품임.
- 물려받아 사용한 물품은 피복류의 경우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 외출복을 물려받아 사용한 적 있다는 응답이 62.3%, 내의류 56.5%, 속싸개/겉싸개/아기이불 등 침구류 49.9%, 아기띠·히시트·포대기 44.8%임.
- 공유 경제 관련 소비 행태가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중고거래나 대여하기는 가구특성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데 반해, 물려받기는 다자녀 가구에서 확연하게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자.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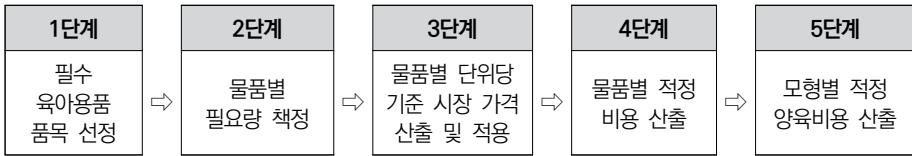
- 최근 3개월 동안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96.7%의 대다수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단, 최근 3개월 동안의 병원 이용 경험에 대한 분석은 이용자 대상이 아닌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결과를 산출함. 즉, 병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용 횟수 등을 0으로 처리한 후 결과를 산출
 - 전체 응답자 기준 병원 방문 횟수는 평균 6.14회이며, 3개월 동안의 평균 지출 비용은 15만9,042원으로 나타남
 - 입원을 위한 방문 횟수는 3개월 간 0.17회(605명 응답 기준)이며, 지출 비용은 평균 8만5,427원임
 - 외래를 위한 방문 횟수는 3개월 간 5.97회(605명 응답 기준)이며 지출 비용은 7만3,614원임
- 가정용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서는 아이의 출생 후부터 12개월이 될 때까지 약국에서 파는(비처방) 아이 전용 해열제, 연고 등의 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거나 구매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84.0%가 있다고 응답함.

5.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모형 및 산출 결과

가. 적정 양육비용 산출 모형 개요

-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은 기본적으로 필수 육아용품을 선정한 후, 해당 필수 육아용품별 필요량을 책정하고, 기준 시장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함.
 - 물품 특성에 따라 일부 추가 기준(보유 여부, 실제 평균 지출액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은 생후 12개월 동안의 아동당 양육비용으로, 물품별로 사용 기간이나 구매 주기 등이 다를 수 있으나, 모든 물품의 12개월간의 사용 총량을 반영하여 산출함.

[요약 그림 2]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절차



-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의 산출 시 가구특성(가구 소득, 총 자녀수 등)에 따른 차이를 적정 양육비용 산출 모형에서 적용하지는 않음.
-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은 3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산출되는데, 모형의 구분 기준은 필수 육아용품 목록의 차이에 따름.
 - 모형 자체의 구분 기준은 필수 육아용품에 어떤 물품까지를 포함시키느냐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물품별 산출 방식 자체는 모형에 따라 차이가 나지는 않음.
 - 모형1은 가구조사 설문에서 필수율이 90%이상이었던 물품으로만 구성된 경우이며, 모형2는 필수율이 85%인 물품임
 - 단, 기기/집기류의 경우에는 필수율 결정 기준에 필수 여부와 더불어 보유율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함. 이는 기기/집기류의 경우 내구재인 경우가 다수로,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비 행태를 반영하여 적정 양육비용을 산출하기 위함임.

- 모형3은 가구조사 설문에 포함된 총 39개 품목 중 필수율이 50%미만인 물품을 제외하고, 기타 필수 육아용품 중 30가구 이상에서 응답된 물품(단, 젖병소독용품은 제외)인 6개 품목을 포함한 경우임.
- 한편, 분유 및 식품류(분유, 이유식, 간식)는 모형의 구분 없이, 모든 경우에 필수재로 공통 적용함.
- 기본 산출 모형에는 자녀 병원 이용비용 및 산후조리원 비용이 불포함되며, 이 비용은 필수 육아용품 기준으로 산출된 모형에 별도로 합산하는 형태로 모형을 확장하여 사용함.
- 이 연구의 보건의료서비스 등은 자녀의 병원 이용비용과 산후조리 비용으로, 이는 별도로 산정하여 기 산출된 적정 양육비용에 일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건의료서비스 등 비용이 포함된 모형은 각 모형에 -1을 붙여서 구분함.

□ 각 모형별로 필수 육아용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음.

〈요약 표 1〉 모형별 포함 필수 육아용품 목록

단위 : (개)

구분	모형1 (필수율 90% 이상)	모형2 (필수율 85% 이상)	모형3 (필수율 50% 이상 혹은 선별된 기타 필수 육아용품)
피복 및 침구류	속싸개, 손발싸개, 턱받이, 가제수건, 아기띠·힙시트·포대기, 내복, 외출복 (7)	모형1 + 배냇저고리, 아기 목욕수건, 신생아모자 (10)	모형2+ 겹싸개, 아기이불, 수면조끼 + 기저귀갈이대, 방수요 (15)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젖병(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 (1)	모형1 + (별도 구매한)젖꼭지,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 (3)	모형2 + 공갈젖꼭지, 젖병 건조대(소독 기능 없음),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역류방지쿠션 (8)
기기/집기류 (기기/집기/장난감류)	아기욕조, 유모차, 카시트, 체온계 (4)	모형1 + 아기의자, 놀이매트, 치발기 (7)	모형2 + 아기침대, 아기서랍장 및 옷장, 분유포트, 코흡입기 + 장난감류(모빌, 장난감) (13)
소모품류	일회용 기저귀, 목욕용품,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유아 전용 세제 (4)	모형1 동일 (4)	모형2 + 물티슈 (5)
전체 품목 수	(16)	(24)	(41)
공통 적용	분유 및 식품류(분유, 이유식, 간식)		
보건의료서비스	각 모형별 산출 결과에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을 합산한 모형은 모형1-1, 모형 1-2, 모형 1-3으로 구분하여 표기		

□ 품목별 필요량은 가구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계측하되, 식품류의 경우에는 월령별 적정 영양섭취량 기준 등에 근거하여 산출함.

- 품목별 필요량은 일반적인 경우에 중위수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량의 분포가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에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
- 품목별 필요량은 산출 단계에서는 소요주기를 감안하여 산출하되, 최종적인 적정 양육비용 산출 시에는 생후 12개월 동안 사용하는 전체 필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함.
- 품목별 필요량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Q_m = q_{mt} \times (12/t)$$

- Q_m 은 생후 12개월 동안 물품(m)의 총 필요량, q_{mt} 는 소요주기별(t) 물품(m)의 단위당 필요량, m : 물품 종류(품목), t : 소요주기.
- 가구 조사 결과 분석 및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필요량 산출시 물품의 내구연한이나 공유 경제 활용 등은 감안하지 않기로 함.
- 한편, 유사 기능을 가진 여러 개의 물품이 하나의 품목(범주)으로 묶여 있는 경우의 필요량은 물품의 종류를 막론하고 품목별 필요량을 산출함.
- 예를 들면, 아기띠·히시트·포대기는 유사 기능을 가진 상호 대체 관계에 있는 물품으로, 하나의 품목으로 분류됨.

□ 기준 가격은 대부분의 경우에 시장 가격을 적용하여 물품별 적정 양육비용을 산출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평균 구매 비용 등을 산출 기준으로 적용함.

- 시장 가격은 일반적인 경우 개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용량당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예 : 분유, 목욕용품,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유아전용세제 등.
- 기준 시장 가격 산출 방식은 앞서 III장 2절에 제시된 바와 같음.

$$P_m = \sum_{s=1}^s \sum_{i=1}^2 \sum_{j=1}^5 p_{msij} / N_p$$

- P_m 은 물품(m)의 단위당 기준 가격, m : 물품 종류(품목), s : 사용 단계, i : (온라인상거래) 업체, j : 판매량 순위를 의미함. N_p 는 물품별 가격의 개수로, P_m 산출 과정에서 합산된 가격의 개수를 의미함.

- 시장 가격이 아닌 가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기준 가격을 산출한 경우는 식기와 이유식, 자녀의 병원 이용비용임.
- 식기는 구매액 기준 적용, 이유식은 평균 소요비용 적용, 자녀의 병원 이용비용은 평균 병원 이용비용을 적용함.

□ 최종적인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Cost = \sum_{m=1}^n C_m = \sum_{m=1}^n Q_m \times P_m$$

- C_m 은 물품별 적정 양육비용, Q_m 은 생후 12개월 동안 물품(m)의 총 필요량, P_m 은 물품(m)의 단위당 기준 가격임.
- 여기서 m 은 물품 종류(품목)를 의미하므로, 적정 양육비용(Cost)은 품목별 '필요량 × 단위당 기준 가격'을 합산한 값임.
- 이때, 합산해야 하는 물품(m)의 개수(n)는 모형1~모형3에 포함되는 필수 육아용품의 개수에 따라 달라짐.

나. 침구 및 피복류

□ 모형별 필수 육아용품은 다음과 같음.

- 모형_A1 : 속싸개, 손발싸개, 턱받이, 가제수건, 아기띠·힙시트·포대기, 내복, 외출복 7개 품목.
- 모형_A2 : 모형_A1에 포함된 필수 육아용품 외에 배냇저고리, 아기목욕수건, 신생아모자가 추가되어 총 10개 품목임.
- 모형_A3 : 모형_A2의 10개 품목 외에 겹싸개, 아기이불, 수면조끼, 기저귀갈이대, 방수요로, 총 15개 품목임.

□ 침구 및 피복류의 필요량은 가구 조사 결과의 물품별 필요량의 중위수를 적용.

- 필요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가제 수건으로 30개였으며, 내복(20개)과 외출복(16개)도 필요량이 많은 품목임.
- 겹싸개, 아기띠·힙시트·포대기, 기저귀갈이대의 필요량은 1개, 아기이불, 신생아모자, 수면조끼, 방수요의 필요량은 2개, 배냇저고리, 속싸개, 손발싸개의 필요량은 3개, 아기목욕수건, 턱받이의 필요량은 5개임.

- 침구 및 피복류의 모든 품목의 기준 가격은 시장 가격을 적용하며, 시장 가격 산출 단위는 모두 개당 가격임.
 -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은 10개가 사용되는데, 수면 조끼와 내복은 2개 단계로, 각 20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됨. 외출복은 총 4단계로 40개의 시장 가격을 활용하여 기준 가격을 산출.
 - 아기띠·힙시트·포대기는 유사 기능을 가진 물품이 하나의 범주로 묶여 있는 경우로 물품당 10개씩 총 30개의 가격이 기준 가격 산출에 활용됨.
- 침구 및 피복류의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는 모형별로 다음과 같음.
 - 모형_A1 : 93만8,805원.
 - 모형_A2 : 109만6,474원.
 - 모형_A3 : 138만2,874원.

다.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

- 모형별 필수 육아용품은 다음과 같음.
 - 모형_A1 : 젖병(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 한가지 품목만 포함됨.
 - 모형_A2 : 모형_B1에 포함된 수유 관련 용품 외에 (별도 구매한)젖꼭지와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가 추가되어 총 3개 품목임.
 - 모형_A3 : 모형_B2에 포함된 수유 관련 용품 외에 추가로 공갈젖꼭지, 젖병 건조대(소독 기능 없음),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역류방지쿠션 총 8개 품목임.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는 중위수를 적용하여 필요량을 산출함.
 - 젖병(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 (별도 구매한)젖꼭지, 공갈젖꼭지, 역류방지쿠션은 가구조사 결과 필요수량의 중위수를 적용.
 - 젖병건조대(소독 기능 없음),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는 구매량 응답의 중위수를 적용.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의 대부분의 품목은 시장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적용하며, 시장 가격 산출 단위는 모두 개당 가격임
 - 젖병(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은 브랜드별로 단계를 구분하는 구간이 상이하고 단계의 수가 일정하지 않아 해당 브랜드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함.

- 젓꼭지(0~3개월, 3~6개월, 6~12개월), 공갈젓꼭지(0~6개월, 6~18개월)의 경우 월령에 따라 단계가 구분되어 있어 각각 30개(젓꼭지), 20개(공갈젓꼭지)의 시장 가격을 모두 조사하여 평균을 산출함.
- 단,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부 물품의 구성이나 종류, 수량을 특정하기 어려워 시장 가격 대신 자체 조사에서 응답한 최근 3개월간 단위 구매 가격의 평균을 기준 가격으로 적용함.

□ 침구 및 피복류의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는 모형별로 다음과 같음.

- 모형_A1 : 15만2,944원.
- 모형_A2 : 32만7,318원.
- 모형_A3 : 51만7,005원.

라. 분유 및 식품류

□ 분유 및 식품류는 영유아의 생존을 위한 필수재로, 출생 이후 12개월까지 영유아가 섭취해야 할 영양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유와 이유식으로 구분해 포함하였음.

- 분유 및 식품류는 모형별 구분 없이 모든 모형에 공통 적용되는 사항임.
- 분유의 경우 모유수유를 고려하지 않고, 1년 전(全) 기간 분유를 통해서 영양 섭취를 하는 것으로 전제함.

□ 분유 및 식품류의 필요량은 생애초기 1년간 섭취해야 할 영양권장량을 충족시키는 분유와 이유식의 전체 양으로 적용.

- 출생~6개월까지의 1단계 분유의 필요량은 22,387g이 필요하며, 6~12개월까지의 2단계 분유는 12,758g이 필요함.
 - 분유의 경우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 등 규범성을 고려하여 생후 1년간 분유로만 영양보충을 하는 경우로 전제하였으며, 안효섭·신희영(2016)의 권장량을 참고해 월령별 하루의 수유 횟수(②)와 1회당 조유된 수유량(①)을 ml 단위로 제시함
- 이유식의 경우 1년까지의 필요량을 횟수로 제시하면 총 480회(끼니)임. 이는 이유식 초기 80회, 중기 160회, 후기 240회를 합산한 값임.
 - 이유식은 생후 4개월경부터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며 월령에 따라 권장 횟

수가 증가함. 안효섭·신희영(2016)이 제시한 권장량에 따라 하루 섭취 횟수(㉓), 이유식 초기, 중기, 후기로 범주화된 월령별 일 수(㉔)를 기재하였으며, 이 둘을 곱하여 월령별 전체 필요량(㉕)의 횟수를 산출함

□ 분유 및 식품류 중 분유의 기준 가격은 시장 가격의 평균값을 적용하며, 시장 가격 산출단위는 g당 가격임. 이유식의 경우에는 이 연구의 가구조사 결과 이유식을 먹는 아이들 기준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횟수(끼니)당 이유식 비용을 적용함.

- 6개월까지의 1단계 분유와 6~12개월까지의 2단계 분유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총 20개 분유의 시장 가격을 조사함. 단, 다른 비목과 달리 분유의 경우에는 단계별로 필요량(영양섭취량)이 다르게 산출되어 있으므로, 시장 가격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산출함.

• 그 결과 1단계 분유의 g당 평균값은 47.2원, 2단계 분유의 g당 평균값은 43.2원으로 산출되었음.

- 이유식 비용은 가구별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이유식 구매 비용과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인 비용을 가구 단위로 합산한 후, 1주일 간의 끼니수(16.4회)로 나누어 끼니당 이유식 비용을 산출한 후, 이를 응답 가구(이유식을 섭취하는 아동 수) 내에서 평균한 값임.

• 결과적으로 끼니당 이유식 비용은 평균 4,055원이 산출됨.

□ 분유 및 식품류의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는 모든 모형에 공통적용 사항으로, 하나의 산출 결과만 존재함.

- 분유 1단계 : 출생~6개월간 섭취 기준 105만6,666원.

- 분유 2단계 : 6~12개월 동안 섭취 기준 55만1,146원.

- 이유식 : 12개월 동안 194만6,400원.

- 생후 12개월 동안 필요한 분유 및 식품류의 적정 양육비용 총액은 355만 4,212원임.

마. 기기/집기류/장난감류

□ 모형별 필수 육아용품은 다음과 같음.

- 모형_D1 : 아기욕조, 유모차, 카시트, 체온계 4개 품목.

- 모형_D2 : 모형_D1의 물품 이 외에 아기의자, 놀이매트, 치발기가 추가되어, 총 7개 품목.
 - 모형_D3 : 모형_D2의 물품 이 외에 아기침대, 아기서랍장 및 옷장, 분유포트, 코흡입기, 모빌, 장난감가 추가되어 총 13개 품목.
- 기기/집기류의 필요량은 가구 조사 결과에서 물품별 실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의 중위수를 적용하고, 장난감은 필요량의 중위수를 적용함.
- 기기/집기/장난감류 대부분 물품의 필요량은 1개였으며, 아기욕조는 2개, 치발기 3개, 장난감 11개임.
- 기기/집기/장난감류의 모든 품목의 기준 가격은 시장 가격을 적용하며, 시장 가격 산출 단위는 모두 개당 가격임
- 10개 이상의 시장 가격을 활용하여 기준 가격을 산출한 물품은 아기의자(20개), 유모차(30개), 카시트(20개)임.
 - 모빌은 제품에 따라 시장 가격 편차가 매우 큰 물품이었으며, 장난감은 딸랑이, 흑백초점책, 형겅책, 형겅인형 4개의 물품의 시장 가격 총 40개를 조사하여 평균함.
- 기기/집기/장난감류의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는 모형별로 다음과 같음.
- 모형_D1 : 117만2,931원.
 - 모형_D2 : 136만5,486원.
 - 모형_D3 : 204만9,426원.

바. 소모품류

- 모형별 필수 육아용품은 다음과 같음.
- 모형_E1 : 일회용 기저귀, 목욕용품(비누, 샴푸, 바디워시 등),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땀띠파우더, 크림, 로션, 오일 등), 유아 전용 세제(유아용 세탁세제, 유아용 주방세제 등) 4개 품목.
 - 모형_E2 : 모형_E1과 동일하게 4개 품목.
 - 모형_E3 : 모형_E2의 물품 이외에 물티슈가 추가되어, 5개 품목.
- 소모품류의 필요량은 일회용 기저귀와 물티슈는 중위수를 적용하고, 목욕용

품,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유아 전용 세제는 평균을 적용함.

- 목욕용품,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유아 전용 세제는 범주 내 육아물품들 사이에 기본적인 용량 차이가 큰 물품들이 섞여 있는 상황으로, 중위수가 오히려 필요량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평균을 기준 값으로 사용함.
- 필요량은 12개월 기준 일회용 기저귀 2,160장(1개월 기준 180장), 목욕용품 1,809ml(g), 엉덩이 발진크림 및 보습제 1,441ml(g), 유아전용세제 5,156ml(g), 물티슈 48개임.

□ 소모품류의 기준 가격은 모든 물품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시장 가격 산출 단위는 일회용 기저귀는 장(매), 목욕용품과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유아 전용 세제는 ml(혹은 g), 물티슈는 개임.

- 일회용 기저귀는 생후 12개월 동안 총 5개 단계로 나뉘므로, 총 50개 물품의 시장 가격을 평균한 값임.
- 목욕용품은 비누, 샴푸, 바디워시 총 3개 품목별로 각 10씩 총 30개의 시장 가격을 활용하여 산출함.
-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는 엉덩이발진크림과 땀띠 파우더 2개 품목의 시장 가격을 적용하여, 총 20개 시장 가격을 활용.
- 유아 전용 세제와 물티슈는 단일 품목으로 각 10개 시장 가격을 활용하여 기준 가격을 산출함.

□ 소모품류의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는 모형별로 다음과 같음.

- 모형_E1 : 128만7,796원.
- 모형_E2 : 128만7,796원.
- 모형_E3 : 135만5,044원.

사. 보건/의료서비스 등

□ 보건/의료서비스 등은 생후 12개월 간의 자녀의 병원 이용과 산후조리 이용비용으로 구성됨.

- 자녀의 병원 이용비용은 이 연구 가구조사의 입원과 외래의 병원이용 비용 산출 결과를 적용함. 단, 병원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여 비용이 산출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함.

- 가구조사 결과 최근 3개월 동안 병원이용의 지출 비용은 15만9,042원이며, 12개월의 병원 이용비용을 산출하면 63만6,168원임.
- 산후조리 비용은 '산후조리실태조사'의 이용 현황을 고려하고 보건복지부에 서 제시하는 정보현황 자료의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이용비용(2023.6.30.기준)을 적용함.
- 2023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의 이용비용(기본 2주, 일반실)은 평균 319만9,397원임.
- 자녀 병원 이용과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을 합한 생애 초기 보건/의료서비스 등 적정 양육비용은 383만5,565원임.

아.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종합

□ 이상에서 비목별로 산출된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필수율 90%이상의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형 1의 산출 결과

- 총 19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침구 및 피복류 7개,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중에서는 젖병이 유일하게 포함되었고, 기기/집기류가 4개, 소모품류 4개, 분유(2단계) 및 이유식 3개로 구성됨
- 모형 1의 적정 양육비용은 710만6,688원임.

□ 필수율 85%이상의 물품들로 구성된 모형 2의 산출 결과

- 모형 2에 포함된 물품은 총 27개로, 모형 1(총 19개)에 배냇저고리, 아기목욕수건, 신생아모자, 별도 구매한 젖꼭지, 식기, 아기의자, 놀이매트, 치발기가 추가된 모형임.
- 모형 2의 적정 양육비용은 763만1,286원으로, 모형 1에 비해 52만4,598원이 많음.

□ 필수율 50% 이상의 물품과 기타 필수 육아용품에서 문자로 30가구 이상에서 응답되어 필수 육아용품으로 포함하기로 결정된 6개 물품으로 구성된 모형3의 산출 결과

- 모형 3에 포함된 물품은 총 44개로, 가구조사 설문에서 필수 여부를 질문한 물품(총 39개) 중 유축기를 제외한 모든 물품이 포함되었으며, 기타 필수육아용품에서 조사된 6개 품목이 추가되었음.

- 모형 3의 적정 양육비용은 885만8,561원으로, 모형 2에 비해 122만7,275원이 많음.

□ 모형별로 비목별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피복 및 침구류의 산출 결과 : 모형_A1은 93만8,805원, 모형_A2는 109만6,474원, 모형_A3은 138만2,874원임.
- 수유 관련 용품의 산출 결과 : 모형_B1은 15만2,944, 모형_B2가 32만7,318원, 모형_B3은 51만7,005원임.
- 분유 및 식품류는 모든 모형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며, 산출 값은 355만4,212원임.
- 기기/집기류의 산출 결과 : 모형_D1은 117만2,931원, 모형_D2는 136만5,486원, 모형_D3은 204만9,426원임.
- 소모품류의 산출 결과 : 모형_E1과 모형_E2는 128만7,796원이며, 모형_E3은 135만5,044원임.

〈요약 표 2〉 비목별 필수 육아용품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종합

단위 : 원, %

구분	모형 1	모형2	모형 3
피복 및 침구류 (A)	938,805 (13.2)	1,096,474 (14.4)	1,382,874 (15.6)
수유 관련 용품 (B)	152,944 (2.2)	327,318 (4.3)	517,005 (5.8)
분유 및 식품류 (C)	3,554,212 (50.0)	3,554,212 (46.6)	3,554,212 (40.1)
기기/집기류 (D)	1,172,931 (16.5)	1,365,486 (17.9)	2,049,426 (23.1)
소모품류 (E)	1,287,796 (18.1)	1,287,796 (16.9)	1,355,044 (15.3)
합계	7,106,688 (100.0)	7,631,286 (100.0)	8,858,561 (100.0)

- 자녀의 병원 이용비용은 63만6,168원이며, 산후조리 비용은 319만9,397원으로, 총 비용은 383만5,565원임.

〈요약 표 3〉 생애 초기 보건의료서비스 등 이용비용 산출 결과

단위 : 원

구분	기준 가격	12개월 간 이용 비용
병원 이용	외래 및 입원이용	636,168
산후조리 이용	산후조리원 기본 2주, 일반실 기준	3,199,397
합계	-	3,835,565

□ 한편 보건의료서비스 등 비용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생후 12개월까지의 적정 양육비용은 다음과 같음

- 모형 1-1의 산출 결과는 1,094만2,253원이며, 모형 2-1은 1,146만6,851원이고, 모형 3-1은 1,269만4,126원임
- 자녀의 병원 이용비용만 포함한 경우(산후조리원 비용을 제외)는 모형 1-1①이 774만2,856원, 모형 1-2①이 826만7,454원, 모형 1-3①이 949만4,729원임.
 - 이를 월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모형 1-1①이 64만5,238원, 모형 2-1①은 68만8,955원, 모형 3-1①이 79만1,227원임
 -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의 결과 0세의 월평균 양육비용(명목비용 기준)⁸⁾이 63만8천원으로, 모형 1-1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었음.
 - 이 연구의 적정 양육비용은 일반적인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는 수치임을 유추해볼 수 있음.
-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총액(㉔)에서 필수 육아용품(㉑)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형 1-1이 64.9%, 모형 2-1은 66.6%, 모형 3-1이 69.8%임.

〈요약 표 4〉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종합 : 보건의료서비스 비용 포함

단위 : 원, %

구분	모형 1-1	모형 2-1	모형 3-1
필수 육아용품 산출 결과 (㉑)	7,106,688 (64.9)	7,631,286 (66.6)	8,858,561 (69.8)
보건의료서비스 비용 (㉔)	3,835,565 (35.1)	3,835,565 (33.4)	3,835,565 (30.2)
외래 및 입원비용 (㉔)	636,168 (5.8)	636,168 (5.5)	636,168 (5.0)
산후조리원 (㉔)	3,199,397 (29.2)	3,199,397 (27.9)	3,199,397 (25.2)
합계 (㉔ = ㉑+㉔)	10,942,253 (100.0)	11,466,851 (100.0)	12,694,126 (100.0)
합계 (㉑= ㉑+㉔)	7,742,856 (70.8)	8,267,454 (72.1)	9,494,729 (74.8)

주: 비중은 ㉔ 대비 비중을 의미함.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생애 초기(생후 12개월까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으로, 보편 지원의 형태를 가진 지원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3가지를 들 수 있음.

8)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에는 산후조리 비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제외하고 비교함.

- 생후 12개월까지의 중앙 정부 차원의 현금성 지원금(보편 지원)의 연간 수급액을 계산해보면, 2023년 기준 1,160만원이며, 2024년에는 1,520만원(둘째아 이상은 1,620만원)임.
-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총액 대비 정부 지원금의 비중, 즉 정부 지원금의 양육비용 커버율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모형 1-1은 106.0%, 모형 2-1은 101.2%, 모형 3-1은 91.4%임.
 - 2024년에는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증가하여, 커버율이 모형 1-1은 138.9%, 모형 2-1은 132.6%, 모형 3-1은 119.7%로 상승함.
 - 즉, 2024년 지원금 기준 물품 포괄 범위가 가장 넓은 모형 3-1의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이 적정 양육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음.

〈요약 표 5〉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과 정부 지원금 비교

		단위 : 원, %		
구분		모형 1-1	모형 2-1	모형 3-1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총액		10,942,253	11,466,851	12,694,126
정부 지원금	2023년	11,600,000	11,600,000	11,600,000
	2024년	15,200,000	15,200,000	15,200,000
커버율	2023년	106.0	101.2	91.4
	2024년	138.9	132.6	119.7

주: 1) 정부 지원금은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이며,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기준은 첫째아 기준.
2) 커버율은 (정부 지원금/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총액)×100으로 산출.

- 이 연구의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은 필수 육아용품 목록 선정 및 필요량, 시장 가격 등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위수 혹은 평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값으로, 최저의 개념을 훨씬 상회하는 평균적인 영아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를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임.
- 또, 분유의 경우에는 모든 영아가 분유를 먹는 것을 전제로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분유 소비량에 비해 높게 상정된 부분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소득 가구 등에서는 필수 육아용품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 소비액에 비해 적게 책정 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모든 가구의 소비 행태를 반영하여 모든 물품을 적정 양육비용에 포함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 연구의 가구조사 결과에서 필수 여부에 대한 인지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물품 누락에 따른

비용의 과소추정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이 연구는 생애 초기(생후 12개월까지) 영아의 적정 양육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 육아용품과 필수 육아서비스로 보건의료서비스(산후조리 비용 포함)만을 적용하였으며, 돌봄 비용 및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은 모형에서 제외되어 있는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부모급여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금을 제외한 현금 지원금만을 정부 지원금에 포함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 총액은 2023년 기준 543만2천원, 2024년 872만원임.
 - 이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보육료 제외)의 생애 초기 적정양육 비용 커버율을 산출해보면, 모형 3-1 기준 2023년 42.8%, 2024년 68.7%임.
 - 한편,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총액에서 보건서비스 등 이용비용을 제외한 필수 육아용품을 위한 소요 비용만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보육료 제외)의 커버율을 재산출해보면, 모형 3-1 기준 2023년 61.3%, 2024년 98.4%의 커버율을 보임.
 - 단,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은 매우 낮기 때문에, 전체 영아 가구에 대해 보육료 지원금을 제외하고 정부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은 오히려 커버율을 과소 추정할 위험이 높음.

□ 영유아 전체 연령에 대한 적정 양육비용 산출 필요성

- 현재 현금성 정부 지원금은 생애 초기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임.
- 지원금 대상과 지원 수준 등 현금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부 예산) 상황이나 영유아 가구의 필요와 요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야겠지만,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원 대상인 아동의 필요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할 것임.
- 현금 지원의 지원 대상이나 지원 수준의 확장은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출된 기준에 근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영유아기 전 연령에 대한 적정 양육비용 산출이 선결과제라 볼 수 있을 것임.

□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 투입 시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활용

- 중앙 정부의 지원금이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2024년 모형 3-1 기준)을 119.7%를 커버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으로, 지자체별 출산지원금까지 생애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오히려 정책 효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

- 특정 시기 혹은 일부 지역에만 과도한 지원금이 쏠릴 경우 재정 투입 대비 정책 효과성이 낮고, 지역 간 격차 확대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다 보다 효율적인 자원 분배 혹은 지원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가 하나의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합리적 소비 문화 조성 및 공유 경제 소비 활성화 지원

- 적정 양육비용은 자녀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가구 특성 등에 따라 이 비용이 달라지지 않는 않음.
- 적정 양육비용은 가구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으나, 가구 특성에 따라 적정 양육비용과 실제 양육비용 지출 사이에 간극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혹은 정부 지원금의 경감 효과에 대한 체감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첫 자녀 출산으로 양육 경험이 많지 않은 부모들에게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정 수준의 필수 육아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등 합리적 소비 문화의 확산과 정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생애 초기 영아의 경우 대단히 빠른 속도로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가의 물품이나 미리 다량 구매한 물품은 실제로 사용기간이 매우 짧아서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생애 초기 영아의 발달과 필수 육아용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공유 경제 소비를 통한 실질적인 양육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녹색 소비 혹은 순환 경제 등의 측면에서 육아 분야에서의 공유 경제 소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영아 가구의 공유 경제 활용 빈도가 높은 물품(예: 아기침대, 아기의자, 아기띠 혹은 외출복 등 피복류)을 중심으로 자원의 순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공 시스템의 개발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I

서론

- 0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연구 수행 절차
- 05 연구 범위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한국은 2019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로, 저출산의 수렁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저출산의 원인 파악과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
- 저출산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으로 일자리, 교육, 성차별, 일-가정 양립의 곤란 등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인식의 변화 등 문화·가치관적인 요인, 혼인율 하락·초혼연령 상승, 평균 출생아 수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관계부처 합동, 2020: 12~19),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자면 ‘양육 부담’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정책적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 보완 및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22. 12. 28: 15).
- 2013년 무상보육·유아교육 정책의 시행 이후 영유아 가구 대상의 보편 지원 정책이 일반화되었으며(최효미·김길숙·이동하 외, 2016: 37~54),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도입되며 아동 대상의 급여 지원이 확대됨(보건복지부, 2018).
- 2022년에는 영아수당이 도입되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으며(보건복지부, 2022), 2023년 부모급여의 도입은 정책 방향이 영아기 자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함(보건복지부, 2023a).
- 이와 함께 2022년 4월부터는 ‘첫만남이용권’제도가 도입되어, 2022년 출생 아동부터 2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게 되었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4. 1.).
- ‘첫만남이용권’은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2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로 출생일로 부터 1년 동안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4. 1.).

□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비용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경쟁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⁹⁾

○ 단, ‘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된 해였던 2022년에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가 11개로, 2021년 14개에 비해서는 3개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는 2021년에는 222개 지역이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2022년에는 202개 지역이 출산지원금 제도를 운영함(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335~341).

○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2022년 총 6,052억원으로 이 중 출산 부문에 대한 지원이 4,507억(74.5%)에 달함(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86).

-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시행하는 지자체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지원규모는 2021년 4,254억원에서 2022년 6,052억으로 크게 증가함(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86).

- 이는 출산 지원 정책에 있어 지자체에 따른 수급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암시하는 결과임.

-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2022년 기준 4,758억원으로, 2021년 4,268억원에서 소폭 상승하였음.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 중에서도 출산 부문의 지원이 2022년 기준 3,187억원(67.0%)로 가장 많은 예산이 출산 전후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95).

□ 이에 생애초기 영아에 대한 출산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양육비용이 어느 정도이며,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한 상황임.

9) KBS 9시 뉴스보도(2023. 5. 17.). 출산장려금 1억 시대... “현금보다 인프라 확대가 효과적”, <https://www.youtube.com/watch?v=j22OjLB4ars> (2023. 8. 24. 인출). / YTN 자막뉴스(2022. 12. 19.). “200만원 줄게” 강남구의 파격적인 출산 지원금, <https://www.youtube.com/watch?v=-0EOHNc35FM> (2023. 8. 24. 인출).

- 정부 예산이 상호 경쟁적으로 투자되기보다는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아기 적정 규모의 양육비용과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부재한 상태임.
 - 이는 영아기 필수 양육비용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기반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임.
 -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여력과 관심도에 따라 생애초기 정부 지원금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체계적이지 않은 정부 지원금 확장에 따라 부모들의 소비 심리가 오히려 부추겨져, 실제 영아기 아동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과잉 투자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발생할 위험도 있음.
 - 소자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육아용품에 대한 소비도 점차 고가 상품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첫 출산을 경험한 영아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주변 상황 등에 맞추어 소비 패턴을 결정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의 경쟁적인 확대가 자칫 이러한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오인되어, 정책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임.
 -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영아기 적정규모 양육비용이 얼마이며, 어느 정도의 정부 지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시급히 요구됨.
- 이를 통해 생애초기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육아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양육비용 수준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
- 자녀 출산 후 몰라서 소비하게 되는 과잉 소비를 지양하고, 양육비용 부담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 제공.
 - 현행 ‘첫만남이용권’과 지자체별 각종 출산지원금의 적정 지원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생애초기 적정 수준의 양육비용 지원을 통해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가구 특성에 따른 양육비용 격차를 축소함으로써 생애초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

- 출산 직후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영아가구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자녀 양육에 대한 영아 부모들의 과도한 염려를 줄여 후속 출산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연구내용

- 생애 초기(0~12개월) 양육비용 지원 정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생애 초기(0~12개월) 적정 비용 산출을 위한 모형 설계 및 필수 육아용품/서비스에 대한 검토
- 생애 초기(0~12개월) 필수 육아용품/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용 조사 및 소비량 측정
 - 영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필수 육아용품/서비스에 대한 인식
 - 생애초기 필수 육아용품 및 서비스 구매 이력 및 지출 행태 조사
- 필수 육아용품의 시장 가격 조사
 - 가구가 구매하는 물품은 동일 품목에 대해서도 상품 종류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소규모 가구조사만으로는 양육비용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목별 기준점이 되는 시장 가격 조사를 실시하여 보완
 - 시장 가격조사는 품목별 베스트 상품을 기반으로 온라인 판매가(온라인 판매가가 없는 경우 대형 마트 상품가)를 기준으로 조사
- 생애 초기(0~12개월) 필수 육아용품 구매를 위해 소요되는 양육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적정 양육비용 산출을 위해 필수 육아용품 및 서비스 구매율, 구매빈도, 구매수량, 가격 등을 고려한 산출 모형 설계
 - 가구 조사를 통한 필수 육아용품 소비 행태와 시장 가격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영아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적정 양육비용을 산출
 -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출생아 현황 및 영아기 출산지원 정책 현황 분석
- 영아기 양육비용 및 필수 육아용품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2차 자료 분석

-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아기 양육비용의 특징 및 현황 분석

□ 가구조사 : 필수 육아용품 및 서비스 소비(혹은 구매) 행태 조사

- 영아기에 필요한 필수 육아용품 및 서비스 목록에 대한 검토
- 필수 육아용품별 구매 이력(구매여부, 구매빈도, 구매량, 구매가격 등) 조사
- 온라인 조사로 총 600가구(목표 표본 수) 대상 조사 실시
 - ‘첫만남이용권’ 수급 정보(한국보육진흥원 행복e-음 DB)를 활용하여 조사 대상 가구 표본 추출

□ 시장 가격조사 : 필수 육아용품의 시장 가격조사

- 물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소규모 가구조사만으로는 구매 이력에서의 편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물품별 단일 품목 기준 베스트 상품(판매량 기준)의 가격을 조사
- 2개 온라인 사이트(전자상거래 1위 업체와 대형마트 온라인 물)에서 각각 물품별 시장 가격을 조사

□ 영아 부모 심층 면담 (FGI)

- 필수 육아용품의 적정성 검토 및 설문 문항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영아기 자녀가 있는 부모 대상 면담 실시
- 부모 면담 실시 일시 및 참석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3-1〉 영아 부모 심층 면담 실시 현황

회차	일자	참석자 수	면담자 특성
1차	10월 26일	2명	수도권, 맞벌이, 한자녀
2차	10월 30일	2명	수도권, 한자녀
3차	10월 31일	2명	지방, 외벌이, 두자녀
4차	11월 28일	1명	수도권, 맞벌이, 한자녀
5차	11월 28일	1명	수도권, 맞벌이, 한자녀
6차	11월 28일	1명	수도권, 맞벌이, 한자녀

〈표 I-3-2〉 영아 부모 심층 면담 참석자 특성

일자	지역	맞벌이 여부	월 가구소득	자녀수	막내자녀 월령	막내자녀 성별
10월 26일	서울	맞벌이	2,000만원	1	8개월	남
	경기	맞벌이	1,000만원	1	5개월	여
10월 30일	서울	맞벌이	900만원	1	8개월	남
	경기	외벌이	600만원	1	1개월	남
10월 31일	강원	외벌이	500만원	2	6개월	여
	강원	외벌이	500만원	2	10개월	남
11월 28일	서울	맞벌이	600만원	1	3개월	남
	경기	맞벌이	600만원	1	11개월	여
	서울	맞벌이	550만원	1	3개월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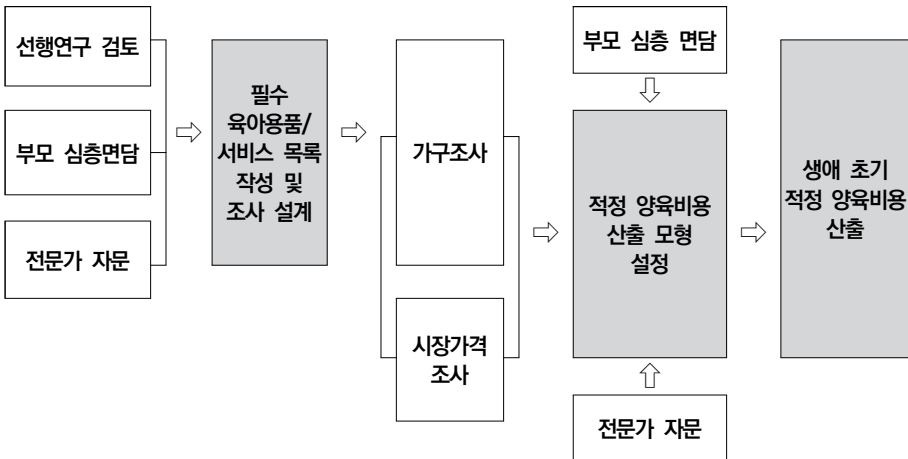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 필수 육아용품 선정 및 적정 소비량 등의 산출, 양육비용 산출 모형의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연구 타당성을 제고

4. 연구 수행 절차

-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 수행 절차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I-3-1] 연구 수행 절차



주: 회색 음영 부분은 주요 연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흰색 부분은 연구 방법과 관련된 부분임.

5. 연구 범위

가. ‘생애 초기’의 조작적 정의 및 연구 대상

□ 이 연구에서 ‘생애 초기’는 태어나서 생후 12개월까지를 의미

- 조사 시점(2023년 12월) 기준 육아용품 구매 경험 시점(최근 3개월, 9월~11월)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은 2022년 10월생부터 2023년 9월생까지로 설정함
 - 즉, 조사 대상 아동이 생후 12월 이내에 소비하였거나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육아용품/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조사함
- 생후 12개월까지는 아동 월령에 따라 소비하는 물품 유형 및 종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이며, 자녀 양육의 초기 물품 구입 비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다른 연령에 비해 소비행태를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식품 소비에 있어서도 모유 수유와 분유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거나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6개월 이상이 되면서는 이유식도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생후 12개월 이내에 식비 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한편, 유모차와 같은 내구재의 경우에는 12개월 이내 구매하여,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구매는 생후 12개월 이내 이뤄질 가능성이 큼. 반면, 유축기의 경우에는 12개월 이내 사용이 중단되는 기기/집기류임

- 즉, 교육/보육비 등 일부 비목을 제외하면 초기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이며,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12개월 이내를 ‘생애 초기’로 정의함
- 또한, ‘첫만남이용권’의 지원금 사용 기한이 생후 12개월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생애 초기’를 생후 12개월까지로 설정함

나. ‘적정’ 및 ‘필수’ 개념

□ ‘적정’이란,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대다수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반영한 지나치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의 비용을 적정 비용이라 지칭함

- 문제는 질적 수준은 개인차가 있는 매우 주관적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매우 모호함
- 이 연구에서는 가구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시장 가격 등을 반영하여 필수 육아용품 목록을 선정하고, 필수 육아용품별로 기준이 되는 적정 수량 및 가격을 적용하여 적정 비용을 산정
- 예: 신생아 내복은 필수 육아용품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설정하고, 그렇다면 생후 12개월 동안 필요한 적정 수량은 몇 개인지를 검토함. 이와 함께 내복 한 개당 적정 금액을 적용하여, 생애 초기 내복 구매에 필요한 양육 비용을 산출함
-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적정’ 수준(혹은 비용)은 ‘평균’ 혹은 ‘중간값’에 근접한 개념이라 볼 수 있음
- 즉, 어느 정도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비용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 수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의 비용이지만, 지나치게 고가(혹은 고기능)의 물품에 대한 소비는 필요 이상의 과소비에 해당하므로 ‘적정’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편, ‘필수’의 개념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필수’란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나 일’을 지칭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물품 목록을 작성한 후, 연구진 회의, 전문가 자문, 부모 면담 등을 거쳐 일차적으로 ‘필수’ 물품을 선별하였으며, 가구 설문 조사에 참여한 영아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필수’ 육아용품 목록을 작성함
- 부모 면담 과정에서 ‘생애 초기’ 자녀가 있는 영아 부모들은 현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육아용품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육아용품을 ‘필수’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전문가들은 ‘아동의 생존과 정상적인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중심으로 ‘필수’ 용품을 분류하는 경향을 보임
- 이 연구의 ‘필수’ 육아용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물품(예: 분유, 기저귀 등)’ 혹은 ‘대다수의 사람이 아동 양육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물품’으로 정리될 수 있음
 - 단, 대다수 사람들이 ‘필수’용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일반적인 가정용품 등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거나 지나치게 고기능성 제품인 경우(예: 기저귀 가방, 분유 제조기, 아기 세탁기 등)에는 ‘필수’ 육아용품에서 제외함
 - 한편, 분유의 경우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량 자체가 많지 않고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모유 수유가 어려운 가정의 경우 아동의 생명과 직결되는 용품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필수’ 용품으로 간주함¹⁰⁾
- ‘필수’ 육아용품 선정과 관련된 논의는 ‘Ⅲ장 1절 라항’과 [부표 1]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10) 물론 인지 측면에서도 분유를 ‘필수’ 용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임.

II

연구 배경

- 01 생애 초기 양육비용 지원 정책 현황
- 02 적정 비용 산출 모형 관련 선행연구
- 03 양육비용 조사 항목 관련 선행 연구
- 04 소결 및 시사점

II. 연구 배경

1. 생애 초기 양육비용 지원 정책 현황

가. 첫만남이용권

1) 도입 목적 및 근거

□ 첫만남이용권의 도입 목적은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영아기 집중 투자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202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거쳐 2022년부터 실시됨(대한민국정부, 2021: 76; 보건복지부, 2023b: 3)

□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¹¹⁾ 제10조에 근거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지급대상, 지급 신청 서류 및 지급 방식, 사용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음(보건복지부, 2023b: 3)

2) 정책 개요

가) 지급 대상 및 기간

□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보건복지부, 2023b: 4)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보유 아동

- 복수국적자와 난민인정자도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¹²⁾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기여자’, 출생신고 이전이지만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도 지급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43호, 2023. 12. 26., 일부개정]

1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55호, 2023. 4. 18., 일부개정]

□ 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지급일부터 주민등록일상 아동 생년월일로부터 1년간임
(보건복지부, 2023b: 5)

- 시군구청에서 이용권 지급 결정 후 익일에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생성
-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시설입소아동 등에 지급된 현금은 예외

나) 지급액 및 지급 방식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당 200만원이 출생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어 왔으나,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 아동부터는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3. 12. 8.)

□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는 바우처 방식을 원칙으로 함(보건복지부, 2023b: 5)

- 다만,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아동으로 지자체나 시설에서 출생신고 되는 아동은 예외적으로 ‘디딤씨앗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출생아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인 경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수감기간동안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

□ 첫만남이용권은 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결제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 후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보건복지부, 2023b: 6)

-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 규정에 준하여 사용처가 제한
- 이외에는 온라인 구매를 포함한 전 업종에서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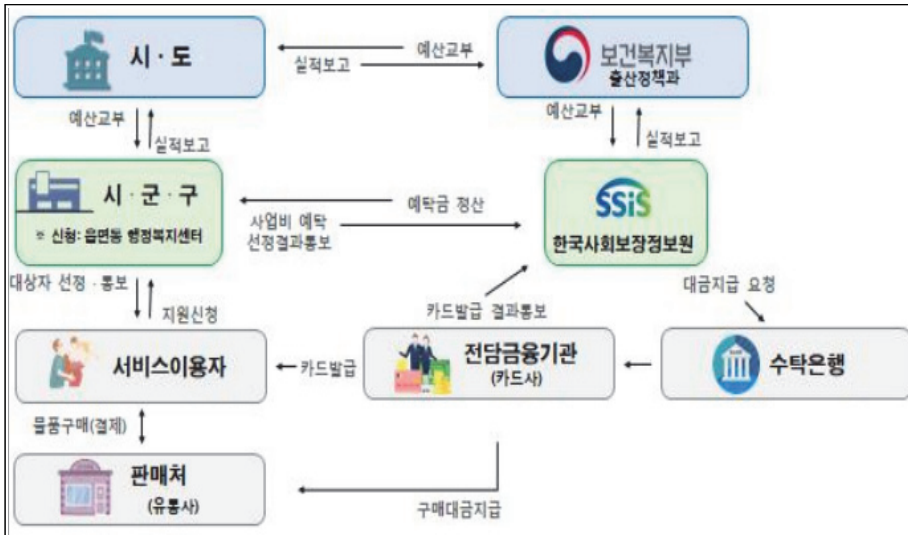
다) 전달체계

□ 첫만남이용권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관할(보건복지부, 2023b: 6~7)

-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 예산 편성·교부·관리,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 업무 담당

- 보건복지부는 시·도에 예산교부를 하고, 시·도는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 시·군·구 사업 관리 및 감독(보건복지부, 2023b: 6~7)
 - 시·군·구의 담당부서에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 예산 예탁 및 집행상황 관리를 총괄하며, 지급 및 정산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
 -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신청 업무와 서비스이용자 선정 및 통보, 대상자 관리 업무를 이행하는 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에서 교부 받은 예탁금의 관리 및 운영 업무는 담당하는 기관으로, 구매비용 정산 및 대상자 관리(바우처) 업무와 집행/정산 내역 보고 및 통계관리 업무 담당(보건복지부, 2023b: 6~7)
 - 카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카드발급 결과를 통보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탁은행을 통해 대금 지급
 -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한 전담금융기관(카드사)을 통해 카드를 지급받음

[그림 II-1-1] 첫만남이용권 사업 추진 체계(시군구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2023b).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p.6.

3) 해외 유사 사례

가) 현금 지원

(1) 프랑스¹³⁾

□ 프랑스는 출산·입양 지원금(Prime à la naissance) 제도 실시

- 출산·입양 지원금 제도는 프랑스의 가족 수당제도인 영유아육아수당(Presen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 제도에 포함되어 있음
- 영유아육아수당에는 출산·입양 지원금 외에도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 양육방식 자유 선택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nde de garde), 자녀양육활동 선택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제도가 있음(노대명·김대중·김영아 외, 2018; 최효미·박은정·엄지원, 2020: 110에서 재인용).

□ 프랑스의 출산·입양 지원금은 출산 또는 입양 자녀를 둔 가구에 일시불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첫만남이용권과 유사하나, 모든 아동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자녀수 및 가구형태에 따라 연소득 상한선에 차등을 두어 지급

- 가구형태는 맞벌이, 외벌이, 한부모 가구로 구분
- 맞벌이와 한부모 가구의 연소득 상한선 동일
- 자녀수 증가에 따라 점증적으로 연소득 상한선 상승
- 3자녀 이상은 추가 자녀 1명 당 연소득 상한선이 7,930유로씩 증가

〈표 II-1-1〉 프랑스 출산·입양 지원금의 연소득 상한선

단위: 유로

자녀 수	맞벌이 부부	외벌이 부부	한부모
1 자녀	43,665	33,040	43,665
2 자녀	50,273	39,648	50,273
3 자녀	58,203	47,578	58,203
이외 추가 자녀 1명 당	7,930	7,930	7,930

주: 2021년 소득기준으로 2023년 지급 결정

자료: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la-prime-a-la-naissance-et-adoption-caf/> (2023. 12. 27. 인출).

13)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la-prime-a-la-naissance-et-adoption-caf/> (2023. 12. 27. 인출).

- 출산·입양 지원금의 지급액은 출산 자녀일 경우 자녀 1명당 1,019.43유로¹⁴⁾이며, 입양 자녀의 경우 자녀 1명당 2,038.85유로(2023년 4월 1일 이후 적용)

(2) 일본

- 일본은 공적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 육아 일시금(出産育児一時金)’을 지급

○ 의료보험에서 출산 이후 일시금으로 지급

- 출산 육아 일시금의 지급액은 2023년 4월부터 42만엔에서 50만엔¹⁵⁾으로 상향

○ 지급액은 피보험자 분만기관의 산과의료보험제도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름

○ 임신 주수가 22주 미만이거나 산과 의료 보상 제도 적용이 되지 않는 출산의 경우는 지급액이 48.8만엔¹⁶⁾

- 의료기관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출산 육아 일시금의 지급 신청과 수급을 실시할 수 있는 ‘출산 육아 일시금 의료기관 직접지불제도(出産育児一時金等の医療機関への直接支払制度)’를 도입

○ 출산을 앞둔 부모의 높은 출산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비용적 부담과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¹⁷⁾

(3) 싱가포르¹⁸⁾

- 싱가포르는 출산 축하금(Baby Bonus Cash Gift) 제도 실시

14) 1,019.43유로(€) = 146만 1,179.60원(2023년 12월 28일 환율 기준)

2,038.85유로(€) = 292만 2,344.87원(2023년 12월 28일 환율 기준)

15) 50만엔(¥) = 455만 6,900원(2023년 12월 28일 환율 기준)

16)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au/iryauhoken/shussan/index.html (2023. 12. 17. 인출); 일본 후생노동성(2018.3). 출산 육아 일시금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설명서. https://www.google.com/url?client=internal-element-cse&cx=005876357619168369638:ydrbkuj3fss&q=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au/iryau/kokusai/setsumeisiryu/dl/kr10.doc&sa=U&ved=2ahUKEwif8_ni4LGDAXcs1YBHaNUCBEQFnoECAMQAQ&usg=AOvVaw3pFHxGOnkzyuPZajZCq4Tf (2023. 12. 27. 인출).

17) 일본 후생노동성(2018.3). 출산 육아 일시금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설명서. https://www.google.com/url?client=internal-element-cse&cx=005876357619168369638:ydrbkuj3fss&q=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au/iryau/kokusai/setsumeisiryu/dl/kr10.doc&sa=U&ved=2ahUKEwif8_ni4LGDAXcs1YBHaNUCBEQFnoECAMQAQ&usg=AOvVaw3pFHxGOnkzyuPZajZCq4Tf (2023. 12. 27. 인출).

18) 싱가포르 Made For Families, <https://www.madeforfamilies.gov.sg/support-measures/raising-your-child/financial-support/baby-bonus-scheme> (2023. 12. 27. 인출).

- 싱가포르의 베이비 보너스 제도(Baby Bonus Scheme)에 출산 축하금(Baby Bonus Cash Gift)과 아동 발달 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제도가 있음
- 싱가포르는 최근 출산 축하금 제도를 강화함
 - 2023년 2월 14일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한 출산 축하금을 이전보다 S\$3,000 인상하여 지원 수준 제고
 - 이전에는 일시금 방식이었으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아동이 만 6.5세까지 6개월 마다 출산 축하금을 분할하여 지급
 - 부모가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변경
- 싱가포르의 출산 축하금은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 지급
 - 첫째, 둘째아에게는 S\$11,000¹⁹⁾가 지급되고, 셋째아부터 S\$13,000²⁰⁾ 지급

나) 현물 지원: 출산 패키지(Maternity package)

(1) 핀란드

- 핀란드의 출산 패키지인 베이비 박스(Baby box)는 1922년 자선단체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핀란드 전역 모든 지자체에서 모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1949년부터 시작됨(Koivu, A., Phan, Y. T., Näsi, E. et al., 2020: 22~25).
 - 20세기 초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고, 위생 및 전염병 문제 등으로 높은 영아 사망률을 보임
 - 1922년 만네르하임 아동복지연맹(the Mannerheim League of Child Welfare)에서 베이비 박스 전신인 ‘순환 바스켓(circulating baskets)’제도 실시
 - 핀란드는 복지국가 구축을 시작하면서, 지자체에 가족 지원 의무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1937년 지자체 출산 보조금 법률 제정하였으나 취약계층 지원

19) S\$11,000 = 1,074만 8,320원(2023년 12월 28일 환율 기준)

20) S\$13,000 = 1,270만 2,560원(2023년 12월 28일 환율 기준)

- 보편적인 출산 보조금은 1949년부터이며, 1980년대에는 베이비 박스 조직 및 지급 책임이 지자체에서 국가사회복지위원회로 이양됨
- 모성 지원은 1994년 이후 핀란드 사회보장원(Kela)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 핀란드 출산 보조금(Maternity grant) 지급 요건²¹⁾
 - 필요 서류
 - 청구 서류로는 임신 154일 이상이고, 임신 4개월 이전에 건강검진을 확인하는 (의사 또는 모자복지센터의) 임신 증명서 제출
 - 입양 부모는 아동의 입양 가족 지정 증명서 제출
 - 출산 패키지 신청서 제출 기한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
 - 출산 패키지와 170유로 (면세) 현금 급여 중 선택 가능
- 핀란드 베이비 박스에 포함되는 품목의 범위는 해마다 거의 동일하나,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매년 업데이트 됨²²⁾
- 2023년 기준, 핀란드 베이비 박스는 총 38종 용품을 포함²³⁾
 - 출산 패키지 용품은 크게 상자·매트리스, 겔옷·이불, 바디수트, 바지, 모자·양말·장갑, 담요·침대 시트·수건, 아기 케어 용품, 위생 용품으로 구분
 - 2023년 기준 핀란드 베이비 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용품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에 제시한 <표 II-1-2>와 같음.

<표 II-1-2> 핀란드 베이비 박스 용품 목록(2023년 기준)

구분	용품 목록
상자·매트리스	• 상자(70x42.8x27cm): 침대로 사용 가능 • 매트리스(70x42.8x4cm)
겔옷·이불	• 침낭/담요 • 방한복 • 울훈방 우주복 • 방한 부츠/장갑
바디수트	• 속싸개(배넛저고리와 유사) 50-56cm • 바디수트 50-56cm • 수면복 62-68cm

21) 핀란드 사회보장원 홈페이지, <https://www.kela.fi/maternity-grant> (2024. 1. 15. 인출).
22) 핀란드 사회보장원 홈페이지, <https://www.kela.fi/maternitypackage> (2024. 1. 15. 인출).
23) 핀란드 사회보장원 홈페이지, <https://www.kela.fi/maternity-package-2023> (2024. 1. 15. 인출).

구분	용품 목록
	• 확장가능한 바디수트 62-68cm • 확장가능한 바디수트 62-68cm • 바디수트 62-68cm
바지	• 바지 50-56cm • 바지 62-68cm • 바지 68-74cm
모자·양말·장갑	• (머리·목·얼굴을 덮는) 방한 후드 • (끈이 달린) 울 모자 • 양말/병어리 장갑
담요·침대 시트·수건	• 담요 2장(80x120cm/70x100cm) • 침대 시트(90x150cm) • 이불 커버 • 수건
아기 케어용품	• 손톱 가위 • 아기용 칫솔 • 목욕 온도계 • 아동용 헤어브러시 • 가제수건 4장(80x80cm) • (깊은 받침 포켓이 있는) 턱받이 • 책
위생용품	• 산모용 패드(10개) • 유두 크림 • 브라 패드

주: 핀란드 사회보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품목 구분에 따라 정리함.
자료: 핀란드 사회보장원 홈페이지, <https://www.kela.fi/maternity-package-2023> (2024. 1. 15. 인출).

(2) 스코틀랜드

□ 스코틀랜드는 아동의 동등한 생애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베이비 박스(Baby box) 제도를 2017년부터 실시²⁴⁾

- 2017년 8월 15일 이후에 출생하여 스코틀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베이비 박스 제공
- 베이비 박스는 출산을 준비하는 가족을 돕기 위해 출생 후 첫 6개월 동안 필요한 핵심 물품을 포함하여 지급²⁵⁾

□ 스코틀랜드 베이비 박스 신청 및 배송²⁶⁾

24) 스코틀랜드 홈페이지, <https://www.scotland.org/live-in-scotland/progressive-scotland/baby-box> (2024. 1. 17. 인출).
25) NHS inform, <https://www.nhsinform.scot/ready-steady-baby/pregnancy/preparing-for-parenthood/baby-box/> (2024. 1. 17. 인출).
26) NHS inform, <https://www.nhsinform.scot/ready-steady-baby/pregnancy/preparing-for-parenthood/baby-box/> (2024. 1. 17. 인출).

- 조산사가 임신 20~24주에 정기 산전 진료 예약 시 베이비 박스 등록 카드 작성
 - 배송 일주일 전에 알림(문자,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해 도착 날짜 고지하고, 베이비 박스 등록 카드에 기재한 기본 배송 주소로 배송
 - 출산 예정일 약 4주 전에 베이비 박스 수령
- 스코틀랜드 베이비 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 목록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에 제시한 <표 II-1-3>과 같음.

<표 II-1-3> 스코틀랜드 베이비 박스 용품 목록

구분	용품 목록
매트리스	• 매트리스: 보호 시트 포함, 제공된 박스 크기로 설계(70x42.8x2cm)
속옷·수면복	• 신생아 반팔 속옷 • 신생아 긴팔 속옷 • 신생아 긴소매 여침 속옷 • 신생아 긴소매 속옷 • 긴 소매 수면 수트(0~3개월) • 긴 소매 수면 수트(3~6개월)
겉옷·외투	• 겹싸개 • 저지 바지 2벌(0~3개월) • 저지 바지(3~6개월) • 울인원 데이 수트 2벌(3~6개월) • 플리스 후드 외투(3~6개월)
모자·양말·장갑	• 손싸개 1쌍 • 면 모자(0~3개월) • 양말 1쌍(0~3개월) • 양말 1쌍(3~6개월)
담요·수건	• 아기 담요(150x100cm) • 후드형 목욕 타올
아기 케어 용품	• 전자 체온계(겨드랑이 온도계) • 목욕 및 공간 온도계 • 목욕 스펀지 • 아기 칫솔(6개월경부터 사용) • 치발기 • 손톱 사포 • 턱받이 • 가제용 사각 천
기저귀·매트	• 재사용 가능 기저귀 • 놀이 매트 • 휴대용 기저귀 교환 매트
도서·장난감	• 아기용 책 2권 • 유모차용 책 • 천 장난감: 애착 인형

구분	용품 목록
위생용품	• 일회용 수유 패드 • 산모용 패드 • 콘돔 상자 2개

주: 연구진이 품목을 구분하여 정리함.
자료: 스코틀랜드 Parent Club 홈페이지, <https://www.parentclub.scot/baby-box> (2024. 1. 18. 인출).

(3)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²⁷⁾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의 출산 패키지인 베이비 번들(Baby Bundle)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됨
 -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태어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제공
 - 출산한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아기 물품 가방 지급
 - 병원 외 출산의 경우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출생 신고 이후에 지급
- 출생 시점에 부모 중 한 명이 뉴사우스웨일즈에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
 - 입양 부모나 위탁 부모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즈에 거주한다면 아기가 생후 3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 지급되는 모든 아기 용품은 호주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되는 용품의 목록은 아래와 같음

〈표 II-1-4〉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베이비 번들 용품 목록

용품 목록	
• 솔더백 - 아기 블루북(Blue Book) 크기의 주머니를 가진 가방. - 블루북은 개인 건강 기록과 아동의 건강 및 발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음	
• 놀이매트 • 침낭 • 기저귀 교환 매트 • 속싸개 • 무수온 목욕 온도계 • 아기칫솔	• 유방 패드 • 구급상자 • 보드북 • 면포 • 아기 손수건 • 손 소독제 • 장벽보호 크림

주: 연구진이 품목을 구분하여 정리함.
자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health.nsw.gov.au/kidsfamilies/MCFhealth/child/Pages/baby-bundle.aspx> (2024. 1. 16. 인출).

27)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health.nsw.gov.au/kidsfamilies/MCFhealth/child/Pages/baby-bundle.aspx> (2024. 1. 16. 인출).

나. 부모급여

1) 도입 목적 및 근거

-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부모급여 도입을 명시하였으며, 2023년에 부모급여 제도 도입
 - 부모급여는 보육료 이상의 지급액을 가진 높은 수준의 보편 정액급여로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급
 - 높은 수준의 현금성 수당 제도의 도입은 인구감소 단계에 돌입한 우리나라의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위기의식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음(박은정·이정원·윤지연 외, 2022).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의 도입 목적은 영아가구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데에 있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8. 19.)
 - 부모급여는 영아가구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출산 이후 부모의 가구 소득 감소 및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동이 적절한 환경에서 양육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
-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²⁸⁾ 일부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 영아수당 도입 시 「아동수당법」²⁹⁾ 일부개정(2021. 12. 14)을 통해 제4조 제5항을 신설하였고, 이후 부모급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항의 지급 금액을 '매월 50만원 이상'으로 개정
 - 「아동수당법」³⁰⁾ 제4조 제5항: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 12. 14.>

2) 정책 개요

가) 지급 대상 및 기간(보건복지부, 2023a: 5)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

28) 「아동수당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55호, 2023. 6. 13., 일부개정]

29) 「아동수당법」 [시행 2022. 4. 1.] [법률 제18579호, 2021. 12. 14., 일부개정]

30) 「아동수당법」 [시행 2022. 4. 1.] [법률 제18579호, 2021. 12. 14., 일부개정]

- 지급단위는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 아동 및 난민인정 아동, 특별기여자가 포함
 - 법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정상 부여 받은 아동이어야 하며, 사회복지 전산관 리번호 부여 대상자와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 확인 대상이 포함
- 출생한 달부터 만 2세 전 달까지 24개월 간(0~23개월) 지급

나) 지급액 및 지급 방식(보건복지부, 2023a: 6~7)

- 2024년부터 만 0세아 월 100만원, 만 1세아 월 50만원 부모급여 지급
- 2023년에는 만 0세아에게 월 70만원, 만 1세아에게 월 35만원 지급
- 부모급여 지급방식은 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상이
- 가정 양육을 할 경우,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원칙
 - 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사회서비스이용권)를 전액 지원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2023년은 만 0세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보육료인 51만 4천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고, 월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을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바우처로 지급
 - 2024년에 기관을 이용하는 0세아에게는 보육료 바우처로 54만원, 현금 46만원이 지급되고, 1세아는 보육료 바우처로 47만 5천원, 현금 2만 5천원 지급(보건복지부, 2024b: 337)
 - 2024년은 0~2세반 보육료가 5% 인상되어 0세반 부모보육료는 월 54만원, 1세반은 47만 5천원(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3. 12. 29.)
- 영아수당이 도입된 2022년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 2023년, 2024년의 아동 대상 현금급여 변화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 제시된 [그림 II-1-2]와 같음

[그림 II-1-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아동 현금급여 변화

단위: 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연령		0세	1세	2~7세	연령		0세	1세	2~7세	연령		0세	1세	2~7세
아동수당		월 10			아동수당		월 10			아동수당		월 10		
보육	시설 미이용	영아 수당	현금 월 30→월 50 (22년) (25년)	가정양육 수당	보육	시설 미이용	부모급여		가정양육 수당	보육	시설 미이용	부모 급여		가정양육 수당
	월 10		월 70	월 35		월 10	월 100	월 50	월 10					
	바우처 (보육료) 월 50		보육료 (바우처)	보육료 (바우처)		보육료 (바우처)	보육료 (바우처)	보육료 (바우처)	보육료 (바우처)					
	월 28~월 36		월 28~월 36	월 28~월 36		월 28~월 36	월 28~월 36	월 28~월 36						

자료: 1)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p.4

2) 박은정(2022). 부모급여 제도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육아정책포럼 제74호, p.23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다) 전달체계

-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가 관할부처이며, 지자체에서 부모급여 신청 대상자 고지, 신청·접수, 보장결정 및 지급 업무 등을 담당(보건복지부, 2023a)
- 행안부에서 행정공동이용망을 통해 기간 내 출생신고된 영유아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전송
- 복지부는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e음) 정보와 행안부 제공 정보를 보장결정 및 지급을 담당하는 지자체(시·군·구)에 제공

다. 지자체 출산 지원금

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개요 및 현황

- 출산지원금은 출산 단계에 현금 지원으로 구분(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69~70)
 -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은 생애단계에 따라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으로 구분되고 결혼 및 임신 준비 관련 사업이 증가하여 결혼(전), 임신(전) 단계로 세분화
 - 출산지원정책 지원유형은 현금, 상품권, 현금성, 현물, 바우처, 서비스, 인프라, 교육·홍보로 구분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은 2022년 기준 2,340건(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73~74)

- 2019년 2,278건에서 2020년 2,367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 2,310건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다시 30건이 증가하여 최근 4년간 근소한 차이로 증감을 반복(양미선·김혜진, 2021: 45;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73~74).
-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은 생애단계별 지원 비중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음
- 2022년에 가장 크게 줄어든 생애단계 지원은 출산 지원으로 0.7%p 감소하였으며, 육아 지원이 0.7%p 증가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생애단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1-5>와 같음

<표 II-1-5>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생애단계별 현황 추이: 2019~2022년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결혼(전)	32(1.4)	36(1.5)	31(1.3)	23(1.0)
결혼	71(3.1)	89(3.8)	90(3.9)	96(4.1)
임신(전)	157(6.9)	157(6.6)	145(6.3)	159(6.8)
임신	443(19.4)	440(18.6)	431(18.7)	439(18.8)
출산	773(33.9)	825(34.9)	826(35.8)	821(35.1)
육아	638(28.0)	664(28.1)	643(27.8)	666(28.5)
가족	164(7.2)	156(6.6)	144(6.2)	136(5.8)
전체	2,278(100.0)	2,367(100.0)	2,310(100.0)	2,340(100.0)

자료: 1) 양미선·김혜진(2021),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45.

2)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p.73~74.

- 지원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을 살펴보면, 현금 지원 사업의 비중은 2019년 26.8%에서 2022년 30.8%로 가장 크게 증가(양미선·김혜진, 2021: 50;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76)
-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포함하여,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화폐 지급 등 상품권 지원과 보험료 지원이나 이용료 할인 등 현금성 지원을 합산하면, 2022년 41.0%로 2019년에 비해 6.0%p가 증가
-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중 출산지원금 사업수의 비중은 2021년 10.8%에서 2022년 9.5%로 다소 감소

〈표 II-1-6〉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지원유형별 현황 추이: 2019년~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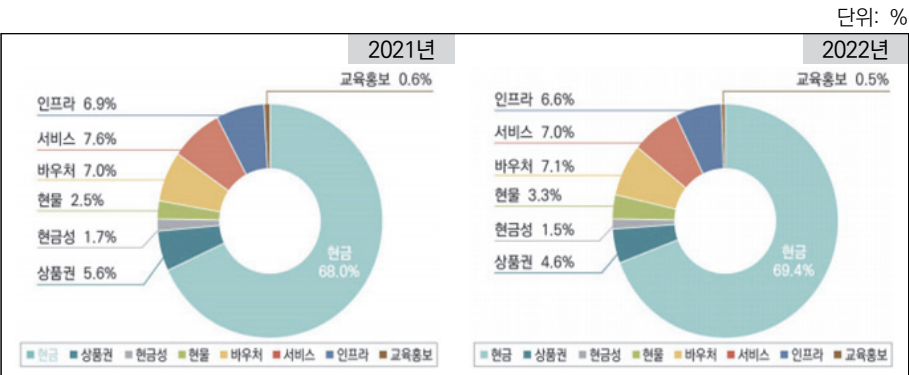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현금	610(26.8)	695(29.4)	710(30.7)	721(30.8)
(출산지원금)	-	-	250(10.8)	222(9.5)
상품권	26(1.1)	30(1.3)	32(1.4)	41(1.8)
현금성	162(7.1)	191(8.1)	192(8.3)	197(8.4)
현물	274(12.0)	296(12.5)	297(12.9)	312(13.3)
바우처	157(6.9)	151(6.4)	152(6.6)	153(6.5)
서비스	597(26.2)	623(26.3)	587(25.4)	581(24.8)
인프라	16(0.7)	18(0.8)	18(0.8)	14(0.6)
교육·홍보	436(19.1)	262(15.3)	322(13.9)	321(13.7)
전체	2,278(100.0)	2,367(100.0)	2,310(100.0)	2,340(100.0)

주: 1) 2020년 이전 출산지원금 현황 자료가 없음.
2) 2021년 자료는 추경, 일부 누락, 코로나19로 인해 중단·취소된 사업 자료를 반영.
3) 현금 지원에 출산지원금 포함.
자료: 1) 양미선·김혜진(2021),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50.
2)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76.

- 현금 지원유형에 재정 비중은 실제 사업수의 비중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75)
- 2021년에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중 현금 지원 재정의 비중은 68.0%였으며, 2022년에는 1.4%p 증가한 69.4%로 나타남
 - 지원유형별로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재정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II-1-3]과 같음

[그림 II-1-3]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지원유형별 재정 비중: 2021년 & 2022년



주: 전체 재정 규모- 2021년 852,194백만원, 2022년 1,080,978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75.

□ 지자체 출산지원금 재정은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재정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자체 출산지원금 사업수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재정 규모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77)

○ 지자체 출산지원금 재정 비중을 산출한 결과, 2021년에는 전체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재정에서 52.4%를 차지하였으며, 2022년에는 53.1%로 증가³¹⁾

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2022년 기준 11개 지역으로 이전에 비해 3개 지역 감소(양미선·김혜진, 2021: 76;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335)

○ 첫만남이용권이 시행됨에 따라 충북, 전남, 경남 지역에서 출산지원금 사업을 폐지

〈표 II-1-7〉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사업 현황: 2019~2022년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2022	-	○	○	○	○	○	○	○	-	○	-	○	-	-	○	-	○	11
2021	-	○	○	○	○	○	○	○	-	○	○	○	-	○	○	○	○	14
2020	-	○	○	○	○	○	○	○	-	○	○	○	-	○	○	○	○	14
2019	-	○	○	○	○	○	○	○	-	○	○	○	-	○	○	○	○	14

자료: 1) 양미선·김혜진(2021),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76.

2)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335.

□ 출생순위별로 광역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가 9개이며,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가 11개임.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335)

○ 2021년 이전까지는 총 14개의 모든 광역 지자체 출산지원금에서 셋째아부터 지원했으며, 둘째아부터는 13개 지역에서 지원(양미선·김혜진, 2021: 77)

31)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77」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산출한 결과임.

〈표 II-1-8〉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출생순위별 출산지원금 사업 현황: 2019~2022년

단위: 개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전체
2022	9	11	11	11	11	11
2021	10	13	14	14	14	14
2020	10	13	14	14	14	14
2019	9	13	14	14	14	14

자료: 1) 양미선·김혜진(2021),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77.

2)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335.

□ 광역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2022년 기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큼(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335~336)

○ 2021년 출산지원금 최대값은 1,920만원으로, 2022년에는 480만원이 증가한 2,400만원까지 지원

□ 지자체 출산지원금 사업의 예·결산을 살펴보면, 2019년에 110,946백만원에서 2022년 361,401백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양미선·김혜진, 2021: 100;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336)

○ 출산지원금 사업을 시행하는 광역 지자체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전체 광역 지자체 출산지원금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2.4% 증가

○ 광역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폐지한 충북, 전남, 경남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재정이 감소한 지역은 인천으로 86.8%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경북이 70.2%, 대구가 64.9% 순으로 감소폭이 컸음

○ 이외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2022년 광역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대전이 2556.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강원도가 76.3%, 제주가 65.6%, 부산이 51.4% 순으로 증가폭이 컸음

〈표 II-1-9〉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예·결산 규모 추이: 2019~2022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체	110,946	142,644	237,067	361,401	52.4
서울	-	-	-	-	-
부산	6,500	5,900	4,173	6,316	51.4
대구	12,669	11,105	9,653	3,384	-64.9
인천	19,972	17,000	15,117	2,000	-86.8
광주	1,494	1,312	42,460	46,027	8.4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
대전	2,975	2,694	3,080	81,828	2556.8
울산	2,134	2,330	1,956	2,345	19.9
세종	4,620	4,156	4,162	4,400	5.7
경기	-	-	-	-	-
강원	15,153	42,800	92,378	162,900	76.3
충북	8,334	6,714	6,294	-	-
충남	20,142	33,649	44,221	45,386	2.6
전북	-	-	-	-	-
전남	3,256	2,927	4,092	-	-
경북	6,304	5,900	4,366	1,300	-70.2
경남	1,450	1,040	1,785	-	-
제주	5,943	5,117	3,330	5,515	65.6

자료: 1) 양미선·김혜진(2021),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00.

2)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336.

□ 출산지원금 사업을 실시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216개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에는 222개였으나, 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된 2022년에는 202개로 감소하여 전체 기초 지자체 중 89.4%가 출산지원금 사업을 실시(양미선·김혜진, 2021: 78;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341)

○ 특히 서울은 25개 기초 지자체 중 36.0%인 9개 지자체만 출산지원금 제도 실시

○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모든 기초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실시

〈표 II-1-10〉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사업 현황: 2019~2022년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전체	25	16	8	10	5	5	5	-	31	18	11	15	14	22	23	18	-	226	(100.0)
2022	9	16	4	10	5	4	5	-	30	17	11	15	14	22	23	17	-	202	(89.4)
2021	25	16	5	10	5	4	5	-	31	18	11	15	14	22	23	18	-	222	(98.2)
2020	25	16	4	9	5	3	5	-	31	18	11	15	14	22	23	18	-	219	(96.9)
2019	25	16	4	7	5	2	5	-	31	18	11	15	14	22	23	18	-	216	(95.6)

자료: 1) 양미선·김혜진(2021),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78.

2)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341.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출생순위별 출산지원금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이 증가한 기간인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첫째아,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수가 셋째 이상 출산지원금에 비해 크게 증가(양미선·김혜진, 2021: 79;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341)
-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실시하는 기초 지자체의 비중은 2019년 69.9%에서 2021년 85.0%까지 증가하였으며, 둘째아를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 비중은 2019년 86.7%에서 92.9%까지 증가
- 2022년에는 특히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 가장 크게 감소

〈표 II-1-11〉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출생순위별 출산지원금 사업 현황: 2019~2022년

단위: 개, %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지자체수	지원율	지자체수	지원율	지자체수	지원율	지자체수	지원율	지자체수	지원율
2022	161	71.2	180	79.6	198	87.6	201	88.9	201	88.9
2021	192	85.0	210	92.9	219	96.9	221	97.8	221	97.8
2020	177	78.3	204	90.3	215	95.1	218	96.5	218	96.5
2019	158	69.9	196	86.7	212	93.8	215	95.1	215	95.1
전체	226	100.0	226	100.0	226	100.0	226	100.0	226	100.0

자료: 1) 양미선·김혜진(2021),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79.

2)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341.

- 기초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2022년 기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광역 지자체보다 지역 간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남(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342~343)
-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첫째아 대상 기초 지자체 출산지원금의 최대 지원액은 7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가
- 셋째아 대상 출산지원금의 최대 지원액은 3,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소
- 기초 지자체 출산지원금 사업의 예·결산을 살펴보면, 2019년에 1,795억 5,200만원에서 2022년 2,120억 7,8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적었음(양미선·김혜진, 2021: 100;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344)

- 기초 지자체 출산지원금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 규모는 증가 추이를 보임
 -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1.1% 증가
- 2022년 기준, 기초 지자체 출산지원금 사업의 예·결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로 79.5%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인천이 19.9%, 경남 3.7%, 경기 0.8% 순으로 감소폭이 컸음
- 이외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2022년 기초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전이 182.7%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 다음으로 대구 34.8%, 광주 24.7%, 경북 21.1% 순으로 증가폭이 컸음

〈표 II-1-12〉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예·결산 규모 추이: 2019~2022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체	179,552	197,918	209,871	212,078	1.1
서울	12,219	12,896	14,409	2,954	-79.5
부산	2,824	3,168	3,532	3,985	12.8
대구	2,918	2,825	2,653	3,577	34.8
인천	8,084	9,726	10,743	8,607	-19.9
광주	351	264	389	485	24.7
대전	393	473	469	1,326	182.7
울산	5,021	5,452	5,207	5,889	13.1
세종	-	-	-	-	-
경기	46,045	48,871	54,532	54,108	-0.8
강원	6,336	6,830	7,418	7,758	4.6
충북	11,112	10,395	10,199	10,271	0.7
충남	8,650	10,848	11,132	13,392	20.3
전북	10,754	11,045	12,034	12,712	5.6
전남	24,422	25,799	27,210	31,180	14.6
경북	23,825	29,710	31,225	37,809	21.1
경남	16,599	19,617	18,722	18,025	-3.7
제주	-	-	-	-	-

자료: 1) 양미선·김혜진(2021),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00.

2)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344.

2. 적정 비용 산출 모형 관련 선행연구

가. 최저생계비 산출 모형

1) 최저생계비 산출의 목적 및 계측방법

가) 최저생계비 산출의 목적 및 활용

- 한국의 최저생계비는 2000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빈곤층 대상의 공공 부조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급여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측되어 음(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7)³²⁾
- 「국민기초생활보장법」³³⁾ 제22조 제7항에 의해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명시되어 최저생활 수준의 판단 근거로 기능함
-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되면서 제도 수급대상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최저생계비는 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계측됨(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9).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 선정기준이 된 중위소득은 상대적 빈곤개념에 따른 것이기에 실제적인 질 평가가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을 지속하기로 함

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 최저생계비 계측은 빈곤측정 방식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빈곤의 정의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은 아래와 같이 연계될 수 있음

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1.생계급여, 2.주거급여, 3.의료급여, 4.교육급여, 5.해산급여(解産給與), 6.장제급여(葬祭給與), 7.자활급여의 7개의 급여를 제공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6조의2, 3, 제7조)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로 지칭하며 수급권자의 기준은 시행 후부터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 개편 전까지 최저생계비 개념에 근거하여 정해져 왔음(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7).

3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표 II-2-1〉 빈곤의 정의와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빈곤정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절대적 빈곤	전물량 방식	• 마켓바스켓 방식: 필수품을 선정하고 필수품의 단가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측정. 이때 소득탄성치 등을 필수품 선정시 고려
	반물량 방식	• 엥겔(Engel) 방식: 최저한의 식품비를 계산한 후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 • 오산스키(Orshansky) 방식: 최저한의 식품비를 계산한후 이에 3을 곱한 값을 최저생계비로 계측³⁴⁾
상대적 빈곤	박탈지표 방식	• 타운젠트(Townsend) 방식: 박탈지표를 통한 측정 • 소득 또는 지출의 특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규정
주관적 빈곤	주관적 방식	• 제3자의 평가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 • 본인의 평가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

자료: 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2023),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p.24 〈표 2-2-1〉 일부수정

□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최초의 최저생계비는 1999년에 계측된 최저생계비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 맞물려 계측치가 발표되었으며, 이때의 최저생계비는 전물량 방식의 마켓바스켓 방식으로 계측됨(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32)³⁵⁾

- 이를 위해 1차로 15,400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 소득 하위 40% 이하에 해당하는 1,5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부 조사를 실시함. 이외에도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지역별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을 구성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함

2) 2023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산출 모형

□ 이하에서는 2023년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된 최저생계비의 개요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주제인 생애 초기 양육비용과 관련이 높은 비목인 식료품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의 계측 방식에 대해 검토하였음

34) 1964년 미국의 Mollie Orshansky가 제안한 방식으로 미국 3인 이상 가구의 엥겔지수가 1/3이라는 데에 근거해 간편한 계측방식을 고안하였음(이정우, 2018: 330).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오산스키 방식의 3이라는 배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26).

35)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소비되는 품목에 대한 수량과 가격을 측정해 계측된다는 점에서 국민생활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음(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254). 따라서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전까지 제도의 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으로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된 최저생계비가 활용되어 왔으며, 개편 이후 급여적정성 평가시에도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가 주되게 활용되고 있음.

가)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산출의 개요

(1) 마켓바스켓 결정의 기본 원칙

- (조사)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실시(전국 표본 18,000가구)하고 이에 기반해 최저생계비 비목에 필요한 소비 및 주거실태 등의 자료를 산출하였음 (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256)
- 4인 가구 대상(전국 표본 2,800가구)으로 필수품 사용량, 내구연수에 대한 심층조사 실시, 식료품비 산출 위한 외식 빈도, 내구재 및 의료 소비실태 등을 파악해 마켓바스켓 구성에 활용
- (품목 구성) 최저생계비 산출시의 필수품은 절대적 필요가 있는 물품 뿐 아니라 기본적 품위유지 차원도 고려함. 즉, 최저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품에 더해 보유빈도가 높은 품목을 포함함(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257~258)
- 전문가에 의한 최저개념으로 물품을 구성(영양권장량, 최저주거기준 등)하고, 보완적으로 소득탄력성 또는 로지스틱 분석기법을 이용해 소득 변화에 큰 변화 없이 보유하거나 일정소득 하에서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포함시킴
 - 품목별 소득탄력성:

$$E_i = \frac{dQ/Q}{dI/I} = \alpha_i \quad \ln E_{ij} = C_i + \alpha_i \ln I_j$$

dQ/Q : 지출액(수요량) 변화율, dI/I : 소득 변화율, $\ln E_{ij}$: j 가구의 i 품목 지출액(수요량)의 자연로그 값,

C_i : 상수항, α_i : 추정계수(품목별 소득탄력성), $\ln I_j$: j 가구 소득의 자연로그 값

- (사용량의 결정) 사용량은 비목의 성격에 따라 외생적, 규범적으로 달리 정함 (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258)
- 1) 세금 등 사용량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것을 사용량으로 정함. 2) 최저주거면적, 영양권장량을 충족하는 식품 등 규범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것을 사용량으로 정함. 3) 이외 월평균 지출액을 품목 단가로 나누거나 전체 사용량을 가구 수로 나누어 정함
- (내구연수의 결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기간보다는 길게 정하고, 2) 표본수를 구입가수로 나눈 수치, 3) 품목별 평균 가격을 월 지출 금액으로 나눈 수치, 또는 4) 저소득가구 소비수준의 최빈값, 중위값, 평균값과 같은 대푯값을

활용하여 정함(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258)

- (가격결정의 기준시점) 2023년 1월로 하되 계절변동이 큰 품목은 성수기를 기준으로 정함. 품질은 중품 또는 중저품으로 정함. 자료가 있는 경우 통계청 물가지수 변화를 반영하여 품목별 소비자 가격을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는 실태조사에서 저소득가구 소비가격의 대푯값을 적용함(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258).
- (지역구분) 2023년부터 1)서울, 2)경기, 3)광역·세종·창원, 4)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최저생계비를 산출함. 이중 1개 비용 산출시에는 광역·세종·창원 지역으로 적용(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259)

(2) 표준가구의 설정 및 지역 구분

- 최저생계비를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 시 가상의 가구별 마켓바스켓을 구성하게 되므로 생계를 유지하는 단위인 가구의 설정이 중요하기에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사용되는 전형적인 가구, 준거가 되는 가구를 ‘표준가구’로 지칭하고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사용함(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259~26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 계측 시 표준가구는 1999년부터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으로 정하고³⁶⁾가구의 연령 및 자녀의 성별은 ‘부: 47세, 모: 46세, 첫째 자녀: 남 17세, 둘째 자녀: 여 15세’로 설정함³⁷⁾
- 전물량방식으로 계측되는 비용의 지역 차이가 존재하므로 아래와 같이 지역을 구분해 최저생계비에 반영함(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266~267)
 - 지역별 주택가격의 차이가 크므로 이를 근거로 2020년 계측 시까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종으로 지역을 구분해 음. 2023년 계측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함. 특히, 중위소득 및 급여 적정성 비교의 기준으로는 광역·세종·창원의 지역을 선정하여 비교함³⁸⁾

36) 4인의 표준가구 구성은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당시 표준가구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최빈 가구로 규정한 데에 근거함. 최빈 가구는 2010년 이후 2인 가구로 변경되고 2015년 이후 1인 가구로 변경되었으나 1인 가구의 경우 청년, 노인가구 비중이 높아 특정유구를 가진 가구로 표준적 지출 수준 파악이 어려우며, 1인 초과 가구 단위로는 4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4인 표준가구를 유지하였음(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260~261)

37)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남성 가구주의 최빈 연령과 여성 배우자의 최빈 연령으로 부부의 연령을 정함. 첫째아와 둘째아의 연령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평균 초혼 연령과 모의 동거 기간별 출생 및 모의 평균연령을 활용해 정함. 첫째아와 둘째아의 성별은 최빈값을 적용할 경우 모두 남아이나 규범적 측면과 가구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아는 남아, 둘째아는 여아로 적용함(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263~267)

(3) 최저생계비 계층의 단계

□ 최저생계비의 계층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이하와 같음(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255)

○ 1단계: 표준가구 설정. 지역구분 결정

○ 2단계: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PL_{4r}) 계층

$$PL_{4r} = \sum P_{ir} \times Q_{ir}$$

○ 3단계: 지역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PL_{jir}) 결정

$$PL_{jr} = PL_{4r} \times HES(\text{가구균등화지수})$$

○ 4단계: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층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 = 가구 규모별 기본경비(공통경비)

+ 지역별 가구 규모별 점유 형태별 주거비 + 개인별 추가지출액

나) 주요 비목별 최저생계비의 산출

(1) 최저 식료품비³⁹⁾

□ 식료품비는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품목으로 비탄력적 성격을 가지기에 규범적 측면에서 표준가구 가구구성원의 연령, 성별을 기준으로 영양섭취기준을 설정하고, 소비가 큰 식품들을 고려해 마켓바스켓을 수정함

□ 최저 식료품비는 ①가정식 비용과 ②외식 비용을 합한 것으로 산출

○ 가정식 비용: 외식이 없을 경우의 가정식 비용에서 아래 절감분을 제외

- 절감분: 가장 중식 절감분, 학생급식 절감분(2명), 가족단위 친지방문 절감분(4인 기준 연간 2회: 연간 총 8끼), 국내 가족여행 절감분(1년 1회 3끼: 연간 총 12끼), 자녀(2명) 수련회 절감분(1인당 연간 1회: 1인당 연간 7끼), 가족여행 중 외식으로 인한 비용

○ 외식 비용: 가정의 중식비 + 가족단위 외식비용 + 학생의 급식비용

○ 이상에서 '월 단위 가정식 비용 = 1끼당 가정식 비용 × 월평균 끼니 수

38) 지역범주 중 '광역·세종·창원'이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는 데다 비중이 27.7%로 그 외 지역(28.8%)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함(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267)

39) 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2023),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p.273~281 참고

$(365 \div 12 \times 3)$ - 외식으로 인한 가정식 비용 감소분'으로 산출

□ 가정식 비용의 계측

- (품목선정)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22)의 식품이 분류방식에 준해 10개 중분류의 세부품목으로서 소득 하위 40% 이하 4인 가구의 식료품 중분류 범주 내 지출 비율이 0.5% 미만인 식료품 품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으로 선정
- (사용량(구입량) 결정)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제시된 성별, 연령별 열량을 고려해 33개 영양권장량 충족하도록 구입량을 정함. 또한 식료품별 폐기율 고려함(구입량 $\times (1 - \text{폐기율}^{40})$). 이때 규범적 측면 고려해 지역간 차이 반영 안함
- (가격결정) '구입량 $\times$ g 당 가격'으로 정함. 2023년 1월 기준으로 하되 어패류, 채소, 과실류 등은 성수기 기준으로 정함. 소비자물가지수 중 식료품비 항목의 물가변동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수산물 가격정보(KAMIS),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

□ 외식비의 계측

- 가족단위 외식비: 가구원 생일 고려해 연간 총 4회(월4/12=0.33)로 설정. 2020년 외식비인 4만9,128원에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의 외식비 인상을 13.6%를 반영해 5만5,809원으로 정함
- 가장 중식비: 임금근로자로 가정. 주 5일의 중식비 산출. 2017년 외식비 4,913원에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의 외식비 인상을 13.6% 반영해 끼니당 5,581원으로 정함
- 학생 급식비: 월 16.08회(=연간 수업일수 193일/12개월), 학교알리미 학생 1인당 급식비(2022.5.)를 적용해 정함

(2)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⁴¹⁾

- 가정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가구구입, 수리비용과 가사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구입 비용을 포함. 큰 규모 집기부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집기까지 포함

40) 식료품별 폐기율은 「식품 영양소 함량자료집」(한국영양학회, 2009)을 적용(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277에서 재인용)

41) 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2023),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p.310~315 참고

□ 일반가구, 가정용기구,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소모품, 침구 및 직물, 가사서비스'의 6개 중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하위영역을 구성

□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계측

- (품목선정) 필수품 선정은 기본적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 탄력성, 국민생활실태조사(4인 가구 심층조사)의 보유율을 이용하여 선정
 - 가계동향조사(2022)의 품목별 탄력성이 0.5이하인 경우를 포함
 -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보유율이 2/3이상(=67% 이상)인 경우도 필수품으로 판단하여 조정함. 이외 각종 통계자료(주요 가전기기 규격별 보급현황 등)의 보유율 및 필수품 인식정도 등을 고려함
- (사용량·구입량) 결정) 사용량에는 이하의 기준 적용. 1)가구전체가 사용가능한 것은 사용량을 1개로 설정(예: 냉장고). 2)방마다 필요한 것은 주거모형상 표준 방수인 3개로 설정(예: 전구). 3)이불, 베개 등 가구원 수마다 필요한 물품은 표준가구원수인 4개로 설정(예: 베개). 4)성인 수만큼 필요한 물품은 성인 수인 2개로 설정. 5)학생수만큼 필요한 물품은 학생 수인 2개로 설정(예: 책상). 6)방문객이 있는 경우 필요한 물품은 가구원수의 2~3배의 수로 설정(예: 밥그릇). 7)기타 품목은 실태조사의 대푯값을 적용
- (내구연수) 사용가치로 정하되 소비심리, 유행 등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민생활실태조사(4인 가구 심층조사)의 개별품목 내구연수의 대푯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고려함
- (가격결정) 중하품으로 통계청의 물가지수 변화(2023년 1월 기준)를 반영하여 정함. 물가지수 반영이 어려운 경우는 시장가격 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4인 가구 심층조사)의 대푯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 적용

(3) 최저 피복·신발비⁴²⁾

□ 기본적인 필요측면에서 신체보호, 적정 체온유지, 보건위생측면의 청결유지를 고려하고 노동재생산을 위한 필요성 및 체면유지와 같은 최소한의 문화, 사회적 욕구를 고려하여 정의함

□ 외의, 스웨터 셔츠, 내의, 기타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서비스, 직물·실의 7개 중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하위영역을 구성

42) 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2023),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p.316~320 참고

□ 피복·신발비의 계측

- (품목선정) 기본원칙으로 1)신체보호, 적정 체온유지, 보건위생 측면의 청결 유지 등 기본필수품에 해당되는 품목, 2)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품목, 3) 노동재생산에 필요한 품목으로 선정하되, 사회문화적인 품목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의 타력성이 0.5이하이거나 국민생활실태조사(4인 가구 심층조사) 보유현황 비율이 2/3이상(=67%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
- (사용량(구입량) 결정) 가구원별 1점(또는 벌)을 기본, 속내의의 경우 세탁을 고려하여 2점(벌)을 기본, 세탁료 및 의복수선료는 실태조사의 대푯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정
- (내구연수) 사용가치로 정하되 학생의 경우 신체발육(예. 내의류 등)과 수업연한(예, 교복)을 고려함
- (가격결정) 중하품으로 통계청의 물가지수 변화(2023년 1월 기준)를 반영하여 정함. 물가지수 반영이 어려운 경우는 시장가격 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4인 가구 심층조사)의 대푯값(최빈값, 중위값, 평균값) 적용. 교복비의 경우 학교알리미의 전국 교복 가격(2022년 9월)을 가중 평균하여 적용

(4) 최저 보건·의료비⁴³⁾

□ 보건·의료비는 질병 예방, 치료 및 신체의 교정 등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지만, 보건·의료비는 보건수준에 대한 사회적 기본욕구(basic need) 중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를 충족시키는 비용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즉, 따라서 인지되지만 표출되지 않는 미충족 욕구도 존재하며 인지되지 않는 욕구도 고려해야 함

□ 2004년 이후 최저 보건·의료비는 국민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해 계측하고 있으며⁴⁴⁾,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구입비, 보건의료용품구입비, 그리고 미충족 욕구비용으로 구성됨

43) 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2023),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p.321~329 참고

44) 기존연구에서 보건·의료비 계측의 방법은 1)건강보험 및 의료급여통계연보 등 2차 자료를 활용해 평균적인 의료 서비스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을 쓰는 방법, 2)실태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분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활용을 위한 최저 보건·의료비 계측의 경우, 2004년 이후부터 저소득층 의료이용 행태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후자의 방식, 즉 국민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해 계측됨(임완섭·김문길·김태완 외, 2023: 321~322)

최저 보건·의료비 = 보건의료서비스비 + 의약품비 + 보건의료용품비 + 미충족욕구

- 보건의료서비스비 = 입원진료비 + 외래진료비 + 처방전 약값
- 의약품비 = 비처방전 약값
- 보건의료용품비 = 안경 + 위생대 + 미세먼지 마스크
- 미충족욕구 =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주관적 부족 의료비
(저소득에 따른 미충족 의료욕구 해결을 위한 잠재적 비용)

□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구의 계측

○ (평균 의료비 적용)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구는 국민생활실태조사 소득 하위 40%이하 4인가구의 평균적인 의료비 비용을 계측하는 방식으로 산정함. 이때 유의미한 보건의료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인구특성을 가진 가구는 제외함

- 보건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구의 유의미한 비용지출을 발생시키는 가구특성은 아래의 회귀식으로 도출. 최종적으로 ‘4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구(노인가구의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 낮으나 표준가구와 차별적 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함)’로 정함

$$\ln(E) = \text{CONSTANT} + a \text{ CHRONIC} + b \text{ CHILD} + c \text{ OLD} + d \text{ REGION1} + e \text{ REGION2} + f \ln(Y)$$

- E= 월평균 보건의료서비스비
- CHRONIC= 만성병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 CHILD= 4세 이하 아동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 OLD= 65세 이상 노인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있음=1, 없음=0)
- REGION1= 대도시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대도시=1, 기타=0)
- REGION2= 농어촌지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농어촌=1, 기타=0)
- Y= 가구경상소득

- 미충족욕구는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의 50%를 반영

□ 보건의료용품비의 계측

- (품목선정) 별도의 마켓바스켓을 구성하여 안경(가계동향조사,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 소득탄력성이 낮고, 1.2명이 이용하기 때문), 위생대(규범적 측면 고려), 미세먼지 마스크로 선정
- (내구연수 및 사용량)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용량 및 내구연수를 조정. 안경의 경우 26개월, 가구당 1명, 위생대의 경우 여성 배우자와 15세 여아 각각 개월당 25개, 미세먼지 마스크의 경우 최근 2년 평균 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일 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

- (가격결정) 안경은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중위값 적용, 위생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조정

나. 표준보육비 및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

1) 표준보육비 산출 모형⁴⁵⁾

- 표준보육비용 산출은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산출함
 - 각 항목에 대해 어린이집 규모별로 아동 연령별 값을 산출한 후, 합하는 형태로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함
- 인건비는 어린이집 규모별 반 구성 및 인력배치를 구성한 후 각 인력에 대한 급여 수준을 정하여 이들의 합으로 산출함
 - 인건비에 포함되는 인력으로는 원장, 담임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보조교사 등임
 - 보육사업안내의 어린이집 배치 기준 및 어린이집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로 각 인력이 몇 명씩 필요한지를 정하여 어린이집 규모별 반 구성 및 인력배치를 구성함
 - 각 인력에 대한 경력과 급여 실태를 고려하여 각 인력별 급여 수준을 정함
 - 앞선 어린이집 반 구성 및 인력배치에 인력별 급여수준을 곱하여 인건비를 산출하고 아동수로 나누어 연령별로 인건비를 산출함
- 교재교구비는 실내 교재교구와 소모품으로 구성되며, 연령별 교재교구 목록을 작성 후, 교재교구 가격을 조사하여 합계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 교육과정 및 어린이집 실태를 고려하여 연령별 실내 교재교구 목록과 소모품 목록을 작성함
 - 목록에 포함되는 각 품목의 가격에 필요수량을 곱하고 내구연한을 나누어 산출값을 구한 후 총계로 산출함
- 급간식비는 연령별 표준 식단 및 식재료 리스트를 작성한 후 재료 가격을 조

45) 해당 내용은 김동훈·최윤경·강은진 외(2022)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사하여 식단을 만들기 위한 비용(재료)의 합계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을 고려하여 사계절 연령별 표준 식단을 작성하고, 식단에 필요한 식재료 목록과 필요량을 작성함
 - 해당 식재료의 가격에 필요량을 곱하여 식단에 필요한 재료비 총액을 구함
 - 아동 연령별 1일 평균 식단가로 급간식비를 산출함
- 관리운영비는 공공요금, 사용료, 일반운영비, 복리비 등의 세부목록을 구성한 후 어린이집 실태를 고려하여 규모별 각 항목의 금액을 산출하여 합하는 형태로 산출함
- 보육사업안내의 예산과목과 어린이집 지출항목 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비 세부목록을 작성함
 - 규모별로 관리운영비 세부항목의 개별 지출액을 산출하여 합하는 형태로 총액을 구한 후 영유아 1인당 관리운영비를 산출함
- 시설비는 시설유지비와 실외 및 비품성 교재교구비로 구성됨
- 시설비유지비는 어린이집 신축비를 바탕으로 내용연수와 할인율을 고려하여 수선 및 교체비에 투입되는 유지관리비로 한정하여 어린이집 1인당 매월 소요되는 시설유지비를 등가법으로 산정함
 - 실외 및 비품성 교재교구비는 앞선 교재교구비와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목록을 작성하여 가격에 수량을 곱하고 내용연수를 나누어 산출함
- 구성항목의 연령별 1인당 비용을 산출한 것을 합하여 연령별 아동 1인당 표준 보육비용을 산출함

2)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모형⁴⁶⁾

- 표준유아교육비는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유치원에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여 산출함
- 표준유치원 연령별 학급편성 모형을 설정하여, 학급 당 원아수에 따른 유치원 규모별 연령별 표준원아 수와 표준교직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수 모형을 설정함

46) 해당 내용은 박진아·김동훈·김정숙 외(2023)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표준유치원 모형에 따른 국가 전체의 표준 교직원수와 유치원수에 항목별 산출액을 곱해 유아교육비 총액을 계산한 후 표준원아수(혹은 실제원아수)로 나누어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함
- 표준인건비는 유형별(공립/사립)로 교원과 직원의 급여실태를 고려하여 1인당 평균단가를 정한 후, 국가 전체의 표준 교원과 직원 수를 곱하여 표준인건비 총액을 산출함
- 표준교육활동경비는 교구비와 재료비 및 설비비 합으로 산출함
 - 교구비는 연령별로 목록을 작성한 후 각 항목을 유치원 단위 교구비와 학급 단위 교구비 그리고 원아 단위 교구비로 구분함
 - 각 항목에 대한 교구별 소요물량에 단위단가를 곱한 후 내구연한을 나누어 계산한 후 이들의 합으로 연령별 교구비를 산출함
 - 최종적으로 교구비는 연령별 유치원 단위 교구비에 학급 단위 교구비 연령별 평균과 원아 단위 교구비 연령별 평균을 합하여 계산함
 - 재료비도 교구비처럼 연령별 재료비 목록을 작성한 후 각 항목에 소요물량과 단위단가를 곱하여 총액을 계산한 후 연령별 재료비의 평균액으로 산출함(다만, 재료비는 학급당 비용으로 구분함)
 - 설비비도 교구비와 마찬가지로 설비비 목록을 구성한 후 유치원 단위, 학급 단위, 원아 단위로 구분하고 개별 항목에 대해 소요물량과 단위단가를 곱한 후 내구연한을 나눈 합으로 산출함⁴⁷⁾
 - 교구비, 재료비 및 설비비를 유치원 단위, 학급 단위, 그리고 원아 단위로 합한 후 국가 전체의 표준유치원 수(유치원 및 학급 수)와 표준원아수에 곱한 후 합하여 표준교육활동경비 총액을 산출함
- 표준공동운영경비는 지원인력, 공공요금 및 제세, 기본적 경비, 학생복지 경비 등 4가지로 구성됨
 - 표준유치원 모형을 기반으로 유치원의 실태를 반영하여 표준유치원 유형별 규모별 면적을 정함
 - 각 세부항목들을 유치원 단위, 학급 단위, 원아 단위로 구분한 후 항목별로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후 총액을 계산함

47) 설비비 내용은 김용남·김효정·김중환 외(2021)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유치원 단위, 학급 단위, 원아 단위 산출 총액을 표준유치원 수와 표준원아 수에 곱해 표준공동운영경비 총액을 계산함
-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및 표준공동운영경비 전체 총액을 표준원아수 (혹은 실제원아수)로 나누어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함

3. 양육비용 조사 항목 관련 선행 연구

가. 생애 초기 필수 육아용품/서비스 목록 관련 선행 연구

- 생애 초기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 비용 관련 선행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오기는 했음
 - 국내 생애 초기 육아용품 관련 선행연구로는 권미경·이정원·최효미 외(2016), 박진아·박상신(2018), 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2018), 최효미·최은영·박은영 외(2020)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권미경·이정원·최효미 외(2016)는 ‘작은 육아문화’에 지향점을 두고 육아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육아문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함
 - ‘작은 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합리적 소비문화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계절별 출산·육아용품 바스켓(예시)을 구성하여 제공함
 - 출산·육아용품 바스켓에는 출산 및 임신부 관련 용품과 유아기에 사용하는 용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생애 초기 육아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출산·육아용품 바스켓은 신생아 기본용품 등 총 79개 품목이 포함됨
- 박진아·박상신(2018)은 육아물가 산출 연구로, 주요 육아용품 및 서비스 품목별 물가를 산출함
 - 육아물가지수 산출을 위한 세부조사항목으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비용, 학원, 산후조리원(기본비용), 아이돌보미 등 육아서비스 이용비용과 우유, 두유 등 식품류를 포함한 33개 육아용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짐
 - 이 연구는 육아물가 산출에 초점이 있으므로, 생애 초기 육아용품(예: 분유, 기저귀)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영유아기 전체 기간 동안 사용하는 필수 육아물품 및 육아서비스 위주로 연구가 진행됨

- 예를 들면, 영유아 학습지, 남아 상하의 등
 - 또, 물가 산출을 위한 조사이므로 육아기 대표 품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생애 초기 육아용품 중 일부 필수 용품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예: 아기 욕조, 가제 수건 등)
- 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2018)는 영유아기 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연구로, 이전에 수행된 국내외 양육비용 연구를 개관하고, 양육비용 비목 분류를 위해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 품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 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2018)는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로, 비목별 양육비용 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각 비목에 해당하는 육아용품 및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함
 - 단, 각 비목에 속하는 육아용품의 분류 기준은 면접원 가이드 등에 포함된 내용으로, 조사와 결과 분석은 비목별 비용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품목별 비용은 알 수 없음
 -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 관련 비목은 대분류 기준 10개(세부 비목 7개 별도)임
 - 하지만, 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2018)는 'KICCE 소비실태조사' 본조사가 외에 공유 경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조사는 육아용품 및 육아서비스 구매 경험을 중심으로 조사가 실시됨
 - 온라인 설문에 포함된 육아용품/서비스는 문항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총 44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육아서비스 관련 품목으로 예방접종비,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영화 및 공연관람 비용, 키즈카페 이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상품으로 어린이보험이 포함됨. 단,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비용은 본조사 설문 문항으로, 온라인 조사에서는 제외
- 최효미·최은영·박은영 외(2020)는 중국의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용품 소비문화와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선호 등에 관한 연구임
- 한국 육아용품 구매 경험 및 구입 희망 사항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 주요 육아용품 목록이 제시됨
 - 육아서비스는 제외하고 물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1개 품목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실시됨

- 단, 일부 품목은 유사한 2개 이상의 품목을 묶어서 조사함. 예: 물티슈, 화장지, 면봉, 알코올 솜은 하나의 범주로 구분, 침구류(블랭킷, 속싸개, 겉싸개, 방수요 등)도 하나의 범주로 조사함

나. ‘KICCE 소비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생애 초기 영아의 양육비용

-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실질비용 기준)은 2018년 66만7천원이었으며, 코로나 19 확산 초기인 2020년 61만3천원으로 약간 낮아졌으나, 다시 상승하여 2022년에는 월평균 65만2천이였음(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 제시된 값은 실질비용(2020=100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기준이기 때문에, 명목비용을 기준으로는 2022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2018년 대비 약 5만원가량 상승한 수치를 기록
-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실질비용 기준)은 0세⁴⁸⁾는 1세에 비해 약간 높고, 1세 이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 2022)
 - 2022년 기준 0세의 양육비용은 58만9천원으로, 1세 55만2천원에 비해 3만7천원가량 높았음
 - 2세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55만3천원, 3세 62만8천원, 4세 67만7천원, 5세 75만1천원, 6세 73만6천원이었음
 - 0세의 양육비용은 2018년 54만2천원에서 2022년 58만9천원으로 실질 비용 기준으로도 4만7천원이 상승하여,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실질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2세, 4~6세(유아)는 2018년 대비 2022년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3-1〉 자녀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월평균, 실질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전체	66.7 (2,298)	66.4 (2,334)	61.3 (2,368)	65.5 (2,403)	65.2 (2,395)

48)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시기는 5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이므로, 0세는 상반기 출생아에 국한되어 월령이 6개월이하인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연령					
0세	54.2 (128)	54.0 (161)	53.3 (158)	51.6 (161)	58.9 (156)
1세	51.7 (267)	54.0 (298)	54.1 (321)	55.4 (316)	55.2 (321)
2세	57.9 (299)	58.9 (296)	53.6 (331)	59.8 (354)	55.5 (335)
3세	60.4 (360)	59.5 (337)	59.6 (333)	61.7 (367)	62.8 (396)
4세	71.3 (372)	67.8 (411)	61.5 (379)	68.6 (363)	67.7 (379)
5세	75.2 (407)	72.7 (408)	66.3 (424)	70.1 (404)	75.1 (392)
6세	78.1 (465)	83.2 (423)	72.2 (422)	78.9 (438)	73.6 (416)
F	22.3***	24.2***	15.2***	18.5***	16.8***

주: 1)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3) 연령은 생활연령을 의미함.

자료: 이정원·이재희·김자연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표 IV-2-9>.

*** $p < .001$.

□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명목비용 기준)⁴⁹⁾은 2022년 기준 0세가 63만 8천원으로, 1세(59만7천원)와 2세(60만원)의 양육비용에 비해 약간 높음

○ 3세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67만9천원, 4세는 73만3천원, 5세 81만2천원, 6세 79만6천원으로 조사됨

- 이는 3세(2세반) 이후 육아서비스 이용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사료됨

□ 비목별로는 0세의 경우 식비와 보건/의료비가 각각 월평균 11만6천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됨

○ 1세와 2세는 0세에 비해 식비가 크게 상승하여 각 16만3천원, 16만8천원으로 월평균 지출액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가 각 10만5천원, 10만9천원으로 높았음

○ 3세는 식비가 17만7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보육비가 12만9천원으로 다음이었으며, 여가및문화생활비도 12만3천원으로 2세에 비해 지출액이 더 높았음

○ 4세 이후 유아의 경우에는 교육/보육비가 크게 증가하여 가장 지출액이 높은 비목이었으며, 식비가 다음으로 높은 지출액을 보임. 월평균 지출액 기준으로는 4세 이후 유아의 식비가 3세 이전 영아의 식비에 비해 절대값 자체는 높음

49)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 원자료 분석 결과임.

- 0세의 경우 기기/집기(7만2천원), 피복류(7만5천원), 개인유지비(7만8천원) 등이 다른 연령에 비해 지출액이 많은 비목이었음
- 이는 생애 초기에 필요한 물품의 교체주기가 자녀 월령에 따라 빠른 것과 초기 구매 비용이 이 시기에 물리는 것의 영향으로 풀이됨
- 예를 들어, 젖병(기기/집기류)이나 기저귀(개인유지비) 등의 구입이 생애 초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표 II-3-2〉 연령별 및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2022년, 명목비용)

단위: 만원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총계	63.8	59.7	60.0	67.9	73.3	81.2	79.6
1.식비(외식비포함)	11.6	16.3	16.8	17.7	17.7	18.7	18.1
3.기기/집기	7.2	3.4	1.5	1.8	1.8	2.8	2.5
4.피복비(의류및신발)	7.5	6.9	6.6	6.8	6.6	6.9	6.7
5.보건/의료비	11.6	4.5	3.9	3.8	4.1	4.3	3.6
6.교육/보육비	3.9	2.6	7.3	12.9	20.1	24.2	27.0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8.0	10.5	10.9	12.3	11.7	12.8	10.9
7-1.가족여행 등	3.1	5.0	5.0	5.8	5.1	5.6	5.0
7-2.관람 체험학습	0.0	0.4	0.9	1.3	1.3	1.9	1.3
7-3.완구	3.1	3.4	3.0	3.1	2.9	2.7	2.4
7-4.도서구매	1.7	1.8	2.0	2.1	2.3	2.7	2.2
8.교통비	0.3	0.4	0.5	0.6	0.7	0.6	0.7
9.통신비	0.0	0.0	0.0	0.0	0.0	0.1	0.1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7.8	7.7	5.7	4.4	3.2	3.3	2.8
11-2.보험	5.7	7.2	6.8	7.7	7.3	7.5	7.2

주: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 원자료.

*** $p < .001$.

- 가구소득에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령별로 산출해보면, 0세가 12.9%로 가장 낮기는 함⁵⁰⁾
- 1세 이후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비목별로는 4세 이상 유아의 경우 교육/보육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인데 반해, 3세 이하 영아의 경우에는 식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비목이었음.

50)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 원자료 분석 결과임.

- 0세의 경우에는 가구소득 중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생애 초기 아동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등이 국가 부담으로 전액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임

〈표 II-3-3〉 연령별 및 비목별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2022년, 명목비용)

단위: %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총계	12.9	13.6	13.8	14.3	15.1	16.9	16.7
1.식비(외식비포함)	2.5	3.8	4.0	3.9	3.7	4.1	3.9
3.기기/집기	1.4	0.8	0.3	0.4	0.3	0.6	0.5
4.피복비(의류및신발)	1.6	1.6	1.6	1.5	1.4	1.5	1.5
5.보건/의료비	2.1	1.1	0.9	0.8	0.9	0.9	0.8
6.교육/보육비	0.7	0.5	1.5	2.5	4.0	4.7	5.4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7	2.3	2.5	2.5	2.3	2.6	2.2
7-1.가족여행 등	0.7	1.1	1.1	1.1	1.0	1.1	1.0
7-2.관람 체험학습	0.0	0.1	0.3	0.3	0.3	0.4	0.3
7-3.완구	0.6	0.7	0.7	0.7	0.6	0.5	0.5
7-4.도서구매	0.3	0.4	0.4	0.5	0.5	0.5	0.4
8.교통비	0.1	0.1	0.1	0.1	0.2	0.1	0.2
9.통신비	0.0	0.0	0.0	0.0	0.0	0.0	0.0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7	1.8	1.3	0.9	0.7	0.8	0.6
11-2.보험	1.2	1.7	1.5	1.6	1.6	1.5	1.5

주: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 원자료.

*** $p < .001$.

4. 소결 및 시사점

가. 정책 현황으로부터의 시사점

- 최근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영아기 집중투자 기조가 강화되면서, 부모급여(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이 크게 확장되었음
- 생애 초기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현물 지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책은 아니며, 해외 다수 국가에서 시행 중임

- 지원의 방식이 현금 형태인 경우(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도 있고, 현물(핀란드, 스코틀랜드 등)인 경우도 있으며, 가구 특성에 따라 선별적 지원 혹은 차등적 지원(프랑스, 싱가포르 등)되는 경우도 있음. 즉, 국가별로 각국의 상황에 맞는 형태의 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핀란드는 현물(출산 패키지)과 현금(170유로) 지원 중 선택이 가능한 형태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현금 170유로 한화 25만원⁵¹⁾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스코틀랜드나 호주의 경우에도 현물 지원 물품은 생필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금액적 측면에서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반면, 현금 지원의 형태를 가진 국가의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에는 출산 지원금과 아동 대상 급여의 성격이 제도 내에 포함되어 있어 지원금 수준이 높은 편임
- 한국의 ‘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보편, 균등 지원되는 제도로, 바우처 형태의 현금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수준은 200만원으로, 현금 지원 형태를 가진 일본, 싱가포르 등에 비하면 지원금이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에 부모급여나 지자체 출산 지원금 등의 생애 초기 현금 지원 제도의 지원금을 합산할 경우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해 지원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함
- 즉, 한국의 생애 초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출산 지원 정책(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지자체 출산 지원금 등)은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해 제도 도입이 늦은 편이긴 하나, 포괄 범위(지원 대상)가 폭넓고, 지원금 수준도 높은 현금 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핀란드의 출산 패키지 등은 역사가 매우 긴 현물 형태의 출산 지원 정책인데, 출산 패키지(Maternity package)인 베이비 박스에 포함된 물품은 총 38종으로 이불, 바디수트, 아기케어 용품(손톱 가위, 목욕온도계 등) 및 산모위생용품(산모용 패드 등)으로 신생아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생필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스코틀랜드나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의 출산 패키지

51) 환율 1,455원 적용(2024. 1. 24일 기준).

의 경우에도 주로 출생 후 수개월 내에 사용하게 되는 생필품 및 산모 위생용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현물 패키지의 경우 주로 침구류와 피복류, 위생 및 청결과 관련된 아기케어용품, 출산 직후 산모를 위한 위생용품이 주된 물품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큰 금액은 아님

- 유모차, 카시트와 같은 기기/집기류, 젖병이나 식품류 등을 패키지 지원 물품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젖병과 식품류의 경우 모유수유 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고, 아기의 특성과 체질에 따라 개인차가 크게 발생하는 용품으로, 현물로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지원 물품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시 해외 현물 지원 물품 목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우 제한적인 물품에 대한 최소 수준에 가까운 비용이 산출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같은 생필품 위주의 물품 구성은 정부 지원금의 커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 최저 수준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임

□ 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임

○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은 육아지원 정책의 성격과 함께 인구정책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출생 시점을 기준으로 생애 초기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띠고 있음

○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도 현물 지원보다는 현금 지원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

○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지원 수준이 최소 10만원에서부터 최대 2,400만원까지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음

- 단,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지방자치 영역에 속하는 지원으로, 지역 간 편차를 일률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할 뿐 아니라 지역별 상황이 모두 상이하므로 현실적으로 격차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의 생존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 이상의 지원은 중앙정부 주도(혹은 지자체 의무 부담)로 전국 공통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전적으로 지자체 자원에 맡길 경우 생애 초기 아동에 대한 초기 투자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더욱 확대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선심성 지원으로 인해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

나. 선행 연구로부터의 시사점

-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측되는 것으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마켓바스켓을 구성하여 계측함
 - 최저생계비는 지원 대상이 빈곤층으로 가구 대상 지원이므로, 산출 기준 대상이 4인 가구이며, 품목의 구성은 생계유지를 위해 절대적 필요가 있는 물품뿐 아니라 품위유지 차원도 고려하여 산출
 - 즉, 최저생계비라 할지라도 최저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품에 더해 보유빈도가 높은 품목을 포함하여 산출함
 - 이를 통해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또한 앞서 해외 국가의 현물 지원 물품 범위를 초과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활용 및 보유빈도가 높고 필수품으로 인지되는 물품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보다 부합하는 기준임을 알 수 있음
 - 단, 양육비용은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성인 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원이 함께 사용하는 생필품 및 일상용품은 적정 양육비용 산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화장지, 냉장고 등은 일상적인 가구 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속하나, 양육비용 산출 시에는 제외. 단, 비누 등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성인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을 아동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신생아용 비누 등이 별도로 존재하고 물품의 기능성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용 산출 시 포함함
- 최저생계비 계측 시 물품의 특성에 따라 산출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남
 - 기기/집기류는 내구연수를 반영하여 산출하며, 식품의 경우 영양권장량, 주거비용은 최저주거 기준 등의 규범적 기준을 필요수량 산출의 근거로 갖는 등의 방식임
 - 최저생계비 기준 가격 결정은 계절성을 반영하여 성수기, 품질은 중품 및

중저품을 적용하고, 통계청 물가지수 산출에 포함된 품목은 품목별 소비자 가격을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저소득 가구 소비 가격의 대푯값을 적용함

- 이 연구의 적정 양육비용 산출 모형도 최저생계비 모형을 참고하여, 1차적으로 시장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시장 가격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12개월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실제 구매 행태를 반영하여 비용 산출
 - 그러나, 이 연구는 조사 대상 기간이 9월부터 11월이고, 시장 가격 조사 기준 시점은 12월로, 계절성이 반영되지는 않음
- 한편, 양육비용 산출에 포함되는 기기/집기류 중 내구연한이 매우 긴 품목(예: 서랍장 및 옷장 등)은 내구연한을 반영하여 가격 반영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필수 육아용품 구성 시 기기/집기류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매우 긴 용품을 가능한 제외하고, 생애 초기 필요 물품으로 국한하여 조사함. 예를 들면, 아기 침대의 경우에도 아동기까지 사용 가능한 침대를 생애 초기에 구매할 수도 있으나, 시장 가격 조사 시 가능한 신생아용 침대 가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임
 - 육아용품의 경우에는 사용기간(내구연한)이 짧은 대신 중고거래 등으로 인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비용 산출 시 이러한 공유경제 상황을 내구연한 대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표준보육비 및 표준유아교육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단가 결정의 기준점이 됨
- 따라서, 인건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 양육비용 산출과는 무관한 항목이 많으며, 산출 단위도 학급당, 원당 비용 등으로 아동당 비용 산출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최저생계비와 마찬가지로 교재교구비 산출 시 내구연한의 반영, 영양섭취기준을 고려한 표준 식단표에 근거한 급식비 산출 등은 양육비용 산출 시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줌
- 생애 초기 필수 육아용품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통상 신생아기 생계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피복 및 침구류, 아동 위생용품, 아동 돌봄을 위해 필요한 기기/집기류, 장난감류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선행연구에 포함된 필수 육아용품 리스트는 생애 초기 필수 육아용품 선정 목록 작성 시 최초 기준 자료로 활용됨
- 아동당 양육비용은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영유아기 내에서도 0세의 양육비용은 1세의 양육비용에 비해 높은 특징이 있음
- 2022년 기준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명목비용 기준)은 0세가 63만8천원으로, 1세 59만7천원이나 2세 60만원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경향성을 보임
 -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연령 구분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0세는 조사 시점(5~8월) 특성으로 인해 당해연도 상반기 출생아만 포함되므로, 0세의 양육비용은 월령이 6개월 전후인 아동의 양육비용으로 볼 수 있음. 또, 최근 3개월간의 일상적인 지출(양육비용)을 월 평균하여 조사하고 있으므로, 일시금 형태의 지출(특히 기기/집기류)은 0세의 양육비용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자료의 특성을 감안한 상태에서도 0세의 양육비용이 1세의 양육비용에 비해 높다는 점은 출생 후 수개월 이내에 일시적으로 가계 지출에 부담을 주는 소비(물품 구매)가 집중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내포함
- 유아기 아동의 양육비용이 영아기 아동에 비해 높은 이유는 교육/보육비와 식비 지출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기 때문임
 - 0세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기기/집기류 지출이 매우 높고, 피복류 지출 비용도 높은 편임.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지출 비용도 0세와 1세는 2세 이상 영유아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임
 - 또, 0세의 경우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평균 11만6천원으로, 1세 이상 영유아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4만원 전후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는 출생 전후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즉, 이들 비목에 해당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생애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품목/서비스임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이들 비목에 속한 물품/서비스는 생애 초기 양육비용 산출 시 필수 육아용품(의료서비스 포함) 목록과 거의 일치되는 품목으로, 이를 중심으로 생애 초기 양육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됨

III

조사 설계 및 개요

01 가구 조사 개요

02 시장 가격 조사 개요

Ⅲ. 조사 설계 및 개요

1. 가구 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 산출 기준 월령 : 아동 월령 기준 0~12개월

- 태어나서부터 12개월 이내의 아동의 양육비용에 초점을 두어 산출
 - 아동의 출생연도보다는 해당 월령 기간 동안의 비용이 중요
- 첫만남이용권 지원 기간에 해당하는 월령의 아이들의 양육비용을 산출

□ 조사 대상(소비지출) 기간

- 아동이 12개월이 되기 전까지의 소비지출로, 육아용품 종류에 따라 소비지출 조사 기간이 상이함
- 단, 구매 경험은 회고 오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문항에서 최근 3개월(2023. 9. ~ 2023. 11.) 동안의 구매 경험을 조사함
 - 구매 경험을 묻는 문항의 조사대상 기간을 최근 3개월로 설정한 이유는 연간 단위로 조사할 경우 회고 오류 및 응답자 응답 부담 가중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 예: 분유의 경우 연간 단위로 조사하면 모유 수유하다가 6개월 이후 분유를 먹이기 시작한 경우 응답 값의 해석이 애매해지고, 분유에 대한 지출비용을 과다/과소 추정하게 될 위험이 높음
 - 구매 경험을 생후 12개월 동안으로 해서 조사할 경우, 응답자의 월령이 섞인 상황에서 월령이 긴 아동의 양육비용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함. 즉, 월령이 2개월인 아이는 2개월의 비용만 들어가고, 10개월인 아이는 10개월의 소비액이 전부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
 - 반면, 구매 주기가 현저히 길고 일회적인 경우에는 지난 3개월 구매 경험으로는 물품 소비량을 오히려 과소 추정하게 될 위험이 있어, 기기/집기

의 경우에는 12개월 이내 보유(보유 유무 및 보유 계획 포함)를 기준으로 조사함

- 한편, 최근 3개월의 경우 계절성 소비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나, 조사 대상 기간이 9월~11월(가을)이므로, 여름과 겨울의 중간값이라고 볼 수 있음.

□ 조사 대상자(출생연월) : 2022년 10월생~2023년 9월생

- 월령별 50명×12개월 = 600명
- 조사 대상(소비지출) 기간과 산출 기준 기간을 고려하여, 0~12개월 모든 월령의 아동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할당
- 표본 할당이 월령별로 이뤄지는데, 출생월에서 60일 정도는 부모의 조사 참여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표집 대상에서 제외함
 - 가장 어린 표본은 2023년 9월생으로, 최근 3개월 이내(9월~11월) 구매 경험을 조사할 경우 출생 시점(0개월)의 물품 구매 현황이 포함되어 조사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월령을 설정하였음

〈표 III-1-1〉 출생연월별 월령 기준표

출생연도	2022			2023								
	10	11	12	1	2	3	4	5	6	7	8	9
2023. 9. 1. 기준 월령	11	10	9	8	7	6	5	4	3	2	1	0
2023. 10. 1. 기준 월령	12	11	10	9	8	7	6	5	4	3	2	1
2023. 12. 1. 기준 월령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주: 해당월 1일 출생 기준.

나. 모집단 및 표본 추출

- 응답 대상 가구는 ‘첫만남이용권’ 수급 정보(한국보육진흥원 행복e-음 DB)를 활용하여 표본 추출
 - 응답 대상 가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령별로 50가구씩 할당 표집하였으며, 전체 표본 기준으로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비례 할당함

- 2022년 10월생~2023년 9월생 중 첫만남이용권 수급 정보가 확인된 대상자(모집단)는 총 20만5,437명으로, 대도시 거주자 8만2,254명, 중소도시 거주자 9만2,504명, 읍면지역 3만679명이었음
- 월령별로 2023년 9월생은 1만7,834명이었고, 2022년 10월생은 1만7,174명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2022년 12월생이 1만3,986명으로 가장 적고, 2023년 1월생이 1만9,174명으로 가장 많음
 - 단, 이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의 수가 600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월령별 아동수와 무관하게 할당표집을 실시함
- 전체 모집단 표본 중 약 0.3%가 조사 대상 표본의 수입

〈표 III-1-2〉 월령 및 지역규모별 모집단 분포

단위: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전체
23년 9월생	6,906	8,120	2,808	17,834
23년 8월생	7,091	8,258	2,940	18,289
23년 7월생	7,188	8,288	2,986	18,462
23년 6월생	7,009	8,069	2,914	17,992
23년 5월생	6,909	7,648	2,629	17,186
23년 4월생	6,147	7,062	2,229	15,438
23년 3월생	7,140	7,911	2,532	17,583
23년 2월생	6,651	7,541	2,362	16,554
23년 1월생	7,940	8,539	2,695	19,174
22년 12월생	5,703	6,325	1,958	13,986
22년 11월생	6,428	7,105	2,232	15,765
22년 10월생	7,142	7,638	2,394	17,174
계	82,254	92,504	30,679	205,437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행복e-음 DB 첫만남이용권 수급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

-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월령별 아동 수와 무관하게 각 월령별로 50명씩 할당 표집을 실시함
- 각 월령 내에서는 지역규모별 월령별 아동수를 고려하여 비례 할당을 실시함
 - 전체 표본 기준으로 대도시 거주 아동은 240명, 중소도시 271명, 읍면지역은 89명을 목표 표본으로 설정함

- 월령별로는 대도시는 19명에서 21명까지 약간의 차이가 있고, 중소도시는 22~23명이 할당되었으며, 읍면지역은 7~8명을 조사함

〈표 Ⅲ-1-3〉 월령 및 지역규모별 표본 할당

단위: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전체
23년 9월생	19	23	8	50
23년 8월생	19	23	8	50
23년 7월생	20	22	8	50
23년 6월생	20	22	8	50
23년 5월생	20	22	8	50
23년 4월생	20	23	7	50
23년 3월생	20	23	7	50
23년 2월생	20	23	7	50
23년 1월생	21	22	7	50
22년 12월생	20	23	7	50
22년 11월생	20	23	7	50
22년 10월생	21	22	7	50
계	240	271	89	6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행복e-음 DB 첫만남이용권 수급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

다. 조사 방법 및 조사 시기

- 조사 방법 : 자기 응답식 온라인 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기 응답 방식으로 조사
 - 온라인(모바일 포함) 조사 설문 송부 이전에 표집된 조사 대상 가구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조사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조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온라인 링크를 송부하여 조사를 실시함
- 조사 시기 : 2023. 12. 5. ~ 2024. 1. 3.
(단, 일부 표본에 대한 보강조사는 2024. 1. 26까지 실시됨)

라. 조사 내용

- 1) 주요 설문 내용
 - 가구조사의 주요 설문 내용은 크게 4개 부문으로 구분됨

-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설문은 필수 육아용품에 대해 필수여부 및 필요수량, 구매경험(최근 3개월 이내 구매 여부, 구매량, 구매 가격)을 질문하는 문항임
 - 단, 큰 틀에서는 필수여부 및 필요수량, 구매경험을 각 품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육아용품의 특성에 따라 설문의 구성 방식과 질문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구성됨
 - 예를 들면, 피복류는 필요수량을 질문할 때 소요기간을 고정으로 부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한 데 반해(12개월 동안 몇 개가 필요한가?), 기기/집기류는 필요수량이 아닌 현재 보유수량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소모품류는 용량(ml 혹은 g)과 수량(팩/개)을 각각 질문함.
 - 특히, 식품류의 경우에는 섭취량을 기준으로 질문하여, 설문의 구조가 다른 육아용품들과는 완전히 상이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공유경제 관련 설문으로 중고거래, 대여하기, 물려받기한 물품 종류와 이로 인해 절약된 양육비용을 조사함
- 육아서비스는 이번 조사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으나,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와 관련하여서는 병원 방문 횟수와 지출 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사함
 - 가정용 상비약(아기전용 해열제 및 연고 등)의 구매 여부 혹은 구매 계획을 ‘예/아니오’로 간략하게 질문함
- 가구 특성 및 응답자 특성과 관련한 설문으로 자녀수, 자녀 출생연월 및 성별, 거주 지역, 부모의 연령과 최종학력 및 취업상태,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비 지출액과 자녀 양육비용을 조사하였으며, 소비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육아용품 구매 시 우선 고려 사항, 첫만남이용권 주요 사용처를 조사함

〈표 III-1-4〉 가구 조사 주요 설문 내용

구분		주요 설문 내용
육아 용품	피복류	- 필수 여부 및 필요수량 - 구매 여부, 구매 수량, 구매 가격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	- 필수 여부 및 필요수량 - 구매 여부, 구매 수량, 구매 가격
	식품류	- 모유수유 여부, 분유 섭취량(소비량) - 분유 구매 경험 및 구매 가격 - 이유식 시기 여부, 이유식 섭취량 - 시판 이유식 구매 경험 및 구매 비용

구분		주요 설문 내용
		- 시판 이유식 이외 집에서 만들어서 먹이는 이유식에 들어간 비용 - 간식 섭취 여부, 구매 경험 및 구매 비용
	기기/집기류	- 필수 여부 - 보유 여부 및 보유수량 - 직접 구매 여부, 구매 수량, 구매 가격 - 향후 보유 계획 및 보유 계획 수량
	소모품류	- 필수 여부, 필요 용량 및 필요수량 - 구매 여부, 구매 용량 및 구매 수량, 구매 가격
	기타 필수 육아용품	- 품목명 - 필요 수량 : 소요주기별 필요수량 - 구매 여부, 구매 수량, 구매 가격
공유경제	중고거래	- 중고 거래 한 물품 - 중고거래로 절약된 비용
	대여하기	- 대여하기 물품 - 대여하기로 절약된 비용
	물려받기	- 물려받기 물품 - 물려받기로 절약된 비용
의료서비스		- 병원 방문 경험 - 입원 횟수, 입원 일수, 소요 비용 - 외래 횟수, 소요 비용 - 가정용 상비약 구매 여부
가구 및 응답자 특성		- 자녀 수, 자녀 출생연월 및 성별, 거주 지역 - 부모 : 연령, 최종학력, 취업 상태 - 육아용품 구매시 우선 고려사항 - 첫만남이용권의 주된 사용처 - 월평균 가구소득, - 월평균 가구소비 지출액 및 자녀 양육비용

2) 필수 육아용품 목록 선정

☐ 신생아(0~12개월) 물품으로 한정하였으며, 부모들이 생각하는 필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물품 포함.

☐ 물품 목록 정리 절차

○ 1차: 권미경·이정원·최효미 외(2016). 박진아·박상진(2018). 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2018). 최효미·최은영·박은영 외(2020) 등을 참조하여, 연구진이 수정 보완함.

○ 2차: 육아용품 박람회 및 부모 심층 면담,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리 (해당 물품 목록을 기준으로 가구 조사 실시)

- 3차: 추후 물품 구매 주기나 구매 패턴, 비목 등을 고려하여 재정리 (산출 비용 모형에 적용).
- 물품 비목의 정리 절차와 사유는 [부표 1]에 자세하게 제시함.
- 최종적으로 가구조사 설문에 명시된 육아용품은 피복류(13개 품목), 수유용품 관련 용품 및 식기류(7개 품목), 식품류(분유, 이유식, 간식류), 기기/집기류 (12개 품목), 소모품류(4개 품목)로, 39개임
- 일부 물품은 여러개 물품을 하나의 품목으로 질문하고 있어, 실제 품목 수는 39개보다는 약간 많음
 - 예: 식기에는 그릇, 식판 컵, 수저 등을 모두 포괄되며, 아기띠/힙시트/포대기로 하나의 범주로 조사함
- 한편, 설문에 품목명이 명시된 39개 육아용품 이 외에도 기타 육아 필수용품을 문자로 기입하도록 하여 조사함
- 가구 조사 완료 기준 총 109개의 품목이 응답되었으나, 앞의 목록과 중복되는 물품이나 하나의 범주로 통합 가능한 물품을 응답한 경우가 다수 있어, 데이터 정제 과정 및 보강 조사를 거쳐 61개 품목으로 정리됨
 - 이 중에서 전체 목표표본 600개의 5%에 해당하는 30개 이상 가구에서 응답된 물품은 총 7개임
 - 기타 필수 육아용품에 대한 질문에서 30개 이상 가구에서 문자로 응답된 7개 품목은 방수요(58가구), 장난감(44가구), 기저귀 갈이대(37가구), 물티슈(36가구), 역류방지쿠션(34가구), 모빌(30가구), 젖병소독기 등 젖병소독용품(48가구)임

〈표 III-1-5〉 기타 필수 육아용품 목록_30개 이상 응답 품목

품목명	빈도	품목명	빈도
방수요	58	물티슈	36
장난감	44	역류방지쿠션	34
기저귀갈이대	37	모빌	30
		젖병소독용품(젖병소독기 등)	48

3) 필수 육아서비스 목록 검토

- 이 연구에서는 12개월 이하 아동의 양육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교육/보육서비스는 산출 범위에서 제외함
 - 12개월 이하 아동 중에서도 보육서비스(개별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등)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이 시기에는 보육서비스 이용보다는 부모 직접 돌봄의 비중이 매우 높고, 무상보육 지원 정책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육·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함
- 생애 초기(12개월 이내) 활용 빈도가 높은 육아서비스 위주로 필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의료서비스 이용만을 연구 범위에 포함하기로 함
 - 최초 필수 육아서비스로 논의가 진행된 항목은 보건의료서비스 중 아동의 병원비 및 처방약, 출산 비용, 산후조리 비용과 기타 서비스 중 어린이 보험, 사진(앨범), 돌잔치 등이었음.
 - 의료서비스 중에서도 출산 비용은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제외하고, 산후조리 비용은 산후조리원 단가를 적용하는 형태로 반영하기로 하고 설문에서는 제외함
 - 어린이 보험과 사진(앨범)은 여전히 활용 빈도가 높긴 하나, 이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직접적 상관을 갖는 필수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과 부모 심층면담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에서 제외. 돌잔치는 현재는 거의 하지 않거나 가족끼리 간략하게 행하는 경우가 많아 제외함
 - 결과적으로 필수 육아서비스 중에서는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와 관련된 문항을 간략하게 질문하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함

2. 시장 가격 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

- 시장 가격 조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취합된 91개 품목 중 육아용품박람회 및 연구진 회의를 거쳐 정리된 73개 물품에 대해서 실시함
- 그런데, 육아용품에 따라 12개월 이내에 단계가 달라지는 물품들이 다수 존

재하므로, 이 경우에는 가능한 단계별로 시장 가격을 세분하여 조사함

- 단계가 구분되는 물품은 수면조끼(2단계), 내복(2단계), 외출복(4단계), 젖병(제품별로 3단계~6단계 상이), 별도구매 젖꼭지(3단계), 공갈 젖꼭지(2단계), 분유(2단계), 이유식(3단계), 유모차(3개 유형), 카시트(2개유형), 일회용 기저귀(5단계)임

○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가구조사를 실시한 육아용품(예: 비누/샴푸/바디워시, 엉덩이발진크림/땀띠 파우더 등)의 경우 각각의 육아용품별 시장 가격을 분리하여 조사함

- 비누, 아기용 샴푸, 아기용 바디워시를 구분하여 각 용품별로 시장 가격을 조사

○ 최종적으로 총 102개 품목에 대한 가격 조사를 실시함

나. 조사 방법 및 조사 시기

□ 시장 가격 조사는 2개 온라인 사이트(전자상거래 1위 업체와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조사함

□ 물품별로 판매량이 많은 순으로, 1~5순위 상품까지의 가격을 조사함

○ 이때 물품은 단일 품목으로 구성된 상품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실제 판매량 순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여러개 물품이 세트로 구성되는 상품이 다수 존재하나, 적정 양육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물품별 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일 품목 기준으로 판매량이 많은 5순위 상품까지를 조사함

○ 예를 들어, 배냇저고리와 손발싸개, 신생아 모자가 하나의 세트인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량 1순위더라도 각 품목별 가격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배냇저고리 단일 품목인 상품을 기준으로 가격 조사를 실시

- 단, 배냇저고리 여러 개가 하나의 세트 상품인 경우에는 가격조사 목록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개당 가격 산출을 위해 규격과 용량, 수량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함

- 예를 들어, 배냇저고리 3벌이 하나의 상품으로 1만5,000원이라면, 수량 3개, 가격 1만5,000원으로 기입하여 개당 가격이 산출될 수 있도록 조사함

- 아기욕조, 아기침대, 놀이매트 등은 제품의 규격을 추가 조사하였으며, 기저귀, 비누 등의 소모품류는 용량을 추가적으로 조사함
-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품(예: 의약품)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혹은 약국)을 방문하여 가격 조사를 실시함
- 조사 시기 : 2023. 12. 5. ~ 2024. 12. 27.
 - 가구 조사 시점에서의 시장 가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12월 기준 시점의 판매량과 가격을 조사
 - 단, 일부 품목의 경우 가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 가격도 2024년 1월 중 보강조사를 실시함

다. 품목별 기준 시장 가격 산출 방식 개요

- 2개 업체 각각에서 판매량 기준 1~5순위를 조사했으므로, 각 물품별*단계별로 총 10개의 가격이 조사됨
 - 각 물품별로 산출 모형에서 적용하는 산출 기준(예: 개당 가격, 용량당 가격 등)을 적용하여 시장 가격을 산출하되, 기준 시장 가격은 10개 시장 가격의 평균값을 활용
 - 단, 12개월 이내에 여러 단계가 있는 물품은 모든 단계의 시장 가격을 합산하여 평균함.
 - 예: 분유는 2단계로 구분되는 육아용품으로, 총 20개의 가격이 조사되었는데, 각 제품별로 용량(무게)가 상이하므로 제품별로 100g당 가격을 산출하여, 20개 상품의 100g당 가격의 평균을 시장 기준 가격으로 사용
- 기준 시장 가격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P_m = \sum_{s=1}^s \sum_{i=1}^2 \sum_{j=1}^5 p_{msij} / N_p$$

- P_m 은 물품(m)의 단위당 기준 가격
 - 단, 물품 종류에 따라 단위는 개 혹은 용량 등으로 상이함).
- m : 물품 종류(품목), s : 사용 단계, i : (온라인상거래) 업체, j : 판매량 순위를 의미함. 즉, p_{msij} 는 각 물품별 단계별 i 업체의 판매량 순위가 j 번

째인 제품의 가격을 의미함.

- 예: $p_{\text{분유}213}$ 은 분유(m) 2단계(s) 제품 중 C업체(i)에서 3번째 베스트 상품(j)의 가격을 의미.

○ N_p 는 물품별 가격의 개수로, P_m 산출 과정에서 합산된 가격의 개수를 의미함.

- 예: 분유의 기준 시장 가격은 2단계로 구분되는 물품의 2개 업체, 5개 상품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하므로, $2*2*5 = 20$ 개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N_p 는 20임.

-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단계가 구분되지 않는 물품(예: 배냇저고리 등)이 다수로, 대부분 물품의 N_p 는 10임.

○ 즉, 물품별 기준 시장 가격(P_m)은 각 단계별로 2개 온라인상거래 업체에서 판매량이 상위 5순위까지인 제품의 단위당 가격을 모든 합산한 후 평균한 값임.

IV

가구조사 분석 결과

- 01 응답자 특성
- 02 침구 및 피복류
- 03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
- 04 분유 및 식품류
- 05 기기/집기류
- 06 소모품류
- 07 기타 필수 육아용품
- 08 공유 경제 관련 소비
- 09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IV. 가구조사 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가. 가구 및 아동 특성

- 가구조사에 참여한 응답 가구는 총 605가구로, 2022년 10월생에서 2023년 9월생 자녀를 둔 가구가 조사대상임
- 응답 가구의 주요 특성으로 응답자 부·모, 총 자녀수, 지역규모, 맞벌이 가구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봄
 - 모가 응답한 경우가 80.5%이며, 부가 응답한 경우가 19.5%임
 - 응답 가구의 자녀수는 1명이 63.0%로 가장 많고, 2명이 30.7%, 3명 이상이 6.3%임
 - 지역규모는 중소도시 소재 가구가 44.6%로 가장 많고, 대도시는 40.2%, 읍·면 지역은 15.2%임
 - 맞벌이 여부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는 64.1%, 외벌이 가구 33.9%이며, 기타 가구는 2.0%임
 -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399만원 이하가 25.6%로 가장 많고, 600만원 초과 22.0%, 500~599만원 이하 20.7%, 400~499만원 이하 19.3%, 299만원 이하 12.4% 순으로 나타남

〈표 IV-1-1〉 응답 가구의 주요 특성

			단위: %, (명)		
구분	백분율	(수)	구분	백분율	(수)
응답자			맞벌이 가구		
모(어머니)	80.5	(487)	맞벌이	64.1	(388)
부(아버지)	19.5	(118)	외벌이	33.9	(205)
총 자녀수			기타	2.0	(12)
1명	63.0	(381)	월평균 가구소득		
2명	30.7	(186)	299만원 이하	12.4	(75)

구분	백분율	(수)	구분	백분율	(수)
3명 이상	6.3	(38)	300~399만원 이하	25.6	(155)
지역규모			400~499만원 이하	19.3	(117)
대도시	40.2	(243)	500~599만원 이하	20.7	(125)
중소도시	44.6	(270)	600만원 초과	22.0	(133)
읍·면 지역	15.2	(92)	전체	100.0	(605)

주: 한부모 가구는 외별이로 간주. 맞벌이 가구 여부의 '기타'는 부모가 모두 미취업이거나 한부모이면서 미취업인 것을 의미함.

□ 응답 대상 아동 605명 중 남자는 47.4%, 여자는 52.6%임

○ 모든 지역규모에서 여아의 비율이 남아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에서 남아와 여아의 비율 차이가 가장 적었음

□ 3개월 단위 월령별 아동의 수는 각각 150명 내외로, 월령에 따라 할당표집이 이뤄졌기 때문임.

○ 2023년 7~9월생이 149명(24.6%)으로 가장 적고, 2023년 4~6월생과 2023년 1~3월생은 각각 151명(25.0%), 2022년 10~12월생이 154명(25.5%)임

○ 월령별 할당 표본 내에서 지역규모에 따른 표본 수가 균등하게 표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1-2〉 아동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성별								
남자	47.4	(287)	49.0	(119)	46.3	(125)	46.7	(43)
여자	52.6	(318)	51.0	(124)	53.7	(145)	53.3	(49)
월령								
23년 7~9월생	24.6	(149)	23.5	(57)	24.8	(67)	27.2	(25)
23년 4~6월생	25.0	(151)	25.1	(61)	24.8	(67)	25.0	(23)
23년 1~3월생	25.0	(151)	25.9	(63)	24.4	(66)	23.9	(22)
22년 10~12월생	25.5	(154)	25.5	(62)	25.9	(70)	23.9	(22)

□ 부모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부는 35세 이상이 60.1%, 모는 30~35세 미만 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부모의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부모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의 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 차이가 크지 않음

- 4년제 대학 졸업 비율은 부는 52.8%, 모는 55.0%로 모가 다소 높고, 대학 원수료 이상은 부가 13.7%, 모가 9.4%로 부가 다소 높게 나타남

□ 부모의 취업상태를 살펴본 결과, 모의 다수가 휴직중이거나 미취업 상태임

- 현재 취업 중인 부모의 비율을 살펴보면, 부는 90.4%가 취업 중인데 비해, 모는 15.0%만 취업 중임
 - 모는 34.2%가 미취업 중임
- 휴직 중인 부모의 비율을 살펴보면, 부는 6.1%이고 모는 절반 이상인 50.6%가 휴직 중임. 이는 조사 대상 아동의 월령이 12개월 이하이기 때문으로 사료됨

〈표 IV-1-3〉 부모 특성

단위: %, (명)

구분	부		모	
	백분율	(수)	백분율	(수)
연령				
30세 미만	5.7	(34)	12.6	(76)
30~35세 미만	34.2	(204)	49.8	(301)
35세 이상	60.1	(359)	37.6	(227)
학력				
고졸 이하	13.9	(83)	10.9	(66)
전문대학 졸업	19.6	(117)	24.7	(149)
4년제 대학 졸업	52.8	(315)	55.0	(332)
대학원수료 이상	13.7	(82)	9.4	(57)
취업상태				
취업	90.4	(547)	15.0	(91)
휴직중	6.1	(37)	50.6	(306)
미취업	2.1	(13)	34.2	(207)
전체	100.0	(597)	100.0	(604)

주: 605가구 중 '부' 부재 가구 8가구, '모' 부재 가구 1가구임.

□ 전체 응답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06만9천원이며, 가구 소비 지출액은 월 331만 9천원이고 이 중 양육비용은 월 132만4천원임

□ 월평균 가구소득은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50만6천원이며, 외벌이 가구는 439만7천원으로 약 110만원 차이를 보임

- 한편, 가구 소비 지출액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약간 많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않음
- 전체 양육비용은 외벌이 가구가 134만7천원으로 맞벌이 가구(131만4천원)에 비해 약간 높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이는 맞벌이 여부 혹은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생애 초기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비 지출과 양육비용이 일정한 수준을 보임을 시사하며, 외벌이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음을 내포함

□ 가구 소비 지출액과 전체 양육비용은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추이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소비 지출액은 월 311만8천원이며, 자녀가 2명인 가구는 359만6천원, 자녀가 3명 이상 가구는 397만9천원임

○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양육비용은 월 109만7천원이며,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61만1천원, 자녀가 3명 이상 가구는 219만7천원임

〈표 IV-1-4〉 월평균 가구소득 및 가구 소비 지출액, 양육비용

단위: 만원, (가구)

구분	가구소득		가구 소비 지출액		전체 양육비용	
전체	506.9	(605)	331.9	(605)	132.4	(605)
월령						
23년 7~9월생	514.9	(149)	312.5	(149)	131.1	(149)
23년 4~6월생	478.8	(151)	333.6	(151)	143.3	(151)
23년 1~3월생	509.6	(151)	357.4	(151)	118.9	(151)
22년 10~12월생	523.9	(154)	324.2	(154)	136.3	(154)
F	0.316		1.426		2.20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50.6	(388)	338.8	(388)	131.4	(388)
외벌이	439.7	(205)	326.5	(205)	134.7	(205)
기타	240.8	(12)	202.5	(12)	128.3	(12)
F	7.001***		2.955		0.116	
총 자녀수						
1명	493.8	(381)	311.8	(381)	109.7	(381)
2명	506.9	(186)	359.6	(186)	161.1	(186)
3명 이상	637.9	(38)	397.9	(38)	219.7	(38)
F	1.964		6.108**		50.802***	

구분	가구소득		가구 소비 지출액		전체 양육비용	
지역규모						
대도시	510.5	(243)	326.0	(243)	129.2	(243)
중소도시	518.9	(270)	335.9	(270)	135.2	(270)
읍·면	461.8	(92)	336.1	(92)	132.9	(92)
F	0.626		0.188		0.310	

주: 1) 모 취업여부는 모가 부재한 경우는 제외.

2) 한부모 가구는 외벌이로 간주. 맞벌이 가구 여부의 '기타'는 부모가 모두 미취업이거나 한부모이면서 미취업인 것을 의미함.

** $p < .01$, *** $p < .001$.

- 육아용품 구매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점을 2순위까지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는 육아용품 구매 시 안정성 측면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 외에 제품 기능, 가격, 주변 평판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1순위로 안정성 인증 표시(46.3%)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가격(16.0%), 제품 기능(15.4%), 주변 평판(10.9%) 순임
- 2순위 응답에서는 제품 기능(22.8%)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변 평판(18.5%), 가격(18.3%), 안정성 인증 표시(17.5%) 순임
- 1, 2순위 합산 결과를 살펴보면, 육아용품 구매 시 안정성 인증 표시(63.8%)를 고려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품 기능(38.2%), 가격(34.4%), 주변 평판(29.4%) 순임

〈표 IV-1-5〉 육아용품 구매 시 우선 고려사항

단위: %, (명)

구분	가격	안정성 인증 표시	아이 선호도	제품 기능	브랜드 파워	제품 생산처	제품 디자인	주변 평판	구매 용이성	사후관리 신속성	기타	계(수)
1순위	16.0	46.3	4.3	15.4	2.3	0.3	0.5	10.9	3.6	0.2	0.2	100.0(605)
2순위	18.3	17.5	7.3	22.8	3.3	3.6	2.1	18.5	4.3	1.7	0.5	100.0(605)
1+2순위	34.4	63.8	11.6	38.2	5.6	4.0	2.6	29.4	7.9	1.8	0.7	200.0(605)

- 육아용품 구매 시 고려하는 사항 1, 2순위 합산 결과를 기준으로, 가구특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가 육아용품 구매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맞벌이 여부, 총 자녀수, 지역규모,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맞벌이 가구는 안정성 인증 표시(65.5%)와 제품 기능(39.9%)을 외벌이 가

- 구에 비해 육아용품 구매 시 고려하는 비율이 높으며, 맞벌이 가구가 가격(30.9%)을 고려하는 비율은 외벌이 가구(39.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자녀수가 많을수록 육아용품 구매 시 가격과 제품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임
 - 한편, 자녀수가 적을수록 안정성 인증 표시와 주변 평판을 고려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임
 -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육아용품 구매 시 주변 평판을 고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품 기능을 고려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성을 보임
 -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40.2%)에는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비율이 대도시(33.3%)와 중소도시(33.3%)에 비해 높음
 - 월평균 가구소득이 399만원 이하인 경우 육아용품 구매 시 가격을 고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600만원 초과인 경우 안정성 인증 표시(72.9%)를 고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6〉 가구특성별 육아용품 구매 시 우선 고려사항 (1순위+2순위)

단위: %, (명)

구분	가격	안정성 인증 표시	아이 선호도	제품 기능	브랜드 파워	제품 생산처	제품 디자인	주변 평판	구매 용이성	사후 관리 신속성	기타	계(수)
전체	34.4	63.8	11.6	38.2	5.6	4.0	2.6	29.4	7.9	1.8	0.7	200.0 (605)
월령												
23년 7~9월생	36.2	69.8	12.8	33.6	6.7	3.4	3.4	27.5	6.0	0.7	0.0	200.0 (149)
23년 4~6월생	33.1	67.5	12.6	39.7	5.3	6.0	2.0	24.5	7.9	0.7	0.7	200.0 (151)
23년 1~3월생	32.5	58.9	7.3	42.4	6.6	4.6	2.0	32.5	7.9	4.6	0.7	200.0 (151)
22년 10~12월생	35.7	59.1	13.6	37.0	3.9	1.9	3.2	33.1	9.7	1.3	1.3	200.0 (154)
χ^2 (df)	35.718(33)											
맞벌이 여부												
맞벌이	30.9	65.5	11.3	39.9	5.9	4.4	2.8	29.9	7.5	1.0	0.8	200.0 (388)
외벌이	39.0	61.0	11.7	36.1	5.4	3.4	2.4	29.3	9.3	2.0	0.5	200.0 (205)
기타	66.7	58.3	16.7	16.7	0.0	0.0	0.0	16.7	0.0	25.0	0.0	200.0 (12)
χ^2 (df)	56.884*** (22)											
총 자녀수												
1명	31.2	68.2	10.0	34.6	6.0	5.2	3.1	32.8	7.3	0.8	0.5	200.0 (381)
2명	35.5	57.5	15.1	44.1	5.4	2.2	1.6	25.8	9.1	2.7	1.1	200.0 (186)
3명 이상	60.5	50.0	10.5	44.7	2.6	0.0	2.6	13.2	7.9	7.9	0.0	200.0 (38)
χ^2 (df)	58.681*** (22)											

구분	가격	안정성 인증 표시	아이 선택도	제품 기능	브랜드 파워	제품 생산처	제품 디자인	주변 평판	구매 용이성	사후 관리 신속성	기타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33.3	62.6	12.8	33.7	6.2	4.1	3.3	34.6	7.4	1.2	0.8	200.0 (243)
중소도시	33.3	64.4	10.0	40.7	5.9	4.4	1.9	28.1	9.6	0.7	0.7	200.0 (270)
읍·면	40.2	65.2	13.0	42.4	3.3	2.2	3.3	19.6	4.3	6.5	0.0	200.0 (92)
$X^2(df)$	34.619*(22)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49.3	60.0	10.7	32.0	0.0	1.3	0.0	28.0	10.7	8.0	0.0	200.0 (75)
300~399만원	40.0	62.6	9.0	41.9	3.9	3.2	2.6	26.5	9.7	0.0	0.6	200.0 (155)
400~499만원	29.1	64.1	17.9	36.8	6.0	3.4	3.4	30.8	6.8	1.7	0.0	200.0 (117)
500~599만원	34.4	57.6	12.0	35.2	9.6	4.8	4.0	29.6	9.6	1.6	1.6	200.0 (125)
600만원 초과	24.1	72.9	9.0	41.4	6.8	6.0	2.3	32.3	3.8	0.8	0.8	200.0 (133)
$X^2(df)$	80.164*** (44)											
모 연령												
30세 미만	50.0	57.9	10.5	39.5	2.6	7.9	3.9	17.1	7.9	2.6	0.0	200.0 (76)
30~35세 미만	31.6	65.1	10.3	36.9	7.6	3.7	2.7	29.9	9.6	1.7	1.0	200.0 (301)
35세 이상	32.6	63.9	13.7	39.6	4.0	3.1	2.2	33.0	5.7	1.8	0.4	200.0 (227)
$X^2(df)$	33.252(22)											

주: 1) 모 취업여부는 모가 부재한 경우는 제외.

2) 한부모 가구는 외벌이로 간주. 맞벌이 가구 여부의 '기타'는 부모가 모두 미취업이거나 한부모이면서 미취업인 것을 의미함.

* $p < .05$, *** $p < .001$.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를 2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첫만남이용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출항목은 산후조리비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출항목은 식비, 보건/의료비, 기기/집기, 개인 유지비 순임

○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여 가장 많이 지출하는 1순위 항목은 산후조리비(34.0%)이며, 다음으로 식비(23.3%), 보건/의료비(16.4%), 기기/집기(13.4%) 순임

○ 2순위 지출 항목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항목은 식비(17.9%)이며, 개인 유지비(16.2%), 보건/의료비(15.9%), 기기/집기(15.0%) 순임

○ 1, 2순위 합산 결과를 살펴보면, 산후조리비에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는 비율이 절반가량인 46.9%이며, 다음으로 식비(41.2%), 보건/의료비(32.2%), 기기/집기(28.4%), 개인 유지비(23.0%) 순으로 나타남

〈표 IV-1-7〉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단위: %, (가구)

구분	식비	피복비	보건/ 의료비	교육/ 보육비	여가/ 문화 생활비	개인 유지비	산후 조리비	기기/ 집기	기타	계(수)
1순위	23.3	3.0	16.4	1.2	0.5	6.8	34.0	13.4	1.5	100.0 (605)
2순위	17.9	12.1	15.9	4.3	1.7	16.2	12.9	15.0	4.1	100.0 (605)
1+2순위	41.2	15.0	32.2	5.5	2.1	23.0	46.9	28.4	5.6	200.0 (605)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1, 2순위 합산 결과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첫만
남이용권 사용처는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만 5% 유의수준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여, 대부분의 가구가 유사한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첫만남이용권을 식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외벌이 가구(43.4%)가
맞벌이 가구(38.9%)에 비해 높음

〈표 IV-1-8〉 가구특성별 첫만남이용권 사용처(1순위+2순위)

단위: %, (가구)

구분	식비	피복비	보건/ 의료비	교육/ 보육비	여가/ 문화 생활비	개인 유지비	산후 조리비	기기/ 집기	기타	계(수)
전체	41.2	15.0	32.2	5.5	2.1	23.0	46.9	28.4	5.6	200.0 (605)
월령										
23년 7~9월생	45.6	16.1	28.2	5.4	4.0	24.8	43.0	28.9	4.0	200.0 (149)
23년 4~6월생	43.7	14.6	31.8	7.3	2.0	21.9	44.4	29.1	5.3	200.0 (151)
23년 1~3월생	35.1	14.6	32.5	6.0	2.0	27.2	49.0	26.5	7.3	200.0 (151)
22년 10~12월생	40.3	14.9	36.4	3.2	0.6	18.2	51.3	29.2	5.8	200.0 (154)
χ^2 (df)	21.794(2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8.9	16.0	33.8	5.2	2.3	23.5	46.4	28.6	5.4	200.0 (388)
외벌이	43.4	12.2	31.2	5.9	1.5	21.0	49.3	29.8	5.9	200.0 (205)
기타	75.0	33.3	0.0	8.3	8.3	41.7	25.0	0.0	8.3	200.0 (12)
χ^2 (df)	31.721*(18)									
총 자녀수										
1명	37.8	15.7	34.6	5.0	1.8	21.3	48.0	29.4	6.3	200.0 (381)
2명	45.2	13.4	29.0	5.9	2.2	24.7	47.8	26.9	4.8	200.0 (186)
3명 이상	55.3	15.8	23.7	7.9	5.3	31.6	31.6	26.3	2.6	200.0 (38)
χ^2 (df)	20.488(18)									

구분	식비	피복비	보건/ 의료비	교육/ 보육비	여가/ 문화 생활비	개인 유지비	산후 조리비	기기/ 집기	기타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42.4	10.7	33.3	7.8	2.1	23.9	48.6	25.9	5.3	200.0 (243)
중소도시	41.1	18.5	30.0	4.1	1.9	23.7	46.3	28.9	5.6	200.0 (270)
읍·면	38.0	16.3	35.9	3.3	3.3	18.5	44.6	33.7	6.5	200.0 (92)
χ^2 (df)	17.195(1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0.0	17.3	30.7	2.7	2.7	26.7	45.3	25.3	9.3	200.0 (75)
300~399만원	42.6	14.8	30.3	5.2	2.6	21.3	45.2	31.0	7.1	200.0 (155)
400~499만원	46.2	15.4	32.5	6.8	4.3	18.8	48.7	22.2	5.1	200.0 (117)
500~599만원	38.4	15.2	36.8	8.0	0.0	17.6	49.6	30.4	4.0	200.0 (125)
600만원 초과	38.3	13.5	30.8	3.8	1.5	31.6	45.9	30.8	3.8	200.0 (133)
χ^2 (df)	32.304(36)									
모 연령										
30세 미만	46.1	18.4	27.6	6.6	1.3	22.4	44.7	25.0	7.9	200.0 (76)
30~35세 미만	39.2	16.3	31.9	4.7	2.3	19.9	48.8	30.2	6.6	200.0 (301)
35세 이상	41.9	11.9	34.4	6.2	2.2	27.3	45.4	27.3	3.5	200.0 (227)
χ^2 (df)	15.459(18)									

주: 1) 모 취업여부는 모가 부재한 경우는 제외.

2) 한부모 가구는 외벌이로 간주. 맞벌이 가구 여부의 '기타'는 부모가 모두 미취업이거나 한부모이면서 미취업인 것을 의미함.

* $p < .05$

2. 침구 및 피복류

가. 개요 : 침구 및 피복류

- ☐ 침구 및 피복류는 13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침구 및 피복류에 속한 대부분의 물품이 대체로 높은 필수율을 보임
- ☐ 필수율이 90% 이상인 품목은 속싸개(92.2%), 손발싸개(92.4%), 턱받이(92.4%), 가계 수건(97.9%), 아기띠·힙시트·포대기(98.3%), 내복(98.8%), 외출복(99.2%) 7개 품목임
- ☐ 필수율 85% 이상을 적용하면 7개 품목 이외에 배냇저고리(85.5%), 아기목욕 수건(87.3%), 신생아모자(88.8%) 3개 품목이 포함됨
- ☐ 침구 및 피복류에서 필수율이 가장 낮은 품목은 겹싸개(72.1%)이며, 다음으로 아기이불(78.2%), 수면조끼(80.0%)가 낮게 나타남

□ 각 품목이 필수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필요수량을 조사하였으며, 내복과 외출복은 소요주기를 3개월로 조사하였으므로 다른 침구 및 피복류와 마찬가지로 12개월로 환산함.

- 필요수량이 5개 이상인 품목을 살펴보면, 가제 수건이 32.7개로 가장 많고, 내복 18.3개, 외출복 13.8개, 턱받이 7.3개, 아기목욕수건 5.3개로 5개 품목임
- 평균 필요 수량이 2~4개 사이인 품목은 배냇저고리(3.8개), 손발싸개(3.7개), 속싸개(3.5개), 수면조끼(2.7개), 아기이불(2.3개), 신생아모자(2.3개)로 6개 품목임
- 필요 수량이 가장 적은 품목은 겹싸개(1.6개)와 아기띠·힙시트·포대기(1.5개)임

〈표 IV-2-1〉 필수 여부 및 필요 수량_침구 및 피복류

단위: %, 개, (명)

품목	필수 여부			필요 수량 (평균)		
	필수	필수아님	(수)			
1) 배냇저고리	85.5	14.5	(605)	12개월동안	3.8 개	(517)
2) 속싸개	92.2	7.8	(605)	12개월동안	3.5 개	(558)
3) 겹싸개	72.1	27.9	(605)	12개월동안	1.6 개	(436)
4) 아기목욕수건	87.3	12.7	(605)	12개월동안	5.3 개	(527)
5) 아기이불 (신생아베개 포함)	78.2	21.8	(605)	12개월동안	2.3 개	(473)
6) 신생아모자	88.8	11.2	(605)	12개월동안	2.3 개	(537)
7) 손발싸개	92.4	7.6	(605)	12개월동안	3.7 개	(559)
8) 수면조끼	80.0	20.0	(605)	12개월동안	2.7 개	(484)
9) 턱받이	92.4	7.6	(605)	12개월동안	7.3 개	(559)
10) 가제 수건	97.9	2.1	(605)	12개월동안	32.7 개	(592)
11) 아기띠·힙시트·포대기	98.3	1.7	(605)	12개월동안	1.5 개	(592)
12) 내복 (바디수트 포함)	98.8	1.2	(605)	3개월평균	6.1 개	(598)
13) 외출복 (상하의 한 벌 기준)	99.2	0.8	(605)	3개월평균	4.6 개	(600)

주: 1) 내복 12개월 평균으로 환산: 6.1개(3개월 평균)×4 = 18.3개
 2) 외출복 12개월 평균으로 환산: 4.6개(3개월 평균)×4 = 13.8개

□ 침구 및 피복류에서 3개월 이내 구매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아기목욕수건(80.0%)이며, 다음으로 외출복(78.8%), 턱받이(55.0%), 가제 수건(52.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침구 및 피복류 중 3개월 이내 구매율이 30% 미만인 품목은 겉싸개(18.8%), 수면조끼 (26.4%), 속싸개 26.8%), 배넛저고리(28.1%) 4개 품목임
- 침구 및 피복류는 소요 주기가 12개월인 상품이 많아서, 기 구매가 완료된 경우 더 이상 재구매해야 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최근 3개월 이내에 구매하지 않은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침구 및 피복류 구매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간(2023년 9월~11월) 구매 수량을 질문한 결과, 필요수량과 절대값에서 차이를 보이나 품목 순위로는 필요수량의 경향성과 유사함
 - 구매수량이 가장 많은 항목은 가제 수건으로 33개이며, 다음으로 수면조끼 (6.3개), 턱받이(6.3개), 내복(4.9개), 아기목욕수건(4.5개) 순임
 - 구매수량이 2~4개인 품목은 외출복(3.9개), 손발싸개(3.7개), 배넛저고리 (2.8개), 속싸개(2.7개), 신생아모자(2.6개), 수면조끼(2.2개) 6개 품목임
 - 구매수량이 2개 미만인 품목은 아기이불(1.8개), 겉싸개(1.6개), 아기띠·힙시트·포대기(1.4개) 3개 품목임
- 침구 및 피복류의 개당 평균 구매 금액은 아기띠·힙시트·포대기를 제외하고 10만원 미만임
 - 아기띠·힙시트·포대기의 구매금액은 17만8,281원으로 가장 높고, 아기이불 이 7만1,527원, 외출복 4만7,173원, 겉싸개 3만6,261원 순임
 - 개당 구매금액이 가장 낮은 물품은 가제 수건(1,819원)이며, 이외에 1만원 미만의 물품은 손발싸개(6,813원), 턱받이(9,438원)임

〈표 IV-2-2〉 구매 경험_침구 및 피복류

단위: %, 개, 원, (명)

품목	3개월 이내 구매 여부			3개월 간 구매수량	개당 평균 구매 금액
	있음	없음	(수)		
1) 배넛저고리	28.1	71.9	(605)	2.8 (171)	22,311 (171)
2) 속싸개	26.8	73.2	(605)	2.7 (163)	19,051 (163)
3) 겉싸개	18.8	81.2	(605)	1.6 (115)	36,261 (115)
4) 아기목욕수건	80.0	20.0	(605)	4.5 (244)	13,465 (243)
5) 아기이불 (신생아베개 포함)	40.2	59.8	(605)	1.8 (277)	71,527 (277)
6) 신생아모자	45.6	54.4	(605)	2.6 (185)	17,077 (185)
7) 손발싸개	30.4	69.6	(605)	3.7 (161)	6,813 (161)

품목	3개월 이내 구매 여부			3개월 간 구매수량	개당 평균 구매 금액	
	있음	없음	(수)			
8) 수면조끼	26.4	73.6	(605)	2.2 (334)	21,022	(333)
9) 턱받이	55.0	45.0	(605)	6.3 (316)	9,438	(317)
10) 가제 수건	52.4	47.6	(605)	33.0 (253)	1,819	(252)
11) 아기띠·힙시트·포대기	41.8	58.2	(605)	1.4 (268)	178,281	(268)
12) 내복 (바디수트 포함)	44.1	55.9	(605)	4.9 (477)	21,721	(477)
13) 외출복 (상하의 한 벌 기준)	78.8	21.2	(605)	3.9 (481)	47,173	(484)

주: 구매 수량과 구매 가격은 응답 값이 있는 경우(구매 경험 있음)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나. 가구특성별 차이 : 침구 및 피복류

1) 필수율 : 침구 및 피복류

- ☐ 가구특성별로 침구 및 피복류 품목에 대한 필수 육아용품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3>과 <표 IV-2-4>에 제시되어 있음
- ☐ 자녀의 월령에 따라 필수여부 응답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품목은 수면조끼, 턱받이임
 - 수면조끼는 월령이 3개월 이하(23년 7~9월생)인 경우 필수품이라는 응답이 69.8%로 가장 낮았으며, 7~9개월(23년 1~3월생)인 경우에 필수품이라는 응답이 90.1%로 가장 높았음
 - 턱받이의 경우에도 월령이 3개월 이하(23년 7~9월생)인 경우 필수품이라는 응답이 87.2%로 가장 낮았으며, 다른 월령은 모두 90% 이상이 필수품이라고 응답함
- ☐ 총 자녀수에 따라 필수여부 응답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품목은 신생아모자, 내복임
 - 신생아모자는 자녀수가 1명인 경우 필수품이라는 응답이 91.6%로 가장 높고,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내복은 필수율이 매우 높은 품목이며,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100.0%가 필수품이라고 응답함

〈표 IV-2-3〉 필수율: 침구 및 피복류 1

단위: %, (명)

구분	배넷 저고리	속싸개	겉싸개	아기 목욕수건	아기 이불	신생아 모자	손발싸개	(수)
전체	85.5	92.2	72.1	87.3	78.2	88.8	92.4	(605)
월령								
23년 7~9월생	85.2	92.6	75.2	89.9	81.9	87.2	94.0	(149)
23년 4~6월생	82.8	92.7	70.9	86.1	77.5	86.8	93.4	(151)
23년 1~3월생	84.1	91.4	70.2	86.1	75.5	87.4	88.7	(151)
22년 10~12월생	89.6	92.2	72.1	87.0	77.9	93.5	93.5	(154)
χ^2 (df)	3.235(3)	0.229(3)	1.083(3)	1.337(3)	1.882(3)	4.700(3)	3.866(3)	
총 자녀수								
1명	85.0	91.6	69.6	85.3	75.1	91.6	93.4	(381)
2명	86.6	93.0	75.8	91.4	83.9	86.0	90.9	(186)
3명 이상	84.2	94.7	78.9	86.8	81.6	73.7	89.5	(38)
χ^2 (df)	0.283(2)	0.702(2)	3.381(2)	4.188(2)	5.955(2)	13.138(2)*	1.676(2)	

** $p < .01$.

〈표 IV-2-4〉 필수율: 침구 및 피복류 2

단위: %, (명)

구분	수면조끼	턱받이	가제 수건	아기띠· 히시트· 포대기	내복	외출복	(수)
전체	80.0	92.4	97.9	98.3	98.8	99.2	(605)
월령							
23년 7~9월생	69.8	87.2	97.3	97.3	97.3	98.7	(149)
23년 4~6월생	79.5	96.7	97.4	98.0	99.3	99.3	(151)
23년 1~3월생	90.1	90.7	97.4	99.3	98.7	99.3	(151)
22년 10~12월생	80.5	94.8	99.4	98.7	100.0	99.4	(154)
χ^2 (df)	19.307(3)***	11.451(3)**	2.210(3)	2.110(3)	5.203(3)	0.642(3)	
총 자녀수							
1명	81.6	94.0	98.4	97.9	99.7	99.2	(381)
2명	76.9	90.9	96.2	98.9	96.8	98.9	(186)
3명 이상	78.9	84.2	100.0	100.0	100.0	100.0	(38)
χ^2 (df)	1.787(2)	5.581(2)	3.738(2)	1.488(2)	10.071(2)**	0.464(2)	

** $p < .01$, *** $p < .001$.

2) 필요 수량

□ 가구특성별로 침구 및 피복류 품목의 필요 수량 응답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5〉과 〈표 IV-2-6〉에 제시되어 있음

□ 자녀의 월령에 따라 필요수량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품목은 겉싸개, 턱받이, 가제 수건, 외출복임

- 겹싸개의 필요 수량은 월령이 3개월 이하(23년 7~9월생)인 경우 2.3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턱반이의 필요 수량은 월령이 3개월 이하(23년 7~9월생)인 경우 6.0개로 다른 월령에 비해 적게 나타남
 - 가제 수건의 필요 수량도 월령이 3개월 이하(23년 7~9월생)인 경우 28.8개로 가장 적었으며, 3~6개월(23년 4~6월생)이 37.6개로 가장 많음
 - 3개월 평균 기준으로, 외출복의 필요 수량은 월령이 3개월 이하(23년 7~9월생)인 경우 4.2개로 가장 적었으며, 이후 월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총 자녀수에 따라 필요수량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품목은 아기목욕수건, 아기이불, 신생아모자, 턱반이, 가제 수건, 외출복임
- 자녀가 1명인 경우 아기목욕수건(4.9개), 아기이불(2.4개), 신생아모자(2.5개), 턱반이(7.8개), 가제 수건(35.3개), 외출복(5.0개) 모두 품목의 필요 수량이 가장 많았으며,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표 IV-2-5〉 필요 수량: 침구 및 피복류 1

단위: 개, (명)

구분	배냇저고리	속싸개	겉싸개	아기 목욕수건	아기 이불	신생아 모자	손발싸개
전체	3.8 (517)	3.5 (558)	1.6 (436)	5.3 (527)	2.3 (473)	2.3 (537)	3.7 (559)
월령							
23년 7~9월생	3.8 (127)	3.7 (138)	2.3 (112)	5.4 (134)	2.4 (122)	2.5 (130)	3.8 (140)
23년 4~6월생	3.8 (125)	3.3 (140)	1.6 (107)	5.1 (129)	2.3 (117)	2.5 (131)	3.7 (141)
23년 1~3월생	3.9 (127)	3.8 (138)	1.3 (106)	5.4 (130)	2.2 (114)	2.3 (132)	3.6 (134)
22년 10~12월생	3.8 (138)	3.2 (142)	1.3 (111)	5.3 (134)	2.2 (120)	2.1 (144)	3.6 (144)
<i>F</i>	0.017	2.313	14.451***	0.174	0.337	1.339	0.227
총 자녀수							
1명	3.8 (324)	3.4 (349)	1.6 (265)	4.9 (324)	2.4 (286)	2.5 (349)	3.8 (356)
2명	3.8 (161)	3.8 (173)	1.6 (141)	5.8 (170)	2.1 (156)	2.1 (160)	3.6 (169)
3명 이상	4.3 (32)	3.4 (36)	1.3 (30)	6.2 (33)	1.9 (31)	1.9 (28)	3.3 (34)
<i>F</i>	1.495	2.161	0.744	4.486*	5.317**	5.184**	0.737

주: 생후 12개월 이내 필요 수량을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6〉 필요 수량: 침구 및 피복류 2

단위: 개, (명)

구분	수면조끼	턱받이	가제 수건	아기띠· 합시트· 포대기	내복 (3개월 평균)	외출복 (3개월 평균)
전체	2.7 (484)	7.3 (559)	32.7 (592)	1.5 (592)	6.1 (598)	4.6 (600)
월령						
23년 7~9월생	2.5 (104)	6.0 (130)	28.8 (145)	1.6 (144)	5.6 (145)	4.2 (147)
23년 4~6월생	2.5 (120)	7.5 (146)	37.6 (147)	1.5 (146)	6.2 (150)	4.4 (150)
23년 1~3월생	2.8 (136)	7.8 (137)	32.9 (147)	1.5 (150)	6.2 (149)	4.8 (150)
22년 10~12월생	2.9 (124)	7.7 (146)	31.6 (153)	1.5 (152)	6.5 (154)	5.2 (153)
F	1.781	3.132*	3.026*	0.906	1.777	2.720*
총 자녀수						
1명	2.6 (311)	7.8 (358)	35.3 (375)	1.5 (371)	6.2 (380)	5.0 (378)
2명	2.9 (143)	6.5 (169)	29.4 (179)	1.5 (183)	6.0 (180)	4.2 (184)
3명 이상	2.3 (30)	6.4 (32)	23.4 (38)	1.5 (38)	5.7 (38)	3.2 (38)
F	1.948	3.467*	6.055**	0.331	0.515	7.537***

주: 생후 12개월 이내 필요 수량을 의미하며, 내복과 외출복은 3개월 평균 개수를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3) 구매 경험

□ 가구특성별로 침구 및 피복류 품목의 구매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7〉과 〈표 IV-2-8〉에 제시되어 있음

□ 침구 및 피복류의 모든 품목에서 자녀의 월령별로 물품 구매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월령이 3개월 이하(23년 7~9월생)인 경우에 가장 높은 구매율을 보인 품목은 배냇저고리(49.0%), 속싸개(49.7%), 겹싸개(33.6%), 아기이불(60.4%), 신생아모자(55.7%), 손발싸개(42.3%), 수면조끼(47.7%), 아기띠·합시트·포대기(65.8%), 내복(62.4%) 9개 품목임

- 9개 품목 중에 속싸개, 아기이불, 아기띠·합시트·포대기, 내복은 월령이 증가할수록 구매율이 감소 추세를 보임

- 침구 및 피복류에 속한 대부분의 물품은 아기 출생 직후 구입하는 경향성이 강함을 엿볼 수 있음. 내복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12개월 동안의 소비량이므로, 최근 3개월 동안의 구매율이 12개월 동안의 필수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이에 기인함

- 월령이 10~12개월(22년 10~12월생)인 경우에 가장 높은 구매율을 보인 품목은 아기목욕수건(85.1%), 외출복(83.8%) 2개 품목이며, 월령이 증가할 수록 구매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턱받이는 아직 이유식을 시작하지 않은 시기인 월령이 3개월 이하(23년 7~9월생)에는 구매율이 34.2%로 가장 낮고, 이후 증가하여 월령 7~9개월(23년 1~3월생)에서 구매율이 63.6%로 가장 높음
- 가제수건은 월령 4~6개월(23년 4~6월생)의 구매율이 67.5%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차츰 감소하여 월령 10~12개월(22년 10~12월생)의 구매율이 39.6%로 가장 낮았음
- 총 자녀수에 따라 구매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품목은 아기목욕수건, 신생아모자, 턱받이, 가제수건, 내복, 외출복 6개 품목임
- 6개 품목 모두 자녀가 1명인 경우 구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아기목욕수건, 신생아모자, 외출복은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구매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해당 물품의 경우 침구 및 피복류 중에서도 필수율이 매우 높으면서도 내구연한이 긴 편에 속하는 물품으로, 물려받기 등을 통해 재구매 필요성이 낮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됨

〈표 IV-2-7〉 구매율: 침구 및 피복류 1

단위: %, (명)

구분	배냇저고리	속싸개	겉싸개	아기목욕수건	아기이불	신생아모자	손발싸개	(수)
전체	28.1	26.8	18.8	80.0	40.2	45.6	30.4	(605)
월령								
23년 7~9월생	49.0	49.7	33.6	71.1	60.4	55.7	42.3	(149)
23년 4~6월생	29.8	25.2	21.2	81.5	44.4	52.3	40.4	(151)
23년 1~3월생	16.6	17.9	8.6	82.1	29.8	35.8	19.2	(151)
22년 10~12월생	17.5	14.9	12.3	85.1	26.6	39	20.1	(154)
X ² (df)	50.882(3)***	57.118(3)***	36.243(3)***	10.402(3)*	45.003(3)***	17.507(3)***	33.687(3)***	
총 자녀수								
1명	26.8	26.8	19.2	82.9	42.0	52.2	33.1	(381)
2명	29.6	26.3	18.3	78.0	37.1	34.4	24.2	(186)
3명 이상	34.2	28.9	18.4	60.5	36.8	34.2	34.2	(38)
X ² (df)	1.234(2)	0.109(2)	0.068(2)	11.550(2)**	1.434(2)	18.130(2)***	4.930(2)	

** $p < .01$, *** $p < .001$.

〈표 IV-2-8〉 구매율: 침구 및 피복류 2

단위: %, (명)

구분	수면조끼	턱받이	가제 수건	아기띠· 합시트· 포대기	내복	외출복	(수)
전체	26.4	55.0	52.4	41.8	44.1	78.8	(605)
월령							
23년 7~9월생	47.7	34.2	53.7	65.8	62.4	71.1	(149)
23년 4~6월생	31.1	62.9	67.5	48.3	53.6	79.5	(151)
23년 1~3월생	13.2	63.6	49.0	27.2	30.5	80.8	(151)
22년 10~12월생	14.3	59.1	39.6	26.6	30.5	83.8	(154)
χ^2 (df)	61.377(3)**	35.330(3)**	24.791(3)**	65.744(3)**	48.758(3)**	7.917(3)	
총 자녀수							
1명	26.0	62.7	56.7	44.1	49.3	82.4	(381)
2명	26.9	41.4	44.6	37.6	34.4	74.7	(186)
3명 이상	28.9	44.7	47.4	39.5	39.5	63.2	(38)
χ^2 (df)	0.182(2)	24.723(2)**	7.710(2)*	2.235(2)	11.664(2)**	10.404(2)**	

* $p < .05$, ** $p < .01$, *** $p < .001$.

4) 최근 3개월간 구매 수량

- ☐ 가구특성별로 침구 및 피복류 품목의 최근 3개월 구매 수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9〉와 〈표 IV-2-10〉에 제시되어 있음
- ☐ 자녀의 월령에 따라 최근 3개월 간 구매 수량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품목은 겹싸개, 외출복 2개 품목임
- 겹싸개는 월령이 3개월 이하(23년 7~9월생)인 경우 구매 수량이 2.0개로 가장 많음
 - 외출복은 월령이 10~12개월(22년 10~12월생)인 경우에 구매 수량이 4.5개로 가장 많으며, 월령이 높을수록 구매 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 총 자녀수에 따라 최근 3개월 간 구매 수량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품목은 겹싸개, 아기목욕수건, 신생아 모자, 외출복 4개 품목임
- 자녀가 1명인 경우에 구매수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겹싸개(1.8개), 신생아 모자(2.8개), 외출복(4.3개)이며, 신생아모자와 외출복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구매 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아기목욕수건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구매수량이 6.6개로 가장 많고,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IV-2-9〉 최근 3개월 구매 수량: 침구 및 피복류 1

단위: 개, (명)

구분	배냇저고리	속싸개	겉싸개	아기 목욕수건	아기 이불	신생아 모자	손발싸개
전체	2.8 (171)	2.7 (163)	1.6 (115)	4.5 (244)	1.8 (277)	2.6 (185)	3.7 (161)
월령							
23년 7~9월생	2.9 (74)	3.0 (75)	2.0 (51)	4.8 (91)	1.8 (84)	2.8 (64)	3.9 (72)
23년 4~6월생	2.3 (45)	2.6 (38)	1.3 (32)	4.3 (67)	1.9 (79)	2.4 (61)	3.6 (47)
23년 1~3월생	3.0 (25)	2.3 (27)	1.4 (13)	4.4 (45)	1.7 (54)	3.0 (29)	4.0 (20)
22년 10~12월생	3.3 (27)	2.6 (23)	1.3 (19)	4.1 (41)	1.6 (60)	1.9 (31)	3.4 (22)
<i>F</i>	2.503	0.853	3.793*	0.518	0.855	2.055	0.432
총 자녀수							
1명	2.9 (102)	2.7 (102)	1.8 (73)	4.2 (160)	1.8 (199)	2.8 (126)	4.1 (99)
2명	2.6 (56)	2.7 (50)	1.2 (35)	4.7 (70)	1.6 (65)	2.1 (46)	3.3 (51)
3명 이상	2.8 (13)	3.1 (11)	1.4 (7)	6.6 (14)	1.9 (13)	1.8 (13)	3.0 (11)
<i>F</i>	0.480	0.170	4.109*	4.365*	1.959	3.738*	2.402

* $p < .05$.

〈표 IV-2-10〉 최근 3개월 구매 수량: 침구 및 피복류 2

단위: 개, (명)

구분	수면조끼	턱받이	가제 수건	아기띠· 힙시트· 포대기	내복	외출복
전체	2.2 (334)	6.3 (316)	33.0 (253)	1.4 (268)	4.9 (477)	3.9 (481)
월령						
23년 7~9월생	2.1 (52)	5.9 (80)	33.7 (98)	1.4 (94)	5.1 (106)	3.5 (105)
23년 4~6월생	2.1 (95)	6.0 (102)	31.3 (73)	1.3 (81)	4.8 (120)	3.8 (122)
23년 1~3월생	2.1 (96)	6.0 (73)	36.6 (41)	1.4 (46)	4.8 (122)	3.9 (123)
22년 10~12월생	2.2 (91)	7.6 (61)	31.0 (41)	1.2 (47)	4.9 (129)	4.5 (131)
<i>F</i>	0.159	2.557	0.364	1.309	0.336	2.835*
총 자녀수						
1명	2.2 (239)	6.6 (215)	35.8 (168)	1.4 (188)	5.1 (314)	4.3 (313)
2명	2.1 (78)	5.5 (83)	28.9 (70)	1.3 (65)	4.4 (139)	3.3 (145)
3명 이상	2.1 (17)	6.4 (18)	21.4 (15)	1.3 (15)	4.3 (24)	2.8 (23)
<i>F</i>	0.097	1.736	2.677	0.846	2.979	8.763***

* $p < .05$, *** $p < .001$.

5) 평균 구매 금액

□ 가구특성별로 침구 및 피복류 품목의 개당 구매 금액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11〉과 〈표 IV-2-12〉에 제시되어 있음

□ 자녀의 월령에 따라 개당 구매 금액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품목은 아기띠·

힙시트·포대기임

- 자녀가 1명인 경우 아기띠·힙시트·포대기의 구매 금액이 19만3,093원으로 가장 높음
-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해당 구매 금액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품목은 아기이불, 수면조끼 2개 품목임
- 월평균 가구소득 551~700만원인 경우 아기이불 구매 금액이 9만6,607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초과인 경우 8만4,257원으로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인 경우 수면조끼의 해당 구매 금액이 1만8,480원으로 가장 낮고,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원 초과인 경우 2만5,463원으로 가장 높음

〈표 IV-2-11〉 평균 구매 금액: 침구 및 피복류 1

단위: 원, (명)

구분	배넛 저고리	속싸개	겉싸개	아기 목욕수건	아기 이불	신생아 모자	손발싸개
전체	22,311 (171)	19,051 (163)	36,261 (115)	13,465 (243)	71,527 (277)	17,077 (185)	6,813 (161)
총 자녀수							
1명	23,701 (102)	19,130 (102)	38,466 (73)	14,453 (159)	73,362 (199)	18,010 (126)	6,739 (99)
2명	20,518 (56)	19,260 (50)	32,714 (35)	10,923 (70)	62,385 (65)	14,267 (46)	6,484 (51)
3명 이상	19,127 (13)	17,364 (11)	31,000 (7)	14,964 (14)	89,154 (13)	17,985 (13)	9,000 (11)
F	1.721	0.088	0.637	2.546	1.326	1.296	1.527
가구 소득							
250만원 이하	20,100 (20)	19,958 (24)	36,389 (18)	15,384 (31)	74,382 (34)	17,380 (20)	6,850 (22)
251~400만원	25,063 (72)	21,517 (59)	39,271 (48)	14,039 (106)	59,568 (111)	17,878 (79)	7,165 (62)
401~550만원	20,417 (36)	14,420 (40)	31,655 (29)	12,796 (57)	72,725 (69)	15,740 (47)	6,325 (40)
551~700만원	21,950 (20)	21,667 (18)	34,444 (9)	11,970 (23)	96,607 (28)	13,132 (19)	7,094 (16)
700만원 초과	18,898 (23)	17,727 (22)	36,545 (11)	11,631 (26)	84,257 (35)	20,500 (20)	6,453 (21)
F	1.780	1.856	0.342	0.613	2.639*	0.889	0.269

* $p < .05$.

〈표 IV-2-12〉 평균 구매 금액: 침구 및 피복류 2

단위: 원, (명)

구분	수면조끼	턱받이	가제 수건	아기띠· 힙시트· 포대기	내복	외출복
전체	21,022 (333)	9,438 (317)	1,819 (252)	178,281 (268)	21,721 (477)	47,173 (484)
총 자녀수						
1명	21,687 (239)	8,862 (216)	1,887 (168)	193,093 (188)	22,123 (314)	48,578 (316)
2명	18,940 (77)	10,117 (83)	1,739 (70)	143,368 (65)	19,910 (139)	43,057 (145)
3명 이상	21,100 (17)	13,222 (18)	1,401 (14)	143,933 (15)	26,950 (24)	53,810 (23)
F	1.854	1.971	1.345	6.620*	2.537	1.270

구분	수면조끼	텍발이	가제 수건	아기띠· 히시트· 포대기	내복	외출복
가구 소득						
250만원 이하	18,480 (35)	12,373 (30)	1,427 (33)	146,089 (38)	21,565 (46)	45,371 (48)
251~400만원	21,150 (147)	9,879 (134)	1,808 (103)	182,546 (97)	22,916 (197)	45,689 (201)
401~550만원	18,822 (86)	8,218 (89)	2,008 (59)	188,338 (68)	19,091 (126)	42,784 (128)
551~700만원	24,629 (35)	9,054 (28)	1,828 (26)	172,276 (29)	20,964 (56)	56,085 (53)
700만원 초과	25,463 (30)	8,667 (36)	1,903 (31)	186,611 (36)	24,517 (52)	55,954 (54)
F	3.663*	1.182	1.363	1.189	1.737	1.783

** $p < .01$.

3.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

가. 개요 :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

□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로 7가지 품목을 조사함

○ 수유관련 용품에는 젖병(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 (별도 구매한)젖꼭지, 공갈젖꼭지, 젖병건조대(소득 기능 없음), 수유패드, 모유저장팩이 포함되며, 식기류(그릇, 식판, 컵, 수저 등)는 하나의 품목으로 구분함

□ 필수율이 90%를 넘는 품목은 젖병(97.9%) 하나임

○ 필수율이 85% 이상인 품목에는 (별도 구매한) 젖꼭지(88.1%)와 식기류(89.6%) 2개 품목이 추가되며, 80% 이상은 공갈젖꼭지가 83.5% 포함됨

○ 젖병건조대(74.9%), 수유패드(71.4%), 모유저장팩(63.3%), 순으로 필수율이 낮아짐

□ 수유관련 용품에 대한 필요수량은 물어본 결과, 젖병은 1년에 평균 9.6개, 젖꼭지 11.4개, 공갈젖꼭지 5.0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IV-3-1〉 필수 여부 및 필요 수량_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단위: %, 개, (명)

품목	필수 여부			필요 수량		
	필수	필수아님	(수)			
1) 젖병 (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	97.9	2.1	(605)	12개월동안	9.6	(592)
2) (별도 구매한) 젖꼭지	88.1	11.9	(605)	12개월동안	11.4	(533)
3) 공갈젖꼭지	83.5	16.5	(605)	12개월동안	5.0	(505)
4) 젖병건조대 (소득 기능 없음)	74.9	25.1	(605)			
5) 수유패드	71.4	28.6	(605)			
6) 모유저장팩	63.3	36.7	(605)			
7) 식기 (그릇, 식판, 컵, 수저 등)	89.6	10.4	(605)			

-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에 대한 최근 3개월 이내 구매경험(중고구매 포함)은 대체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절반 이상이 구매한 품목은 젖병(69.3%), 젖꼭지(67.6%), 공갈젖꼭지(64.8%), 식기(62.6%) 4개임
 - 구매율이 50%미만인 품목은 젖병건조대(35.4%), 수유패드(30.9%), 모유저장팩(27.8%)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 구매율이 낮은 이유는 3개월 이내 구매여부를 물어보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거나 물려받기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배제되었기 때문일 수 있음
 - 3개월 간 구매수량을 살펴보면, 젖꼭지가 평균 7.7개로 가장 많고, 젖병 7.4개, 식기 4.3개, 공갈젖꼭지 3.8개, 모유저장팩 2.4개, 수유패드 2.1개, 젖병건조대 1.1개 순으로 나타남
 - 개당 구매 금액은 젖병건조대가 평균 56,07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젖병 21,241원, 식기 19,237원, 수유패드 13,322원, 모유저장팩 11,903원, 공갈젖꼭지 10,485원, 젖꼭지 7,906원 순으로 나타남

〈표 IV-3-2〉 구매 경험_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단위: %, 개, 원, (명)

품목	3개월 이내 구매 여부			3개월 간 구매수량		개당 구매 금액	
	있음	없음	(수)				
1) 젖병 (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	69.3	30.7	(605)	7.4	(419)	21,241	(419)
2) (별도 구매한) 젖꼭지	67.6	32.4	(605)	7.7	(409)	7,906	(407)
3) 공갈젖꼭지	64.8	35.2	(605)	3.8	(392)	10,485	(391)
4) 젖병건조대 (소독 기능 없음)	35.4	64.6	(605)	1.1	(214)	56,070	(214)
5) 수유패드	30.9	69.1	(605)	2.1	(187)	13,322	(187)
6) 모유저장팩	27.8	72.2	(605)	2.4	(168)	11,903	(166)
7) 식기 (그릇, 식판, 컵, 수저 등)	62.6	37.4	(605)	4.3	(380)	19,237	(380)

주: 1) 수유패드의 기준용량은 60매, 모유저장팩의 기준용량은 30매임.

2) 구매 수량과 구매 금액은 응답 값이 있는 경우(구매 경험 있음)만을 기준으로 산출함.

나. 가구특성별 차이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1) 필수율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가 가구특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IV-3-3〉과 같았음

- 자녀의 월령에 따라 필수여부가 차이를 보인 품목은 식기임
 - 식기의 경우 월령이 3개월이하(23년7~9월생)인 경우에는 필수품이라는 응답이 72.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자녀 월령이 올라갈수록 필수품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는 것으로 나타남.
- 총 자녀수에 따라 필수여부가 다른 품목은 젖병 건조대임
 - 젖병 건조대의 경우 자녀가 1명일 때 79.8%가 필수라고 응답한 반면, 자녀가 2명인 경우 68.3%, 3명 이상인 경우 57.9%로 나타나 자녀가 늘어날수록 필수라고 보는 응답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젖병 건조대가 자녀 양육 경험에 따라 필수여부에 대한 인지가 달라지는 품목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실제 다른 일상용품으로의 대체가 가능한 물품임을 엿볼 수 있음

〈표 IV-3-3〉 필수율: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

단위: %, (명)

구분	젖병	젖꼭지	공갈 젖꼭지	젖병 건조대	수유 패드	모유 저장백	식기	(수)
전체	97.9	88.1	83.5	74.9	71.4	63.3	89.6	(605)
월령								
23년 7~9월생	98.0	85.2	89.3	73.2	75.2	61.7	72.5	(149)
23년 4~6월생	98.0	86.1	84.8	71.5	72.8	64.2	92.1	(151)
23년 1~3월생	97.4	89.4	78.8	75.5	70.9	60.9	96.0	(151)
22년 10~12월생	98.1	91.6	81.2	79.2	66.9	66.2	97.4	(154)
$\chi^2(df)$	0.241(3)	3.749(3)	6.777(3)	2.713(3)	2.751(3)	1.149(3)	64.504(3)***	
총 자녀수								
1명	98.4	89.0	85.3	79.8	71.9	64.3	89.8	(381)
2명	96.8	85.5	79.6	68.3	72.6	64.0	90.3	(186)
3명 이상	97.4	92.1	84.2	57.9	60.5	50.0	84.2	(38)
$\chi^2(df)$	1.665(2)	2.075(2)	2.992(2)	15.018(2)***	2.377(2)	3.096(2)	1.298(2)	

*** $p < .001$.

2) 필요 수량

□ 가구특성별로 수유관련 용품에 대한 필요 수량을 살펴본 결과 〈표 IV-3-4〉와 같음

- 자녀의 월령에 따라서는 젖꼭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젖꼭지 필요 수량은 월령 3개월이하(23년7~9월) 9.4개에서 점차 증가해 월령 4~6개월(23년4~6월생) 11.0개, 월령 7~9개월(23년1~3월생) 12.0개, 월령 10~12개월(22년10~12월생) 12.9개로 나타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 수량을 많이 응답하는 경향성을 보임

○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젖병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젖병 필요 수량은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9.2개, 251~400만원 9.0개, 401~550만원 9.9개, 551~700만원 10.0개, 700만원 초과 11.0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젖병의 필요수량을 많게 보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4〉 필요 수량: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

단위: 개, (명)

구분	젖병	젖꼭지	공갈젖꼭지
전체	9.6 (592)	11.4 (533)	5.0 (505)
월령			
23년 7~9월생	9.6 (146)	9.4 (127)	4.4 (133)
23년 4~6월생	9.4 (148)	11.0 (130)	5.1 (128)
23년 1~3월생	9.9 (147)	12.0 (135)	5.2 (119)
22년 10~12월생	9.5 (151)	12.9 (141)	5.4 (125)
<i>F</i>	0.380	5.302**	2.323
가구 소득			
250만원 이하	9.2 (59)	11.1 (53)	5.2 (50)
251~400만원	9.0 (247)	11.1 (221)	4.7 (214)
401~550만원	9.9 (152)	11.0 (139)	4.8 (132)
551~700만원	10.0 (67)	12.0 (58)	5.3 (51)
700만원 초과	11.0 (67)	12.7 (62)	5.9 (58)
<i>F</i>	2.433*	0.792	1.734

* $p < .05$, ** $p < .01$.

3) 구매율

□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에 대한 구매 경험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IV-3-5〉와 같음

○ 자녀 월령에 따라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의 모든 품목에서 구매 경험이 차이를 보임

- 젖병, 공갈젖꼭지, 젖병건조대, 수유패드 등 자녀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 구매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해당 물품이 내구연한이 긴 물품으로 생애 초기 구매 후 자녀 성장에 따라서는 재구매 가능성은 높지 않은 품목임을 시사함

- (별도 구매) 젖꼭지는 4~9개월 월령에서 구매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사용하는 젖꼭지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임
- 모유저장팩은 3개월 이하의 경우에만 구매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이 월령의 모유수유 비중이 높은 것과 내구연한이 긴 상품인 것이 연관된 결과임
- 반면, 식기는 4개월 이상에서 구매율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 또한 이유식 시작 시기와 연관된 결과라 볼 수 있음

○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젖꼭지, 공갈젖꼭지, 모유저장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최근 3개월 이내 젖꼭지 구매율은 외벌이 64.4%에 비해 맞벌이가 68.3%로 다소 많았으며, 공갈젖꼭지도 외벌이 60.0%보다 맞벌이 68.0%로 많았고, 모유저장팩도 외벌이 21.0%에 비해 맞벌이 31.2%로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더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젖병건조대와 식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보임.

- 젖병건조대는 자녀가 1명인 경우가 2명이상 다자녀 가구에서 구매율이 차이를 10%p 이상 차이를 보이며, 식기는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구매율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내구재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물려받기 혹은 함께 사용하기 등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서는 재구매 필요성이 낮기 때문으로 사료됨

〈표 IV-3-5〉 구매율: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

단위: %, (명)

구분	젖병	젖꼭지	공갈 젖꼭지	젖병 건조대	수유 패드	모유 저장팩	식기	(수)
전체	69.3	67.6	64.8	35.4	30.9	27.8	62.6	(605)
월령								
23년 7~9월생	82.6	69.8	81.9	54.4	40.9	38.9	20.8	(149)
23년 4~6월생	80.8	76.2	71.5	35.8	35.8	25.2	76.2	(151)
23년 1~3월생	66.2	72.8	58.9	29.8	23.8	23.2	74.8	(151)
22년 10~12월생	48.1	51.9	47.4	22.1	23.4	24.0	77.9	(154)
X ² (df)	54.981(3)***	24.504(3)***	44.751(3)***	37.471(3)***	16.309(3)***	12.419(3)**	148.192(3)***	

구분	젓병	젓꼭지	공갈 젓꼭지	젓병 건조대	수유 패드	모유 저장팩	식기	(수)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9.1	68.3	68.0	37.9	31.2	31.2	64.9	(388)
외벌이	68.3	64.4	60.0	30.7	30.2	21.0	59.0	(205)
기타	91.7	100.0	41.7	33.3	33.3	33.3	50.0	(12)
χ^2 (df)	2.926(2)	6.803(2)*	6.673(2)*	3.026(2)	0.089(2)	7.160(2)*	2.848(2)	
총 자녀수								
1명	68.2	68.0	65.1	39.9	28.9	27.6	66.9	(381)
2명	68.8	64.5	62.9	27.4	32.8	28.0	55.4	(186)
3명 이상	81.6	78.9	71.1	28.9	42.1	28.9	55.3	(38)
χ^2 (df)	2.911(2)	3.067(2)	0.959(2)	9.242(2)**	3.281(2)	0.038(2)	8.072(2)*	

주: 한부모 가구는 외벌이로 간주. 맞벌이 가구 여부의 '기타'는 부모가 모두 미취업이거나 한부모이면서 미취업인 것을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4) 최근 3개월 간 구매 수량

□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에 대한 최근 3개월 간 구매 수량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3-6>과 같음

- 자녀의 월령에 따라서는 젓병과 식기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월령증가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젓병과 젓꼭지의 최근 3개월 간 구매 수량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젓병은 외벌이 가구가 평균 6.6개를 구매한데 반해 맞벌이 가구는 평균 7.8개를 구매함. 젓꼭지도 외벌이 가구 평균 6.9개에 비해 맞벌이 가구는 8.2개를 구매해 더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식기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자녀가 1명인 경우 평균 4.9개, 자녀 2명인 경우 3.2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7개를 구매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식기 구매 수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순위 자녀가 사용하던 식기를 물려받거나 함께 사용함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됨.

〈표 IV-3-6〉 최근 3개월 간 구매 수량: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

단위: 개, 상자, (명)

구분	젖병	젖꼭지	공갈 젖꼭지	젖병 건조대	수유패드 (단위: 상자)	모유 저장팩 (단위: 상자)	식기
전체	7.4 (419)	7.7 (409)	3.8 (392)	1.1 (214)	2.1 (187)	2.4 (168)	4.3 (380)
월령							
23년 7~9월생	8.3 (123)	7.7 (104)	3.6 (122)	1.0 (81)	2.3 (61)	2.3 (58)	2.8 (32)
23년 4~6월생	6.4 (122)	7.4 (115)	3.8 (108)	1.1 (54)	2.2 (54)	2.6 (38)	5.0 (115)
23년 1~3월생	7.2 (100)	7.7 (110)	4.0 (89)	1.2 (45)	2.5 (36)	2.8 (35)	4.3 (113)
22년 10~12월생	7.7 (74)	8.2 (80)	4.0 (73)	1.1 (34)	1.5 (36)	1.9 (37)	4.0 (120)
<i>F</i>	3.987**	0.262	0.623	1.817	1.314	0.756	2.79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8 (268)	8.2 (265)	3.9 (264)	1.1 (147)	2.2 (121)	2.6 (121)	4.4 (252)
외벌이	6.6 (140)	6.9 (132)	3.7 (123)	1.1 (63)	2.0 (62)	1.7 (43)	4.1 (122)
기타	5.5 (11)	4.9 (12)	3.4 (5)	1.3 (4)	2.8 (4)	2.3 (4)	4.2 (6)
<i>F</i>	4.398*	3.261*	0.276	0.941	0.186	1.601	0.254
총 자녀수							
1명	7.7 (260)	8.1 (259)	3.9 (248)	1.1 (152)	2.3 (110)	2.4 (105)	4.9 (255)
2명	6.9 (128)	7.1 (120)	3.7 (117)	1.1 (51)	1.8 (61)	2.4 (52)	3.2 (104)
3명 이상	6.2 (31)	6.4 (30)	3.7 (27)	1.0 (11)	2.3 (16)	1.7 (11)	2.7 (21)
<i>F</i>	2.700	1.937	0.438	0.645	0.915	0.338	8.278***

주: 한부모 가구는 외벌이로 간주. 맞벌이 가구 여부의 '기타'는 부모가 모두 미취업이거나 한부모이면서 미취업인 것을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5) 평균 구매 금액

□ 가구특성에 따른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의 평균 구매 금액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3-7〉과 같음

○ 월령에 따라 평균 구매 금액 차이가 나타난 품목은 식기였음

- 식기의 평균 구매 금액이 월령 3개월이하(23년7~9월) 2만5,17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월령 4~6개월(23년4~6월생)이 1만7,095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월령 7~9개월(23년1~3월생) 1만9,176원, 월령 10~12개월(22년10~12월생) 1만9,763원으로 나타남

○ 맞벌이 여부에 따른 평균 구매 금액은 젖꼭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외벌이 7,322원에 비해 맞벌이가 8,034원으로 높게 나타남

○ 총 자녀수에 따른 평균 구매 금액은 식기만 유의미하였으나 자녀수 증가에 따른 특별한 경향성은 없었음

〈표 IV-3-7〉 평균 구매 금액: 수유관련 용품 및 식기류

단위: 원, (명)

구분	젖병	젖꼭지	공갈 젖꼭지	젖병 건조대	수유 패드	모유 저장백	식기
전체	21,241 (419)	7,906 (407)	10,485 (391)	56,070 (214)	13,322 (187)	11,903 (166)	19,237 (380)
월령							
23년 7~9월생	20,939 (123)	8,171 (104)	11,613 (121)	58,891 (81)	13,996 (61)	14,243 (58)	25,172 (32)
23년 4~6월생	23,324 (122)	8,554 (114)	10,106 (108)	54,391 (54)	14,130 (54)	12,635 (37)	17,095 (115)
23년 1~3월생	20,838 (100)	7,326 (109)	9,635 (89)	51,413 (45)	10,942 (36)	8,595 (35)	19,176 (113)
22년 10~12월생	18,851 (74)	7,430 (80)	10,209 (73)	58,176 (34)	13,347 (36)	10,596 (36)	19,763 (120)
F	1.259	1.205	2.146	0.082	1.119	2.616	2.87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1,415 (268)	8,034 (265)	10,245 (264)	52,808 (147)	13,536 (121)	12,377 (119)	19,164 (252)
외벌이	20,380 (140)	7,322 (131)	11,059 (122)	59,129 (63)	12,496 (62)	10,138 (43)	19,534 (122)
기타	27,955 (11)	11,795 (11)	9,100 (5)	127,750 (4)	19,625 (4)	16,775 (4)	16,250 (6)
F	1.170	3.583*	0.866	1.474	1.302	1.250	0.165
총 자녀수							
1명	20,952 (260)	7,978 (259)	10,985 (248)	59,843 (152)	14,025 (110)	12,353 (103)	20,427 (255)
2명	20,401 (128)	7,343 (118)	9,545 (116)	49,989 (51)	12,494 (61)	11,481 (52)	15,703 (104)
3명 이상	27,126 (31)	9,501 (30)	9,924 (27)	32,113 (11)	11,640 (16)	9,678 (11)	22,276 (21)
F	2.296	1.900	2.323	0.668	0.887	0.410	4.758**

주: 한부모 가구는 외벌이로 간주. 맞벌이 가구 여부의 '기타'는 부모가 모두 미취업이거나 한부모이면서 미취업인 것을 의미함.

* $p < .05$, ** $p < .01$.

4. 분류 및 식품류

- 분류 및 식품류와 관련하여 우선 모유 수유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IV-4-1〉에 제시되어 있음
- 분류만 수유하는 경우가 67.9%로 높게 나타나고 모유만 수유하는 경우는 8.1%임. 모유와 분류의 혼합 수유는 12.1%, 더 이상 수유하지 않음은 11.9%로 나타남
- 모유 수유 여부는 월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6개월 이하에서는 모유만 수유하는 비율이 10% 이상으로 타 월령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10~12개월에서는 더 이상 수유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절반 정도에 달함
 - 3개월이하(23년 7~9월생)의 경우 분류만 수유가 63.8%이고 모유와 분류 혼합 수유가 25.5%로 나타남. 모유만 수유하는 경우는 10.7%임
 - 4~6개월(23년 4~6월생)은 분류만 수유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져 78.1%이며, 모유와 분류의 혼합 수유하는 경우는 8.6%로 감소함. 모유만 수유하

는 경우는 11.3%임

- 7~9개월(23년 1~3월생)은 분유만 수유한다는 응답 비율이 82.8%까지 높아지고 모유와 분유의 혼합 수유는 9.9%임. 모유만 수유한다는 비율은 7.3%로 감소함.
- 10~12개월(22년 10~12월생)은 분유만 수유한다는 응답 비율이 47.4%까지 낮아지는 반면, 더 이상 수유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44.8%로 높게 나타남. 모유와 분유의 혼합 수유는 4.5%, 모유만 수유하는 경우는 3.2%임
-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모유수유 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다자녀 가구에서 모유만 수유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음
-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는 모유만 수유한다는 응답이 4.5%인데 비해 2명인 경우는 14.5%, 3명이상인 경우는 13.2%로 높게 나타남

〈표 IV-4-1〉 모유 수유 여부

단위: %, (명)

구분	모유만 수유	모유와 분유 혼합 수유	분유만 수유	더 이상 수유하지 않음	(수)
전체	8.1	12.1	67.9	11.9	(605)
월령					
23년 7~9월생	10.7	25.5	63.8	0.0	(149)
23년 4~6월생	11.3	8.6	78.1	2.0	(151)
23년 1~3월생	7.3	9.9	82.8	0.0	(151)
22년 10~12월생	3.2	4.5	47.4	44.8	(154)
X ² (df)	244.756** (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2	12.6	68.3	11.9	(388)
외벌이	9.8	11.2	66.3	12.7	(205)
기타	8.3	8.3	83.3	0.0	(12)
X ² (df)	3.468(6)				
총 자녀수					
1명	4.5	11.8	71.1	12.6	(381)
2명	14.5	11.8	61.8	11.8	(186)
3명 이상	13.2	15.8	65.8	5.3	(38)
X ² (df)	20.529** (6)				

주: 한부모 가구는 외벌이로 간주. 맞벌이 가구 여부의 '기타'는 부모가 모두 미취업이거나 한부모이면서 미취업인 것을 의미함.

** $p < .01$, *** $p < .001$.

- 분유 소비량과 구매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IV-4-2>에 제시되어 있음
- 최근 3개월 동안 분유를 구매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98.3%(476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분유를 구매한 경우 한통의 개당 구매 가격은 평균 3만1,771원이었음
 - 한편, 지난 한달 동안 먹은 분유량은 472명이 응답하였고, 평균 2,679.8g을 섭취한 것으로 조사됨
 - 한 달 평균 분유 소비액은 11만4,079원(464명 응답 기준)으로 분석됨
- 분유 소비량 및 구매 경험은 월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자녀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섭취하는 분유량이 줄어듦
 - 지난 한달 동안 먹은 분유량은 3개월이하(23년 7~9월생)가 3,081.4g이나 4~6개월(23년 4~6월생)은 2,862.2g, 7~9개월(23년 1~3월생)은 2,496.0g이며, 10~12개월(22년 10~12월생)은 2,066.3g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한달 평균 분유 소비액도 낮아져 3개월이하(23년 7~9월생)가 13만4,844원인데 비해 4~6개월(23년 4~6월생)은 12만2,661원, 7~9개월(23년 1~3월생) 10만3,929원, 10~12개월(22년 10~12월생)은 8만3,152원으로 낮아짐
 - 반면, 분유 한통의 개당 금액은 3개월이하(23년 7~9월생)가 3만3,464원으로 이후 월령 대의 3만1,000원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가구특성별로는 맞벌이 가구 여부, 총 자녀수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가구소득별로는 분유 한통의 개당 구매금액에서 차이를 보임
 - 즉, 25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의 경우 분유의 개당 구매금액이 2만6,892원으로 조사된 데 비해 그 이상의 소득 범주에서는 3만원을 상회함
 - 이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앞서 육아용품 구매 시 고려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과 연관된 결과로 사료됨

〈표 IV-4-2〉 분유 소비량 및 구매 경험

단위: g, %, 원, (명)

구분	지난 한달 동안 먹은 분유량	3개월 동안 구매여부			개당 구매금액	한달 평균 소비액
		예	아니오	(수)		
전체	2,679.8 (472)	98.3	1.7	(484)	31,771 (476)	114,079 (464)
월령						
23년 7~9월생	3,081.4 (128)	99.2	0.8	(133)	33,464 (132)	134,844 (127)
23년 4~6월생	2,862.2 (125)	100.0	0.0	(131)	31,165 (131)	122,661 (125)
23년 1~3월생	2,496.0 (140)	97.9	2.1	(140)	31,065 (137)	103,929 (137)
22년 10~12월생	2,066.3 (79)	95.0	5.0	(80)	31,147 (76)	83,152 (75)
$X^2(df)/F$	13.221***	8.586*(3)			1.482	9.89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580.7 (306)	98.7	1.3	(314)	32,071 (310)	112,062 (302)
외벌이	2,845.1 (155)	97.5	2.5	(159)	30,928 (155)	117,485 (151)
기타	3,109.1 (11)	100.0	0.0	(11)	35,189 (11)	122,684 (11)
$X^2(df)/F$	2.901	1.191(2)			1.127	0.355
총 자녀수						
1명	2,641.8 (309)	98.7	1.3	(316)	32,259 (312)	116,049 (305)
2명	2,684.1 (132)	97.8	2.2	(137)	30,753 (134)	107,523 (129)
3명 이상	3,041.0 (31)	96.8	3.2	(31)	31,240 (30)	122,233 (30)
$X^2(df)/F$	1.397	1.006(2)			0.937	0.817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3,139.0 (48)	98.0	2.0	(49)	26,892 (48)	119,828 (47)
251~400만원	2,633.7 (188)	98.5	1.5	(194)	32,535 (191)	114,520 (185)
401~550만원	2,461.1 (128)	99.2	0.8	(130)	31,288 (129)	101,434 (127)
551~700만원	2,834.7 (56)	94.6	5.4	(56)	32,384 (53)	128,660 (53)
700만원 초과	2,794.2 (52)	100.0	0.0	(55)	33,918 (55)	123,329 (52)
$X^2(df)/F$	2.945*	6.335(4)			3.358*	1.774

주: 한부모 가구는 외벌이로 간주. 맞벌이 가구 여부의 '기타'는 부모가 모두 미취업이거나 한부모이면서 미취업인 것을 의미함.

* $p < .05$, *** $p < .001$.

□ 이유식 구매 경험 및 비용에 대한 조사에 앞서 이유식 섭취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IV-4-3〉과 같음

□ 이유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9.6%(421명)이며, 이 경우 지난 한 주 동안 먹은 이유식의 끼니 수는 16.4끼니(420명 응답 기준)로 하루 2~3회임

□ 월령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시기별 이유식 권장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임

- 이유식은 생후 4개월 이후부터 1세까지 제공하는 것이 권장되는데(안효섭·신희영, 2016: 75) 조사 결과 3개월이하(23년 7~9월생)⁵²⁾는 2.0%만이 이유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한 데 비해 4~9개월(23년 4~6월생, 23년 1~3월생)까지는 90% 이상이 이유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0~12개월(22년 10~12월생)는 84.4%만이 이유식을 섭취한 것으로 응답함
- 한편, 이유식 횟수는 이유초기(4~6개월) 1회, 이유중기(7~9개월) 2회, 이유후기(10~12개월) 3회가 권장됨(안효섭·신희영, 2016: 76).
 - 지난 한 주 동안 먹은 끼니 수를 분석한 결과, 4~6개월(23년 4~6월생)에는 주 11.3회로 하루 1.6회, 7~9개월(23년 1~3월생)은 주 17.8회로 하루 2.5회, 10~12개월(22년 10~12월생) 주 20.2회로 하루 2.9회의 이유식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나 권장 횟수와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임

〈표 IV-4-3〉 이유식 섭취

단위: %, 끼니, (명)

구분	이유식 섭취 여부			지난 한주 동안 이유식 먹은 끼니 수	
	예	아니오	(수)		
전체	69.6	30.4	(605)	16.4	(420)
월령					
23년 7~9월생	2.0	98.0	(149)	14.0	(3)
23년 4~6월생	92.1	7.9	(151)	11.3	(139)
23년 1~3월생	98.7	1.3	(151)	17.8	(149)
22년 10~12월생	84.4	15.6	(154)	20.2	(129)
$X^2(df)/F$	433.861*** (3)			142.593***	

주: 이유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했으나, 지난 한 주 동안 먹은 끼니를 응답하지 않은 가구가 1가구 있음

*** $p < .001$.

- 이유식 구매 경험과 관련해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유식에 대한 경험과 만들어서 먹인 이유식 비용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4-4〉와 같음
- 최근 3개월 간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유식을 구매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의 52.5%(221명)가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이유식 구매 금액은 주 평균 5만3,172원임

52) 자녀 월령 구분은 연구 과정에서의 편의를 고려한 구분점으로, 실제 조사 시점인 2023년 12월 기준으로 23년 7월생은 월령이 5개월에 해당하여 실제 이유식을 시작한 경우가 포함됨. 다른 육아용품의 경우 조사 대상 기간(예: 최근 3개월, 생후 12개월 이내 등)을 지정하여 조사하였는데, 식품류의 경우에는 현재를 조사 기준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생년 월령 차이임.

- 한편, 시판되는 이유식 외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인 이유식의 비용을 응답한 가구는 421가구이며, 이 비용은 주 평균 3만7,596원임
- 이유식의 구매 비용과 직접 만들어서 먹인 비용을 가구 단위로 합산한 후 1주일 간의 끼니수로 나누어 산출한 끼니당 이유식 비용은 4,055원(420명 응답 기준)임
- 자녀 월령별로는 월령이 높아질수록 이유식 구매율이 증가하고 구매 금액도 높아짐
 - 이유식 구매율은 4~6개월(23년 4~6월생)은 35.3%, 7~9개월(23년 1~3월생)은 56.4%, 10~12개월(22년 10~12월생)은 67.7%로 월령 증가에 따라 높아짐
 - 이유식의 구매 금액 역시 높아져 4~6개월(23년 4~6월생)가 3만9,490원이며, 7~9개월(23년 1~3월생) 5만3,329원, 10~12개월(22년 10~12월생)은 6만0,639원으로 나타남
 - 시판되는 이유식 외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인 이유식의 구매 금액도 높아져 4~6개월(23년 4~6월생)가 3만0,373원이며, 7~9개월(23년 1~3월생) 3만6,131원, 10~12개월(22년 10~12월생)은 4만6,865원으로 나타남
- 이유식 구매는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남
 - 모가 취업한 경우는 시판 이유식의 구매율이 62.9%이나 모가 휴직 중이거나 미취업인 경우는 각각 46.0%, 57.1%로 낮아짐

〈표 IV-4-4〉 이유식 비용

단위: %, 원, (명)

구분	구매 여부 (최근 3개월)			구매해서 먹은 이유식 비용 (지난 1주일)		만들어서 먹인 이유식 비용 (지난 1주일)		끼니당 이유식 비용	
	예	아니오	(수)						
전체	52.5	47.5	(421)	53,172	(221)	37,596	(421)	4,055	(420)
월령									
23년 7~9월생	0.0	100.0	(3)	-	(0)	43,333	(3)	2,778	(3)
23년 4~6월생	35.3	64.7	(139)	39,490	(49)	30,373	(139)	4,088	(139)
23년 1~3월생	56.4	43.6	(149)	53,329	(84)	36,131	(149)	3,813	(149)
22년 10~12월생	67.7	32.3	(130)	60,639	(88)	46,865	(130)	4,329	(129)
$X^2(df)/F$	32.827*** (3)			5.866**		5.905***		0.954	

구분	구매 여부 (최근 3개월)			구매해서 먹은 이유식 비용 (지난 1주일)	만들어서 먹인 이유식 비용 (지난 1주일)	끼니당 이유식 비용
	예	아니오	(수)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52.5	47.5	(40)	39,095 (21)	36,113 (40)	3,537 (39)
251~400만원	47.8	52.2	(178)	50,173 (85)	38,988 (178)	3,913 (178)
401~550만원	53.6	46.4	(112)	56,890 (60)	35,080 (112)	4,018 (112)
551~700만원	65.1	34.9	(43)	60,117 (28)	35,465 (43)	4,424 (43)
700만원 초과	56.3	43.8	(48)	58,096 (27)	41,448 (48)	4,760 (48)
$\chi^2(df)/F$	4.675(4)			1.564	0.463	1.341
모 취업 여부						
취업	62.9	37.1	(62)	59,335 (39)	42,573 (62)	5,466 (39)
휴직중	46.0	54.0	(211)	54,340 (97)	37,720 (211)	4,989 (97)
미취업	57.1	42.9	(147)	49,475 (84)	35,505 (147)	5,066 (84)
$\chi^2(df)/F$	7.563(2)			1.102	0.989	0.367

주: 끼니당 이유식 비용은 (구매해서 먹인 비용+직접 만들어서 먹인 비용)/1주일 동안 끼니수*로 산출

* $p < .05$, ** $p < .01$, *** $p < .001$.

□ 자녀의 간식 섭취와 구매 경험을 조사한 결과는 <표 IV-4-5>에 제시되어 있음

□ 자녀가 우유, 치즈, 요거트, 아기 과자, 과일 등의 간식을 먹는 시기인지 질문한 결과, 전체의 63.5%(384명)가 그렇다고 응답함.

○ 이들에게 최근 한달 동안의 간식 구매 여부를 분석한 결과, 93.8%(360명)가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간식 구매 금액은 월평균 5만 9,977원으로 조사됨

□ 우유, 치즈, 요거트, 아기 과자, 과일 등의 간식은 보충된 이유식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월령에 따라 권장사항이 달라지며(안효섭·신희영, 2020: 72), 본 조사 결과 역시 이에 상응하여 월령별 구매율의 차이를 보임. 고형의 보충식(이유식)이 시작되는 월령인 4개월 이후부터의 응답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음

○ 4~6개월(23년 4~6월생)은 54.3%가 간식을 먹는 시기라고 응답하였고 간식 구매율은 86.6%, 월평균 간식 구매 금액은 4만2,570원임

○ 97% 이상이 간식을 먹는다고 응답한 7~9개월(23년 1~3월생)의 경우 간식 구매율은 93.9%이며 월평균 간식 구매 금액은 4만2,328원임

○ 100%가 간식을 먹는다고 응답한 10~12개월(22년 10~12월생)의 경우 간식 구매율은 97.4%이며 월평균 간식 구매 금액은 8만3,520원임

□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간식 구매 경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즉,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비용이 자녀의 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필수재로서의 전형적인 소비 양상을 보임

〈표 IV-4-5〉 간식 (우유, 치즈, 요거트, 아기 과자, 과일 등) 비용

단위: %, 원, (명)

구분	간식 먹는 시기 여부			한달 동안 간식 구매 경험			한달 동안 간식 구매 비용	
	예	아니오	(수)	예	아니오	(수)		
전체	63.5	36.5	(605)	93.8	6.3	(384)	59,977	(360)
월령								
23년 7~9월생	0.7	99.3	(149)	100.0	0.0	(1)	200,000	(1)
23년 4~6월생	54.3	45.7	(151)	86.6	13.4	(82)	42,570	(71)
23년 1~3월생	97.4	2.6	(151)	93.9	6.1	(147)	42,328	(138)
22년 10~12월생	100.0	0.0	(154)	97.4	2.6	(154)	83,520	(150)
χ^2 (df) / F	422.309** (3)			10.761* (3)			20.361***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57.6	42.4	(59)	94.1	5.9	(34)	75,438	(32)
251~400만원	68.3	31.7	(252)	92.4	7.6	(172)	60,827	(159)
401~550만원	62.0	38.0	(158)	93.9	6.1	(98)	53,022	(92)
551~700만원	56.5	43.5	(69)	97.4	2.6	(39)	59,211	(38)
700만원 초과	61.2	38.8	(67)	95.1	4.9	(41)	60,979	(39)
χ^2 (df) / F	5.085(4)			1.549(4)			0.964	

* $p < .05$, *** $p < .001$.

5. 기기/집기류

가. 개요 : 기기/집기류

□ 기기/집기류는 아기욕조 등 12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 기기/집기류는 다른 육아용품에 비해 필수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는 특징이 있음

□ 필수율이 90%인 품목은 아기욕조(94.5%), 유모차(97.4%), 카시트(99.0%), 체온계(98.8%) 4개 품목임

- 필수율이 85% 이상인 품목은 앞서 필수율이 90% 이상인 4개 품목 이외에 아기의자(88.4%), 놀이매트(89.1%), 치발기(85.8%) 3개 품목임

- 기기/집기류 중에서 필수율이 가장 낮은 품목은 유축기(54.2%)였으며, 다음으로 아기침대(69.1%), 코흡입기(74.0%), 아기서랍장 및 옷장(79.8%), 분유포트(84.6%) 5개 품목임

- 기기/집기류는 내구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수 여부와 함께 보유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필수율과 보유율이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임
- 보유율이 90%이상인 품목은 필수율과 마찬가지로 아기욕조(97.4%), 유모차(96.9%), 카시트(96.7%), 체온계(98.2%) 4개 품목임
 - 보유율이 90%이상인 품목 중 아기욕조는 보유율(97.4%)이 필수율(94.5%)보다 더 높은 품목임
 - 반면, 유모차(97.4% > 96.9%), 카시트(99.0% > 96.7%), 체온계 (98.8% > 98.2%)는 필수율이 보유율보다 더 높음
 - 반면, 보유율이 90% 미만인 물품은 대체로 필수율에 비해 보유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 예를 들면, 아기침대의 경우 필수율은 69.1%인데, 보유율은 73.7%로 보유율이 높음.
 - 이는 실제 물품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필수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다수 있음을 내포하는 것으로, 선물받기 등을 통해 보유하게 되었을 가능성과 실제 사용해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필수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임
 - 필수율에 비해 보유율이 낮은 품목은 유축기(54.2% > 40.8%)로, 이는 유축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월령의 부모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됨
- 기기/집기류 품목별 보유수량은 대체로 평균 1개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으며, 치발기는 평균 3개, 놀이매트 1.9개, 아기욕조 1.8개임
- 보유수량의 중위수는 아기욕조의 경우 2개, 치발기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기/집기류의 모든 물품은 1개임

〈표 IV-5-1〉 필수 여부 및 보유 수량_기기/집기류

단위: %, 개, (명)

품목	필수 여부			보유 여부			보유 수량		
	필수	필수 아님	(수)	있음	없음	계	평균	중위수	(수)
1) 아기욕조	94.5	5.5	(605)	97.4	2.6	(605)	1.8	2	(589)
2) 아기침대	69.1	30.9	(605)	73.7	26.3	(605)	1.1	1	(446)
3) 아기서랍장 및 옷장	79.8	20.2	(605)	83.0	17.0	(605)	1.4	1	(500)

품목	필수 여부			보유 여부			보유 수량		
	필수	필수 아님	(수)	있음	없음	계	평균	중위수	(수)
4) 아기의자	88.4	11.6	(605)	88.9	11.1	(605)	1.4	1	(538)
5) 놀이매트	89.1	10.9	(605)	89.4	10.6	(605)	1.9	1	(539)
6) 유모차	97.4	2.6	(605)	96.9	3.1	(605)	1.3	1	(586)
7) 카시트	99.0	1.0	(605)	96.7	3.3	(605)	1.2	1	(585)
8) 유축기	54.2	45.8	(605)	40.8	59.2	(605)	1.0	1	(246)
9) 분유포트	84.6	15.4	(605)	88.1	11.9	(605)	1.1	1	(533)
10) 체온계	98.8	1.2	(605)	98.2	1.8	(605)	1.1	1	(594)
11) 코흡입기	74.0	26.0	(605)	80.3	19.7	(605)	1.0	1	(486)
12) 치발기	85.8	14.2	(605)	91.7	8.3	(605)	3.0	3	(555)

□ 기기/집기류 구매경험(중고구매 포함)은 대체로 80%대의 구매율을 보였는데, 유축기의 구매율은 51.0%로 낮은 편에 속함

○ 기기/집기류 구매경험은 다른 비목의 물품들과는 달리⁵³⁾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조사하였으므로,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한 구매율은 보유율을 감안하여 살펴보아야 함

- 본고의 기기/집기류 구매율은 보유한 경우 해당 물품을 구매(중고구매 포함)한 것인지를 묻는 문항이므로, 구매율이 낮은 품목은 선물이나 물려받기 등으로 보유는 하고 있으나 (응답 가구가) 실질적 비용 지출은 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 보유×구매율은 체온계가 84.4%로 가장 높고, 아기욕조 81.0%, 유모차 80.3% 순임

○ 아기침대의 경우에는 구매율은 84.3%이지만, 보유율이 낮아 보유×구매율은 62.1%에 그침

○ 유축기의 경우 보유율(40.8%)도 낮고, 구매율도 51.0%로 낮아 보유×구매율은 20.8%에 그침

□ 기기/집기류는 장기간 사용하는 내구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당 평균 구매금액도 높은 편임

○ 유모차의 구매금액이 평균 72만8,346원으로 가장 높고, 카시트 50만8,111원, 아기침대 44만7,309원 순임

53) 다른 비목의 육아용품은 대체로 최근 3개월 간의 구매 경험을 질문함.

- 개당 구매금액이 낮은 물품은 치발기(1만2,718원), 아기욕조(3만4,416원), 체온계(7만2,385)원 등임

〈표 IV-5-2〉 구매 경험_기기/집기류

단위: %, 원, (명)

품목	구매 여부			보유×구매율		개당 평균 구매 금액	
	있음	없음	(수)	비중	(수)		
1) 아기욕조	83.2	16.8	(589)	81.0	(490)	34,416 원	(490)
2) 아기침대	84.3	15.7	(446)	62.1	(377)	447,309 원	(377)
3) 아기서랍장 및 옷장	85.3	14.7	(502)	70.8	(428)	181,079 원	(428)
4) 아기의자	81.6	18.4	(538)	72.5	(439)	234,338 원	(439)
5) 놀이매트	88.4	11.6	(541)	79.0	(478)	313,105 원	(478)
6) 유모차	82.9	17.1	(586)	80.3	(486)	728,346 원	(486)
7) 카시트	80.9	19.1	(585)	78.2	(473)	508,111 원	(473)
8) 유축기	51.0	49.0	(247)	20.8	(126)	111,794 원	(126)
9) 분유포트	79.5	20.5	(533)	70.0	(424)	100,846 원	(424)
10) 체온계	85.9	14.1	(594)	84.4	(509)	72,385 원	(509)
11) 코흡입기	88.1	11.9	(486)	70.7	(428)	175,223 원	(428)
12) 치발기	85.2	14.8	(555)	78.1	(473)	12,718 원	(473)

주: 1) 구매 여부는 중고물품 구매를 포함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함.

2) 보유×구매율은 보유율×구매율/100으로 산출함.

□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자녀가 12개월이 되기 전에 보유할 계획이 있는 기기/집기류 육아물품은 유모차, 카시트 등이 높게 응답됨

- 보유계획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질문하였기 때문에, 보유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만으로는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생애 초기 12개월 동안 보유비율은 현재 보유율과 보유계획은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볼 수 있음

- 보유+보유계획 비율을 기준으로 90%가 넘는 육아물품은 체온계(98.8%), 유모차(98.7%), 카시트(98.3%), 아기욕조(97.7%), 치발기(94.4%), 놀이매트(94.2%), 아기의자(93.6%), 아기서랍장 및 옷장(90.4%) 등 8개 품목임

- 이들 중 필수율이 90%이상이었던 물품은 체온계(98.8%), 카시트(99.0%), 유모차(97.4%), 아기욕조(94.5%) 4개 품목으로, 필수율이 높은 품목이 실제 보유+보유계획 비율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표 IV-5-3〉 보유 계획_기기/집기류

단위: %, 개, (명)

품목	보유 계획			보유 계획 수량	보유+보유계획 비중
	있음	없음	(수)		
1) 아기욕조	12.5	87.5	(16)	1.0 (2)	97.7 (605)
2) 아기침대	10.7	89.3	(159)	1.0 (17)	76.5 (605)
3) 아기서랍장 및 옷장	45.6	54.4	(103)	1.5 (47)	90.4 (605)
4) 아기의자	41.8	58.2	(67)	1.1 (28)	93.6 (605)
5) 놀이매트	48.4	51.6	(64)	2.3 (31)	94.2 (605)
6) 유모차	57.9	42.1	(19)	1.0 (11)	98.7 (605)
7) 카시트	50.0	50.0	(20)	1.2 (10)	98.3 (605)
8) 유축기	3.4	96.6	(358)	1.0 (12)	42.7 (605)
9) 분유포트	6.9	93.1	(72)	1.0 (5)	88.9 (605)
10) 체온계	36.4	63.6	(11)	1.3 (4)	98.8 (605)
11) 코흡입기	35.3	64.7	(119)	1.0 (42)	87.3 (605)
12) 치발기	32.0	68.0	(50)	2.5 (16)	94.4 (605)

주: 보유계획은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질문함.

나. 가구특성별 차이 : 기기/집기류

1) 필수율

- ☐ 가구특성별로 기기/집기류의 필수여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IV-5-4〉과 〈표 IV-5-5〉에 제시되어 있음
- ☐ 자녀의 월령에 따라 필수여부가 다르게 응답된 물품은 아기의자, 놀이매트, 코흡입기임
 - 아기의자의 경우 월령이 3개월이하(23년7~9월생)인 경우에는 필수품이라는 응답이 79.2%로 낮았으며, 월령이 증가할수록 필수품이라는 응답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놀이매트의 경우에도 아기의자와 마찬가지로 월령이 3개월이하(23년7~9월생)인 경우에 79.9%로 낮았으며, 월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증가하여 10~12개월(22년 10~12월생)인 경우에는 95.5%가 필수품이라고 응답함
 - 코흡입기도 월령이 증가할수록 필수율이 높아지는 물품이긴 하나, 아기의자(88.4%), 놀이매트(89.1%)에 비해서는 필수율(74.0%) 낮은 품목이었음
- ☐ 맛벌이 여부에 따라 필수여부가 차이가 나는 물품은 아기침대, 카시트, 분유포트, 치발기임

- 아기침대는 맞벌이 가구의 74.0%가 필수품이라고 응답한데 반해, 외벌이 가구는 60.0%만이 필수품이라고 응답함
- 카시트는 전체 필수율이 99.0%로 매우 높게 응답된 품목으로, 외벌이 가구의 경우 99.0%, 맞벌이 가구 99.2%가 필수품이라고 응답함
- 분유포트의 경우에도 외벌이 가구(79.0%)에 비해 맞벌이 가구(87.6%)에서 높은 필수율을 보였으며, 치발기도 외벌이 가구(81.0%)에 비해 맞벌이 가구(88.1%)에서 높은 필수율을 보임
-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아기침대, 놀이매트, 분유포트, 코흡입기의 필수여부가 차이를 보임
 - 아기침대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 필수품이라는 응답이 75.9%에 달하는데 반해, 자녀가 2명인 경우 59.1%, 3명이상인 경우 50.0%로, 자녀 양육 경험 이 있는 경우에는 아기침대의 필수율을 낮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
 - 놀이매트의 경우에는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 필수율이 73.7%로, 1명(90.8%), 2명(88.7%)에 비해 낮은 필수율을 보임
 - 분유포트가 필수품이라는 응답은 아기침대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1명(88.2%)인 경우에 높게 응답됨
 - 반대로 코흡입기는 총 자녀가 1명인 경우에 필수품이라는 응답이 70.1%로 2명(81.2%), 3명이상(78.9%)에 비해 낮게 응답됨
 - 총 자녀수에 따라 필수율이 차이를 보이는 품목들은 자녀 양육 경험에 따라 필수여부가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함.
 - 코흡입기를 제외한 아기침대, 놀이매트, 분유포트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필수율이 낮게 응답되는 품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IV-5-4〉 필수율: 기기/집기류 1

단위: %, (명)

구분	아기욕조	아기침대	아기서랍장 및 옷장	아기의자	놀이매트	유모차	(수)
전체	94.5	69.1	79.8	88.4	89.1	97.4	(605)
월령							
23년 7~9월생	94.0	71.8	79.2	79.2	79.9	96.0	(149)
23년 4~6월생	94.0	63.6	74.8	91.4	89.4	97.4	(151)
23년 1~3월생	94.7	70.9	83.4	91.4	91.4	98.0	(151)
22년 10~12월생	95.5	70.1	81.8	91.6	95.5	98.1	(154)
X ² (df)	0.428(3)	2.966(3)	3.981(3)	16.481(3)***	20.301(3)***	1.650(3)	

구분	아기육조	아기침대	아기서랍장 및 옷장	아기의자	놀이매트	유모차	(수)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95.4	74.0	78.6	88.9	88.7	97.7	(388)
외벌이	93.2	60.0	81.0	87.8	90.2	97.1	(205)
기타	91.7	66.7	100.0	83.3	83.3	91.7	(12)
χ^2 (df)	1.444(2)	12.290(2)**	3.559(2)	0.473(2)	0.764(2)	1.731(2)	
총 자녀수							
1명	95.8	75.9	79.3	88.7	90.8	97.6	(381)
2명	93.5	59.1	80.1	88.7	88.7	97.3	(186)
3명 이상	86.8	50.0	84.2	84.2	73.7	94.7	(38)
χ^2 (df)	5.895(2)	23.268(2)***	0.537(2)	0.705(2)	10.472(2)**	1.131(2)	

주: 한부모 가구는 외벌이로 간주. 맞벌이 가구 여부의 '기타'는 부모가 모두 미취업이거나 한부모이면서 미취업인 것을 의미함.

** $p < .01$, *** $p < .001$.

〈표 IV-5-5〉 필수율: 기기/집기류 2

단위: %, (명)

구분	카시트	유축기	분유포트	체온계	코흡입기	치발기	(수)
전체	99.0	54.2	84.6	98.8	74.0	85.8	(605)
월령							
23년 7~9월생	98.7	58.4	78.5	98.7	67.1	84.6	(149)
23년 4~6월생	98.7	46.4	84.1	97.4	70.9	86.1	(151)
23년 1~3월생	99.3	54.3	89.4	100.0	78.8	87.4	(151)
22년 10~12월생	99.4	57.8	86.4	99.4	79.2	85.1	(154)
χ^2 (df)	0.708(3)	5.596(3)	7.304(3)	5.098(3)	8.451(3)*	0.589(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99.2	57.2	87.6	99.2	75.3	88.1	(388)
외벌이	99.0	48.3	79.0	98.0	71.2	81.0	(205)
기타	91.7	58.3	83.3	100.0	83.3	91.7	(12)
χ^2 (df)	6.776(2)*	4.387(2)	7.650(2)*	1.771(2)	1.687(2)	6.000(2)*	
총 자녀수							
1명	99.2	52.8	88.2	98.7	70.1	85.8	(381)
2명	98.9	57.5	78.5	99.5	81.2	88.2	(186)
3명 이상	97.4	52.6	78.9	97.4	78.9	73.7	(38)
χ^2 (df)	1.216(2)	1.187(2)	10.035(2)**	1.427(2)	8.526(2)*	5.433(2)	

주: 한부모 가구는 외벌이로 간주. 맞벌이 가구 여부의 '기타'는 부모가 모두 미취업이거나 한부모이면서 미취업인 것을 의미함.

* $p < .05$, ** $p < .01$.

2) 보유율

□ 기기/집기류의 보유율이 가구특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IV-5-6〉과 〈표 IV-5-7〉에 제시되어 있음

- 자녀의 월령에 따라 보유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물품은 아기서랍장 및 옷장, 아기의자, 놀이매트, 유모차, 코흡입기, 치발기임
- 아기서랍장 및 옷장은 자녀 월령이 6개월이하(23년 4~9월생)의 경우 80% 미만인데 반해 7개월이상(22년 10월~23년 3월생)은 87%대의 보유율을 보임.
 - 아기의자와 놀이매트는 자녀 월령이 3개월이하(23년 7~9월생)인 경우 보유율 70%대로 낮는데 반해, 4개월이상은 90% 이상⁵⁴⁾의 높은 보유율을 보임. 이는 아이가 의자나 놀이매트를 사용할 수 있는(앉아 있을 수 있는) 월령에 따라 보유율이 차이를 보임을 시사함
 - 유모차의 경우에도 자녀 월령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보유율을 응답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유모차는 3개월이하인 경우에도 높은 보유율(91.9%)을 보임
 - 코흡입기도 자녀 월령이 증가할수록 보유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물품인데, 앞서 아기의자 등 다른 용품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보유율을 보이는 물품임
 - 치발기는 월령이 4~6개월인 경우에 보유율이 97.4%로 가장 높고, 오히려 이후 월령에서는 보유율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물품임
- 맞벌이 여부에 따라 보유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물품은 아기침대, 아기의자, 놀이매트, 카시트, 분유포트, 코흡입기, 치발기 등 7개 물품임
- 7개 품목 모두에서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보유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단, 카시트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97.7%)와 외벌이 가구(97.1%)의 보유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 총 자녀수에 따라 보유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물품은 아기침대, 놀이매트, 유모차, 분유포트, 코흡입기, 치발기 등 6개 물품임
- 아기침대, 놀이매트, 분유포트, 치발기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보유비율이 높은 물품으로, 둘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생애 초기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남을 엿볼 수 있음

54) 놀이매트는 4~6개월의 경우 88.1%로 예외임.

- 앞서 해당 물품이 필수품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아기침대 69.1%, 놀이매트 89.1%, 분유포트 84.6%, 치발기 85.8%로, 필수율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첫째아 양육 경험에 기초하여 둘째아 이상에서는 보유율이 낮아지는 물품임을 짐작할 수 있음

- 유모차는 총 자녀수가 3명이상인 경우 보유율이 89.5%로, 자녀가 1명인 경우 97.6%에 비해 낮은 보유율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보유율 자체가 90%이상의 높은 보유율을 보이는 품목임
- 반면, 코흡입기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 보유율이 89.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을 유발한 특별한 사유는 본 조사만으로는 특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표 IV-5-6〉 보유율: 기기/집기류 1

단위: %, (명)

구분	아기욕조	아기침대	아기서랍장 및 옷장	아기의자	놀이매트	유모차	(수)
전체	97.4	73.7	83.0	88.9	89.4	96.9	(605)
월령							
23년 7~9월생	97.3	81.2	79.2	73.8	79.2	91.9	(149)
23년 4~6월생	97.4	70.2	77.5	94.7	88.1	96.7	(151)
23년 1~3월생	98.7	72.2	87.4	93.4	94.0	99.3	(151)
22년 10~12월생	96.1	71.4	87.7	93.5	96.1	99.4	(154)
X ² (df)	1.960(3)	5.880(3)	9.236(3)*	45.935(3)***	27.436(3)***	18.029(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97.9	77.8	85.3	92.0	90.7	97.4	(388)
외벌이	96.6	68.3	79.5	84.9	88.3	96.1	(205)
기타	91.7	33.3	66.7	58.3	66.7	91.7	(12)
X ² (df)	2.492(2)	16.611(2)***	5.496(2)	18.563(2)**	7.538(2)*	1.860(2)	
총 자녀수							
1명	97.4	80.1	82.7	88.2	91.9	97.6	(381)
2명	98.4	67.2	84.4	91.4	89.2	96.8	(186)
3명 이상	92.1	42.1	78.9	84.2	65.8	89.5	(38)
X ² (df)	4.838(2)	31.566(2)***	0.731(2)	2.222(2)	24.843(2)***	7.578(2)*	

주: 한부모 가구는 외벌이로 간주. 맞벌이 가구 여부의 '기타'는 부모가 모두 미취업이거나 한부모이면서 미취업인 것을 의미함.

* $p < .05$, *** $p < .001$.

〈표 IV-5-7〉 보유율: 기기/집기류 2

단위: %, (명)

구분	카시트	유축기	분류포트	체온계	코흡입기	치발기	(수)
전체	96.7	40.8	88.1	98.2	80.3	91.7	(605)
월령							
23년 7~9월생	95.3	45.0	83.9	96.6	71.8	85.9	(149)
23년 4~6월생	95.4	37.7	88.7	98.0	78.1	97.4	(151)
23년 1~3월생	98.7	43.0	92.1	98.7	82.8	95.4	(151)
22년 10~12월생	97.4	37.7	87.7	99.4	88.3	88.3	(154)
$X^2(df)$	3.835(3)	2.596(3)	4.854(3)	3.382(3)	14.081(3)**	17.963(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97.7	41.5	91.0	99.0	82.0	93.8	(388)
외벌이	97.1	40.0	82.4	97.1	79.0	89.8	(205)
기타	58.3	33.3	91.7	91.7	50.0	58.3	(12)
$X^2(df)$	56.516(2)***	0.409(2)	9.480(2)**	5.612(2)	7.859(2)*	20.931(2)***	
총 자녀수							
1명	97.9	37.5	91.9	98.2	76.1	95.3	(381)
2명	95.2	47.8	82.3	98.4	89.2	87.1	(186)
3명 이상	92.1	39.5	78.9	97.4	78.9	78.9	(38)
$X^2(df)$	5.604(2)	5.537(2)	14.238(2)***	0.186(2)	13.690(2)**	19.774(2)***	

주: 한부모 가구는 외벌이로 간주. 맞벌이 가구 여부의 '기타'는 부모가 모두 미취업이거나 한부모이면서 미취업인 것을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3) 보유 수량

- 기기/집기류의 보유수량이 가구특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IV-5-8〉과 〈표 IV-5-9〉과 같음
- 자녀의 월령에 따라 보유수량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품목은 아기서랍장 및 옷장, 유모차, 치발기임
 - 아기서랍장 및 옷장과 유모차는 7개월 이상 월령에서 수량이 약간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치발기는 3개월이하는 2.5개였으나 4개월 이상에서 보유수량이 3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총 자녀수에 따라 보유수량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품목은 아기욕조, 아기 침대, 놀이매트, 유모차, 카시트, 코흡입기 등 6개 품목임
 - 아기욕조는 자녀가 1명인 경우 평균 1.9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2명(1.6개), 3명이상(1.5개)에 비해 보유수량이 많았음
 - 반면, 놀이매트는 자녀가 1명인 경우 평균 1.5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데 반해 2명 2.6개, 3명이상 2.8개로, 자녀가 많을수록 보유수량도 많아지

는 특징을 보임

○ 아기침대, 유모차, 카시트, 코흡입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기는 하였으나, 총 자녀수에 따른 실제 보유수량의 차이는 소폭에 불과함

- 아기침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약간 많고, 유모차는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 약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카시트와 코흡입기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보유수량이 약간 많음

〈표 IV-5-8〉 보유 수량: 기기/집기류 1

단위: 개, (명)

구분	아기욕조	아기침대	아기서랍장 및 옷장	아기의자	놀이매트	유모차
전체	1.8 (589)	1.1 (446)	1.4 (500)	1.4 (538)	1.9 (539)	1.3 (586)
월령						
23년 7~9월생	1.8 (145)	1.1 (121)	1.3 (117)	1.3 (110)	1.8 (117)	1.2 (137)
23년 4~6월생	1.8 (147)	1.1 (106)	1.3 (117)	1.3 (143)	1.7 (132)	1.3 (146)
23년 1~3월생	1.8 (149)	1.1 (109)	1.5 (132)	1.4 (141)	2.0 (142)	1.5 (150)
22년 10~12월생	1.8 (148)	1.1 (110)	1.5 (134)	1.4 (144)	2.1 (148)	1.4 (153)
F	0.143	0.158	4.037**	0.898	1.218	6.528***
총 자녀수						
1명	1.9 (371)	1.1 (305)	1.4 (314)	1.3 (336)	1.5 (350)	1.3 (372)
2명	1.6 (183)	1.0 (125)	1.4 (156)	1.4 (170)	2.6 (165)	1.4 (180)
3명 이상	1.5 (35)	1.0 (16)	1.6 (30)	1.3 (32)	2.8 (24)	1.5 (34)
F	6.401**	3.331*	1.339	1.452	19.100***	3.685*

* $p < .05$, ** $p < .01$, *** $p < .001$.

〈표 IV-5-9〉 보유 수량: 기기/집기류 2

단위: 개, (명)

구분	카시트	유축기	분유포트	체온계	코흡입기	치발기
전체	1.2 (585)	1.0 (246)	1.1 (533)	1.1 (594)	1.0 (486)	3.0 (555)
월령						
23년 7~9월생	1.2 (142)	1.0 (67)	1.1 (125)	1.0 (144)	1.0 (107)	2.5 (128)
23년 4~6월생	1.2 (144)	1.0 (57)	1.0 (134)	1.1 (148)	1.0 (118)	3.1 (147)
23년 1~3월생	1.3 (149)	1.0 (64)	1.1 (139)	1.1 (149)	1.0 (125)	3.3 (144)
22년 10~12월생	1.2 (150)	1.1 (58)	1.0 (135)	1.1 (153)	1.0 (136)	3.0 (136)
F	2.321	0.678	0.890	1.809	0.612	3.273*
총 자녀수						
1명	1.2 (373)	1.0 (143)	1.0 (350)	1.1 (374)	1.0 (290)	3.1 (363)
2명	1.4 (177)	1.0 (89)	1.1 (153)	1.1 (183)	1.1 (166)	2.9 (162)
3명 이상	1.2 (35)	1.1 (14)	1.0 (30)	1.1 (37)	1.0 (30)	2.3 (30)
F	9.998***	1.051	0.340	1.823	11.285***	1.924

* $p < .05$, *** $p < .001$.

4) 구매 경험

- 가구특성별 구매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5-10>과 <표 IV-5-11>과 같음
- 구매율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질문한 문항임
- 자녀 월령에 따라서는 아기서랍장 및 옷장, 놀이매트, 유모차, 분유포트, 치발기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해당 물품은 모두 자녀 월령이 증가할수록 구매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음
- 기기/집기류의 구매율은 필수율이나 보유율과 달리 모 연령에 따라 구매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품목이 다수 있음
- 모 연령에 따라 구매율이 차이를 보인 품목은 아기욕조, 아기침대, 아기의자, 놀이매트, 유모차, 분유포트 등 6개 품목임
- 이들 6개 물품은 모의 연령이 30세미만(즉 20대)인 경우에 모가 30세이상인 경우에 비해 높은 구매율을 보이는 특징이 있음
- 즉, 좀 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구매 의사가 좀 더 높게 나타나는 육아용품이라고 볼 수 있음

<표 IV-5-10> 구매율: 기기/집기류 1

단위: %, (명)

구분	아기욕조	아기침대	아기서랍장 및 옷장	아기의자	놀이매트	유모차
전체	83.2 (589)	84.3 (446)	85.3 (502)	81.6 (538)	88.4 (541)	82.9 (586)
월령						
23년 7~9월생	82.8 (145)	81.0 (121)	76.3 (118)	74.5 (110)	78.0 (118)	75.2 (137)
23년 4~6월생	84.4 (147)	84.0 (106)	86.3 (117)	81.8 (143)	89.5 (133)	80.8 (146)
23년 1~3월생	80.5 (149)	87.2 (109)	85.6 (132)	80.9 (141)	92.3 (142)	85.3 (150)
22년 10~12월생	85.1 (148)	85.5 (110)	91.9 (135)	87.5 (144)	91.9 (148)	89.5 (153)
X ² (df)	1.312(3)	1.793(3)	12.372(3)*	7.041(3)	16.437(3)**	11.608(3)*
모 연령						
30세 미만	90.5 (74)	94.6 (56)	93.3 (60)	86.2 (65)	96.8 (63)	94.4 (71)
30~35세 미만	84.6 (293)	85.4 (233)	86.4 (257)	84.6 (273)	91.6 (273)	85.1 (296)
35세 이상	78.8 (222)	79.0 (157)	81.1 (185)	76.0 (200)	81.5 (205)	76.3 (219)
X ² (df)	6.321(2)*	8.101(2)*	5.939(2)	6.728(2)*	16.607(2)**	14.471(2)**

* $p < .05$, ** $p < .01$, *** $p < .001$.

〈표 IV-5-11〉 구매율: 기기/집기류 2

단위: %, (명)

구분	카시트	유축기	분유포트	채운계	코흡입기	치발기
전체	80.9 (585)	51.0 (247)	79.5 (533)	85.9 (594)	88.1 (486)	85.2 (555)
월령						
23년 7~9월생	76.8 (142)	43.3 (67)	70.4 (125)	81.9 (144)	82.2 (107)	76.6 (128)
23년 4~6월생	82.6 (144)	54.4 (57)	78.4 (134)	85.1 (148)	89.8 (118)	89.1 (147)
23년 1~3월생	76.5 (149)	49.2 (65)	84.9 (139)	87.9 (149)	91.2 (125)	84.7 (144)
22년 10~12월생	87.3 (150)	58.6 (58)	83.7 (135)	88.2 (153)	88.2 (136)	89.7 (136)
χ^2 (df)	7.718(3)	3.287(3)	10.420(3)*	3.114(3)	4.974(3)	11.593(3)*
모 연령						
30세 미만	85.3 (68)	65.0 (20)	87.3 (63)	90.4 (73)	87.0 (54)	86.6 (67)
30~35세 미만	83.4 (296)	44.8 (125)	81.7 (273)	86.8 (296)	89.2 (250)	84.0 (281)
35세 이상	76.0 (221)	55.9 (102)	74.1 (197)	83.1 (225)	86.8 (182)	86.5 (207)
χ^2 (df)	5.489(2)	4.464(2)	6.673(2)*	2.872(2)	0.632(2)	0.695(2)

* $p < .05$, ** $p < .01$.

5) 평균 구매 가격

- 기기/집기류의 평균 개당 구매 금액이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한 결과는 〈표 IV-5-12〉와 〈표 IV-5-13〉에 제시되어 있음
- 자녀 월령에 따라서는 아기침대, 아기의자의 구매 금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평균 구매금액의 차이가 월령에 따른 지출 행동의 경향성을 대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 아기침대 구매금액은 자녀 월령이 4~7개월인 경우에 개당 51만8,30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3개월이하인 경우 31만2,172원으로 가장 낮았음
 - 아기의자는 7~9개월 월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구매금액이 평균 27만 2,325원으로 가장 높음
-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아기침대, 아기서랍장 및 옷장, 아기의자, 유모차, 카시트, 코흡입기, 치발기 등 7개 품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이들 품목의 개당 구매 금액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발견됨
 - 이는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에서 동일 품목에 대해서 좀 더 저렴한 물품을 구매하고 있음을 시사함

□ 모 연령에 따라서는 아기욕조, 아기서랍장 및 옷장, 카시트의 개당 구매금액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이들 물품의 경우 모의 연령이 어릴수록(20대) 좀 더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분석됨

〈표 IV-5-12〉 평균 구매 금액: 기기/집기류 1

단위: 원, (명)

구분	아기욕조	아기침대	아기서랍장 및 옷장	아기의자	놀이매트	유모차
전체	34,416 (490)	447,309 (377)	181,079 (428)	234,338 (439)	313,105 (478)	728,346 (486)
월령						
23년 7~9월생	35,002 (120)	312,712 (99)	206,753 (90)	139,345 (82)	245,391 (92)	732,689 (103)
23년 4~6월생	33,389 (124)	518,303 (89)	177,950 (101)	256,852 (117)	284,328 (119)	795,466 (118)
23년 1~3월생	33,661 (120)	471,800 (95)	147,044 (113)	272,325 (114)	291,183 (131)	749,492 (128)
22년 10~12월생	35,587 (126)	497,096 (94)	196,007 (124)	240,883 (126)	405,206 (136)	647,511 (137)
F	0.144	3.219*	2.202	6.059***	2.552	1.682
총 자녀수						
1명	36,759 (314)	545,634 (264)	198,139 (274)	280,195 (276)	317,608 (321)	815,093 (311)
2명	29,379 (146)	218,597 (101)	156,344 (127)	166,676 (139)	322,101 (138)	590,169 (148)
3명 이상	34,397 (30)	209,158 (12)	124,293 (27)	98,850 (24)	171,684 (19)	486,556 (27)
F	2.879	17.342***	3.705*	16.054***	0.867	11.919***
모 연령						
30세 미만	47,342 (67)	435,960 (53)	222,873 (56)	229,236 (56)	356,295 (61)	804,910 (67)
30~35세 미만	33,985 (248)	487,665 (199)	189,230 (222)	240,580 (231)	330,560 (250)	757,179 (252)
35세 이상	30,077 (175)	387,874 (125)	153,412 (150)	226,731 (152)	271,198 (167)	654,120 (167)
F	7.868***	1.451	3.441*	0.174	1.055	2.591

* $p < .05$, *** $p < .001$.

〈표 IV-5-13〉 평균 구매 금액: 기기/집기류 2

단위: 원, (명)

구분	카시트	유축기	분류포트	체온계	코흡입기	치발기
전체	508,111 (473)	111,794 (126)	100,846 (424)	72,385 (509)	175,223 (428)	12,718 (473)
월령						
23년 7~9월생	459,098 (109)	98,828 (29)	95,784 (88)	67,038 (118)	153,104 (88)	12,657 (98)
23년 4~6월생	508,857 (119)	121,839 (31)	110,905 (105)	72,384 (125)	181,538 (106)	13,036 (131)
23년 1~3월생	522,307 (114)	108,688 (32)	96,067 (118)	75,962 (131)	172,732 (114)	13,311 (122)
22년 10~12월생	535,863 (131)	116,618 (34)	100,434 (113)	73,588 (135)	188,233 (120)	11,831 (122)
F	1.405	0.341	1.214	2.222	1.735	0.695

구분	카시트	유축기	분유포트	체온계	코흡입기	치발기
총 자녀수						
1명	565,073 (302)	126,662 (71)	103,095 (284)	71,359 (326)	201,840 (255)	13,467 (315)
2명	424,890 (146)	94,630 (46)	95,078 (115)	75,446 (150)	141,037 (145)	10,937 (132)
3명 이상	306,027 (25)	82,222 (9)	101,840 (25)	68,606 (33)	109,857 (28)	12,673 (26)
<i>F</i>	17.561***	2.161	0.615	1.403	19.339***	4.134*
모 연령						
30세 미만	547,322 (58)	108,000 (13)	105,345 (55)	74,581 (66)	176,470 (47)	13,893 (58)
30~35세 미만	541,202 (247)	104,000 (56)	105,174 (223)	73,591 (257)	183,706 (223)	13,048 (236)
35세 이상	445,923 (168)	120,316 (57)	92,541 (146)	69,938 (186)	162,880 (158)	11,901 (179)
<i>F</i>	5.606**	0.438	1.798	1.140	1.528	1.548

* $p < .05$, ** $p < .01$, *** $p < .001$.

□ 한편, 기기/집기류 보유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응답자 수가 적기 때문에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을 생략함⁵⁵⁾

○ 보유계획은 해당 물품을 현재 보유하지 않으나 향후 자녀가 12개월이 될까 지 보유할 계획이 있는 물품을 질문한 결과로, 향후 보유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된 응답자 수가 가장 많은 품목이 아기서랍장 및 옷장으로 47명임.

6. 소모품류

가. 개요

□ 소모품류에 포함된 품목은 일회용 기저귀, 목욕용품(비누/샴푸/바디워시 등),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땀띠파우더, 크림, 로션, 오일 등), 유아전용세제(유아용 세탁세제, 유아용 주방세제 등) 총 4개 품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소모품류는 유사 기능을 가진 여러 품목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가 요구됨

- 단일 품목을 기준으로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범주의 물품을 다수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부모 심층 면담 결과 하나의 품목만 구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 예컨대, 아기 목욕용품으로 아기 비누만 구매하여 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임.

55) 전체 응답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가구특성별로 세분할 경우 하나의 범주에 해당하는 관측치가 매우 적어 가구특성별 차이 검정이 의미를 갖지 않음.

- 그러나, 해당 범주에서 가구에 따라 단일 품목만을 사용하지만, 그 단일 품목이 가구에 따라 차이를 보임. 즉, 어떤 가구는 아기 비누만 사용하지만, 다른 가구는 바디워시만 사용함
- 따라서, 동일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적으로 조사할 경우 응답이 분산되어 오히려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고, 응답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조사함
- 단, 이 과정에서 품목별로 중량 혹은 용량이 천차만별이라서 이를 해석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진 한계가 있음
- 소모품류에 포함된 4개 품목(범주)는 모두 90% 이상의 높은 필수율을 보임
 - 일회용 기저귀가 97.4%로 가장 높은 필수율을 보였으며, 목욕용품 94.7%,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91.4%, 유아 전용 세제 91.4%임
 - 일회용 기저귀가 필수품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는 천기저귀 등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료됨
 - 가구 조사 완료 후 데이터 검증 과정에서 일회용 기저귀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필수품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통해 사유를 재질문하였으며⁵⁶⁾, 이 과정에서 천기저귀 사용 등이 확인됨
- 소모품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품목이 하나의 범주로 묶여서 조사되었으므로, 필요량을 소요주기와 용량, 수량 등으로 세분하여 질문함
 - 일회용 기저귀는 1개월 단위로 몇장(용량)짜리 몇팩(수량)의 기저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으며, 필요수량은 용량×수량으로 산출함
 - 일회용 기저귀는 한달에 평균 203.9장이 필요하다고 응답되어 하루 6~7장의 일회용 기저귀가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목욕용품은 3개월 단위로 필요(혹은 소요) 수량을 질문을 하였으며, 일회용 기저귀와 마찬가지로 용량×수량으로 필요수량을 산출함
 - 목욕용품은 3개월 기준 평균 452.3ml(혹은 g)이 필요하다고 응답됨
 -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도 목욕용품과 유사하게 3개월 단위로 필요 수량을 질문하였으며, 평균 360.3ml(혹은 g)이 필요하다고 응답됨

56) 가구조사는 온라인을 통한 자기 응답 방식이었으므로, 불성실 응답 혹은 응답 오류는 데이터 클리닝(재조사 포함) 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함.

- 유아 전용 세제는 6개월 단위로 질문하였으며, 평균 2,578.1ml(혹은 g)이 필요하다고 응답됨

〈표 IV-6-1〉 필수 여부 및 필요 수량_소모품류

단위: %, 장/ml(g), (명)

품목	필수 여부			필요량 (평균)	
	필수	필수 아님	(수)	소요 주기	필요량 (용량×수량)
1) 일회용 기저귀	97.4	2.6	(605)	1개월마다	203.9 장 (585)
2) 목욕용품 (비누, 샴푸, 바다워시 등)	94.7	5.3	(605)	3개월마다	452.3 ml(g) (571)
3)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땀띠파우더, 크림, 로션, 오일 등)	91.4	8.6	(605)	3개월마다	360.3 ml(g) (550)
4) 유아 전용 세제 (유아용 세탁세제, 유아용 주방세제 등)	91.4	8.6	(605)	6개월마다	2,578.1 ml(g) (547)

- 소모품류 구매경험은 소요주기를 지정하여 제시하고, 해당 기간 동안 구매한 경험을 질문함

- 1개월 이내 일회용 기저귀를 구매한 적 있다는 응답은 94.0%로 매우 높은 구매율을 보임
- 목욕용품과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는 3개월 동안의 구매 경험을 질문하였으며, 각 85.1%, 80.7%의 구매율을 보임
- 유아 전용 세제는 6개월 동안의 구매 경험으로 82.8%가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목욕용품,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유아 전용 세제 등이 구매 기준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율이 높지 않은 것은 유통기한이 긴 제품의 특성 때문으로 사료됨

- 소모품류 구매량도 소요주기를 제시한 상태에서 구매한 제품의 용량×수량으로 계산한 값임

- 일회용 기저귀 구매량은 1개월마다 평균 258.8장을 구매한다고 응답됨
- 앞서 일회용 기저귀 평균 필요량 203.9장과 비교할 때 약 54장이 많은데, 이는 유통기한이 긴 소모품류의 경우 구매 당시 여분을 추가 구매해두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됨

- 목욕용품은 3개월마다 평균 488.2ml(혹은 g),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는 368.8ml(혹은 g)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됨
- 유아 전용 세제는 6개월 기준 평균 4,368.1ml(혹은 g)을 구입함
- 소모품류 구매금액은 지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므로, 한달 평균으로 계산하여 제시되어 있음
- 일회용 기저귀 구매를 위해서 한달 평균 9만7,767원이 지출되었으며, 목욕용품은 약 1만원,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는 평균 3만1,966원, 유아전용 세제는 평균 9,240원이 지출됨

〈표 IV-6-2〉 구매 경험_소모품류

단위: %, 장/ml(g), 원, (명)

품목	구매 여부			구매량 및 지출액			
	있음	없음	(수)	구매량 (용량×수량)		한달평균 구매금액	(수)
1) 일회용 기저귀	94.0	6.0	(599)	1개월마다	258.8 장	97,767	(554)
2) 목욕용품 (비누, 샴푸, 바디워시 등)	85.1	14.9	(605)	3개월마다	488.2 ml(g)	10,028	(511)
3)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뽀뽀파우더, 크림, 로션, 오일 등)	80.7	19.3	(605)	3개월마다	368.8 ml(g)	31,966	(470)
4) 유아 전용 세제 (유아용 세탁세제, 유아용 주방세제 등)	82.8	17.2	(605)	6개월마다	4,368.1 ml(g)	9,240	(496)

나. 가구특성별 차이 : 소모품류

1) 필수율

- 소모품류에 대한 필수율은 자녀 월령 이 외의 다른 가구특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월령에 따라 일회용 기저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품목(범주)의 소모품은 필수 여부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일회용 기저귀의 경우에는 모든 월령에서 95%이상의 높은 필수율을 보임
 - 목욕용품은 전반적으로 90% 내외의 높은 필수율을 보이기는 하나, 월령이 3개월이하인 경우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필수율(89.3%)을 보임

- 영당이 발진크림 및 보습제는 자녀 월령이 4~9개월인 경우에 95% 내외의 높은 필수율을 보이고, 반대로 3개월이하인 경우에는 85.2%로 상대적으로 낮은 필수율을 보임
- 유아 전용 세제는 월령이 높아질수록 필수율이 점점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며, 자녀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필수품이라는 응답이 84.6%로 소모품류 중에서는 가장 낮은 필수율을 보임

〈표 IV-6-3〉 필수율: 소모품류

단위: %, (명)

구분	일회용 기저귀	목욕용품	영당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유아 전용 세제	(수)
전체	97.4	94.7	91.4	91.4	(605)
월령					
23년 7~9월생	97.3	89.3	85.2	84.6	(149)
23년 4~6월생	96.7	94.7	94.0	90.1	(151)
23년 1~3월생	98.7	98.0	95.4	95.4	(151)
22년 10~12월생	96.8	96.8	90.9	95.5	(154)
X ² (df)	1.500(3)	13.401(3)**	11.616(3)**	15.448(3)**	

** $p < .01$.

2) 필요량

- 소모품류에 대한 필요량은 가구 특성 중 맞벌이 가구 여부 정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그 중에서도 영당이발진크림 및 보습제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필요량을 약간 높게 응답한 경향이 있긴 하나, 실제적으로 차이는 기타 유형(한부모 가구 등)에서 현저히 높게 응답된 것에 기인한 결과임
- 결과적으로 생애 초기 육아 소모품류의 필요량은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해 보임

〈표 IV-6-4〉 필요량: 소모품류

단위: 장/ml(g), (명)

구분	일회용 기저귀	비누, 샴푸, 바디워시 등	영당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유아 전용 세제
전체	203.9 (605)	452.3 (605)	360.3 (605)	2,578.1 (60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98.8 (388)	437.6 (388)	339.1 (388)	2,310.4 (388)
외벌이	212.5 (205)	466.9 (205)	362.8 (205)	2,989.5 (205)
기타	218.2 (12)	672.3 (12)	996.4 (12)	4,045.0 (12)
F	0.692	2.676	9.887***	1.339

주: 1) 필요 수량에 대한 소요주기는 일회용 기저귀는 1개월마다; 비누, 샴푸, 바디워시 등과 영당이발진크림 및 보습제는 3개월 마다; 유아 전용 세제는 6개월 마다를 기준으로함.

2) 한부모 가구는 외벌이로 간주. 맞벌이 가구 여부의 '기타'는 부모가 모두 미취업이거나 한부모이면서 미취업인 것을 의미함.

*** $p < .001$.

3) 구매 경험

□ 소모품류 구매율 또한 필수율과 마찬가지로 자녀 월령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 일회용 기저귀는 4~9개월 월령에서 구매율이 약간 높으며, 목욕용품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구매율이 높으며, 영당이 발진크림 및 보습제도 일회용 기저귀와 마찬가지로 4~9개월 월령에서 구매율이 높음

○ 유아 전용 세제로, 6개월 월령 이상에서 구매율이 높게 나타남.

〈표 IV-6-5〉 구매율: 소모품류

단위: %, (명)

구분	일회용 기저귀	목욕용품	영당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유아 전용 세제	(수)
전체	93.1	85.1	80.7	82.8	(605)
월령					
23년 7~9월생	87.2	78.5	72.5	75.8	(149)
23년 4~6월생	93.4	82.8	82.1	78.8	(151)
23년 1~3월생	97.4	90.1	86.8	88.7	(151)
22년 10~12월생	94.2	89.0	81.2	87.7	(154)
X ² (df)	13.941(3)**	10.484(3)*	10.214(3)*	13.065(3)**	

* $p < .05$, ** $p < .01$.

4) 구매량

- 소모품류 구매량도 필수량과 마찬가지로 맞벌이 여부에 따라 영당이발진크림 및 보습제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영당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구매량이 약간 많았으며, 기타 유형의 경우 현저히 높은 구매량을 보였으나 이 유형에 속한 관측치가 많지 않아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IV-6-6〉 구매량(용량×수량): 소모품류

단위: 장/ml(g), (명)

구분	일회용 기저귀	비누, 샴푸, 바디워시 등	영당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유아 전용 세제
전체	258.8 (559)	488.2 (511)	368.8 (481)	4,368.1 (49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52.0 (355)	478.6 (321)	340.3 (302)	4,986.3 (312)
외벌이	272.0 (192)	503.4 (178)	388.1 (169)	3,256.7 (172)
기타	248.3 (12)	520.6 (12)	904.0 (10)	4,225.0 (12)
F	0.311	0.277	8.580***	0.229

주: 한부모 가구는 외벌이로 간주. 맞벌이 가구 여부의 '기타'는 부모가 모두 미취업이거나 한부모이면서 미취업인 것을 의미함.

*** $p < .001$.

- 가구특성별 소모품류 구매금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품목이 하나도 없어, 생략함

7. 기타 필수 육아용품

- 기타 필수 육아용품은 앞서 육아용품 목록을 제시한 상태에서 필수여부 등을 질문한 방식과 달리, 앞에 제시되지 않은 물품 중 육아 필수품이라고 생각되는 항목을 문자로 기입하도록 한 설문임
- 응답자들이 참고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문자로 입력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30가구 이상(전체 표본 기준 5%)에서 응답된 물품은 육아 필수품 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 함
- 문자 응답의 경우 모든 목록을 검토하여, 다른 표기 방식을 가졌더라도 동

일 품목으로 묶일 수 있는 응답은 동일한 용어로 재코딩한 후 분석함

- 기타 필수 육아용품에서 30가구 이상이 육아필수품으로 응답한 물품은 총 7개로, 피복 및 침구류에 해당하는 기저귀갈이대(37가구), 방수요(58가구)와 수유관련 용품에 해당하는 역류방지구션(34가구), 소모품류에 해당하는 물티슈(36가구), 장난감류로 장난감(44가구), 모빌(30가구), 기기/집기류로 젓병소독용품(48가구)임
- 해당 용품은 대체로 선행연구에서 필수 육아용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목록에서 제외한 용품이 대다수임
 - 특히 장난감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물건을 필수 육아용품 목록에서 제외하였는데, 가구 조사 시 기타 필수육아용품에 모빌, 장난감 등이 다수 응답됨⁵⁷⁾
 - 장난감에 포함된 물품으로는 형짚인형, 아기초점책, 딸랑이, 블럭 등으로 단일 품목은 아님. 실제로 아기초점책 등은 생후 12개월 이내 활용하는 물품이지만, 일부 물품(블럭 등)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사용하는 장난감류를 미리 구비해두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됨
- 역류방지구션은 선행연구에서는 필수 육아용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으로 비교적 최근에 영아 가구를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물품임.
 - 부모 면담 당시에도 역류방지구션을 필수 육아용품으로 응답한 가구들이 다수 있었으나, 최근 육아 트렌드를 반영한 물품으로 이를 필수품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가 모호하여, 설문에 포함하지 않음
 - 선행연구에서는 역류방지구션이 아닌 수유쿠션이 필수 육아용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근 육아 트렌드의 변화로 수유쿠션보다는 역류방지구션을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 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역류방지구션은 필수육아용품으로 포함하여 산출을 고려해봄직 함.
- 기저귀 갈이대, 방수요, 물티슈는 선행연구 목록에 필수 육아용품으로 포함된 물품이었으나, 부모 면담 과정에서 최근에는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설문에는 불포함함
 - 물티슈의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에는 환경호르몬 및 녹색소비 측면에서

57) 참고로 보행보조기구로 쏘서, 바운서, 보행기 등은 장난감류가 아닌 보행보조기구로 별도로 분리하여 코딩하였는데 총 29가구가 필수 육아용품으로 응답함.

주로 물로 바로 씻기는 등의 육아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설문에서 제외

- 방수요와 기저귀 같이대도 아기 피부 보호 등을 이유로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이 부모 면담 과정에서는 다수였음
- 그런데, 실제 기타 필수 육아용품을 조사한 결과에서 여전히 방수요, 기저귀 같이대, 물티슈가 필수용품이라는 응답이 다수 관측됨에 따라, 이는 필수 육아용품 목록에 최종적으로 포함하여 검토하기로 함

○ 젖병소독용품은 대표적으로 젖병소독기 등과 같은 제품을 의미하는데, 이를 필수 육아용품이라고 응답한 가구도 48가구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가구가 젖병소독용품을 필수 육아용품이라고 응답함⁵⁸⁾

- 이는 분유포트, 역류방지쿠션 등과 유사하게 최근의 육아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한 소비 행태를 보여주는 물품으로 사료됨
- 그러나,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등을 통해 젖병소독기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젖병 건조대(수유관련용품), 젖병 세척 세제(소모품류) 등의 물품이 필수 육아용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나치게 고기능, 고가의 물품을 대다수 가구가 사용하는 보편적 필수 육아물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근거하여, 30개 이상 가구에서 응답되었더라도 추후 적정 양육비용 산출 시 필수 육아용품 목록에서는 젖병소독기는 제외하기로 결정함

□ 기타 필수 육아용품 필요 수량은 어떠한 물품이 응답될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응답한 물품의 필요 수량을 소요주기와 필요수량을 둘 다 응답하도록 하였음

- 예컨대, 역류방지쿠션을 응답한 경우 12개월(소요주기)동안 1개(필요수량)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면, 물티슈는 1개월(소요주기)마다 2개(필요수량)를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임
- 물품 종류에 따라 소요주기가 다 다르므로, 필요수량은 생후 12개월 이내에 필요한 수량으로 다시 환산하여 제시함
- 단, 이러한 설문 구조로 인해 기타 육아용품에 용량을 필요로 하는 물품이

58) 젖병 세척 용품으로 젖병솔, 젖병 집게 등의 기기/집기류는 젖병소독용품과는 별도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는데, 총 28가구가 이에 응답하여 최종적으로 논의에서 제외함.

응답되는 경우 정확한 수량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예를 들면, 물티슈의 경우 100매짜리 1개인지, 20매짜리 1개인지가 구분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다행히 기타 필수육아용품에서 30가구 이상이 응답한 물품 중 물티슈를 제외한 다른 물품의 경우에는 필요수량 산출시 용량이 중요한 물품은 아님

□ 기타 필수 육아용품 필요 수량은 12개월 평균 기저귀 갈이대 1.5개, 방수요 4.8개, 역류방지쿠션 1.6개, 물티슈 51개, 모빌 1.8개, 장난감 13.5개, 젖병소독용품 1.7개가 응답됨

- 단, 기타 필수 육아용품에 응답된 물품의 경우 관측치가 60가구 이하로, 가구들 사이의 응답 편차로 인해 평균 값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므로, 중위수를 추가적으로 제시함
- 품목별 필요수량의 중위수는 기저귀 갈이대 1개, 방수요 2개, 역류방지쿠션 1개, 물티슈 48개, 모빌 1개, 장난감 11개, 젖병소독용품 1개로, 평균과는 다소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음

〈표 IV-7-1〉 필수 여부 및 필요 수량_기타 필수 육아용품

단위: %, 개, (명)

품목		필수 여부			필요 수량(12개월동안)		
		필수	필수 아님	(수)	평균	중위수	(수)
피복 및 침구류	기저귀 갈이대	6.1	93.9	(605)	1.5	1	(37)
	방수요	9.6	90.4	(605)	4.8	2	(58)
수유관련 용품	역류방지쿠션	5.6	94.4	(605)	1.6	1	(34)
소모품류	물티슈	6.0	94.0	(605)	51.0	48	(36)
장난감류	모빌	5.0	95.0	(605)	1.8	1	(30)
	장난감	7.3	92.7	(605)	13.5	11	(44)
기기/집기류	젖병소독용품	7.9	92.1	(605)	1.7	1	(48)

주: 필요 수량은 12개월 기준으로 산출함.

□ 최근 3개월 동안(2023년 9~11월) 기타 필수 육아용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물티슈를 구매했다는 응답이 94.4%, 장난감 구매가 88.6%로 높게 나타남

- 방수요 구매가 69.0%, 모빌 60.0%였으며, 나머지 물품은 60% 미만의 구매율을 보임

- 목록에 포함된 기타 필수육아용품은 12개월 동안 필요수량이 1개인 물품이 다수로, 최근 3개월 이전에 구매하여 이미 보유하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음

□ 최근 3개월 동안(2023년 9~11월) 기타 필수 육아용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경우 구매 수량은 중위수 기준 기저귀 같이대 1개, 방수요 2개, 역류방지쿠션 1개, 물티슈 20개, 모빌 1개, 장난감 3개, 젓병소독용품 1개임

○ 개당 구매가격은 기저귀 같이대 4만2,054원, 방수요 1만4,033원, 역류방지구션 3만8,529원, 물티슈 4,457원, 모빌 3만8,300원, 장난감 2만8,673원, 젓병소독용품 10만6,040원임

〈표 IV-7-2〉 구매 경험_기타 필수 육아용품

단위: %, 개, 원, (명)

품목		3개월동안 구매 여부			구매 수량 및 구매 가격		
		있음	없음	(수)	최근 3개월간 구매수량 (중위수)	개당 구매가격 (평균)	(수)
피복 및 침구류	기저귀같이대	54.1	45.9	(37)	1	42,054	(20)
	방수요	69.0	31.0	(58)	2	14,033	(40)
수유관련 용품	역류방지구션	50.0	50.0	(34)	1	38,529	(17)
소모품류	물티슈	94.4	5.6	(36)	20	4,457	(34)
장난감류	모빌	60.0	40.0	(30)	1	38,300	(18)
	장난감	88.6	11.4	(44)	3	28,673	(39)
기기/집기류	젓병소독용품	50.0	50.0	(48)	1	106,040	(24)

□ 기타 필수육아용품의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는 관측치가 많지 않으므로, 차이 검정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우므로 생략함

8. 공유 경제 관련 소비

□ 생애 초기 육아용품의 경우에는 친지 등으로부터 선물이나 물려받기 등으로 실제 사용하고는 있으나, 생애 초기 아동 부모의 직접적인 구매 행태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소비 지출이 상당 부분 존재함

○ 생애 초기 아동 가구에서 직접적인 구매 행동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생애 초기 아동의 양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라면, 적정 양육비용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 필수 여부 및 필요량은 선물받거나 물려받기 등과는 무관하게 결정됨
- 단, 선물받거나 물려받기의 경우 생애 초기 아동 가구에서 실질적으로 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동의 양육비용에는 제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 이로 인해 가구 특성에 따른 양육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양육비용 산출시 참고자료로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선물받거나 물려받기 이 외에도 중고거래, 대여하기 등의 공유경제(혹은 녹색 소비) 부분 또한 적정 양육비용 산출 시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양육비용 경감과 관련성이 높은 사항으로, 이의 행태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음

가. 개요

- 공유 경제 관련 소비 경험은 중고거래, 대여하기, 물려받기 한 품목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공유 경제 관련 소비를 통해 절약된 양육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를 질문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생후 12개월 이내 중고거래(사거나 판매한 경우 모두 포함)를 하나라도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9.7%였으며, 대여하기 경험은 42.5%, 물려받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9.7%였음.
- 공유 경제 관련 소비를 통해 절약된 양육비용은 12개월 기준 중고거래는 평균 72만9,246원, 대여하기 41만8,977원, 물려받기 95만8,569원으로 100만원 이하임

〈표 IV-8-1〉 공유 경제 관련 소비 경험 및 절약된 양육비용

단위: % (명), 원

품목	거래 경험			절약된 양육비용 (12개월 동안)	
	경험 있음	전혀 경험 없음	계 (수)		
중고거래	79.7	20.3	100.0(605)	729,246	(480)
대여하기	42.5	57.5	100.0(605)	418,977	(257)
물려받기	79.7	20.3	100.0(605)	958,569	(482)

주: 해당 거래를 한번(하나의 품목)이라도 한 경우는 경험 있음으로 분류

- 중고거래 물품으로는 아기띠·히시트·포대기가 4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아기침대가 42.1%로 다음을 이음
 - 반대로 유축기(11.6%), 분유포트(14.2%), 아기서랍장 및 옷장(15.2%), 놀이 매트(16.7%), 젖병건조대(18.8%)는 20%이하의 비율로 중고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남
- 대여하여 사용한 물품은 중고거래에 비해 전반적으로 현저히 낮은 비중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 유축기 17.9%, 아기침대 11.6%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물품임
 - 대여하기의 경우 대체로 5% 전후의 낮은 이용률을 보이며, 분유포트는 2.6%, 아기서랍장 및 옷장 3.6%, 젖병건조대 3.8%만이 대여하여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여 낮은 비율을 보이는 품목임
 - 아기서랍장 및 옷장은 아기가 12개월을 지나서까지 장기간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대여보다는 구매가 보다 선호되는 소비 양태인 것으로 판단되며, 분유포트와 젖병건조대는 식품 위생(아기 건강)과 직결되는 물품으로 대여 물품을 꺼려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
- 물려받아 사용한 물품은 피복류의 경우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 외출복을 물려받아 사용한 적 있다는 응답이 62.3%, 내의류 56.5%, 속싸개/겉싸개/아기이불 등 침구류 49.9%, 아기띠·히시트·포대기 44.8%임
 - 물품별 물려받아 사용한 경험이 10%이하인 물품은 없어, 다양한 물품에서 물려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함을 알 수 있음

〈표 IV-8-2〉 육아용품별 공유 경제 거래 경험 여부

단위: %, (명)

품목	중고거래 경험		대여하기 경험		물려받기 경험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속싸개, 겉싸개, 아기이불 등 침구류	24.3	75.7			49.9	50.1	(605)
내의류(바디수트, 손발싸개, 수면조끼 포함)	23.5	76.5			56.5	43.5	(605)
외출복(외출복, 신생아모자 등)	33.7	66.3			62.3	37.7	(605)
아기띠·히시트·포대기	43.1	56.9			44.8	55.2	(605)
젖병건조대	18.8	81.2	3.8	96.2	18.5	81.5	(605)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					18.2	81.8	(605)
아기욕조	37.5	62.5	5.6	94.4	31.4	68.6	(605)

품목	중고거래 경험		대여하기 경험		물려받기 경험		계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아기침대	42.1	57.9	11.6	88.4	22.1	77.9	(605)
아기서랍장 및 옷장	15.2	84.8	3.6	96.4	12.7	87.3	(605)
아기의자	31.7	68.3	6.4	93.6	25.1	74.9	(605)
놀이매트	16.7	83.3	5.1	94.9	17.0	83.0	(605)
유모차	36.2	63.8	6.8	93.2	35.2	64.8	(605)
카시트	27.3	72.7	6.6	93.4	26.1	73.9	(605)
유축기	11.6	88.4	17.9	82.1	22.1	77.9	(605)
분유포트	14.2	85.8	2.6	97.4	12.2	87.8	(605)
기타	24.3	75.7	17.9	82.1	9.9	90.1	(605)

주:  표시는 조사하지 않은 품목임.

나. 가구특성별 차이 : 공유 경제 관련 경험 및 절약 비용

- 공유 경제 관련 소비 행태가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중고거래나 대여하기는 가구특성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데 반해, 물려받기는 가구특성에 따라 소비 행태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음
- 중고거래 경험은 총 자녀수나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모 연령이 어린 경우(30세 미만)에 중고거래 경험이 30대 어머니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대여하기 경험은 총 자녀수나 가구소득 뿐 아니라 모 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물려받기의 경우 순위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에서 물려받기 비중이 확연히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며, 가구소득은 오히려 중간 소득 계층에서 물려받기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모 연령이 30대 이상인 경우에 물려받기 비중도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첫아이를 출산한 모에 비해 다자녀 가구의 모 연령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임
 - 이러한 특성을 통해 주로 물려받기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안에서 행해지는 소비 행태임을 엿볼 수 있음

〈표 IV-8-3〉 공유 경제 관련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중고거래			대여하기			물려받기		
	있음	없음	(수)	있음	없음	(수)	있음	없음	(수)
전체	79.7	20.3	(605)	42.5	57.5	(605)	79.7	20.3	(605)
총 자녀수									
1명	80.1	19.9	(381)	45.4	54.6	(381)	75.9	24.1	(381)
2명	80.6	19.4	(186)	38.7	61.3	(186)	86.0	14.0	(186)
3명 이상	71.1	28.9	(38)	31.6	68.4	(38)	86.8	13.2	(38)
X ² (df)	1.886(2)			4.266(2)			9.266**(2)		
가구 소득									
250만원 이하	81.4	18.6	(59)	39.0	61.0	(59)	66.1	33.9	(59)
251~400만원	80.2	19.8	(252)	39.3	60.7	(252)	81.0	19.0	(252)
401~550만원	82.9	17.1	(158)	46.8	53.2	(158)	84.2	15.8	(158)
551~700만원	75.4	24.6	(69)	44.9	55.1	(69)	81.2	18.8	(69)
700만원 초과	73.1	26.9	(67)	44.8	55.2	(67)	74.6	25.4	(67)
X ² (df)	3.723(4)			2.888(4)			10.090*(4)		
모 연령									
30세 미만	68.4	31.6	(76)	39.5	60.5	(76)	59.2	40.8	(76)
30~35세 미만	81.1	18.9	(301)	45.5	54.5	(301)	81.7	18.3	(301)
35세 이상	81.5	18.5	(227)	39.6	60.4	(227)	84.1	15.9	(227)
X ² (df)	6.758*(2)			2.159(2)			23.336*** (2)		

* $p < .05$, ** $p < .01$, *** $p < .001$.

- 공유 경제 관련 소비 행태를 통해 절약된 양육비용의 경우 물려받기에 한해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절약 비용이 약간 커지는 정도의 차이가 발견됨
- 중고거래 혹은 대여하기를 통해 절약한 비용은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IV-8-4〉 공유 경제를 통해 절약된 양육비용

단위: 원, (명)

구분	중고거래		대여하기		물려받기	
	비용	(수)	비용	(수)	비용	(수)
전체	729,246	(480)	418,977	(257)	958,569	(482)
총 자녀수						
1명	742,124	(304)	398,151	(173)	823,218	(289)
2명	618,054	(149)	457,599	(72)	1,079,188	(160)
3명 이상	1,197,856	(27)	487,500	(12)	1,559,094	(33)
F	2.886		0.160		7.275***	

구분	중고거래		대여하기		물려받기	
	비용	(수)	비용	(수)	비용	(수)
가구소득						
250만원 이하	634,026	(46)	362,609	(23)	784,103	(39)
251~400만원	750,951	(202)	508,737	(99)	848,922	(204)
401~550만원	656,798	(131)	313,272	(74)	991,505	(133)
551~700만원	682,888	(52)	285,161	(31)	1,175,895	(56)
700만원 초과	972,044	(49)	565,000	(30)	1,211,000	(50)
<i>F</i>	0.767		0.973		1.757	

*** $p < .001$.

다. 품목별 공유 경제 관련 경험

1) 중고거래

- 가구특성에 따라 중고거래 경험이 차이를 보이는 품목은 많지 않은데, 외출복 중고거래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아기띠·힙시트·포대기와 아기욕조, 아기침대는 모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저소득 가구의 경우 외출복을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7.5%로,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아기띠·힙시트·포대기와 아기욕조, 아기침대는 모 연령이 적은 경우(20대)에 모 연령이 30대 이상인 경우에 비해 중고거래 경험이 10%p이상 낮은 비중을 보임
- 아기띠·힙시트·포대기와 아기욕조, 아기침대는 다른 품목에 비해 중고거래 경험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30대 어머니가 해당 물품의 중고거래를 더 많이 하고, 젊은 엄마들은 새상품 구매를 보다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음

〈표 IV-8-5〉 품목별 중고거래 경험 1

단위: %, (명)

구분	침구류	내의류	외출복	아기띠·힙시트·포대기	젖병 건조대	아기욕조	아기침대	아기서랍장 및 옷장	(수)
전체	24.3	23.5	33.7	43.1	18.8	37.5	42.1	15.2	(605)
가구 소득									
250만원 이하	33.9	30.5	47.5	47.5	18.6	35.6	33.9	16.9	(59)
251~400만원	25.8	23.4	32.1	41.3	20.2	38.5	44.8	15.5	(252)

구분	침구류	내의류	외출복	아기띠·히 시트·포대 기	젖병 건조대	아기 욕조	아기 침대	아기 서랍장 및 옷장	(수)
401~550만원	24.1	25.9	37.3	46.2	16.5	40.5	44.9	13.3	(158)
551~700만원	21.7	20.3	23.2	40.6	15.9	31.9	40.6	13.0	(69)
700만원 초과	13.4	14.9	29.9	41.8	22.4	34.3	34.3	19.4	(67)
χ^2 (df)	7.814(4)	5.280(4)	10.063(4)	1.646(4)	1.841(4)	2.022(4)	4.650(4)	1.768(4)	
모 연령									
30세 미만	26.3	19.7	25.0	30.3	15.8	25.0	27.6	17.1	(76)
30~35세 미만	24.6	25.2	35.5	43.5	16.9	40.2	47.2	14.6	(301)
35세 이상	22.9	22.5	33.9	47.1	22.0	37.9	40.1	15.0	(227)
χ^2 (df)	0.417(2)	1.245(2)	3.042(2)	6.629(2)*	2.685(2)	6.020(2)*	10.088(2)**	0.296(2)	

* $p < .05$, ** $p < .01$,

〈표 IV-8-6〉 품목별 중고거래 경험 2

단위: %, (명)

구분	아기의자	놀이매트	유모차	카시트	유축기	분류포트	기타	(수)
전체	31.7	16.7	36.2	27.3	11.6	14.2	24.3	(605)
가구 소득								
250만원 이하	30.5	23.7	32.2	30.5	8.5	13.6	22.0	(59)
251~400만원	34.1	16.7	36.5	27.4	11.5	15.5	25.4	(252)
401~550만원	32.3	17.1	39.2	24.7	12.7	14.6	25.3	(158)
551~700만원	24.6	11.6	34.8	29.0	8.7	11.6	30.4	(69)
700만원 초과	29.9	14.9	32.8	28.4	14.9	11.9	13.4	(67)
χ^2 (df)	2.442(4)	3.558(4)	1.439(4)	0.989(4)	2.031(4)	1.038(4)	6.132(4)	
모 연령								
30세 미만	27.6	18.4	25.0	19.7	10.5	14.5	14.5	(76)
30~35세 미만	31.2	16.6	38.2	27.2	12.3	14.3	25.9	(301)
35세 이상	33.5	15.9	37.4	30.0	11.0	14.1	25.6	(227)
χ^2 (df)	0.944(2)	0.272(2)	4.800(2)	2.996(2)	0.303(2)	0.008(2)	4.603(2)	

2) 대여하기

□ 가구특성에 따라 대여하여 사용한 경험이 차이를 보이는 품목은 중고거래와 마찬가지로 많지 않은 상황으로, 아기서랍장 및 옷장, 놀이매트 정도가 자녀의 월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아기서랍장 및 옷장과 놀이매트는 자녀 연령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여하여 사용했다는 응답 비중이 다른 월령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

- 이와 같은 행태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출산 후 해당 물품을 단기간 대여하여 사용해 본 후, 자녀 월령이 늘어남에 따라 구매

행동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여짐

- 즉, 해당 물품의 대여하기 경험은 시험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됨

〈표 IV-8-7〉 품목별 대여하기 경험 1

단위: %, (명)

구분	젓병 건조대	아기욕조	아기침대	아기서랍장 및 옷장	아기의자	놀이매트	(수)
전체	3.8	5.6	11.6	3.6	6.4	5.1	(605)
월령							
23년 7~9월생	6.0	9.4	9.4	7.4	8.7	10.7	(149)
23년 4~6월생	4.6	4.0	10.6	4.0	6.6	5.3	(151)
23년 1~3월생	2.6	4.0	12.6	2.0	5.3	2.6	(151)
22년 10~12월생	1.9	5.2	13.6	1.3	5.2	1.9	(154)
X ² (df)	4.324(3)	5.601(3)	1.622(3)	9.591(3)*	2.021(3)	14.768(3)**	

* $p < .05$, ** $p < .01$

〈표 IV-8-8〉 품목별 대여하기 경험 2

단위: %, (명)

구분	유모차	카시트	유축기	분유포트	기타	(수)
전체	6.8	6.6	17.9	2.6	17.9	(605)
월령						
23년 7~9월생	7.4	9.4	16.1	4.0	15.4	(149)
23년 4~6월생	6.6	6.0	13.2	2.6	17.9	(151)
23년 1~3월생	7.9	6.0	21.9	2.0	19.9	(151)
22년 10~12월생	5.2	5.2	20.1	1.9	18.2	(154)
X ² (df)	1.030(3)	2.579(3)	4.689(3)	1.650(3)	1.023(3)	

3) 물려받기

□ 가구특성에 따라 물려받아 사용한 경험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총 자녀수에 따라 1명인 경우에 비해 2명 이상(다자녀 가구)인 경우 물려받기 경험이 대부분의 품목에서 높게 나타남

- 물려받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품목은 내의류 1개에 불과함

- 내의류의 경우 물려받기 경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물품으로, 오히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내의류는 물려받기 비중이 다자녀 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높음
- 이는 생애 초기 아동(생후 12개월 이내)의 신체적 성장이 매우 급격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내의류가 낡기 전에 단기간에 물품 전환이 이뤄짐에 따른 결과로 생각됨

○ 다자녀 가구에서 물려받기 경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아동당 양육비용이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양육비용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이 됨을 방증함

- 물론, 다자녀 가구의 가구당 양육비용은 비록 규모의 경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비해서는 현저히 높을 것임

〈표 IV-8-9〉 품목별 물려받기 경험 1

단위: %, (명)

구분	침구류	내의류	외출복	아기띠· 히스트· 포대기	젖병 건조대	식기	아기 욕조	아기 침대	(수)
전체	49.9	56.5	62.3	44.8	18.5	18.2	31.4	22.1	(605)
총 자녀수									
1명	44.4	53.5	59.1	37.8	11.3	11.0	24.9	18.6	(381)
2명	59.1	62.4	69.9	54.8	31.2	30.6	43.5	29.0	(186)
3명 이상	60.5	57.9	57.9	65.8	28.9	28.9	36.8	23.7	(38)
X ² (df)	12.751(2)*	3.989(2)	6.588(2)*	21.909(2)***	35.726(2)***	35.506(2)***	20.659(2)***	7.891(2)*	

* $p < .05$, ** $p < .01$, *** $p < .001$.

〈표 IV-8-10〉 품목별 물려받기 경험 2

단위: %, (명)

구분	아기 서랍장 및 옷장	아기 의자	놀이 매트	유모차	카시트	유축기	분류 포트	기타	(수)
전체	12.7	25.1	17.0	35.2	26.1	22.1	12.2	9.9	(605)
총 자녀수									
1명	6.0	18.6	8.1	28.9	20.7	18.9	6.0	10.8	(381)
2명	26.9	37.1	34.4	46.8	35.5	29.0	23.7	8.1	(186)
3명 이상	10.5	31.6	21.1	42.1	34.2	21.1	18.4	10.5	(38)
X ² (df)	49.069(2)***	23.543(2)***	61.534(2)***	18.407(2)***	15.467(2)***	7.473(2)*	37.589(2)***	1.034(2)	

* $p < .05$, *** $p < .001$.

9.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가. 개요 :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병원 이용 및 의약품 구매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V-9-1>, <표 IV-9-2>에 제시되어 있음
- ☐ 최근 3개월 동안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96.7%의 대다수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 단, 최근 3개월 동안의 병원 이용 경험에 대한 분석은 이용자 대상이 아닌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결과를 산출함. 즉, 병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용 횟수 등을 0으로 처리한 후 결과를 산출
 - 전체 응답자 기준 병원 방문 횟수는 평균 6.14회이며, 3개월 동안의 평균 지출 비용은 15만9,042원으로 나타남
 - 입원을 위한 방문 횟수는 3개월 간 0.17회이며 지출 비용은 8만5,427원임
 - 외래를 위한 방문 횟수는 3개월 간 5.97회이며 지출 비용은 7만3,614원임

<표 IV-9-1>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단위: 회, 일, 원, (명)

품목	방문 횟수	입원 일수	3개월 동안 총 지출 비용
전체	6.14 (605)		159,042 (605)
입원	0.17 (605)	6.9 (66)	85,427 (605)
외래	5.97 (605)		73,614 (605)

주: 전체(605명) 대상으로 평균 병원 방문횟수, 3개월간의 지출비용 산출함. 단, 병원 입원 일수의 경우 입원 경험 있는 66명의 평균 입원 일수 산출

- ☐ 가정용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서는 아이의 출생 후부터 12개월이 될 때까지 약국에서 파는(비처방) 아이 전용 해열제, 연고 등의 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거나 구매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84.0%가 있다고 응답함

<표 IV-9-2> (가정용) 의약품 구매 경험 및 계획

단위: %, (명)

품목	있음	없음	계(수)
아이 전용 해열제, 연고 등	84.0(508)	16.0(97)	100.0(605)

주: 자녀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의 구매 경험 및 계획을 조사한 것임

나. 가구특성별 차이 : 보건/의료서비스

1) 병원 이용

- 가구특성별로 병원 이용 경험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9-3>과 <표 IV-9-4>에 제시되어 있음
- 자녀 월령이 높아질수록 병원 방문 횟수가 증가하고, 자녀수가 1명인 경우보다 2명 이상인 경우 방문 횟수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자녀 월령이 3개월이하(23년 7~9월생)는 병원 방문 횟수가 4.3회인데 비해 4~6개월(23년 4~6월생)은 5.8회, 7~9개월(23년 1~3월생)은 6.6회, 10~12개월(22년 10~12월생)은 7.8회로 높아짐
 - 총 자녀수가 1명인 가구의 최근 3개월 간의 병원 방문 횟수는 5.5회였으나 총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 7회 이상으로 나타남

<표 IV-9-3>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병원 이용 전체

단위: 회, 원, (명)

구분	방문횟수	지출비용	(수)
전체	6.1	159,042	(605)
월령			
23년 7~9월생	4.3	153,658	149
23년 4~6월생	5.8	165,537	151
23년 1~3월생	6.6	151,202	151
22년 10~12월생	7.8	165,568	154
$X^2(df)/F$	13.670***	0.040	
총 자녀수			
1명	5.5	146,149	(381)
2명	7.3	187,939	(186)
3명 이상	7.0	146,858	(38)
$X^2(df)/F$	9.230***	0.500	

*** $p < .001$.

-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입원 경험에서는 자녀 월령, 총 자녀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외래의 경우는 달리 나타남
 - 즉, 외래의 경우 자녀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방문 횟수가 증가하며, 총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자녀수가 1명인 가구에 비해 외래를 위한 병원 방문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9-4〉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입원 및 외래

단위: 회, 일, 원, (명), 회, 원, (명)

구분	입원				외래		
	입원횟수	입원일수	지출비용	(수)	외래횟수	지출비용	(수)
전체	1.6	6.9	783,085	(66)	6.2	76,131	(585)
월령							
23년 7~9월생	0.1	5.4	694,000	(14)	4.4	91,522	(144)
23년 4~6월생	0.1	6.9	801,613	(14)	5.9	94,990	(145)
23년 1~3월생	0.2	8.9	836,765	(17)	6.6	58,948	(146)
22년 10~12월생	0.2	6.4	786,667	(21)	7.7	59,850	(150)
<i>F</i>	1.254	0.627	0.060		13.264**	0.999	
총 자녀수							
1명	0.1	6.3	758,206	(32)	5.5	85,381	(368)
2명	0.2	8.0	867,444	(27)	7.3	63,733	(181)
3명 이상	0.4	5.4	571,429	(7)	7.0	43,906	(36)
<i>F</i>	1.425	0.529	0.295		8.870**	0.859	

주: 입원횟수, 일수, 지출비용은 입원 경험 있는 집단(66명) 내에서 산출함. 외래횟수, 지출비용은 외래 경험 있는 집단(585명) 내에서 산출함

*** $p < .001$.

2) 의약품 구매 경험 및 계획

□ 가구특성별로 (가정용) 의약품 구매 경험 및 계획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9-5〉에 제시되어 있음

□ 자녀 월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출생부터 12개월이 될 때까지 가정용 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거나 구매할 계획이 있는지의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가정용) 의약품 구매 경험 및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음

○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의약품 구매 경험 및 계획이 있는 경우가 89.3%이며, 중소도시는 83.0%, 읍·면지역은 72.8%로 달리 나타남

〈표 IV-9-5〉 (가정용) 의약품 구매 경험 및 계획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84.0	16.0	(605)
월령			
23년 7~9월생	71.1	28.9	(149)
23년 4~6월생	85.4	14.6	(151)

구분	있음	없음	계(수)
23년 1~3월생	89.4	10.6	(151)
22년 10~12월생	89.6	10.4	(154)
X ² (df)	25.406*** (3)		
지역규모			
대도시	89.3	10.7	(243)
중소도시	83.0	17.0	(270)
읍·면지역	72.8	27.2	(92)
X ² (df)	13.819*** (2)		

주: 자녀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의 구매 경험 및 계획을 조사한 것임

*** $p < .001$.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모형 및 산출 결과

- 01 적정 양육비용 산출 모형 개요
- 02 침구 및 피복류
- 03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 04 분유 및 식품류
- 05 기기/집기류/장난감류
- 06 소모품류
- 07 보건/의료서비스 등
- 08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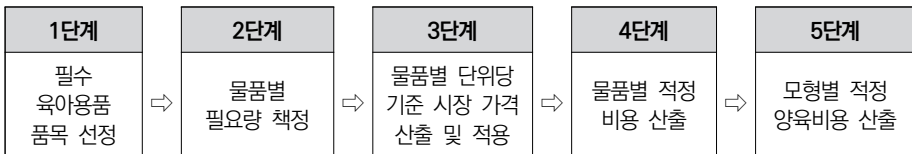
V.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모형 및 산출 결과

1. 적정 양육비용 산출 모형 개요⁵⁹⁾

가. 적정 양육비용 산출 틀

-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은 기본적으로 필수 육아용품을 선정한 후, 해당 필수 육아용품별 필요량을 책정하고, 기준 시장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함
 - 물품 특성에 따라 일부 추가 기준(보유 여부, 실제 평균 지출액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은 생후 12개월 동안의 아동당 양육비용으로, 물품별로 사용 기간이나 구매 주기 등이 다를 수 있으나, 모든 물품의 12개월간의 사용 총량을 반영하여 산출함

[그림 V-1-1]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절차



-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의 산출 시 가구특성(가구소득, 총자녀수 등)에 따른 차이를 적정 양육비용 산출 모형에서 적용하지는 않음
 - 이 연구에서의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은 생애 초기 아동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육아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요 비용으로, 실제 가구의 지출액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가구특성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없기 때문임

59) 산출 모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2절~7절의 비목별 산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산출 모형에서 공통 사항에 해당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함.

- 즉, 저소득 가구의 경우 실제 양육비용 지출액은 고소득 가구에 비해 적지만,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필수 육아용품은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아이가 동일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임
- 단, 가구특성에 따라 필수품에 대한 인지 정도 등이 현저히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필수 육아용품 선정 과정에서 이를 감안하여 필수 육아용품 목록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구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물품별로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토함
 - 예를 들면, 고소득 가구에서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필수품으로 인지되었으나 저소득 가구들은 필수품이 아니라는 응답이 절대 다수인 경우 등이 이와 같은 예외에 해당함
 - 그러나, 가구 조사 분석 결과 가구특성에 따라 물품별 필수율이 현저히 차이를 보이는 물품은 발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가구특성별 차이를 감안하여 적정 양육비용을 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낮음
- 비목별 구분자는 피복 및 침구류(A), 수유 관련 용품(B), 분유 및 식품류(C), 기기/집기류(D), 소모품류(E), 보건의료서비스(F)임
 - 적정 양육비용은 품목별로 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이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비목별로 구분하여 산출 과정과 산출 결과를 제시함
 - 비목별 구분자는 이하 산출 과정 및 산출 결과가 포괄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부여한 구분코드일 뿐 배열이나 분류 범주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음
 - 예를 들어, ‘모형_A2’는 필수율이 85% 이상인 피복 및 침구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내용임을 뜻함
 - 기타 필수육아용품 중 적정 양육비용 산정 모형에 포함된 물품은 총 6개로, 기저귀 같이대와 방수요는 피복 및 침구류에 포함하여 산출하며, 역류방지 쿠션은 수유관련 용품, 물티슈는 소모품류에 포함하여 산출함
 - 모빌과 장난감은 기존 분류 상 해당하는 비목이 없는 상황으로, 기기/집기류에 포함하여 산출하되, 장난감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목명을 기기/집기/장난감류로 구분하여 표기함

나. 필수 육아용품 품목 선정 기준

□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은 3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산출되는데, 모형의 구분 기준은 필수 육아용품 목록의 차이에 따름

○ 모형 자체의 구분 기준은 필수 육아용품에 어떤 물품까지를 포함시키느냐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물품별 산출 방식 자체는 모형에 따라 차이가 나지는 않음

- 예: 기기/집기류 중 놀이매트는 필수율이 89.1%(보유율89.4%)인 물품으로 모형1에는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적정 양육비용 모형_D1 산출 결과에는 놀이매트 비용은 불포함. 하지만, 모형_D2와 모형_D3은 놀이매트 비용을 포함하여 적정 양육비용이 산출되며, 이때 모형_D2와 모형_D3에 적용되는 놀이매트 비용(시장 가격)은 동일한 값임

○ 모형1은 가구조사 설문에서 필수율이 90%이상이었던 물품으로만 구성된 경우이며, 모형2는 필수율이 85%인 물품임

- 단, 기기/집기류의 경우에는 필수율 결정 기준에 필수 여부와 더불어 보유율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함. 이는 기기/집기류의 경우 내구재인 경우가 다수로,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비 행태를 반영하여 적정 양육비용을 산출하기 위함임

○ 모형3은 가구조사 설문에 포함된 총 39개 품목 중 필수율이 50%미만인 물품을 제외하고, 기타 필수 육아용품 중 30가구 이상에서 응답된 물품(단, 질병소독용품은 제외)인 6개 품목을 포함한 경우임

○ 한편, 분유 및 식품류(분유, 이유식, 간식)는 모형의 구분 없이, 모든 경우에 필수재로 공통 적용함

○ 또한, 기본 산출 모형에는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이 불포함되며,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은 산출된 모형에 별도로 합산하는 형태로 모형을 확장하여 사용함

- 보건의료서비스는 앞서 육아용품과는 달리 재화가 아닌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여부와 이에 따른 이용비용의 편차가 크게 발생함

- 즉, 보건의료서비스는 필수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자녀가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와 반대의 경우 서비스 이용 여부와 이용비용이 크게 차이를 보임. 특별한 질병과 장애가 없는 경우 과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무의미함

- 이 연구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자녀의 병원 이용비용과 산후조리 비용으로, 이는 별도로 산정하여 기 산출된 적정 양육비용에 일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모형은 각 모형에 -1을 붙여서 구분함
- 예: 적정 양육비용 모형1의 산출 결과 + 보건의료서비스 = 모형 1-1로 표기하여 구분

〈표 V-1-1〉 모형별 포함 필수 육아용품 목록

단위 : (개)

구분	모형1 (필수율 90% 이상)	모형2 (필수율 85% 이상)	모형3 (필수율 50% 이상 혹은 선별된 기타 필수 육아용품)
피복 및 침구류	속싸개, 손발싸개, 턱받이, 가제수건, 아기띠·합시트·포대기, 내복, 외출복 (7)	모형1 + 배냇저고리, 아기 목욕수건, 신생아모자 (10)	모형2+ 겹싸개, 아기이불, 수면조끼 + 기저귀갈이대, 방수요 (15)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젓병(젓병과 세트인 젓꼭지 포함) (1)	모형1 + (별도 구매한)젓꼭지,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 (3)	모형2 + 공갈젓꼭지, 젓병건조대(소독 기능 없음),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역류방지쿠션 (8)
기기/집기류 (기기/집기/ 장난감류)	아기욕조, 유모차, 카시트, 체온계 (4)	모형1 + 아기의자, 놀이매트, 치발기 (7)	모형2 + 아기침대, 아기서랍장 및 옷장, 분유포트, 코흡입기 + 장난감류(모빌, 장난감) (13)
소모품류	일회용 기저귀, 목욕용품,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유아 전용 세제 (4)	모형1 동일 (4)	모형2 + 물티슈 (5)
전체 품목 수	(16)	(24)	(41)
공통 적용	분유 및 식품류(분유, 이유식, 간식)		
보건의료서비스	각 모형별 산출 결과에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을 합산한 모형은 모형1-1, 모형 1-2, 모형 1-3으로 구분하여 표기		

다. 필요량 산정 기준

- 품목별 필요량은 가구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계측하되, 식품류의 경우에는 월령별 적정 영양섭취량 기준 등에 근거하여 산출함
- 품목별 필요량은 일반적인 경우에 중위수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량의 분포가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에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

- 필요량에 대한 가구의 의견이 긴 꼬리를 가진 형태로 넓게 분포하는 물품이 다수 있어, 평균보다는 중위수를 기준 값으로 적용함
- 단, 소모품류와 같이 여러개 물품이 하나의 품목으로 섞이는 과정에서 물품의 용량이 큰 편차를 가진 경우(예: 쌍봉형 분포 등)에는 중위수보다는 평균값이 물품의 필요량을 보다 잘 대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경우에는 평균값을 적용함.
- 품목별 필요량의 산정 기준과 산출 방식은 2절~7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품목별 필요량은 산출 단계에서는 소요주기를 감안하여 산출하되, 최종적인 적정 양육비용 산출 시에는 생후 12개월 동안 사용하는 전체 필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함

○ 품목별 필요량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Q_m = q_{mt} \times (12/t)$

- Q_m 은 생후 12개월 동안 물품(m)의 총 필요량
- q_{mt} 은 소요주기별(t) 물품(m)의 단위당 필요량
 - 단, 물품 종류에 따라 단위는 개 혹은 용량 등으로 상이함.
- m : 물품 종류(품목), t : 소요주기
- 예: $Q_{\text{내복}}$ 은 3개월($t=3$)동안 내복 필요량($q_{\text{내복}3}$) $\times$ 4개월(= 12개월 / 3개월)로 산출된 값임
 - 배냇저고리의 소요주기는 12개월을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므로, t 가 12이므로, $12/t$ 가 1이 되어, $Q_m = q_{m12} \times 1$ 이 배냇저고리의 필요량이 됨
- 가구 조사 결과 분석 및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필요량 산출시 물품의 내구연한이나 공유 경제 활용 등은 감안하지 않기로 함
 - 생애 초기 필수 육아용품의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이더라도 소비 지출 행위 자체가 생애 초기에 집중해서 발생하고, 추후 해당 물품을 추가 구매할 가능성이 있긴 하나 대부분의 육아용품이 자녀 성장에 따라 쓸모를 다하기 때문에 재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정할 필요성이 낮음

- 예를 들면, 유모차의 경우 사용 기한은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자녀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더 이상 유모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기 한 번의 소비 행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음. 유모차의 내구연한이 5년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출은 생애 초기에 한꺼번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 비용을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5년에 나누어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연령별 양육비용 실태를 오히려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 한편, 유사 기능을 가진 여러 개의 물품이 하나의 품목(범주)으로 묶여 있는 경우의 필요량은 물품의 종류를 막론하고 품목별 필요량을 산출함

○ 예를 들면, 아기띠·힙시트·포대기는 유사 기능을 가진 상호 대체 관계에 있는 물품으로, 하나의 품목으로 분류됨

- 생애 초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기띠, 힙시트, 포대기를 모두 구비할 수도 있지만, 이 중 하나의 물품을 구비할 가능성이 높음.
- 즉, 아기띠, 힙시트, 포대기 중 하나라도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면 필수품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높은 필수율을 보임. 이때, 단일 물품(예: 아기띠)만으로는 필수율이 90%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아기띠·힙시트·포대기의 필요량은 개별 물품별로 각각의 필요량이 산출되는 것이 아닌 아기띠, 힙시트, 포대기 중 어떤 물품이든지 1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렇듯 단일 물품이 여러개 물품이 하나의 품목(범주)으로 묶여서 필요량이 산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피복 및 침구류 중 아기띠·힙시트·포대기,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중 그릇, 식판, 컵, 수저 등의 식기가 이에 해당함
- 분유 및 식료품류 중에서는 이유식이 이유식과 보충식(간식)로 하나의 범주로 처리됨
- 기기/집기/장난감류 중에서는 장난감이 딸랑이, 흑백초점책, 형겅책, 형겅인형 총 4개의 물품이 하나로 묶여 있으며, 소모품류의 경우 목욕용품, 엉덩이발진크림·땀띠파우더, 유아 전용 세제 3개 품목이 여러개 물품으로 구성된 범주형 품목임

□ 한편, 필요량의 산출은 기본적으로 가구 조사에서 조사된 필요수량을 기준으

로 산출되었으나, 필요수량이 아닌 다른 기준이 적용된 물품은 다음과 같음.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중 일부 품목은 필요량 대신 실제 구매량(3개월 간)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해당품목으로는 젓병건조대, 수유패드, 모유저장팩임
- 분유는 규범적 기준으로 가구조사 결과가 아닌 월령별 영양섭취량을 기준으로 필요량을 산출함
- 기기/집기류에 해당하는 11종의 품목(예: 유모차 등)은 모두 필요수량이 아닌 현재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필요량을 산출함

〈표 V-1-2〉 필요량 산출 기준

구분	평균값 적용 품목	범주별 적용 품목	별도 기준 적용 품목
피복 및 침구류	-	아기띠·히스트·포대기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	젓병건조대,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구매량 기준
분유 및 식품류	분유, 이유식	이유식(이유식 및 보충식)	분유 : 영양섭취량
기기/집기/장난 감류	-	장난감류(말랑이, 흑백초점 책, 형견책, 형견인형)	기기/집기류의 11종 품목 은 보유량 기준 적용.
소모품류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유이전용세제	목욕용품(비누, 샴푸, 바디 워시), 엉덩이발진크림·땀띠 파우더, 유아 전용 세제	-

주: 표에 제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단일 품목 기준, 필요수량 기준 중위수를 적용하여 필요량을 산출한 경우임.

라. 기준 가격 산출 기준

-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장 가격을 적용하여 물품별 적정 양육비용을 산출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평균 구매 비용 등을 산출 기준으로 적용함
 - 여러 개의 품목이 하나의 카테고리 묶여 있어 단일 물품의 기준 시장 가격을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균 구매 비용을 적용
 - 예: 식기, 이유식 등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품이 하나의 범주에 묶여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의 종류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균 구매 비용을 적용
 - 하지만, 여러 가지 물품이 하나의 범주로 묶여 있다할지라도 물품이 어느 정도 특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대표 물품들(예: 아기띠, 히스트, 포대기)의 물품별 기준 시장 가격을 산출한 후, 이를 평균하여 물품(범주)의 기준 시장 가격을 산출함

- 기준 시장 가격은 일반적인 경우 개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용량당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분유, 기저귀, 유아 전용 세제 등의 경우 제품별로 단위(용량)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개당 가격을 평균하여 가격을 산정할 경우 오차가 매우 커지는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물품은 단위당 시장 가격을 산출 모형에 적용함. 이때, 시장 가격 산출 단위는 앞서 필요량 산정 단위와 일치하는 단위임
 - 예: 기저귀는 필요량을 팩이 아닌 장으로 산출하고, 기준 시장 가격은 한 장당 시장 가격을 적용
- 한편, 기준 시장 가격 산출 방식은 앞서 III장 2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출됨.

$$P_m = \sum_{s=1}^s \sum_{i=1}^2 \sum_{j=1}^5 p_{msij} / N_p$$

- P_m 은 물품(m)의 단위당 기준 가격
 - 단, 물품 종류에 따라 단위는 개 혹은 용량 등으로 상이함.
- m : 물품 종류(품목), s : 사용 단계, i : (온라인상거래) 업체, j : 판매량 순위를 의미함. 즉, p_{msij} 는 각 물품별 단계별 i 업체의 판매량 순위가 j 번째인 제품의 가격을 의미함.
 - 예: $p_{분유213}$ 은 분유(m) 2단계(s) 제품 중 C업체(i)에서 3번째 베스트 상품(j)의 가격을 의미.
- N_p 는 물품별 가격의 개수로, P_m 산출 과정에서 합산된 가격의 개수를 의미함.
 - 예: 분유의 기준 시장 가격은 2단계로 구분되는 물품의 2개 업체, 5개 상품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하므로, $2 \times 2 \times 5 = 20$ 개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N_p 는 20임.
 -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단계가 구분되지 않는 물품(예: 배냇저고리 등)이 다수로, 대부분 물품의 N_p 는 10임.
- 즉, 물품별 기준 시장 가격(P_m)은 각 단계별로 2개 온라인상거래 업체에서 판매량이 상위 5순위까지인 제품의 단위당 가격을 모든 합산한 후 평균한 값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물품이 포함된 하나의 범주로 묶여서 필요량이 산출된 품목의 경우 시장 가격은 해당 범주에 속하는 대표 물품의 기준 시장 가격(P_m)의 평균한 값을 기준 시장 가격으로 간주함
- 예를 들어, 아기띠·힙시트·포대기의 경우 3개 물품이 하나의 품목을 이루고 있는 경우로, 기준 시장 가격은 $P_{\text{아기띠}}$, $P_{\text{힙시트}}$, $P_{\text{포대기}}$ 3개가 산출됨
 - 해당 물품의 필요량은 아기띠·힙시트·포대기 중 어떤 물품이든지 1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격도 하나만 적용되어야 함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기준 시장 가격은 3개 물품의 기준 시장 가격의 평균값을 해당 품목(범주)의 기준 시장 가격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임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중 식기의 경우 세부 물품의 구성이나 종류, 수량을 특정하기 어려워 기준 시장 가격 대신 식기류 구매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이유식의 경우도 집에서 만들어 먹이는 비용 등 시장 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구조사 결과의 평균 비용을 기준 가격 책정 기준으로 삼음
- 보건의료서비스 중에서는 병원 이용비용이 가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함

마. 적정 양육비용 산출식

□ 최종적인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Cost = \sum_{m=1}^n C_m = \sum_{m=1}^n Q_m \times P_m$$

- C_m 은 물품별 적정 양육비용
- Q_m 은 생후 12개월 동안 물품(m)의 총 필요량
- P_m 은 물품(m)의 단위당 기준 가격
- 여기서 m 은 물품 종류(품목)를 의미하므로, 적정 양육비용(Cost)은 품목별 '필요량 × 단위당 기준 가격'을 합산한 값임
 - 이때, 합산해야 하는 물품(m)의 개수(n)는 모형1~모형3에 포함되는 필수 육아용품의 개수에 따라 달라짐

2. 침구 및 피복류

가. 필수 육아용품 품목 선정 : 침구 및 피복류

- 모형_A1에는 침구 및 피복류 중 필수율이 90% 이상인 속싸개, 손발싸개, 턱받이, 가제수건, 아기띠·힙시트·포대기, 내복, 외출복 7개 품목이 포함됨
- 모형_A2에는 모형_A1에 포함된 필수 육아용품 외에 배냇저고리, 아기목욕수건, 신생아모자가 추가되어 총 10개 품목임
- 모형_A3에 포함된 필수 육아용품은 모형_A2의 10개 품목 외에 겹싸개, 아기이불, 수면조끼, 기저귀갈이대, 방수요 총 15개 품목임
- 가구조사 설문 문항에 제시된 침구 및 피복류의 필수 육아용품이 모두 모형_A3에 포함되었으며, 기저귀갈이대와 방수요는 문자로 응답한 기타 필수 육아용품에서 침구 및 피복류에 포함된 품목임

〈표 V-2-1〉 모형별 포함 필수 육아용품 목록 : 침구 및 피복류(A)

단위 : %, (개)

구분	필수율	필수 육아용품 포함 여부		
		모형_A1	모형_A2	모형_A3
1) 배냇저고리	85.5	×	○	○
2) 속싸개	92.2	○	○	○
3) 겹싸개	72.1	×	×	○
4) 아기목욕수건	87.3	×	○	○
5) 아기이불 (신생아베개 포함)	78.2	×	×	○
6) 신생아모자	88.8	×	○	○
7) 손발싸개	92.4	○	○	○
8) 수면조끼	80.0	×	×	○
9) 턱받이	92.4	○	○	○
10) 가제 수건	97.9	○	○	○
11) 아기띠·힙시트·포대기	98.3	○	○	○
12) 내복 (바디수트 포함)	98.8	○	○	○
13) 외출복 (상하의 한 벌 기준)	99.2	○	○	○
14) 기저귀갈이대 (문자)	(37)	×	×	○
15) 방수요 (문자)	(58)	×	×	○
필수육아용품 물품 수	-	7	10	15

주: 1) 모형1에 포함된 육아용품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90%인 물품이며, 모형2는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85% 이상인 물품임. 모형3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50%이상이거나 기타 필수육아용품 조사에서 30가구 이상이 응답한 물품임.

2) 기타 필수육아용품 중 필수 육아용품에 포함된 경우 필수율(괄호 안)의 수치는 응답 가구의 수를 의미함.

나. 필요량 산출 모형 : 침구 및 피복류

□ 침구 및 피복류는 중위수를 적용하여 필요량을 산출

- 대다수 품목 필요량의 중위수와 평균은 1개 내외 차이지만, 턱받이, 가제 수건, 내복, 외출복, 방수요는 1~3개 미만 차이를 보임
 - 중위수와 평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품목의 경우 대체로 응답값이 넓게 퍼져 분포한 것으로 확인되어, 평균보다 중위수를 기준 값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
- 내복과 외출복을 제외한 침구 및 피복류는 12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한 필요 수량이며, 내복과 외출복 필요량의 중위수는 3개월 동안 필요 수량에 4를 곱하여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함
 - 내복은 바디수트를 포함하였으며, 외출복은 상하의 한 벌을 기준으로 함

□ 침구 및 피복류는 품목별로 필요량의 차이가 큰 편임

- 필요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가제 수건으로 30개였으며, 내복(20개)과 외출복(16개)도 필요량이 많은 품목임
- 겹싸개, 아기띠·힙시트·포대기, 기저귀갈이대의 필요량은 1개, 아기이불, 신생아모자, 수면조끼, 방수요의 필요량은 2개, 배냇저고리, 속싸개, 손발싸개의 필요량은 3개, 아기목욕수건, 턱받이의 필요량은 5개임

〈표 V-2-2〉 물품별 필요량 : 침구 및 피복류(A)

단위 : 개

구분	필요량 (중위수)	참고 수치 (필요량 평균)	필수 육아용품 포함 여부		
			모형_A1	모형_A2	모형_A3
1) 배냇저고리	3	3.8	×	○	○
2) 속싸개	3	3.5	○	○	○
3) 겹싸개	1	1.6	×	×	○
4) 아기목욕수건	5	5.3	×	○	○
5) 아기이불 (신생아베개 포함)	2	2.3	×	×	○
6) 신생아모자	2	2.3	×	○	○
7) 손발싸개	3	3.7	○	○	○
8) 수면조끼	2	2.7	×	×	○
9) 턱받이	5	7.3	○	○	○
10) 가제 수건	30	32.7	○	○	○

구분	필요량 (중위수)	참고 수치 (필요량 평균)	필수 육아용품 포함 여부		
			모형_A1	모형_A2	모형_A3
11) 아기띠·힙시트·포대기	1	1.5	○	○	○
12) 내복 (바디수트 포함)	20	18.3	○	○	○
13) 외출복 (상하의 한 벌 기준)	16	13.8	○	○	○
14) 기저귀갈이대 (문자)	1	1.5	×	×	○
15) 방수요 (문자)	2	4.8	×	×	○

주: 1) 모형1에 포함된 육아용품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90%인 물품이며, 모형2는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85% 이상인 물품임. 모형3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50%이상이거나 기타 필수육아용품 조사에서 30가구 이상이 응답한 물품임.

2) 12개월 필요량은 정수 단위로 반올림을 적용.

다. 기준 가격 산출 모형 : 침구 및 피복류

- 침구 및 피복류의 모든 품목의 기준 가격은 시장 가격을 적용하며, 시장 가격 산출 단위는 모두 개당 가격임
 - 침구 및 피복류의 시장 가격은 대표적인 온라인 상거래 쇼핑몰 2곳의 베스트 상품 5순위까지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 값임
 - 단, 수면조끼(75호, 80호)와 내복(70~75호, 80~85호)의 경우 월령에 따라 호수가 구분되어 있어서 각각 20개의 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외출복은 4단계로 구분되어 총 40개의 시장 가격 평균을 산출함
 - 아기띠·힙시트·포대기는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 상호 대체되는 품목으로 구분하고, 각 물품 당 10개 시장 가격의 평균을 합산하여 총 30개의 시장 가격 평균을 산출함
- 겹싸개, 아기띠·힙시트·포대기, 기저귀갈이대는 제품 시장 가격에서 상당히 큰 편차가 있는 품목임
 - 가장 큰 편차를 보인 아기띠·힙시트·포대기의 30개 시장 가격을 살펴보면, 최소값은 1만9,800원이며, 최대값은 33만2,500원임
- 각 물품별로 2개 업체의 베스트 상품 5순위까지의 시장 가격은 <표 V-2-3>과 <표 V-2-4>와 같음

〈표 V-2-3〉 물품별 시장 가격(C사 베스트5) : 침구 및 피복류(A)

단위 : 원

물품 및 단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 배넛저고리		9,590	7,840	8,900	5,900	9,500
2) 속싸개		21,400	6,500	12,400	24,800	24,900
3) 겹싸개		20,980	24,060	21,930	19,700	29,900
4) 아기목욕수건		13,400	10,490	29,800	38,850	38,000
5) 아기가이불 (신생아베개 포함)		12,900	29,900	31,900	16,900	34,550
6) 신생아모자		5,810	12,900	8130	5,800	13,900
7) 손발싸개		2,933	6,530	6,390	7,130	6,300
8) 수면조끼	75호	15,910	27,000	27,200	17,200	13,900
	80호	14,780	15,910	29,900	14,500	12,900
9) 턱받이		9,020	7,900	3,575	3,375	6,835
10) 가제 수건		570	540	590	428	980
11) 아기띠 외	아기띠	144,000	32,400	37,440	72,400	19,800
	힙시트	47,000	39,800	39,000	75,800	41,900
	포대기	20,710	34,000	27,920	23,300	32,300
12) 내복	70~75호	9,900	7,900	11,900	14,160	12,900
	80~85호	9,900	7,900	11,900	14,160	12,900
13) 외출복	59호	10,030	23,800	29,300	19,500	18,800
	66호	30,300	10,030	23,800	29,360	29,300
	73호	30,300	10,030	23,800	29,360	18,560
	80호	30,300	10,030	31,900	23,800	15,100
14) 기저귀갈이대 (문자)		74,900	74,900	74,900	54,000	64,900
15) 방수요 (문자)		11,300	8,900	8,900	11,300	22,350

주: 2023년 12월 기준 가격임.

〈표 V-2-4〉 물품별 시장 가격(E사 베스트5) : 침구 및 피복류(A)

단위 : 원

물품 및 단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 배넛저고리		15,520	19,546	15,848	19,500	12,500
2) 속싸개		25,220	51,300	11,532	52,700	49,410
3) 겹싸개		40,320	46,800	51,485	121,735	136,040
4) 아기목욕수건		19,700	9,405	8,643	18,900	11,600
5) 아기가이불 (신생아베개 포함)		58,650	39,900	57,950	42,440	47,055
6) 신생아모자		4,557	12,960	13,851	11,600	14,900
7) 손발싸개		5,880	9,000	24,920	12,600	12,000
8) 수면조끼	75호	21,000	11,900	12,900	13,900	13,900
	80호	13,485	14,310	11,610	20,000	17,450
9) 턱받이		20,000	18,879	10,965	19,109	10,800
10) 가제 수건		500	1,615	3,800	1,000	900
11) 아기띠 외	아기띠	144,000	61,750	89,100	80,995	129,000
	힙시트	36,955	332,500	89,000	279,000	154,230
	포대기	68,773	39,610	61,983	37,996	49,000
12) 내복	70~75호	14,360	10,482	15,327	18,900	29,700
	80~85호	13,900	13,900	10,900	14,360	10,482

물품 및 단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3) 외출복	59호	19,600	34,500	13,800	14,900	27,300
	66호	19,600	34,500	13,800	14,900	27,300
	73호	28,800	19,600	34,500	16,300	13,800
	80호	29,500	99,000	28,800	19,600	29,400
14) 기저귀갈이대 (문자)		82,710	76,415	217,550	46,550	128,700
15) 방수요 (문자)		39,690	16,150	28,595	18,810	19,780

주: 2023년 12월 기준 가격임.

□ 침구 및 피복류의 각 물품별 기준 가격은 <표 V-2-5>와 같음

- 기저귀갈이대의 기준 가격이 개당 8만9,553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기띠·힙시트·포대기가 7만8,055원, 겹싸개가 5만1,295원, 아기이불이 3만7,215원 순임
- 필요량이 가장 많은 가제 수건의 개당 시장 가격이 1,092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손발싸개의 기준 가격이 평균 9,368원으로 낮게 나타남

<표 V-2-5> 물품별 기준 가격 : 침구 및 피복류(A)

단위 : 원, (개)

구분	기준 가격	산출 단위	기준 가격 산출 근거	필수 육아용품 포함 여부		
				모형_A1	모형_A2	모형_A3
1) 배냇저고리	12,464	개당	시장 가격 (10)	×	○	○
2) 속싸개	28,016	개당	시장 가격 (10)	○	○	○
3) 겹싸개	51,295	개당	시장 가격 (10)	×	×	○
4) 아기목욕수건	19,879	개당	시장 가격 (10)	×	○	○
5) 아기이불	37,215	개당	시장 가격 (10)	×	×	○
6) 신생아모자	10,441	개당	시장 가격 (10)	×	○	○
7) 손발싸개	9,368	개당	시장 가격 (10)	○	○	○
8) 수면조끼	16,983	개당	시장 가격 (20)	×	×	○
9) 턱받이	11,046	개당	시장 가격 (10)	○	○	○
10) 가제 수건	1,092	개당	시장 가격 (10)	○	○	○
11) 아기띠·힙시트·포대기	78,055	개당	시장 가격 (30)	○	○	○
12) 내복	13,292	개당	시장 가격 (20)	○	○	○
13) 외출복	24,673	개당	시장 가격 (40)	○	○	○
14) 기저귀갈이대 (문자)	89,553	개당	시장 가격 (10)	×	×	○
15) 방수요 (문자)	18,578	개당	시장 가격 (10)	×	×	○

주: 1) 모형1에 포함된 육아용품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90%인 물품이며, 모형2는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85% 이상인 물품임. 모형3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50%이상이거나 기타 필수육아용품 조사에서 30가구 이상이 응답한 물품임.

2) (괄호)안의 수치는 시장 가격의 개수.

라.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 침구 및 피복류

□ 침구 및 피복류의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는 <표 V-2-6>과 같음

- 침구 및 피복류의 모든 물품의 기준 가격은 10만원 미만으로 높지 않으나 품목에 따라 필요량의 차이가 큰 편으로 나타나, 필요량과 기준 가격을 곱하여 물품별 비용을 산출하면 편차가 커짐
 - 내복과 외출복의 경우 기준 가격이 높지 않으나 필요량이 많아서 침구 및 피복류의 적정 양육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모형_A1에는 속싸개 등 7개 품목이 포함되며, 93만8,805원임
- 모형_A2에는 배넛저고리 등 10개 품목이 포함되며, 109만6,474원임
- 모형_A3에는 겉싸개 등 15개 품목이 포함되며, 138만2,874원임

<표 V-2-6>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 침구 및 피복류(A)

단위 : 개, 원

구분	필요량	기준 가격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_A		
			모형_A1	모형_A2	모형_A3
속싸개	3	28,016	84,048	84,048	84,048
손발싸개	3	9,368	28,104	28,104	28,104
턱받이	5	11,046	55,230	55,230	55,230
가제 수건	30	1,092	32,760	32,760	32,760
아기띠·힙시트·포대기	1	78,055	78,055	78,055	78,055
내복	20	13,292	265,840	265,840	265,840
외출복	16	24,673	394,768	394,768	394,768
배넛저고리	3	12,464	-	37,392	37,392
아기목욕수건	5	19,879	-	99,395	99,395
신생아모자	2	10,441	-	20,882	20,882
겉싸개	1	51,295	-	-	51,295
아기이불	2	37,215	-	-	74,430
수면조끼	2	16,983	-	-	33,966
기저귀갈이대 (문자)	1	89,553	-	-	89,553
방수요 (문자)	2	18,578	-	-	37,156
합계	-	-	938,805	1,096,474	1,382,874

주: 모형1에 포함된 육아용품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90%인 물품이며, 모형2는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85%이상인 물품임. 모형3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50%이상이거나 기타 필수육아용품 조사에서 30가구 이상이 응답한 물품임.

3.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가. 필수 육아용품 품목 선정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 모형_B1에는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중 필수율이 90% 이상인 젖병(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 한가지 품목만 포함됨
- 모형_B2에는 모형_B1에 포함된 수유 관련 용품 외에 (별도 구매한)젖꼭지와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가 추가되어 총 3개 품목이 포함됨
 - 모형_B3에는 모형_B2에 포함된 수유 관련 용품 외에 추가로 공갈젖꼭지, 젖병건조대(소독 기능 없음),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역류방지쿠션 총 8개 품목임
- 가구조사 설문 문항에 제시된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가 모두 필수 육아용품에 포함되며, 추가로 기타 필수 육아용품에서 문자로 응답한 역류방지쿠션이 추가됨

〈표 V-3-1〉 모형별 포함 필수 육아용품 목록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B)

단위 : %, (개)

구분	필수율	필수 육아용품 포함 여부		
		모형_B1	모형_B2	모형_B3
1) 젖병 (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	97.9	○	○	○
2) (별도 구매한) 젖꼭지	88.1	×	○	○
3) 공갈젖꼭지	83.5	×	×	○
4) 젖병건조대 (소독 기능 없음)	74.9	×	×	○
5) 수유패드	71.4	×	×	○
6) 모유저장팩	63.3	×	×	○
7)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	89.6	×	○	○
8) 역류방지쿠션 (문자)	(34)	×	×	○
필수육아용품 물품 수	-	1	3	8

주: 1) 모형1에 포함된 육아용품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90%인 물품이며, 모형2는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85% 이상인 물품임. 모형3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50%이상이거나 기타 필수육아용품 조사에서 30가구 이상이 응답한 물품임.

2) 기타 필수육아용품 중 필수 육아용품에 포함된 경우 필수율(팔호 안)의 수치는 응답 가구의 수를 의미함.

나. 필요량 산출 모형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는 중위수를 적용하여 필요량을 산출함

○ 젖병(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 (별도 구매한)젖꼭지, 공갈젖꼭지, 역류방지쿠션은 가구조사 결과 필요수량의 중위수를 적용

- 젖병, 젖꼭지, 공갈젖꼭지의 필요수량 중위수와 평균은 1~2개 차이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그러나, 필요수량과 구매량은 젖병(필요량: 8개, 구매량 24개), 젖꼭지(필요량 10개, 구매량 24개), 공갈젖꼭지(필요량 4개, 구매량 12개)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 다만, 구매량은 최근 3개월 기간 내 구매 기준으로 구매량 응답에 4를 곱해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였기에 과대 산출된 값으로 볼 수 있음

○ 젖병건조대(소독 기능 없음),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은 구매량 응답의 중위수를 적용

- 젖병건조대는 구매량 중위수와 평균이 차이가 없었으나, 수유패드(중위수: 4개, 평균: 8.6개), 모유저장팩(중위수: 4개, 평균 9.5개), 식기(중위수: 12개, 평균 17.2개)로 다소 차이를 보임

- 이는 수유패드와 모유저장팩, 식기의 경우 구매량이 현저히 많은 가구가 일부 섞여 있어서 발생한 문제로, 평균값보다는 중위수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한 수치로 판단됨

〈표 V-3-2〉 물품별 필요량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B)

단위 : 개

구분	필요량 (중위수)	필요량 참고(평균)	구매량 (중위수)	구매량 참고(평균)	필수 육아용품 포함 여부		
					모형_B1	모형_B2	모형_B3
1) 젖병 (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	8	9.6	24	29.4	○	○	○
2) (별도 구매한) 젖꼭지	10	11.4	24	30.7	×	×	○
3) 공갈젖꼭지	4	5.0	12	15.3	×	×	○
4) 젖병건조대 (소독 기능 없음)	-	-	1	1.1	×	○	○
5) 수유패드	-	-	4	8.6	×	○	○
6) 모유저장팩	-	-	4	9.5	○	○	○
7)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	-	-	12	17.2	○	○	○
8) 역류방지쿠션 (문자)	1	1.6	1	1.1	×	×	×

주: 1) 모형1에 포함된 육아용품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90%인 물품이며, 모형2는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85% 이상인 물품임. 모형3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50%이상이거나 기타 필수육아용품 조사에서 30가구 이상이 응답한 물품임.

2) 수유패드의 기준용량은 60매, 모유저장팩의 기준용량은 30매임.

3) 젖병건조대(소독 기능 없음)과 역류방지쿠션은 구매량에 기간을 곱하지 않았음.

다. 기준 가격 산출 모형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의 대부분의 품목은 시장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적용하며, 시장 가격 산출 단위는 모두 개당 가격임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의 시장 가격은 대표적인 온라인 상거래 쇼핑몰 2곳의 베스트 상품 5순위까지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하였음
 - 젓병(젓병과 세트인 젓꼭지 포함)은 브랜드별로 단계를 구분하는 구간이 상이하고 단계의 수가 일정하지 않아 해당 브랜드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음
 - 예: C사의 1순위 브랜드는 6단계 평균 가격, 2, 3, 5순위 브랜드는 5단계 평균 가격, 4순위 브랜드는 3단계 평균 가격임
 - 젓꼭지(0~3개월, 3~6개월, 6~12개월), 공갈젓꼭지(0~6개월, 6~18개월)의 경우 월령에 따라 단계가 구분되어 있어 각각 30개(젓꼭지), 20개(공갈젓꼭지)의 시장 가격을 모두 조사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음
-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부 물품의 구성이나 종류, 수량을 특정하기 어려워 시장 가격 대신 자체 조사에서 응답한 최근 3개월간 단위 구매 가격의 평균을 기준 가격으로 적용하였음
- 각 물품별로 2개 업체의 베스트 상품 5순위까지의 시장 가격은 <표 V-3-3>과 <표 V-3-4>와 같음

<표 V-3-3> 물품별 시장 가격(C사 베스트5)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B)

단위 : 원

물품 및 단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 젓병(젓병과 세트인 젓꼭지 포함)		19,800	27,000	12,250	24,067	12,380
2) 젓꼭지	0~3개월	4,550	5,115	7,950	3,690	4,200
	3~6개월	5,140	3,700	4,200	3,690	3,940
	6~12개월	14,950	5,115	4,200	15,450	4,550
3) 공갈젓꼭지	0~6개월	5,450	13,900	5,450	11,070	3,250
	6~18개월	6,500	13,900	6,500	11,070	9,900
4) 젓병건조대(소독 기능 없음)		15,100	9,900	8,250	15,670	17,600
5) 수유패드		10,725	5,450	6,490	5,756	4,523
6) 모유저장팩		1,998	5,000	4,180	10,428	13,155
7)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		-	-	-	-	-
8) 역류방지쿠션 (문자)		49,900	72,800	48,350	55,000	77,900

주: 1) 2023년 12월 기준 가격임.

2) 젓병(젓병과 세트인 젓꼭지 포함)의 경우 브랜드별로 단계별 구간이 상이하고 단계의 수가 다르나, 단계별 가격이 대부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단계별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음.

3) 수유패드의 기준용량은 60매, 모유저장팩의 기준용량은 30매임.

4) 모유저장팩의 기준용량은 30매이나 ml는 제품별로 상이함.

〈표 V-3-4〉 물품별 시장 가격(E사 베스트5)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B)

단위 : 원

물품 및 단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 젖병(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		25,169	19,344	18,640	20,550	11,977
2) 젖꼭지	0~3개월	9,500	8,096	4,250	5,100	10,323
	3~6개월	9,250	8,096	4,250	5,100	10,323
	6~12개월	8,096	9,250	4,250	5,100	10,323
3) 공갈젖꼭지	0~6개월	6,900	7,480	5,950	12,650	17,860
	6~18개월	3,950	7,480	5,950	9,600	12,650
4) 젖병건조대(소독 기능 없음)		20,805	46,800	17,704	32,633	26,010
5) 수유패드		7,500	9,200	13,386	8,502	10,800
6) 모유저장팩		5,300	6,800	5,000	6,800	5,950
7)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		-	-	-	-	-
8) 역류방지쿠션 (문자)		88,881	103,550	95,000	91,233	61,110

주: 1) 2023년 12월 기준 가격임.

2) 젖병(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의 경우 브랜드별로 단계별 구간이 상이하고 단계의 수가 다르나, 단계별 가격 이 대부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단계별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음.

3) 수유패드의 기준용량은 60매, 모유저장팩의 기준용량은 30매임.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의 각 물품별 기준 가격은 〈표 V-3-5〉와 같음

○ 역류방지쿠션이 7만4,37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젖병건조대(소독 기능 없음) 21,047원, 젖병(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 1만9,118원,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 8,927원, 공갈젖꼭지 8,873원, 수유패드 8,233원, (별도 구매한) 젖꼭지 6,725원, 모유저장팩 6,461원 순임

〈표 V-3-5〉 물품별 기준 가격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B)

단위 : 원, (개)

구분	기준 가격	산출 단위	기준 가격 산출 근거	필수 육아용품 포함 여부		
				모형_B1	모형_B2	모형_B3
1) 젖병 (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	19,118	개당	시장 가격 (10)	○	○	○
2) (별도 구매한) 젖꼭지	6,725	개당	시장 가격 (30)	×	○	○
3) 공갈젖꼭지	8,873	개당	시장 가격 (20)	×	×	○
4) 젖병건조대 (소독 기능 없음)	21,047	개당	시장 가격 (10)	×	×	○
5) 수유패드	8,233	개당(60매당)	시장 가격 (10)	×	×	○
6) 모유저장팩	6,461	개당(30매당)	시장 가격 (10)	×	×	○
7)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	8,927	개당	구매 가격 -	×	○	○
8) 역류방지쿠션 (문자)	74,372	개당	시장 가격 (10)	×	×	○

주: 1) 모형1에 포함된 육아용품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90%인 물품이며, 모형2는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85% 이상인 물품임. 모형3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50%이상이거나 기타 필수육아용품 조사에서 30가구 이상이 응답한 물품임.

2) (괄호)안의 수치는 시장 가격의 개수.

라.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산출 결과는 <표 V-3-6>과 같음

- 모형_B1에는 젓병(젓병과 세트인 젓꼭지 포함) 1개 품목이 해당되며, 15만 2,944원임
- 모형_B2에는 모형_B1 이외에 젓꼭지, 식기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산출액은 32만7,318원임
- 모형_B3은 모형_B2 이 외에 공갈젓꼭지 등 8개 품목으로 구성되며, 산출 결과는 51만7,005원임

<표 V-3-6>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B)

단위 : 개, 원

구분	필요량	기준 가격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_D		
			모형_B1	모형_B2	모형_B3
젓병 (젓병과 세트인 젓꼭지 포함)	8	19,118	152,944	152,944	152,944
(별도 구매한) 젓꼭지	10	6,725	-	67,250	67,250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	12	8,927	-	107,124	107,124
공갈젓꼭지	4	8,873	-	-	35,492
젓병건조대 (소독 기능 없음)	1	21,047	-	-	21,047
수유패드	4	8,233	-	-	32,932
모유저장팩	4	6,461	-	-	25,844
역류방지쿠션 (문자)	1	74,372	-	-	74,372
합계	-	-	152,944	327,318	517,005

주: 모형1에 포함된 육아용품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90%인 물품이며, 모형2는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85%이상인 물품임. 모형3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50%이상이거나 기타 필수육아용품 조사에서 30가구 이상이 응답한 물품임.

4. 분류 및 식품류

가. 필수 육아용품 품목 선정 : 분류 및 식품류

□ 분류 및 식품류는 영유아의 생존을 위한 필수재임. 본고에서는 출생 이후 12개월까지 영유아가 섭취해야 할 영양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류와 이유식으로 구분해 포함하였음

- 가구조사에서는 소비자의 인식을 고려하여 식품류를 분류, 이유식, 간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이유식과 간식의 구분이 모호하고 간식은 보충

식의 개념으로 이유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산출 모형은 분유와 이유식으로 구분함

○ 분유는 생후6개월 전후로 단계가 구분되어⁶⁰⁾ 시판되므로 이 연구에서도 구분하여 1단계 분유와 2단계 분유로 구분함

- 다른 비목의 물품들은 단계가 구분되는 경우 시장 가격을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으나, 분유의 경우에는 월령에 따른 필요량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해당 월령까지의 필요량과 가격을 단계별로 각각 산출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적정 양육비용이 산출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함

□ 분유의 경우 생애초기 1년 전(全) 기간 분유를 통해서 영양섭취를 하는 것으로 전제함

○ 이는 생애초기 영양 공급을 위한 주된 방법으로서 모유수유가 권장되고 있으나 현재 한국의 모유수유율이 낮고 조제분유를 통한 인공영양 방식이 주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산모 건강 상태 등(감염 질환 등)에 따라 모유수유가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는 규범성을 고려한 것임

-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의 기혼여성 완전 모유수유율을 보면 생후1개월까지는 40.8%의 비율을 보이나 이후부터는 급격히 낮아져 영유아 월령이 6개월이 된 때에는 4.8%로 나타남

- 이 연구의 가구조사 결과에서도 분유만 수유하는 경우가 67.9%로 높게 나타나고 모유만 수유하는 경우는 8.1%였음. 영유아 월령 6개월 이하의 경우에도 모유만 수유하는 비율이 10~11%였으며 7~9개월은 7.3%, 10~12개월은 3.2%로 낮았음

〈표 V-4-1〉 기혼여성(19~49세)의 출생아의 월령별 완전모유수유율(2021년)

단위 : %, 명

구분	생후1주	생후2주	생후3주	생후4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중	26.0	44.9	45.4	44.4	40.8	37.0	31.0	25.9	20.1	4.8
(수)	(810)	(805)	(803)	(800)	(794)	(777)	(755)	(734)	(706)	(67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출산조사」, 2021, 기혼여성(19~49세)의 출생아의 월령별 완전모유수유율(2019. 1. 1. 이후 출생아 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1BE010&conn_path=I3 (2024. 3. 11. 인출).

60)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 생후 6개월간 모유만으로 영양섭취가 충분하며(안효섭·신희영, 2020: 66), 생후 4~6개월이 되면서 수유량이 줄고 성장속도가 빨라지기에 이유식 섭취가 권장됨(안효섭·신희영, 2020: 72). 이와 연동하여 모유대용품인 조제분유도 6개월 전후로 다른 영양성분을 함유하여 판매됨

나. 필요량 산출 모형 : 분유 및 식품류

- 분유 및 식품류의 필요량은 생애초기 1년간 섭취해야 할 영양권장량을 충족시키는 분유와 이유식의 전체 양으로 적용함
- 분유와 이유식의 권장량은 자녀의 월령별로 <표 V-4-2>, <표 V-4-3>과 같음(안효섭·신희영, 2020: 68, 72)

<표 V-4-2> 월령별 분유 권장량

단위 : ml, 회

월령		1회량(ml)	하루 수유 횟수
1단계 (출생~6개월)	0-1/2개월	80	7~8
	1/2-1개월	120	6~7
	1-2개월	160	6
	2-3개월	160	6
	3-4개월	200	5
	4-5개월	200	5
	5-6개월	200-220	4~5
2단계 (6개월이후~첫돌)	6-9개월	200-220	3
	9-12개월	200-220	2

자료: 안효섭·신희영(2020). 홍창의 소아과학 제12판. p.68. p.72 표 조합하여 연구진 재구성

<표 V-4-3> 월령별 이유식 권장횟수

단위 : 회

구분	월령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횟수	1회	2회	3회
종류 (곡류, 채소류, 달걀, 생선고기류, 과일류)	미음, 채소류 거른 것, 완숙노른자1/3, 생선가루, 과즙	죽, 채소류 으갠 것, 계란완숙 2/3개, 생선고기류 으갠 것, 과일 끓은 것	죽밥, 채소류 잘게 자른 것, 계란 완숙 1개, 생선고기류 잘게 다진 것, 과일 잘게 다진 것

자료: 안효섭·신희영(2020). 홍창의 소아과학 제12판. p.72 표를 연구진 재구성

- 출생~6개월까지의 1단계 분유의 필요량은 22,387g이 필요하며, 6~12개월까지의 2단계 분유는 12,758g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산출과정을 제시하면 <표 V-4-5>와 같음.
- 분유의 경우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 등 규범성을 고려하여 생후 1년간 분유로만 영양보충을 하는 경우로 전제하였으며, 앞서 제시한 안효섭·신희영(2020)의 권장량을 참고해 월령별 하루의 수유 횟수(②)와 1회당 조

유된 수유량(①)를 ml 단위로 제시함

- 이상의 1회당 수유량(①), 일 수유 횟수(②), 그리고 범주로 제시된 월령별 일수(③)를 곱해 월령별 분유의 필요량을 ml단위로 산출(④)하였음
- 시판되는 분유는 g 단위로 판매되고 있으며 ml단위의 수유량에 따라 일정 스푼씩 넣어 조유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 브랜드별, 제품별 차이가 있으나 800g 상당의 대형 캔을 기준으로 할 때, 조유된 수유량 40ml에 1스푼을 넣으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연구에서도 이를 따라 스푼당 조유된 분유량(⑤)을 40ml로 제시하였음.
- 스푼의 용량(⑦)은 베스트 상품 스푼량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1, 2단계 분유 각각 5.4g, 5.7g로 제시함. 즉, 이하 ‘다.기준 가격 산출 모형’에서 서술한 2개 온라인 상거래 쇼핑몰에서 검색되는 5개 베스트 상품들의 40ml별 사용되는 스푼용량을 평균하였음. 2개 쇼핑몰에서 5개씩 검색하였으므로 1,2단계 각각 10개씩의 상품의 스푼용량을 평균함.

〈표 V-4-4〉 분유 제품별 조유 40ml당 스푼 용량(g)

1단계 분유		2단계 분유	
제품연번	조유40ml당 스푼용량(g)	제품연번	조유40ml당 스푼용량(g)
1	5.6	1	5.6
2	5.6	2	6.0
3	5.2	3	5.6
4	4.9	4	5.6
5	5.3	5	5.1
6	5.9	6	5.8
7	5.3	7	5.9
8	5.6	8	6.0
9	5.2	9	5.5
10	5.5	10	5.6
평균	5.4	평균	5.7

- 1스푼당 40ml로 조유된 분유량(⑤)을 제시함에 따라 월령별 분유 필요량(ml)(④)을 40ml(⑤)으로 나누어, 분유를 타기 위해 필요한 스푼수(⑥)를 산출함
- 이러한 필요 스푼수(⑥)에 스푼용량(⑦) 5.4g, 5.7g를 곱해 월령별 분유의 필요량(⑧)을 g단위로 산출함

- 이상과 같이 산출된 1, 2단계 분유의 필요량을 합해 월평균으로 제시하면 2,928g임
 - 가구조사 결과, 지난 한달 간 자녀가 먹은 분유량은 2,679g로, 영양섭취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분유의 필요량보다 약간 적음
 - 이는 가구조사 대상자의 경우 일부가 모유수유를 하기 때문으로, 적정 양육비용 산출 시에는 자녀가 분유를 통해서만 영양섭취를 한 경우로 전제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V-4-5〉 물품별 필요량 : 분유 및 식품류(C)-분유

단위 : 개, g, 스푼, ml, 회,

단계별 구분	아동월령	월령별 필요량 (800g기준) (⑧/800)	월령별 필요량(g) (⑧=⑥×⑦)	참고 수치 (분유스푼 관련)			월령별 필요량(ml) (④=①×②×③)	참고 수치 (권장량)		
				스푼 용량(g) (⑦)	필요 스푼수 (⑥=④/⑤) (⑥=④/⑤)	스푼당 조유된 분유량(ml) (⑤)		1회량(ml) (①)	하루 수유 횟수 (②)	월령별 일수 (③)
1단계 분유 (출생~6개월)	0-1/2	1.4	1,136	5.4	210	40	8,400	80	7	15
	1/2-1	1.8	1,461	5.4	270	40	10,800	120	6	15
	1~2개월	5.0	4,025	5.4	744	40	29,760	160	6	31
	2~3개월	5.0	4,025	5.4	744	40	29,760	160	6	31
	3~4개월	5.2	4,193	5.4	775	40	31,000	200	5	31
	4~5개월	5.2	4,193	5.4	775	40	31,000	200	5	31
	5~6개월	4.2	3,354	5.4	620	40	24,800	200	4	31
	전체 필요량	28.0	22,387	-	-	-	165,520	-	-	-
	월평균	4.7	3,731	-	-	-	27,587	-	-	-
2단계 분유 (6개월이후~ 돌전)	6~9개월	9.6	7,655	5.7	1,350	40	54,000	200	3	90
	9~12개월	6.4	5,103	5.7	900	40	36,000	200	2	90
	전체 필요량	15.9	12,758	-	-	-	90,000	-	-	-
	월평균	2.7	2,126	-	-	-	15,000	-	-	-
전체 필요량(1단계+2단계) 월평균	전체 필요량(1단계+2단계)	43.9	35,144	-	-	-	255,520	-	-	-
	월평균(1단계+2단계)	3.7	2,928	-	-	-	21,293	-	-	-

단위 : 개, g, 스푼, ml, 회, 일

□ 이유식은 생후 12개월까지의 필요량을 횡수로 제시하면 총 480회(끼니)임. 이는 이유식 초기 80회, 중기 160회, 후기 240회를 합산한 값임

○ 구체적으로 산출과정을 제시하면 <표 V-4-6>와 같음

- 이유식은 생후 4개월경부터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며 월령에 따라 권장 횡수가 증가함.
- 안효섭·신희영(2016)이 제시한 권장량에 따라 하루 섭취 횡수(㉠), 이유식 초기, 중기, 후기로 범주화된 월령별 일 수(㉡)를 기재하였으며, 이 둘을 곱하여 월령별 전체 필요량(㉢)의 횡수를 산출함

<표 V-4-6> 물품별 필요량 : 분유 및 식품류(C)-이유식

단위 : 회, 일

아동월령	월령별 필요량(회) (㉢=㉠×㉡)	참고 수치 (권장량)	
		하루 섭취 횡수 (㉠)	월령별 일 수 (㉡)
초기: 생후 4개월~6개월	80	1	80
중기: 생후 7~9개월	160	2	80
후기: 생후 10~12개월	240	3	80
전체 필요량	480	-	-

다. 기준 가격 산출 모형 : 분유 및 식품류

□ 분유 및 식품류 중 분유의 기준 가격은 시장 가격을 적용하며, 시장 가격 산출 단위는 g당 가격임

- 분유의 시장 가격은 2개 온라인 상거래 쇼핑몰에서 검색되는 베스트 상품 5순위까지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함
- 6개월까지의 1단계 분유와 6~12개월까지의 2단계 분유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기에 총 20개 분유의 시장 가격을 조사함
 - 분유는 다른 비목의 물품들과 달리 총 20개의 시장 가격을 평균하여 사용하지 않고, 각 단계별 기준 가격을 산출함. 즉, 각 단계별로 10개의 시장 가격의 평균값을 활용함. 이는 분유의 필요량(영양섭취량)이 단계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그 결과 1단계 분유의 g당 평균값은 47.2원, 2단계 분유의 g당 평균값은

43.2원으로 산출되었음.

- 시판되는 분유 대형 한통이 일반적으로 800g인 것을 고려했을 때 본 산출량을 적용한 분유 한통의 가격이 1,2단계 각각 3만7,760원($47.2\text{원} \times 800\text{g}$), 3만4,560원($43.2\text{원} \times 800\text{g}$)으로 계산되어, 이 연구의 가구조사에서 제시된 개당 구매금액 3만1,771원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남

○ 1단계와 2단계 분유의 2개 업체의 5순위까지 베스트 상품의 g당 시장 가격은 <표 V-4-7>과 <표 V-4-8>에 제시함

<표 V-4-7> 물품별 시장 가격(C사 베스트5) : 분유 및 식품류(C)

단위 : 원

물품 및 단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 1단계 분유(출생~6개월)	33.1	27.5	50.3	53.5	41.1
2) 2단계 분유(6~12개월)	23.5	41.6	28.9	40.2	36.1

주: 1) 2023년 12월 기준 가격임.
2) g당 가격임

<표 V-4-8> 물품별 시장 가격(E사 베스트5) : 분유 및 식품류(C)

단위 : 원

물품 및 단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 1단계 분유(출생~6개월)	75.4	53.6	27.8	56.0	53.9
2) 2단계 분유(6~12개월)	53.5	75.4	53.6	53.9	24.9

주: 1) 2023년 12월 기준 가격임
2) g당 가격임

□ 한편, 분유 및 식품류 중 이유식의 기준 가격은 가구조사의 조사값을 적용함.
단위는 횃수(끼니)당 이유식 비용임

- 가구조사에서는 일주일 간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유식을 구매해서 먹인 비용과 만들어서 먹인 비용, 그리고 일주일 간의 이유식을 먹인 횃수(끼니)를 조사함
- 가구별로 구매해서 먹인 이유식 비용과 만들어서 먹인 이유식 비용을 합한 값을 일주일 간의 이유식을 먹인 횃수(끼니)로 나누어 횃수(끼니)당 이유식 비용을 산출한 결과가 끼니당 이유식 비용이며, 가구별 끼니당 이유식 비용을 평균하면 4,055원임

〈표 V-4-9〉 가구 조사 결과의 끼니당 이유식 비용

단위 : 원, (명)

구분	비용	내용
끼니당 이유식 비용	4,055 (420)	{ 지난 1주일간 구매해서 먹인 이유식 비용 + 지난 1주일간 만들어서 먹인 이유식 비용 } / 지난 1주일간 이유식 먹은 끼니수

주: (괄호)안의 수치는 조사 명수임.

□ 분유 및 식품류의 기준 가격은 〈표 V-4-10〉과 같음

- 분유의 기준 가격은 시장 가격의 평균값에 근거하여 1단계 분유 g당 47.2 원, 2단계 분유는 g당 43.2원으로 산정함
- 이유식의 기준 가격은 조사 가격에 근거하여 회당 4,055원임

〈표 V-4-10〉 물품별 기준 가격 : 분유 및 식품류(C)

단위 : 원, (개)

물품 및 단계	기준 가격	산출 단위	기준 가격 산출 근거
1) 1단계 분유(출생~6개월)	47.2	g당	시장 가격 (10)
2) 2단계 분유(6~12개월)	43.2	g당	시장 가격 (10)
3) 이유식	4,055	끼니(회수)당	조사 가격

주: (괄호)안의 수치는 시장 가격의 개수.

라.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 분유 및 식품류

□ 분유 및 식품류의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는 〈표 V-4-11〉과 같음

- 1단계 분유는 출생~6개월간 섭취 기준 2만2,387g이 필요하며, 기준 가격 47.2원 적용 결과, 105만6,666원의 비용이 산출됨
- 2단계 분유는 6~12개월 동안 섭취 기준 1만2,758g이 필요하며, 기준 가격 43.2원 적용 결과, 55만1,146원의 비용이 산출됨
- 이유식은 12개월 간⁶¹⁾ 480회 섭취가 필요하며, 기준 가격 4,055원 적용 결과, 194만6,400원의 비용이 산출됨
- 분유와 이유식을 합한 분유 및 식품류 전체의 적정 양육비용은 355만4,212 원임

61) 실질적으로는 월령 기준 4개월 이후부터 시작하여 총 9개월간 섭취량.

〈표 V-4-11〉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 분유 및 식품류(C)

단위 : 개, 회, 원

물품 및 단계	12개월 동안 필요량	기준 가격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_C
1) 1단계 분유(출생~6개월)	22,387 g	47.2	1,056,666
2) 2단계 분유(6~12개월)	12,758 g	43.2	551,146
3) 이유식	480 회(끼니)	4,055	1,946,400
합계	- -	-	3,554,212

5. 기기/집기류/장난감류

가. 필수 육아용품 품목 선정 : 기기/집기/장난감류

□ 기기/집기/장난감류는 필수 육아용품 품목 선정 시 필수율 뿐 아니라 보유율을 추가적으로 감안함

○ 각 모형에서 필수 육아용품으로 포함된 육아물품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 예: 모형_D2에 포함된 육아물품은 필수율도 85% 이상이며, 보유율도 85%이상인 물품을 의미함

□ 모형_D1에 포함된 필수 육아물품은 아기욕조, 유모차, 카시트, 체온계 4개 품목임

○ 모형_D2에 포함된 필수 육아물품은 모형_D1의 4개 품목 이 외에 아기의 자, 놀이매트, 치발기로, 총 7개 품목이 포함됨

○ 모형_D3에 포함된 필수 육아물품은 모형_D2의 7개 품목 이 외에 아기침대, 아기서랍장 및 옷장, 분유포트, 코흡입기, 모빌, 장난감이며, 총 13개 품목으로 구성됨

- 가구 조사 설문 문항에 제시되었으나 필수 육아용품 목록에 제외된 물품은 유축기로, 필수율은 54.2%였으나 보유율이 40.8%로 매우 낮아 모형_D3에도 포함되지 않음

- 가구 조사 설문에서 문자 변수로 응답하도록 한 기타 필수 육아용품 중 30가구 이상에서 응답된 물품인 모빌과 장난감이 모형_D3에 포함되어 있음

〈표 V-5-1〉 모형별 포함 필수 육아용품 목록 : 기기/집기/장난감류(D)

단위 : %, (개)

구분	필수율	보유율	필수 육아용품 포함 여부		
			모형_D1	모형_D2	모형_D3
1) 아기욕조	94.5	97.4	○	○	○
2) 아기침대	69.1	73.7	×	×	○
3) 아기서랍장 및 옷장	79.8	83.0	×	×	○
4) 아기의자	88.4	88.9	×	○	○
5) 놀이매트	89.1	89.4	×	○	○
6) 유모차	97.4	96.9	○	○	○
7) 카시트	99.0	96.7	○	○	○
8) 유축기	54.2	40.8	×	×	×
9) 분유포트	84.6	88.1	×	×	○
10) 체온계	98.8	98.2	○	○	○
11) 코흡입기	74.0	80.3	×	×	○
12) 치발기	85.8	91.7	×	○	○
13) 모빌 (문자)	(30)	-	×	×	○
14) 장난감 (문자)	(44)	-	×	×	○
필수육아용품 물품 수	-	-	4	7	13

주: 1) 모형1에 포함된 육아용품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90%인 물품이며, 모형2는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85% 이상인 물품임. 모형3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50%이상이거나 기타 필수육아용품 조사에서 30가구 이상이 응답한 물품임.

2) 기타 필수육아용품 중 필수 육아용품에 포함된 경우 필수율(괄호 안)의 수치는 응답 가구의 수를 의미함.

나. 필요량 산출 모형 : 기기/집기/장난감류

□ 기기/집기류의 필요량은 가구 조사 설문에서 해당 물품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의 중위수를 적용함

○ 보유 수량은 현재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중위수도 보유 수량을 응답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값임.

○ 기기/집기류의 보유 수량은 소요주기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서, 현재 보유 수량을 기준으로 필요량을 산정할 경우, 추후 보유 계획이 있으나 현재는 아직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인해 필요량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보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보유 계획 수량을 추가적으로 질문함. 단, 기기/집기류의 보유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아, 보유 계획 수량을 응답한 가구 수가 많지 않음

- 보유 수량과 보유 계획 수량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며, 보유 수량 중위수와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기/집기류의 필요량은 보유 수량의 중위수를 적용하여 산출함

○ 한편, 장난감류는 기타 필수 육아용품에서 응답된 물품으로 12개월 동안의 필요수량을 응답하였으며, 해당 물품을 필수 육아용품이라고 응답한 모든 가구는 물품의 필요 수량을 응답함. 모빌과 장난감도 필요 수량은 중위수를 적용

- 단, 장난감류는 문자 변수 응답으로 응답 가구 수가 많지 않으므로, 필요 수량 또한 소수 응답 가구의 값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기기/집기류의 대부분 물품의 필요량은 1개였으며, 아기욕조는 2개, 치발기 3개, 장난감 11개임

〈표 V-5-2〉 물품별 필요량 : 기기/집기/장난감류(D)

단위 : 개

구분	필요량 (중위수)	참고 수치 (평균)		필수 육아용품 포함 여부		
		보유수량	보유계획수량	모형_D1	모형_D2	모형_D3
1) 아기욕조	2	1.8	1.0	○	○	○
2) 아기침대	1	1.1	1.0	×	×	○
3) 아기서랍장 및 옷장	1	1.4	1.5	×	×	○
4) 아기의자	1	1.4	1.1	×	○	○
5) 놀이매트	1	1.9	2.3	×	○	○
6) 유모차	1	1.3	1.0	○	○	○
7) 카시트	1	1.2	1.2	○	○	○
8) 유축기	1	1.0	1.0	×	×	×
9) 분유포트	1	1.1	1.0	×	×	○
10) 체온계	1	1.1	1.3	○	○	○
11) 코흡입기	1	1.0	1.0	×	×	○
12) 치발기	3	3.0	2.5	×	○	○
13) 모빌 (문자)	1	-	-	×	×	○
14) 장난감 (문자)	11	-	-	×	×	○

주: 모형1에 포함된 육아용품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90%인 물품이며, 모형2는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85%이상인 물품임. 모형3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50%이상이거나 기타 필수육아용품 조사에서 30가구 이상이 응답한 물품임.

다. 기준 가격 산출 모형 : 기기/집기/장난감류

□ 기기/집기/장난감류의 기준 가격은 모든 물품을 시장 가격을 적용하며, 시장 가격 산출 단위는 전부 개당 가격임

- 기기/집기류 시장 가격은 2개의 온라인 상거래 쇼핑몰에서 물품명으로 검색되는 베스트 상품 5순위까지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 값임
- 단, 아기의자의 경우는 점보의자와 식탁의자를 구분하여 총 20개의 시장 가격을 조사하였으며, 유모차는 디럭스형, 절충형, 휴대용으로 물품 단계를 구분하여 총 30개의 시장 가격을 조사함. 카시트는 바구니형과 회전형으로 구분하여 총 20개의 시장 가격을 조사함
- 기타 필수육아용품에서 조사된 모빌과 장난감류의 경우에도 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함
 - 구매 평균 가격과 비교할 때, 모빌은 시장 가격 평균(5만2,608원)이 구매 평균 가격(3만8,300원)보다 높았고, 장난감류는 시장 가격 평균(1만5,069원)으로 구매 평균 구매 가격(2만8,673원)보다 낮음.
 - 모빌은 제품에 따라 시장 가격이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 물품이었음
 - 장난감류는 딸랑이, 흑백초점책, 형겅책, 형겅인형 4개의 물품의 시장 가격 총 40개를 조사하여 평균함
- 각 물품별 단계(혹은 종류)별로 2개 업체의 5순위까지 베스트 상품의 시장 가격은 <표 V-5-3>과 <표 V-5-4>에 제시함

<표 V-5-3> 물품별 시장 가격(C사 베스트5) : 기기/집기/장난감류(D)

단위 : 원

물품 및 단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 아기욕조		39,900	10,240	32,260	17,950	21,200
2) 아기침대		146,000	278,000	154,000	127,300	105,000
3) 아기서랍장 및 옷장		69,400	108,000	30,140	169,000	88,050
4) 아기의자	점보의자	78,660	25,900	21,900	94,000	99,000
	식탁의자	34,900	29,800	49,000	119,000	39,070
5) 놀이매트		26,900	64,500	79,900	73,990	34,900
6) 유모차	디럭스	265,000	590,000	759,000	1,280,000	759,000
	절충형	490,000	499,000	98,000	1,080,000	295,760
	휴대용	139,000	273,600	62,000	298,000	88,000
7) 카시트	바구니형	69,000	670,000	69,000	180,000	253,570
	회전형	320,000	228,000	590,000	320,000	700,000
8) 유축기		55,000	54,000	60,000	108,000	128,000
9) 분유포트		56,900	56,160	48,300	95,000	42,000
10) 체온계		64,890	80,880	34,000	3,250	77,160
11) 코흡입기		3,280	32,000	38,970	229,000	28,710
12) 치발기		11,620	8,040	14,620	5,410	11,900
13) 모빌		12,750	98,360	29,000	33,820	16,320

물품 및 단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4) 장난감류	말랑이	2,760	2,500	1,990	1,658	6,565
	흑백초점책	3,500	16,800	10,500	8,820	10,800
	형견책	25,650	10,630	4,840	5,400	19,600
	형견인형	25,150	23,850	12,880	25,680	12,800

주: 2023년 12월 기준 가격임.

〈표 V-5-4〉 물품별 시장 가격(E사 베스트5) : 기기/집기/장난감류(D)

단위 : 원

물품 및 단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 아기욕조		13,900	22,227	11,067	42,687	35,592
2) 아기침대		134,830	240,000	367,630	417,050	143,100
3) 아기서랍장 및 옷장		252,000	128,250	92,000	184,000	132,580
4) 아기의자	점보의자	99,000	56,905	25,947	529,000	48,900
	식탁의자	303,200	350,000	48,900	202,917	159,000
5) 놀이매트		3,325	2,500	2,500	2,580	49,377
6) 유모차	디럭스	1,090,000	797,000	711,000	850,000	265,050
	절충형	1,200,000	1,190,000	1,010,000	521,100	722,000
	휴대용	188,000	514,000	796,000	650,000	236,550
7) 카시트	바구니형	761,000	465,500	361,000	390,000	689,990
	회전형	388,550	698,000	1,076,160	328,000	892,500
8) 유축기		27,600	170,000	28,700	22,700	162,000
9) 분유포트		64,900	42,730	49,900	128,000	69,000
10) 체온계		70,070	88,780	79,948	66,960	38,500
11) 코흡입기		6,231	30,000	36,000	157,000	75,320
12) 치발기		22,950	8,480	20,500	11,440	10,900
13) 모빌		142,500	64,505	24,605	60,140	44,078
14) 장난감류	말랑이	8,324	3,116	4,619	5,658	12,125
	흑백초점책	10,800	7,425	4,500	5,400	8,820
	형견책	31,114	24,900	24,368	27,300	21,600
	형견인형	18,590	40,465	49,197	26,805	35,247

주: 2023년 12월 기준 가격임.

□ 기기/집기/장난감류의 각 물품별 기준 가격은 〈표 V-5-5〉와 같음

- 유모차가 평균 59만569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카시트 47만2,514원, 아기침대 21만1,291원 순임
- 기기/집기/장난감류는 고가의 물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비목임

〈표 V-5-5〉 물품별 기준 가격 : 기기/집기/장난감류(D)

단위 : 원, (개)

구분	기준 가격	산출 단위	기준 가격 산출 근거	필수 육아용품 포함 여부		
				모형_D1	모형_D2	모형_D3
1) 아기욕조	24,702	개당	시장 가격 (10)	○	○	○
2) 아기침대	211,291	개당	시장 가격 (10)	×	×	○
3) 아기서랍장 및 옷장	125,342	개당	시장 가격 (10)	×	×	○
4) 아기의자	120,750	개당	시장 가격 (20)	×	○	○
5) 놀이매트	34,047	개당	시장 가격 (10)	×	○	○
6) 유모차	590,569	개당	시장 가격 (30)	○	○	○
7) 카시트	472,514	개당	시장 가격 (20)	○	○	○
8) 유축기	81,600	개당	시장 가격 (10)	×	×	×
9) 분유포트	65,289	개당	시장 가격 (10)	×	×	○
10) 체온계	60,444	개당	시장 가격 (10)	○	○	○
11) 코흡입기	63,651	개당	시장 가격 (10)	×	×	○
12) 치발기	12,586	개당	시장 가격 (10)	×	○	○
13) 모빌 (문자)	52,608	개당	시장 가격 (10)	×	×	○
14) 장난감 (문자)	15,069	개당	시장 가격 (40)	×	×	○

주: 1) 모형1에 포함된 육아용품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90%인 물품이며, 모형2는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85% 이상인 물품임. 모형3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50%이상이거나 기타 필수육아용품 조사에서 30가구 이상이 응답한 물품임.

2) (괄호)안의 수치는 시장 가격의 개수.

라.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 기기/집기/장난감류

□ 기기/집기/장난감류의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는 〈표 V-5-6〉과 같음

- 기기/집기류는 개당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필요량은 대부분의 물품이 1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는 대체로 물건의 기준 가격 (개당 시장 가격)을 합산한 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모형_D1에는 아기욕조 등 4개 품목이 포함되며, 117만2,931원임
- 모형_D2에는 아기의자 등 7개 품목이 해당하며, 136만5,486원임
- 모형_D3에는 아기침대 등 13개 품목이 해당하며, 204만9,426원임

〈표 V-5-6〉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 기기/집기/장난감류(D)

단위 : 개, 원

구분	필요량	기준 가격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_D		
			모형_D1	모형_D2	모형_D3
아기욕조	2	24,702	49,404	49,404	49,404
유모차	1	590,569	590,569	590,569	590,569
카시트	1	472,514	472,514	472,514	472,514
체온계	1	60,444	60,444	60,444	60,444

구분	필요량	기준 가격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_D		
			모형_D1	모형_D2	모형_D3
아기의자	1	120,750	-	120,750	120,750
놀이매트	1	34,047	-	34,047	34,047
치발기	3	12,586	-	37,758	37,758
아기침대	1	211,291	-	-	211,291
아기서랍장 및 옷장	1	125,342	-	-	125,342
분유포트	1	65,289	-	-	65,289
코흡입기	1	63,651	-	-	63,651
모빌 (문자)	1	52,608	-	-	52,608
장난감 (문자)	11	15,069	-	-	165,759
합계	-	-	1,172,931	1,365,486	2,049,426

주: 모형1에 포함된 육아용품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90%인 물품이며, 모형2는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85%이상인 물품임. 모형3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50%이상이거나 기타 필수육아용품 조사에서 30가구 이상이 응답한 물품임.

6. 소모품류

가. 필수 육아용품 품목 선정 : 소모품류

□ 소모품류로 분류된 육아용품은 일회용 기저귀, 목욕용품(비누, 샴푸, 바디워시 등),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땀띠파우더, 크림, 로션, 오일 등), 유아 전용 세제(유아용 세탁세제, 유아용 주방세제 등) 4개 품목이었으며, 4개 품목 모두 90%이상의 높은 필수율을 보임

○ 기타 필수 육아용품 중 물티슈는 소모품류에 속하며, 모형_E3은 물티슈가 포함된 5개 품목으로 구성됨

〈표 V-6-1〉 모형별 포함 필수 육아용품 목록 : 소모품류(E)

단위 : %, (개)

구분	필수율	필수 육아용품 포함 여부		
		모형_E1	모형_E2	모형_E3
1) 일회용 기저귀	97.4	○	○	○
2) 목욕용품 (비누, 샴푸, 바디워시 등)	94.7	○	○	○
3)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땀띠파우더, 크림, 로션, 오일 등)	91.4	○	○	○
4) 유아 전용 세제 (유아용 세탁세제, 유아용 주방세제 등)	91.4	○	○	○
5) 물티슈 (문자)	(36)	×	×	○
필수육아용품 물품 수	-	4	4	5

주: 기타 필수육아용품 중 필수 육아용품에 포함된 경우 필수율(괄호 안)의 수치는 응답 가구의 수를 의미함.

나. 필요량 산출 모형 : 소모품류

□ 소모품류의 필요량은 일회용 기저귀와 물티슈는 중위수를 적용하고, 목욕용품,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유아 전용 세제는 평균을 적용함

○ 소모품류 중 목욕용품,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유아 전용 세제는 여러 개 물품이 하나의 범주로 묶여 있으며, 범주 내 육아물품들 사이에 대체성이 매우 큼.

- 그런데, 범주 내 육아물품들 사이에 기본적인 용량 차이가 큰 물품들이 섞여 있는 상황으로, 중위수가 오히려 필요량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평균을 기준 값으로 사용함

- 예: 목욕용품 중 비누와 바디워시는 둘 중 하나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데, 비누와 바디워시의 용량은 매우 큰 편차를 가지고 있음. 즉, 필요량의 분포가 산모양이 아닌 쌍봉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중위수를 선택할 경우 비누의 용량 혹은 반대로 바디워시의 용량이 선택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필요량이 실제보다 과소 혹은 과대 측정되는 문제가 발생

○ 일회용 기저귀는 다른 필수 육아용품과 마찬가지로 중위수를 적용하여 필요량을 산출

- 일회용 기저귀의 필요량 중위수는 1개월 기준 180장으로, 평균(203.9장)과는 약 24장의 차이를 보임. 이는 하루 기준 1장미만의 차이임

○ 기타 필수 육아용품 중에서는 물티슈가 소모품류에 추가되었으며, 물티슈도 단일 품목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중위수를 적용

- 물티슈 필요량의 중위수는 12개월동안 48개로, 평균(51개)과 큰 차이는 없음

- 단, 물티슈는 기타 필수 육아용품 중에서 문자로 응답된 품목으로, 기타 필수 육아용품은 필요량을 수량만 조사⁶²⁾하였기 때문에, 응답 가구마다 용량(매수)이 다른 물품을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음

62) 소모품류는 용량과 수량 둘 다를 조사함

〈표 V-6-2〉 물품별 필요량 : 소모품류(E)

단위 : %, 장, ml(g), 개

구분	필요량			필수 육아용품 포함 여부		
	소요 주기	필요량 (용량×수량)	12개월동안 필요량	모형_E1	모형_E2	모형_E3
1) 일회용 기저귀	1개월	180 장	2,160 장	○	○	○
2) 목욕용품	3개월	452.3 ml(g)	1,809 ml(g)	○	○	○
3)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3개월	360.3 ml(g)	1,441 ml(g)	○	○	○
4) 유아 전용 세제	6개월	2,578.1 ml(g)	5,156 ml(g)	○	○	○
5) 물티슈 (문자)	12개월	48 개	48 개	×	×	○

주: 1) 일회용 기저귀와 물티슈는 중위수를 적용, 목욕용품,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유아 전용 세제는 평균 적용.
2) 12개월 필요량은 정수 단위로 반올림을 적용.

다. 기준 가격 산출 모형 : 소모품류

□ 소모품류의 기준 가격은 모든 물품을 시장 가격을 적용하며, 시장 가격 산출 단위는 기저귀는 장(매), 목욕용품과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유아 전용 세제는 ml(혹은 g), 물티슈는 개임.

- 소모품류의 시장 가격도 다른 비목의 물품들과 마찬가지로 2개의 온라인 상거래 쇼핑몰에서 물품명으로 검색되는 베스트 상품 5순위까지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 값임
- 단, 일회용 기저귀는 생후 12개월 동안 총 5개 단계로 나뉘므로, 총 50개 물품의 시장 가격을 평균한 값임
 - 기저귀 단계는 아기의 몸무게를 기준으로 나뉘며, 1단계 3~4.5kg, 2단계 4~8kg, 3단계 7~10kg, 4단계 9~13kg, 5단계 11~16kg임
- 목욕용품은 비누, 샴푸, 바디워시 총 3개 품목별로 각 10개 제품의 시장 가격을 기준(30개)을 활용하여 산출함
-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는 엉덩이발진크림과 пампер 파우더 2개 품목의 시장 가격을 적용하여, 총 20개 시장 가격을 활용
- 유아 전용 세제는 세제로 검색되는 단일 품목의 총 10개 물품 가격을 활용
- 물티슈는 시장 가격은 용량×수량별 가격이 산출되기는 하나, 어차피 필요량이 개수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당 시장 가격을 적용
- 각 물품별 단계(혹은 종류)별로 2개 업체의 5순위까지 베스트 상품의 단위당 시장 가격은 〈표 V-6-3〉과 〈표 V-6-4〉에 제시함

〈표 V-6-3〉 물품별 시장 가격(C사 베스트5) : 소모품류(E)

단위 : 원

물품 및 단계		산출단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일회용 기저귀	1단계(3~4.5kg)	장당	250	251	189	269	217
	2단계(4~8kg)	장당	270	110	188	454	380
	3단계(7~10kg)	장당	248	228	168	376	375
	4단계(9~13kg)	장당	164	275	333	298	331
	5단계(11~16kg)	장당	448	402	134	285	287
목욕용품	비누	ml(g)당	23	24	48	23	18
	샴푸	ml(g)당	37	21	26	24	19
	바디워시	ml(g)당	37	26	21	24	36
영덩이발진 크림/보습제	영덩이발진크림	ml(g)당	119	90	93	175	471
	땀띠파우더	ml(g)당	505	48	63	39	612
유아 전용 세제		ml(g)당	7	3	14	13	9
물티슈		개당	1,442	1,288	1,290	1,289	1,279

주: 2023년 12월 기준 가격임.

〈표 V-6-4〉 물품별 시장 가격(E사 베스트5) : 소모품류(E)

단위 : 원

물품 및 단계		산출단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일회용 기저귀	1단계(3~4.5kg)	장당	250	389	344	625	378
	2단계(4~8kg)	장당	471	250	475	460	394
	3단계(7~10kg)	장당	533	391	309	342	440
	4단계(9~13kg)	장당	423	581	389	352	474
	5단계(11~16kg)	장당	433	462	297	428	421
목욕용품	비누	ml(g)당	18	57	23	46	63
	샴푸	ml(g)당	24	21	19	33	62
	바디워시	ml(g)당	8	26	28	60	42
영덩이발진 크림/보습제	영덩이발진크림	ml(g)당	199	185	91	111	179
	땀띠파우더	ml(g)당	118	576	68	792	1,647
유아 전용 세제		ml(g)당	3	10	5	5	16
물티슈		개당	1,130	1,983	1,800	1,609	903

주: 2023년 12월 기준 가격임.

□ 소모품류의 각 물품별 기준 가격은 〈표 V-6-5〉와 같음

- 일회용 기저귀는 장당 345원, 목욕용품 ml(g)당 31원, 영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는 ml(g)당 309원, 유아 전용 세제는 ml(g)당 8원, 물티슈는 개당 1,401원임

〈표 V-6-5〉 물품별 기준 가격 : 소모품류(E)

단위 : 원, (개)

구분	기준 가격	산출 단위	기준 가격 산출 근거	필수 육아용품 포함 여부		
				모형_E1	모형_E2	모형_E3
1) 일회용 기저귀	345	장당	시장 가격 (50)	○	○	○
2) 목욕용품	31	ml(g)당	시장 가격 (30)	×	×	○
3) 엉덩이발진크림/보습제	309	ml(g)당	시장 가격 (20)	×	×	○
4) 유아 전용 세제	8	ml(g)당	시장 가격 (10)	×	○	○
5) 물티슈	1,401	개당	시장 가격 (10)	×	○	○

주: 1) 모형1에 포함된 육아용품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90%인 물품이며, 모형2는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85% 이상인 물품임. 모형3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50%이상이거나 기타 필수육아용품 조사에서 30가구 이상이 응답한 물품임.

2) (괄호)안의 수치는 시장 가격의 개수.

라.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 소모품류

□ 소모품류의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는 〈표 V-6-6〉과 같음

- 소모품류는 단위당 가격은 높지 않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필요량이 많은 물품들임
- 모형_E1에는 일회용 기저귀 등 4개 품목이 포함되며, 128만7,796원임
- 모형_E2에 포함되는 필수 육아용품은 모형_E1과 동일하기 때문에 산출 비용 또한 128만7,796원으로 동일함
- 모형_E3에는 물티슈가 추가적으로 포함되며, 12개월 동안 물티슈 비용 6만 7,248원이 더해져, 모형_E3의 적정 양육비용은 135만5,044원임

〈표 V-6-6〉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 소모품류(E)

단위 : 개, 원

구분	12개월 동안 필요량	기준 가격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_E		
			모형_E1	모형_E2	모형_E3
1) 일회용 기저귀	2,160 장	345	745,200	745,200	745,200
2) 목욕용품	1,809 ml(g)	31	56,079	56,079	56,079
3) 엉덩이발진크림/보습제	1,441 ml(g)	309	445,269	445,269	445,269
4) 유아 전용 세제	5,156 ml(g)	8	41,248	41,248	41,248
5) 물티슈	48 개	1,401	-	-	67,248
합계	- -	-	1,287,796	1,287,796	1,355,044

주: 모형1에 포함된 육아용품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90%인 물품이며, 모형2는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85%이상인 물품임. 모형3은 필수율과 보유율이 모두 50%이상이거나 기타 필수육아용품 조사에서 30가구 이상이 응답한 물품임.

7. 보건/의료서비스 등

- 보건/의료서비스 등은 생후 12개월 간의 자녀의 병원 이용과 산후조리 이용비용으로 구성됨
- 자녀의 병원 이용비용은 이 연구 가구조사의 입원과 외래의 병원이용 비용 산출 결과를 적용함. 단, 병원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여 비용이 산출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함.
 - 가구조사 결과 최근 3개월 동안 병원이용의 지출 비용은 15만9,042원임.
 - 이를 4배 적용하여 12개월의 병원 이용비용을 산출하면 63만6,168원임

〈표 V-7-1〉 보건/의료서비스 등 이용 실태 : 병원 이용

단위 : 회, 원

구분	(수)	3개월간 병원 이용		12개월간 병원 이용 비용
		방문횟수	지출비용	
병원 이용	(605)	6.1	159,042	636,168

주: (괄호)안의 수치는 조사 명수임

- 산후조리 비용은 ‘산후조리실태조사’의 이용 현황을 고려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정보현황 자료의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이용비용(2023. 6. 30. 기준⁶³⁾)을 적용함
 -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산후 6주간 산후조리 장소별 이용률에서 산후조리원의 경우 81.2%의 응답률을 보임.
 -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는 산후조리원이 78.1%로, 본인 집 16.9%, 친정 4.6% 등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이는 산후조리원을 통해 산후조리를 하는 것이 주된 방식이며 동시에 선호되는 방식임을 시사함
 - 2023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의 이용비용(기본 2주, 일반실)은 평균 319만 9,397원임

6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현황,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2023. 6. 기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 (2024. 3. 12. 인출).

〈표 V-7-2〉 보건/의료서비스 등 이용 실태 : 산후조리 이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수)	산후조리원 이용율	선호 산후조리 장소			
			산후조리원	본인집	친정	기타
산후조리 이용	3,127	81.2	78.1	16.9	4.6	0.3

주: 1) (괄호)안의 수치는 조사 완료 가구명수임

2) 조사관리국·통계대행과(2021. 11). 「2021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 보고. 1~4p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표 V-7-3〉 보건/의료서비스 등 이용 실태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단위 : 개소, 원

구분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기본 2주, 일반실 기준					
	(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간값
산후조리 이용	464	3,199,397	1,429,889	1,300,000	17,000,000	2,900,000

주: 1) (괄호)안의 수치는 일반실 이용비를 제시한 산후조리원 수임. 23년 .6월 기준 전체 산후조리원 수는 469개소임 (일반실 이용비를 제시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은 5개소임)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현황,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2023.6. 기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 (2024. 3. 12. 인출).

□ 이상의 보건/의료서비스 등 이용 실태를 토대로 자녀의 병원이용 비용과 산후조리 비용을 제시하면 〈표 V-7-4〉와 같음

- 자녀의 병원 이용은 외래 및 입원의 비용을 산출하여 12개월 간 63만6,168원의 비용이 제시됨
- 산후조리 서비스의 이용은 산후조리원에서 기본 2주간 일반실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319만9,397원이 제시됨
- 자녀의 병원 이용과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을 합한 생애 초기 보건/의료서비스 등 적정 양육비용은 383만5,565원임

〈표 V-7-4〉 보건/의료서비스 등 이용 실태 : 병원 및 산후조리 이용 비용

단위 : 원

구분	기준 가격	12개월 간 이용 비용
1) 병원 이용	외래 및 입원이용	636,168
2) 산후조리 이용	산후조리원 기본 2주, 일반실 기준	3,199,397
합계	-	3,835,565

8.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종합

□ 이상에서 비목별로 산출된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필수율 90%이상의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형 1의 산출 결과는 <표 V-8-1>과 같음

○ 총 19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침구 및 피복류 7개,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 중에서는 젖병이 유일하게 포함되었고, 기기/집기류가 4개, 소모품류 4개, 분유(2단계) 및 이유식 3개로 구성됨

○ 모형 1의 적정 양육비용은 710만6,688원임.

<표 V-8-1>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종합 : 모형 1

단위 : 필요량 단위, 원

구분	필수 용품 목록	필요량		기준 가격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_모형 1
		수량	단위		
침구 및 피복류(A)	속싸개	3	개	28,016	84,048
	손발싸개	3	개	9,368	28,104
	턱받이	5	개	11,046	55,230
	가제 수건	30	개	1,092	32,760
	아기띠·힙시트·포대기	1	개	78,055	78,055
	내복	20	개	13,292	265,840
	외출복	16	개	24,673	394,768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B)	젖병 (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	8	개	19,118	152,944
분유 및 식품류(C)	1단계 분유(출생~6개월)	22,387	g	47.2	1,056,666
	2단계 분유(6~12개월)	12,758	g	43.2	551,146
	이유식	480	회(끼니)	4,055	1,946,400
기기/집기류(D)	아기욕조	2	개	24,702	49,404
	유모차	1	개	590,569	590,569
	카시트	1	개	472,514	472,514
	체온계	1	개	60,444	60,444
소모품류(E)	일회용 기저귀	2,160	장	345	745,200
	목욕용품	1,809	ml(g)	31	56,079
	영당이발진크림/보습제	1,441	ml(g)	309	445,269
	유아 전용 세제	5,156	ml(g)	8	41,248
합계		-		-	7,106,688

□ 모형 2는 필수율 85%이상의 물품들로 구성된 경우로, 산출 결과는 <표 V-8-2>와 같음

- 모형 2에 포함된 물품은 총 27개로, 모형 1(총 19개)에 배냇저고리, 아기목욕수건, 신생아모자, 별도 구매한 젓꼭지, 식기, 아기의자, 놀이매트, 치발기가 추가된 모형임
- 모형 2의 적정 양육비용은 763만1,286원으로, 모형 1에 비해 52만4,598원이 많음

〈표 V-8-2〉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종합 : 모형 2

단위 : 필요량 단위, 원

구분	필수 용품 목록	필요량		기준 가격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_모형 2
		수량	단위		
침구 및 피복류(A)	속싸개	3	개	28,016	84,048
	손발싸개	3	개	9,368	28,104
	턱받이	5	개	11,046	55,230
	가제 수건	30	개	1,092	32,760
	아기띠·힙시트·포대기	1	개	78,055	78,055
	내복	20	개	13,292	265,840
	외출복	16	개	24,673	394,768
	배냇저고리	3	개	12,464	37,392
	아기목욕수건	5	개	19,879	99,395
	신생아모자	2	개	10,441	20,882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B)	젓병 (젓병과 세트인 젓꼭지 포함)	8	개	19,118	152,944
	(별도 구매한) 젓꼭지	10	개	6,725	67,250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	12	개	8,927	107,124
분유 및 식품류(C)	1단계 분유(출생~6개월)	22,387	g	47.2	1,056,666
	2단계 분유(6~12개월)	12,758	g	43.2	551,146
	이유식	480	회(끼니)	4,055	1,946,400
기기/집기류(D)	아기욕조	2	개	24,702	49,404
	유모차	1	개	590,569	590,569
	카시트	1	개	472,514	472,514
	체온계	1	개	60,444	60,444
	아기의자	1	개	120,750	120,750
	놀이매트	1	개	34,047	34,047
	치발기	3	개	12,586	37,758
소모품류(E)	일회용 기저귀	2,160	장	345	745,200
	목욕용품	1,809	ml(g)	31	56,079
	영양이발진크림/보습제	1,441	ml(g)	309	445,269
	유아 전용 세제	5,156	ml(g)	8	41,248
합계		-		-	7,631,286

□ 모형 3은 필수율 50% 이상의 물품과 기타 필수 육아용품에서 문자로 30가구 이상에서 응답되어 필수 육아용품으로 포함하기로 결정된 6개 물품으로 구성된 모형임. 모형 3의 포함 물품 목록과 산출 결과는 <표 V-8-3>와 같음

○ 모형 3에 포함된 물품은 총 44개로, 가구조사 설문에서 필수 여부를 질문한 물품(총 39개) 중 유축기를 제외한 모든 물품이 포함되었으며, 기타 필수육아용품에서 조사된 6개 품목이 추가되었음

○ 모형 3의 적정 양육비용은 885만8,561원으로, 모형 2에 비해 122만7,275원이 많음

<표 V-8-3>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종합 : 모형 3

단위 : 필요량 단위, 원

구분	필수 용품 목록	필요량		기준 가격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_모형 3
		수량	단위		
침구 및 피복류(A)	속싸개	3	개	28,016	84,048
	손발싸개	3	개	9,368	28,104
	턱받이	5	개	11,046	55,230
	가제 수건	30	개	1,092	32,760
	아기띠·힙시트·포대기	1	개	78,055	78,055
	내복	20	개	13,292	265,840
	외출복	16	개	24,673	394,768
	배냇저고리	3	개	12,464	37,392
	아기목욕수건	5	개	19,879	99,395
	신생아모자	2	개	10,441	20,882
	겉싸개	1	개	51,295	51,295
	아기이불	2	개	37,215	74,430
	수면조끼	2	개	16,983	33,966
	기저귀갈이대 (문자)	1	개	89,553	89,553
수유 관련 용품 및 식기류(B)	방수요 (문자)	2	개	18,578	37,156
	젓병 (젓병과 세트인 젓꼭지 포함)	8	개	19,118	152,944
	(별도 구매한) 젓꼭지	10	개	6,725	67,250
	식기(그릇, 식판, 컵, 수저 등)	12	개	8,927	107,124
	공갈젓꼭지	4	개	8,873	35,492
	젓병건조대 (소독 기능 없음)	1	개	21,047	21,047
	수유패드	4	개(60매당)	8,233	32,932
	모유저장팩	4	개(30매당)	6,461	25,844
	역류방지쿠션 (문자)	1	개	74,372	74,372
분유 및 식품류(C)	1단계 분유(출생~6개월)	22,387	g	47.2	1,056,666
	2단계 분유(6~12개월)	12,758	g	43.2	551,146
	이유식	480	회(끼니)	4,055	1,946,400

구분	필수 용품 목록	필요량		기준 가격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_모형 3
		수량	단위		
기기/집기류(D)	아기욕조	2	개	24,702	49,404
	유모차	1	개	590,569	590,569
	카시트	1	개	472,514	472,514
	체온계	1	개	60,444	60,444
	아기의자	1	개	120,750	120,750
	놀이매트	1	개	34,047	34,047
	차발기	3	개	12,586	37,758
	아기침대	1	개	211,291	211,291
	아기서랍장 및 옷장	1	개	125,342	125,342
	분유포트	1	개	65,289	65,289
	코흡입기	1	개	63,651	63,651
	모빌 (문자)	1	개	52,608	52,608
소모품류(E)	장난감 (문자)	11	개	15,069	165,759
	일회용 기저귀	2,160	장	345	745,200
	목욕용품	1,809	ml(g)	31	56,079
	영당이발진크림/보습제	1,441	ml(g)	309	445,269
	유아 전용 세제	5,156	ml(g)	8	41,248
	물티슈	48	개	1,401	67,248
합계		-		-	8,858,561

□ 모형별로 비목별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는 <표 V-8-1>에 제시함

○ 피복 및 침구류의 산출 결과, 모형_A1은 93만8,805원, 모형_A2는 109만 6,474원, 모형_A3은 138만2,874원임

- 필수 육아용품 합계액 대비 피복 및 침구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형 1이 13.2%, 모형2는 14.4%, 모형3은 15.6%로, 필수 육아용품 기준을 완화할수록 피복 및 침구류가 보다 많이 포함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수유 관련 용품의 산출 결과, 모형_B1은 15만2,944, 모형_B2가 32만 7,318원, 모형_B3은 51만7,005원임

- 수유 관련 용품의 적정 양육비용이 다른 비목에 비해 적은 이유는 품목의 수가 다른 비목에 비해 적기 때문으로, 특히 모형_B1은 젖병 하나의 품목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필수 육아용품 합계액 대비 수유 관련 용품 비용의 비중은 모형1은 2.2%, 모형2는 4.3%, 모형3이 5.8%임

○ 분유 및 식품류는 모든 모형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며, 산출 값은 355만

4,212원임

- 다른 비목에 비해 적정 양육비용 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으로 일상적인 소비 품목이면서,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품이기 때문
- 필수 육아용품 합계액 대비 분유 및 식품류 비용의 비중은 다른 비목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중을 보여, 모형1은 50%가 식비였으며, 모형2는 46.6%, 모형3 40.1%임.

○ 기기/집기류의 산출 결과, 모형_D1은 117만2,931원, 모형_D2는 136만5,486원, 모형_D3은 204만9,426원임

- 기기/집기류는 모형에 따라 적정 양육비용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비목으로, 기기/집기류에 속한 물품이 내구재로 고가의 물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필수 육아용품 합계액 대비 기기/집기류 비용의 비중은 모형1은 16.5%, 모형2는 17.9%, 모형3 23.1%로, 피복 및 침구류와 유사하게 필수 육아용품 기준을 완화할수록 많은 물품이 포함되는 비목이었음

○ 소모품류의 산출 결과는 모형_E1과 모형_E2는 128만7,796원이며, 모형_E3은 135만5,044원임

- 모형_E1과 모형_E2는 구성 품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적정 양육비용도 동일 금액이 산출됨
- 필수 육아용품 합계액 대비 소모품류 비용의 비중은 모형1은 18.1%, 모형2는 16.9%, 모형3 15.3%로, 소모품류에 속한 대부분의 물품이 높은 필수율을 보이는 필수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V-8-4〉 비목별 필수 육아용품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종합

단위 : 원, %

구분	모형 1	모형2	모형 3
피복 및 침구류 (A)	938,805 (13.2)	1,096,474 (14.4)	1,382,874 (15.6)
수유 관련 용품 (B)	152,944 (2.2)	327,318 (4.3)	517,005 (5.8)
분유 및 식품류 (C)	3,554,212 (50.0)	3,554,212 (46.6)	3,554,212 (40.1)
기기/집기류 (D)	1,172,931 (16.5)	1,365,486 (17.9)	2,049,426 (23.1)
소모품류 (E)	1,287,796 (18.1)	1,287,796 (16.9)	1,355,044 (15.3)
합계	7,106,688 (100.0)	7,631,286 (100.0)	8,858,561 (100.0)

□ 한편 보건의료서비스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는 <표 V-8-5>와 같음

- 병원 이용비용은 63만6,168원이며, 산후조리 비용은 319만9,397원으로, 총 비용은 383만5,565원임

<표 V-8-5> 생애 초기 보건의료서비스 및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산출 결과

단위 : 원

구분	기준 가격	12개월 간 이용 비용
병원 이용	외래 및 입원이용	636,168
산후조리 이용	산후조리원 기본 2주, 일반실 기준	3,199,397
합계	-	3,835,565

□ 한편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생후 12개월까지의 적정 양육비용은 <표 V-8-6>에 제시함

- 모형 1-1의 산출 결과는 1,094만2,253원이며, 모형 2-1은 1,146만6,851원이고, 모형 3-1은 1,269만4,126원임
 - 모형 1-1과 모형 3-1 사이의 차이는 175만1,873원에 불과함
 - 월평균 금액은 모형 1-1은 91만2,224원, 모형 2-1은 95만5,571원, 모형 3-1은 105만7,844원임
- 보건의료서비스 비용 중에서 자녀의 병원 이용비용만 포함한 경우(산후조리원 비용을 제외)는 모형 1-1㉔이 774만2,856원, 모형 1-2㉔가 826만7,454원, 모형 1-3㉔이 949만4,729원임.
 - 이를 월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모형 1-1㉔가 64만5,238원, 모형 2-1㉔는 68만8,955원, 모형 3-1㉔가 79만1,227원임
 -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의 결과 0세의 월평균 양육비용(명목비용 기준)⁶⁴⁾이 63만8천원으로, 모형 1-1㉔에 비해 서도 낮은 수준이었음.
 - 물론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의 결과는 이 연구에 비해 1년 전에 조사된 결과로, 1년 사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양육비용의 증가분을 감안하면, 0세의 양육비용 지출 결과와 모형 1-1㉔의 산출 결과가 유사한

64)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에는 산후조리 비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제외하고 비교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사료됨

- 이 연구의 적정 양육비용은 일반적인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는 수치임을 유추해볼 수 있음

○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총액(㉔)에서 필수 육아용품(㉑)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형 1-1이 64.9%, 모형 2-1은 66.6%, 모형 3-1이 69.8%임

- 생애 초기 양육비용은 필수 육아물품 소비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 기는 하며, 산후조리 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임

〈표 V-8-6〉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종합 : 보건의료서비스 비용 포함

단위 : 원

구분	모형 1-1	모형 2-1	모형 3-1
필수 육아용품 산출 결과 (㉑)	7,106,688 (64.9)	7,631,286 (66.6)	8,858,561 (69.8)
보건의료서비스 비용 (㉒)	3,835,565 (35.1)	3,835,565 (33.4)	3,835,565 (30.2)
외래 및 입원비용 (㉓)	636,168 (5.8)	636,168 (5.5)	636,168 (5.0)
산후조리원 (㉔)	3,199,397 (29.2)	3,199,397 (27.9)	3,199,397 (25.2)
합계 (㉕ = ㉑+㉒)	10,942,253 (100.0)	11,466,851 (100.0)	12,694,126 (100.0)
합계 (㉖ = ㉑+㉓)	7,742,856 (70.8)	8,267,454 (72.1)	9,494,729 (74.8)

주: 비중은 ㉕ 대비 비중을 의미함.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01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와 정부 지원금의 커버율
- 02 영유아 전체 연령에 대한 적정 양육비용 산출 필요성
- 03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 투입 시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활용
- 04 합리적 소비 문화 조성 및 공유 경제 소비 활성화 지원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와 정부 지원금의 커버율

- 생애 초기(생후 12개월까지)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모형 1은 710만6,688원, 모형 2의 적정 양육비용은 763만1,286원, 모형 3의 적정 양육비용은 885만8,561원임.
 -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산출 비용은 모형 1-1이 1,094만2,253원이며, 모형 2-1은 1,146만6,851원이고, 모형 3-1은 1,269만4,126원임.
 - 보건의료서비스 중 자녀의 병원 이용비용만 포함한 경우(산후조리비용 제외)는 모형 1-1㉔가 774만2,856원, 모형 1-2㉔가 826만7,454원, 모형 1-3㉔가 949만4,729원임.
- 생애 초기(생후 12개월까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으로, 보편 지원의 형태를 가진 지원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3가지를 들 수 있음
 - 아동 수당의 지원 수준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2024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월 10만원임(보건복지부, 2024a)
 - 부모 급여는 2023년 생후 12개월까지 월 7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 2024. 1. 5.)
 - 첫만남이용권은 생후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지원금으로, 2023년 기준 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24년에는 둘째아 이상의 경우 월 300만원으로 상향됨(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 2024. 1. 5.)
 - 따라서, 생후 12개월까지의 중앙 정부 차원의 현금성 지원금(보편 지원)의 연간 수급액을 계산해보면, 2023년 기준 1,160만원이며, 2024년에는 1,520만원(둘째아 이상은 1,620만원)임
-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총액 대비 정부 지원금의 비중, 즉 정부 지원금의 양육비용 커버율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모형 1-1은 106.0%, 모형 2-1은

101.2%, 모형 3-1은 91.4%임

○ 2024년에는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증가하여, 커버율이 모형 1-1은 138.9%, 모형 2-1은 132.6%, 모형 3-1은 119.7%로 상승함

- 즉, 2024년 지원금 기준 물품 포괄 범위가 가장 넓은 모형 3-1의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이 적정 양육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음
-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기준 시점은 2023년으로, 이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적정 양육비용이 산출 결과가 소폭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2024년 기준 적정 양육비용 수준을 상회하는 충분한 수준의 현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표 VI-1-1〉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과 정부 지원금 비교

단위 : 원, %

구분		모형 1-1	모형 2-1	모형 3-1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총액		10,942,253	11,466,851	12,694,126
정부 지원금	2023년	11,600,000	11,600,000	11,600,000
	2024년	15,200,000	15,200,000	15,200,000
커버율	2023년	106.0	101.2	91.4
	2024년	138.9	132.6	119.7

주: 1) 정부 지원금은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이며,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기준은 첫째아 기준.
2) 커버율은 (정부 지원금/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총액)×100으로 산출.

□ 이 연구의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은 필수 육아용품 목록 선정 및 필요량, 시장 가격 등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위수 혹은 평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값으로, 최저의 개념을 훨씬 상회하는 평균적인 영아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를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임

○ 또, 분유의 경우에는 모든 영아가 분유를 먹는 것을 전제로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분유 소비량에 비해 높게 상정된 부분이 있음

- 즉,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 분유 섭취량이 현재 산출량에 비해서는 적을 것이기 때문에, 모유수유율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분유의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단, 연구진은 모유수유에 비해 분유 수유가 권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영아가 분유를 섭취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비용을 산출한 것은 아니며, 모유수유율이 너무 낮은 상황에서 모유수유율을 고려하여 적정 양육비용을

과소 추정해야 하는 필요성은 낮다는 판단 하에 모든 영아가 분유를 섭취하는 것을 가정한 상태로 비용을 산출한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소득 가구 등에서는 필수 육아용품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 소비액에 비해 적게 책정 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 가구 설문 조사가 물품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필수여부를 질문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설문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목록에서 제외된 일부 품목이 필수 육아용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예컨대, 젖병 소독기의 경우에는 기타 필수 육아용품에서 30가구 이상이 응답되었으나⁶⁵⁾,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 연구의 필수 육아용품 목록에서는 제외한 물품임. 이러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적정 양육비용 산출에 반영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영아 가구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모든 가구의 소비 행태를 반영하여 모든 물품을 적정 양육비용에 포함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 연구의 가구조사 결과에서 필수 여부에 대한 인지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물품 누락에 따른 비용의 과소추정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필수 육아용품 산출 과정에서 가구 설문에 목록이 제시되었음에도 제외된 유일한 물품은 유축기였음
 - 그런데, 모유저장팩의 경우에는 필수 육아용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둘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유축기의 경우 대여율이 높은 품목이며, 모유수유율이 매우 낮아 실제 보유율과 필수율이 매우 낮게 응답된 경우로, 필수 육아용품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참고로, 유축기의 시장 가격(10개 제품) 평균은 8만1,600원임⁶⁶⁾
- 이 연구는 생애 초기(생후 12개월까지) 영아의 적정 양육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 육아용품과 필수 육아서비스로 보건의료서비스(자녀 병원 이용비용과 산후조리 비용)만을 적용하였으며, 돌봄 비용 및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은 모형에서 제외함

65) 젖병소독기의 시장 가격(10개 제품) 평균은 21만1,229원임.

66) 유축기가 적정 양육비용 산출 모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적정 양육비용 산출 비용에 8만1,600원을 합산하면 됨.

- 이는 영아의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비중이 현저히 낮은 상황과 무상 보육 상황을 고려한 것임
- 하지만, 실제로 다수의 영아 가구들인 기관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거나 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및 조부모 돌봄 등의 개별돌봄)를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영아 돌봄 서비스 이용에 따른 양육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됨
- 또, 놀이와 접목된 형태의 여가문화생활비 혹은 교육서비스 이용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비용은 적정 양육비용 산출 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음
 - 이와 같은 서비스 이용비용이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모형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실제 영아 부모들이 느끼는 양육비용 부담에 비해 적정 양육비용이 과소 추정되었다고 생각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는 바임
- 한편, 정부 지원금 중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제외하고 현금이 지원되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가구들은 정부 지원금이 2024년 기준 1,520만원보다 적다고 생각할 수 있음
- 부모급여 중 0세반 보육료를 제외한 현금 지원금은 2023년 기준 월 18만6천원이며, 2024년 기준 46만원임⁶⁷⁾
 - 따라서, 부모급여 현금 지원금은 연간 기준 2023년 223만2천원이며, 2024년 552만원으로 낮아지게 되며,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합산한 지원금 총액은 2023년에 543만2천원, 2024년에는 872만원(둘째 이상은 972만원)임
-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대비 보육료 지원금을 제외한 정부 지원금의 커버율은 2023년 기준 모형 1-1은 49.6%, 모형 2-1은 47.4%, 모형 3-1은 42.8%임
 - 2024년 기준으로는 모형 1-1은 79.7%, 모형 2-1은 76.0%, 모형 3-1은 68.7%임
- 한편,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에서 보건의료서비스 등 이용비용을 제외하고, 필수 육아용품을 위해 소요된 비용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 지원금(보육

67) 0세반 보육료는 2023년 기준 51만4천원, 2024년 기준 54만원이며, 각 연도 부모급여 지원 총액 70만원과 100만원에서 보육료 지원금을 뺀 금액이 현금 지원금임.

료 제외)의 커버율을 산출해보면, 2024년 모형 3-1 기준 98.4%의 커버율을 보임

- 즉, 생애 초기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적정 양육비용을 100% 커버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음.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전체 영아로 확장해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 지원금 커버율을 과소 추정할 위험이 높음.

〈표 VI-1-2〉 부모급여 중 보육료 지원금을 뺀 정부 지원금의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커버율

단위 : 원, %

구분		모형 1-1	모형 2-1	모형 3-1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총액		10,942,253	11,466,851	12,694,126
필수 육아용품 산출 결과		7,106,688	7,631,286	8,858,561
정부 지원금 (보육료 제외)	2023년	5,432,000	5,432,000	5,432,000
	2024년	8,720,000	8,720,000	8,720,000
커버율	2023년	49.6 (76.4)	47.4 (71.2)	42.8 (61.3)
	2024년	79.7 (122.7)	76.0 (114.3)	68.7 (98.4)

주: 1) 정부 지원금(보육료 제외)은 아동수당 + 부모급여 중 현금 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이며,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기준은 첫째아 기준.

2) 커버율은 (보육료 제외 정부 지원금/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총액)×100으로 산출된 결과임.

3) 커버율 ()의 수치는 (보육료 제외 정부 지원금/필수 육아용품 산출 결과)×100으로 산출된 결과임.

2. 영유아 전체 연령에 대한 적정 양육비용 산출 필요성

- 이 연구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생애 초기 영아의 적정 양육비용을 산출하는 연구로, 생후 12개월을 초과하는 영유아의 양육비용은 산출 범위에서 제외됨
- 앞서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본 바와 같이 0세⁶⁸⁾의 양육비용 지출은 1세나 2세에 비해 약간 높지만, 3세 이후 양육비용 지출은 0세에 비해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 지출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비록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식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교육/보육비가 3세 이후 크게 증가함

68)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연령 기준은 생활연령으로, 기준연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만나이를 의미함. (출생연도가 같은 아동의 연령이 출생월과 무관하게 모두 동일 연령으로 간주됨).

- 0세 때는 다른 연령에 비해 기기/집기류, 피복류, 보건/의료비,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에 대한 지출이 많은 특징이 있음
- 즉, 생후 12개월 이내 양육비용 소비 지출 행태와 이후 연령에서의 양육비용 지출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임
- 현재 현금성 정부 지원금은 생애 초기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임
 -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 만0세(12개월이하)에게 월 70만원, 만1세(24개월이하) 월 35만원을 지원함(보건복지부, 2023a). 첫만남이용권의 지원도 생후 12개월 이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지원금임(보건복지부, 2023b: 5)
 -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후 12개월 이내 적정 양육비용은 중앙 정부의 보편적 현금 지원금만으로도 충분히 충당이 되는 상황임
 - 하지만, 만2세를 넘어가는 연령부터는 정부 지원금이 현저히 감소하는데 반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액은 증가하기 때문에, 부모급여 지원을 받았던 2022년생 이후 코호트의 부모들은 양육비용 부담에 대한 체감도가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질 위험이 있음
 - 물론 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2022년생 이후 출생아들은 2021년생 이전 출생아에 비해 정부 지원금 수급액이 많음
- 현금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지원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매우 분분함
 - 지원금 대상과 지원 수준 등 현금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부 예산) 상황이나 영유아 가구의 필요와 요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야겠지만,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원 대상인 아동의 필요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 아동 급여와 같은 현금성 지원의 일차적인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임
 - 이와 같은 정책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아동 급여 공통의 정책 목표일 뿐 아니라, 한국의 「아동수당법」⁶⁹⁾ 제1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준임
 - 즉,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69) 「아동수당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55호, 2023. 6. 13., 일부개정]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양육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이 중에서 정부가 부담할 부분과 아동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몫이 얼마인지를 구분하여 정부 지원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아동 연령별로 필요한 적정 수준의 양육비용이 얼마인지를 고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임

□ 한편, 가구 소비지출 조사를 통해 수집된 영유아의 양육비용 지출액은 영유아 가구의 실질적인 소비 행태를 잘 반영하는 자료이기는 하나, 이는 가구 및 부모 특성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다분히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소비 양태에 기반하여 산출된 수치임

○ 이 연구의 적정 양육비용은 해당 월령에 아동의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보다 객관적 기준(필요량 및 시장 가격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비용으로, 해당 연령(혹은 월령)의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기준 비용이라 볼 수 있음

- 즉,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액 > 적정 양육비용인 경우는 해당 가구가 적정 수준에 비해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자녀 양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추가적으로 구매한 경우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부모의 선호에 따른 소비 지출까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임.

□ 이 연구는 가구의 소비 지출에 기인하지 않고, 필수 육아용품의 목록 작성과 적정 필요량 산출, 시장 가격 등의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생애 초기 영아의 적정 양육비용을 산출한 국내 최초의 연구임

- 그러나, 산출 대상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로 매우 제한적임
- 저출생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한 지원과 노력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사안임
- 따라서, 정부의 아동 급여 지원 체계의 개선 또한 조급한 마음으로 일단 확대한 후 다음 상황을 지켜본다는 식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보다 면밀한 고찰과 신중한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특히 현금 지원의 경우 일단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이 확대된 이후에는 지원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하방경직성을 갖기 때문에, 보다 다각적 검토를 거친 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만1세(생후 12개월) 이상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적정 양육비용이 얼마 인지를 산출해 보고, 이에 근거하여 어느 연령에 어느 정도의 지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추후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임
- 저출생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자,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아동 급여와 같은 현금성 지원이 높은 호응을 얻음
- 이와 함께 2013년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지원으로 기관 이용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영아의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 들어 영아기 집중 투자 기조가 강화되었음
-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영아기 집중 투자 기조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아기에 과도한 현금 지원이 집중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다시금 유아기 혹은 학령기 자녀에 대한 현금 지원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요컨대, 현금 지원의 지원 대상이나 지원 수준을 확장은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출된 기준에 근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영유아기 전 연령에 대한 적정 양육비용 산출이 선결과제라 볼 수 있을 것임

3.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 투입 시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 활용

-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중 현금 지원 사업의 비중은 2019년 26.8%에서 2022년 30.8%로 가장 크게 증가(양미선·김혜진, 2021: 50;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2: 76)
 -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포함하여,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화폐 지급 등 상품권 지원과 보험료 지원이나 이용료 할인 등 현금성 지원을 합산하면, 2022년 41.0%로 2019년에 비해 6.0%p가 증가
 -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2022년 기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큼
 - 지자체별로 출산지원정책의 생애단계별 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주로 출산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 출산지원정책도 생애초기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앞서 중앙 정부의 지원금이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모형 3-1 기준)을

119.7%를 커버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으로, 지자체별 출산지원금까지 생애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오히려 정책 효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

- 물론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지역 여건에 맞추어 결정되는 부분으로, 이를 포함하여 보편적인 아동 급여의 지원 수준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특정 시기 혹은 일부 지역에만 과도한 지원금이 쏠릴 경우 재정 투입 대비 정책 효과성이 낮고, 지역 간 격차 확대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중앙 정부 재원과 지자체의 재원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아, 보다 효율적인 재원 분배 혹은 지원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예컨대, 중앙 정부 아동 급여는 전국 공통 지원에 해당하며 안정적 예산 운영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현행과 같이 생애 초기 지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진행한다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은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는 생애 초기 아동보다는 그 이상 연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혹은 생애 초기 아동 중에서도 아동 빈곤이 우려되는 집단⁷⁰⁾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적정 양육비용 산출 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혹은 현금성 지원 제도의 효과성 제고 등과 관련된 사안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후속 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합리적 소비 문화 조성 및 공유 경제 소비 활성화 지원

- 적정 양육비용은 자녀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가구 특성 등에 따라 이 비용이 달라지지는 않음

70) 단,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생애 초기 아동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으로 적정 양육비용을 충분히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아동에게 제대로 사용되기만 한다면 이 시기에는 저소득 가구나 할지라도 추가적 비용 지원 필요성이 높지는 않음. 단, 생애 초기 아동 중 환아 등의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즉, 고소득 가구이든 저소득 가구이든, 맞벌이 가구이든 외벌이 가구이든,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이든 적정 양육비용은 동일한 금액임
- 단,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사용하는 물품 및 서비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적정 양육비용이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또, 적정 양육비용은 가구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으나, 가구 특성에 따라 적정 양육비용과 실제 양육비용 지출 사이에 간극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혹은 정부 지원금의 경감 효과에 대한 체감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예컨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은 물류 비용 등으로 인해 특정 육아용품 혹은 육아서비스는 이용 자체가 어렵거나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고소득 가구들이 쉽게 구매하는 고가의 육아용품을 중위소득 가구들은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발생할 수 있음
- 이 연구의 가구 조사 결과에서는 가구 소득이나 지역 규모 등 가구 경제적 측면의 요인에 따라서는 필수 육아용품에 대한 인지나 구매 금액 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일부 품목에서는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가 부분적으로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육아 가구가 인지나 소비 행태에 있어서 높은 동질성을 보이고 있었음
 - 단, 총 자녀 수에 따라 필수 여부에 대한 인식이 차이를 보이거나 공유 경제 소비(특히 물려받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품목들이 발견됨
 - 이는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물려받기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양육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에 대한 구분이 좀 더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 첫 자녀 출산으로 양육 경험이 많지 않은 부모들에게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정 수준의 필수 육아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등 합리적 소비 문화의 확산과 정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부모 면담과 전문가 자문 회의 사이에서도 필수 육아용품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대다수의 부모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접한 정보

를 기준으로 필수 육아용품 선정하는 경향성을 보임

- 부모 면담 과정에서 몇몇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생아 육아용품 혹은 출산 준비 용품 목록이 소개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출산 전 해당 용품들을 미리 구매했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부모의 양육 과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기능성 육아용품을 적정 양육비용 산출 시 반영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짐. 또, 한자녀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소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부모의 마음 또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임
- 하지만, 고가의 물품이나 고기능의 육아용품이 반드시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생애 초기 영아의 경우 대단히 빠른 속도로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가의 물품이나 미리 다량 구매한 물품은 실제로 사용기간이 매우 짧아서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즉, 생애 초기 영아의 발달과 필수 육아용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산전 검사 시 필수 육아용품에 대한 체크리스트 제공 및 홍보, 산후조리원과 연계한 부모 역량 강화⁷¹⁾, 유명 커뮤니티 운영자와 연계를 통한 합리적 소비 문화 확산 노력 등 부모들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함
- 공유 경제 소비를 통한 실질적인 양육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녹색 소비 혹은 순환 경제 등의 측면에서 육아 분야에서의 공유 경제 소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애 초기 영아는 빠른 속도의 신체적 성장을 보이므로, 육아용품이 낡기 전에 사용 시기가 지나는 경우가 많음
- 이 연구의 가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초기 영아 가구가 공유 경제 관련 소비를 한 경험은 중고거래 79.7%, 대여하기 42.5%, 물려받기 79.7%로, 대여하기를 제외한 중고거래와 물려받기 경험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임
 - 중고거래 물품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물품은 아기띠·힙시트·포대기(43.1%), 아기침대(42.1%) 등이었으며, 대여하기는 유축기(17.9%), 아기침대(11.6%), 물려받기는 주로 피복류(외출복 62.3%, 내의류 56.5%, 속싸개/

71) 직접적 소비 교육이 아닌 발달에 관한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합리적 소비 문화 확산.

겉싸개/아기이불 등 침구류 49.9%, 아기띠·합시트·포대기 44.8% 등)가 높은 비중을 보임

- 공유 경제 소비를 통해 절약된 양육비용은 12개월동안 평균 100만원 미만으로 큰 금액은 아님
- 영아 가구의 공유 경제 활용 빈도가 높은 물품을 중심으로 자원의 순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공 시스템의 개발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중고거래, 물려받기 등의 경우에는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며, 대여하기의 경우 공공 서비스가 상당 부분 구축된 상태임
 - 대여하기 경험이 가장 많은 물품은 유축기(17.9%)로 주로 보건소 등을 통한 대여가 대다수임⁷²⁾. 그런데, 생애 초기 영아의 경우에는 대여하기 경험 비중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임
 - 예컨대, 육아용품의 재활용(업사이클링)을 지원하거나 플리마켓 등을 통한 공유 경제 소비 활성화를 검토해볼직 함
- 단, 생애 초기 영아 가구의 경우에는 아주 어린 아이라는 특성상 부모들의 오프라인의 활동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새제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예: 온라인 신청 및 수거 → 무료 수거하되, 물물교환 형태로 교환 처리, 다소 헤지거나 낡은 부분을 수리하여 새제품으로 만들어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거나 물물 교환 용품으로 활용 등.

72) 자녀의 월령이 좀 더 많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장난감 대여 경험 등이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연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연구 대상으로 장난감 대여 경험은 포함되지 않음.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권미경·이정원·최효미·김혜진(2016).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동훈·최윤경·강은진·김나영·김진희·김형미·류한국·김태우·정유나(2022). 표준 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용남·김효정·김중환·노선옥·안내영·우명숙·윤홍주·이호준·최은영·최상준 (2021). 2020년 유·초·중·고·특수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 한국교육 개발원.
- 노대명·김대중·김영아·김은경·나병균·박찬용·박혜미·신운정·심창학·이성애·봉인식 (2018).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정부(202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박은정(2022). 부모급여 제도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육아정책포럼 제74호, pp.20~28.
- 박은정·이정원·윤지연·김난주(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박진아·김동훈·김정숙·김중환·김태우(2023). 2023년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박진아·박상신(2018).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8). 아동수당 사업 안내 2018.
-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3a).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3b).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4a). 2024 아동수당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24b).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 안효섭·신희영(2020). *홍창의 소아과학* 제12판. 미래엔.
- 양미선·김혜진(2021).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우(2018). *불평등의 경제학*. 후마니타스.
- 이정원·이재희·김자연·우석진·김태우(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 임완섭·김문길·김태완·김기태·황도경·오미애·김성아·이원진·이아영·임덕영·정세정·오미애·윤상용·박형준·김민희·이길제·이용하·신봉하·이주미·최준영·정주성·한수진·신재동(2023).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2022. 12. 28).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 조서관리국·통계대행과(2021. 11). 「2021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 보고.
- 최효미·강은진·조미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2016).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박은정·엄지원(2020).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최은영·박은영·권일숙·정상은(2020). 중국의 육아 소비문화와 한국 엔젤 산업의 대응전략: 육아용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 Koivu, A., Phan, Y. T., Näsi, E., Abuhamed, J., Perry, B. L., Atkins, S., Perkiö M. & Koivusalo, M. (2020). The baby box. Enhancing the wellbeing of babies and mothers around the world. Helsinki: Kela.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 「아동복지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05호, 2023. 8. 8., 일부개정]

- 「아동수당법」 [시행 2022. 4. 1.] [법률 제18579호, 2021. 12. 14., 일부개정]
- 「아동수당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55호, 2023. 6. 13., 일부개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55호, 2023. 4. 18., 일부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43호, 2023. 12. 26., 일부개정]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4. 1.).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개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8. 19.). 보건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3. 12. 8.).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3. 12. 29.).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 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2024. 1. 5.).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KBS 9시 뉴스보도(2023. 5. 17.). 출산장려금 1억 시대... “현금보다 인프라 확대가 효과적”, <https://www.youtube.com/watch?v=J22OjLB4ars> (2023. 8. 24. 인출).
- YTN 자막뉴스(2022. 12. 19.). “200만 원 줄게” 강남구의 파격적인 출산 지원금, <https://www.youtube.com/watch?v=-0EOHNc35FM> (2023. 8. 24. 인출).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현황,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2023. 6. 기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 (2024. 3. 12. 인출).
- 스코틀랜드 Parent Club 홈페이지, <https://www.parentclub.scot/baby-box> (2024. 1. 18. 인출).

스코틀랜드 홈페이지, <https://www.scotland.org/live-in-scotland/progressive-scotland/baby-box> (2024. 1. 17. 인출).

싱가포르 Made For Families, <https://www.madeforfamilies.gov.sg/support-measures/raising-your-child/financial-support/baby-bonus-scheme> (2023. 12. 27. 인출).

일본 후생노동성(2018.3). 출산 육아 일시금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설명서. https://www.google.com/url?client=internal-element-cse&cx=005876357619168369638:ydrbkuj3fss&q=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iryuu/kokusai/setsumeisiryu/dl/kr10.doc&sa=U&ved=2ahUKEwif8_ni4LGDAXcs1YBHaNuCBEQFnoECAMQAQ&usg=AOvVaw3pFHxGOnkzyuPZaJZCq4Tf (2023. 12. 17. 인출).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iryuuhoken/shussan/index.html (2023. 12. 17. 인출).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la-prime-a-la-naissance-et-adoption-caf/> (2023. 12. 27. 인출).

핀란드 사회보장원 홈페이지, <https://www.kela.fi/maternity-grant> (2024. 1. 15. 인출).

핀란드 사회보장원 홈페이지, <https://www.kela.fi/maternitypackage> (2024. 1. 15. 인출).

핀란드 사회보장원 홈페이지, <https://www.kela.fi/maternity-package-2023> (2024. 1. 15. 인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출산조사」, 2021, 기혼여성(19~49세)의 출생아의 월령별 완전모유수유율(2019. 1. 1. 이후 출생아 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1BE010&conn_path=I3 (2024. 3. 11. 인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health.nsw.gov.au/kidsfamilies/MCFhealth/child/Pages/baby-bundle.aspx> (2024. 1. 16. 인출).

NHS inform, <https://www.nhsinform.scot/ready-steady-baby/pregnancy/preparing-for-parenthood/baby-box/> (2024. 1. 17. 인출).

【통계원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행복e-음 DB 첫만남이용권 수급 정보.

KICCE 소비실태조사_2022 원자료.



부록

부록 1. 설문지

생애초기(생후 12개월 이하) 영아의 육아용품 구매 및 양육비용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실태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보건복지부 수탁과제로 수행 중인 “생후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연구”에서 “필수 육아용품에 대한 인식과 육아용품의 구매 및 활용 실태” 등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본 실태조사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로만 활용되고 비밀이 보장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주관조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실시기관 :	㈜에스티아이
■ 담 당 자 :	최효미 연구위원	■ 담 당 자 :	김신형 연구원
■ 조사관련문의 :	김태우 연구원 (02-398-7783)	■ 조사관련문의 :	김신형 연구원 (02-785-9245)

선문1. 귀하는 현재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없음 ☞ **설문 종료**
- 있음 ☞ _____명

선문2. 귀택 자녀의 출생연월과 성별은 각각 어떠합니까?

(조사 대상 월령의 자녀가 없거나, 조사 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이면 설문 종료.)

※ 2022년 10월생~2023년 9월생 자녀가 있는 가구만 조사 대상입니다.

※ 아래 현황은 모든 자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 번호	구분	출생연월	성별	
1	첫째 자녀	()년 ()월 생	남	여
2	둘째 자녀	()년 ()월 생	남	여
3	세째 자녀	()년 ()월 생	남	여
4	넷째 자녀	()년 ()월 생	남	여

선문3.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 (시) _____ (구)

I. 필수 육아용품 및 육아용품 구매 경험

문1. 아래 제시된 육아용품(피복류)이 생후 12개월 이내에 꼭 필요한 필수 육아용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하다면, 몇 개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여부에 0를 응답한 경우에만 필요수량 입력창 활성화)

품목	필수 여부		필요 수량	
1) 배냇저고리	O	X	12개월 동안	()개
2) 속싸개	O	X	12개월 동안	()개
3) 겉싸개	O	X	12개월 동안	()개
4) 아기목욕수건	O	X	12개월 동안	()개
5) 아기이불(신생아베개 포함)	O	X	12개월 동안	()개
6) 신생아모자	O	X	12개월 동안	()개
7) 손발싸개	O	X	12개월 동안	()개
8) 수면조끼	O	X	12개월 동안	()개
9) 턱받이	O	X	12개월 동안	()개
10) 가제 수건	O	X	12개월 동안	()개
11) 아기띠·힙시트·포대기	O	X	12개월 동안	()개
12) 내복 (바디수트 포함)	O	X	3개월 평균	()개
13) 외출복 (상하의 한 벌 기준)	O	X	3개월 평균	()개

문1-2. 최근 3개월(지난 9월~11월) 동안 아래 제시된 육아용품(피복류)을 구매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개를 구매하셨으며, 개당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 동일 품목의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신 경우, 개당 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중고 물품을 구매한 경우도 포함되나, 물려받기 한 물품은 제외됩니다.

(구매 경험에 0를 응답한 경우에만 구매 구량 및 구매 가격 입력창 활성화)

품목	구매 경험		최근 3개월간 구매 수량	개당 구매 가격 (실제 지출 금액)	입력하신 가격 (한글로 표시)
1) 배냇저고리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2) 속싸개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3) 겉싸개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4) 아기목욕수건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5) 아기이불(신생아베개 포함)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6) 신생아모자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7) 손발싸개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8) 수면조끼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9) 턱받이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10) 가제 수건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11) 아기띠·힙시트·포대기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12) 내복 (바디수트 포함)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13) 외출복 (상하의 한 벌 기준)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문2. 아래 제시된 **육아용품(수유관련용품 및 식기류)**이 생후 12개월 이내에 꼭 필요한 필수 육아용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 **젖병과 젖꼭지**는 몇 개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여부에 0을 응답한 경우에만 필요 수량 입력창 활성화)

품목	필수 여부		필요 수량 (12개월동안)
1) 젖병 (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	O	X	()개
2) (별도 구매한) 젖꼭지	O	X	()개
3) 공갈젖꼭지	O	X	()개
4) 젖병건조대 (소독 기능 없음)	O	X	
5) 수유패드	O	X	
6) 모유저장팩	O	X	
7) 식기 (그릇, 식판, 컵, 수저 등)	O	X	

문2-2. **최근 3개월(지난 9월~11월)** 동안 아래 제시된 **육아용품(수유관련용품 및 식기류)**을 구매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개를 구매하였으며, 개당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 ※ 수유패드와 모유저장팩은 기준 용량(매수)를 참고하셔서 한 상자당 가격을 응답해주시시오.
(예시: 120매짜리 수유패드를 한상자 구매하신 경우 구매수량은 2개, 구매 가격은 실제 지불하신 금액의 절반으로 계산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식기는 식판, 수저 등을 각각 낱개로 계산하여 개당 평균 가격을 응답해 주십시오.
(※ 동일 품목의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신 경우 개당 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중고 물품을 구매할 경우도 포함되나, 물려받기 한 물품은 제외됩니다.
(구매 경험에 0을 응답한 경우에만 구매 수량, 구매 가격 입력창 활성화)

품목	구매 경험		기준용량	구매 수량	구매 가격 (실제 지출금액)	입력하신 가격 (한글로 표시)
1) 젖병 (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2) (별도 구매한) 젖꼭지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3) 공갈젖꼭지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4) 젖병건조대 (소독 기능 없음)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5) 수유패드	O	X	60매 기준	()상자	1상자 ()원	*만 *천 *백원
6) 모유저장팩	O	X	30매 기준	()상자	1상자 ()원	*만 *천 *백원
7) 식기 (그릇, 식판, 컵, 수저 등)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문3. 현재 귀하는 모유 수유 중이신가요?

- (※ 이유식은 별도 문항이므로, 모유 및 분유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모유만 수유 → 문4.
② 모유와 분유 혼합 수유 → 문3-1.
③ 분유만 수유 → 문3-1.
④ 더 이상 수유(모유와 분유 모두)하지 않음 → 문4.

문3-1. **지난 한 달 동안** 아이가 먹은 분유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 지난 한 달 동안 소비량이 1통 미만일 경우 소수점 단위로 작성해 주십시오.)

분유 소비량 ()그램짜리 ()통

문3-2. 최근 3개월(지난 9월~11월) 동안 분유를 구매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3-3. 분유 한 통 구매 가격은 얼마입니까? 한통에 ()원 *만 *천 *백원

문4. 현재 아이는 이유식을 먹는 시기입니까?

- ① 예 → 문4-1 ② 아니오 → 문5.

문4-1. 지난 한 주 동안 아이가 이유식을 몇 끼니 정도 먹었습니까?

하루에 ()끼 혹은 1주일에 ()끼 (* 둘중 한군데만 응답)

문4-2. 최근 3개월(지난 9월~11월) 동안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유식을 구매(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정기배송 및 밀키트도 포함합니다.

(예시: 6개월 전에 결제하였고 현재 1주일마다 상품을 배송받고 있는 경우, '① 예' 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4-2-1 ② 아니오 → 문4-3

문4-2-1. 이유식을 구매해서 먹이는데 들어간 비용은 1주일 기준 얼마 정도입니까?

시중 판매 이유식 1주일에 ()원 *만 *천 *백원

문4-3. 시판되는 이유식 외에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이는데 들어간 비용은 1주일 기준 얼마 정도입니까?

※ 아이 이유식에 들어간 식재료 비용을 기준으로 어려움에 응답해 주십시오.

1주일에 ()원 *만 *천 *백원

문5. 현재 아이는 우유, 치즈, 요거트, 아기 과자, 과일 등의 간식을 먹는 시기입니까?

- ① 예 → 문 5-1 ② 아니오 → 문 6.

문5-1. 최근 한달 동안 아기 간식을 구매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5-2 ② 아니오 → 문 5-3.

문5-2. 최근 한달 동안 아기 간식을 구매하기 위해 얼마 정도를 쓰셨습니까?

한 달에 ()원 *만 *천 *백원

문6. 아래 제시된 육아용품(기기/집기류)이 생후 12개월 이내에 꼭 필요한 필수 육아용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용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품목	필수 여부		가지고 있음	
1) 아기욕조	O	X	O	X
2) 아기침대	O	X	O	X
3) 아기서랍장 및 옷장	O	X	O	X
4) 아기의자	O	X	O	X
5) 놀이매트	O	X	O	X
6) 유모차	O	X	O	X
7) 카시트	O	X	O	X
8) 유축기	O	X	O	X
9) 분유포트	O	X	O	X
10) 체온계	O	X	O	X
11) 코흡입기	O	X	O	X
12) 치발기	O	X	O	X

문6-1. 현재 보유하고 계신 육아용품은 각각 몇 개입니까? 보유하고 계시다면, 직접 구매하셨습니까?

구매하신 육아용품의 개당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중고물품을 구매한 경우도 포함)

※ 동일 품목의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신 경우, 평균하여 개당 가격을 응답해 주십시오.

※ 구매 가격은 본인이 지불하신 실제 지출금액을 기입해주시시오.(중고물품을 구매한 경우 중고 가격 기입)

(문6에서 보유 여부에 'O'를 선택한 품목만 제시)

(직접 구매 여부에 O를 응답한 경우에만 개당 구매 가격 입력창 활성화)

품목	보유 수량	직접 구매 여부 (중고물품 구매포함)		개당 구매 가격 (실제 지출금액)	입력하신 가격
1) 아기욕조	()개	O	X	개당 ()원	*만 *천 *백원
2) 아기침대	()개	O	X	개당 ()원	*만 *천 *백원
3) 아기서랍장 및 옷장	()개	O	X	개당 ()원	*만 *천 *백원
4) 아기의자	()개	O	X	개당 ()원	*만 *천 *백원
5) 놀이매트	()개	O	X	개당 ()원	*만 *천 *백원
6) 유모차	()개	O	X	개당 ()원	*만 *천 *백원
7) 카시트	()개	O	X	개당 ()원	*만 *천 *백원
8) 유축기	()개	O	X	개당 ()원	*만 *천 *백원
9) 분유포트	()개	O	X	개당 ()원	*만 *천 *백원
10) 체온계	()개	O	X	개당 ()원	*만 *천 *백원
11) 코흡입기	()개	O	X	개당 ()원	*만 *천 *백원
12) 치발기	()개	O	X	개당 ()원	*만 *천 *백원

문6-2.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육아용품(기기/집기류) 중, 자녀가 12개월이 되기 전에 보유할 계획이 있는 육아용품이 있습니까? 몇 개를 보유하실 계획입니까?

(문6에서 보유 여부에 'X'를 선택한 품목만 제시)
(직접 구매 여부에 O를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 구매 가격 입력창 활성화)

품목	보유 계획 (생후 12개월까지)		보유 계획 수량
	O	X	
1) 아기욕조	O	X	()개
2) 아기침대	O	X	()개
3) 아기서랍장 및 옷장	O	X	()개
4) 아기의자	O	X	()개
5) 놀이매트	O	X	()개
6) 유모차	O	X	()개
7) 카시트	O	X	()개
8) 유축기	O	X	()개
9) 분유포트	O	X	()개
10) 체온계	O	X	()개
11) 코흡입기	O	X	()개
12) 치발기	O	X	()개

문7. 아래 제시된 육아용품(소모품류)이 생후 12개월 이내에 꼭 필요한 필수 육아용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물품에 따라 소요주기가 다르니, 이에 맞추어 용량과 필요 수량을 응답해 주십시오.
※ 용량은 평균 용량을 응답해주시고, 수량은 총 개수를 응답해주시시오.
(예시: 삼푸 200ml 1개와 바디워시 400ml 1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 용량은 300ml, 개수는 2개로 입력)

(필수 여부에 O를 응답한 경우에만 필요 구량 입력창 활성화)

품목	필수 여부		필요 수량		
			소요주기	용량	필요 수량
1) 일회용 기저귀	O	X	1개월 마다	()장 짜리	()팩
2) 비누, 삼푸, 바디워시 등	O	X	3개월 마다	()ml(g) 짜리	()개
3) 엉덩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땀띠파우더, 크림, 로션, 오일 등)	O	X	3개월 마다	()ml(g) 짜리	()개
4) 유아 전용 세제	O	X	6개월 마다	()ml(g) 짜리	()개

문7-1. 아래 제시된 소요 기간동안 동안 아래 제시된 **육아용품(소모품류)**을 구매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개를 구매하셨으며, 개당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 동일 품목의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신 경우 개당 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매 여부에 0를 응답한 경우에만 소요주기, 구매용량, 구매 수량, 개당 구매 가격 입력창 활성화)

육아 품목	구매 여부	소요주기	구매 용량	구매 수량	개당 구매 가격	입력하신 수량
1) 일회용 기저귀	O X	1개월 마다	()장	()팩	팩당 ()원	*장 *팩당 *만 *천 *백원
2) 비누, 샴푸, 바디워시 등	O X	3개월 마다	()ml(g) 짜리	()개	개당 ()원	*ml(g)짜리 1개당 *만 *천 *백원
3) 영영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땀띠파우더, 크림, 로션, 오일 등)	O X	3개월 마다	()ml(g) 짜리	()개	개당 ()원	*ml(g)짜리 1개당 *만 *천 *백원
4) 유아전용 세제	O X	12개월 마다	()ml(g) 짜리	()개	개당 ()원	*ml(g)짜리 1개당 *만 *천 *백원

문8. 앞서 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생후 12개월까지** 자녀 양육 과정에서 **꼭 필요한 육아용품이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문8-1 ② 아니오 → 문9

※ 앞에 제시된 육아용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복류	배냇저고리	속싸개	겉싸개	아기목욕수건	아기이불 (신생아베개 포함)	
	신생아모자	손발싸개	수면조끼	턱받이	가제 수건	
	아기띠·힙시트·포대기		내복 (바디수트 포함)		외출복 (상하의 한 벌 기준)	
수유관련용품 및 식기류	젖병 (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		(별도 구매한) 젖꼭지		공갈젖꼭지	
	젖병건조대(소독 기능 없음)		수유판드	모유저장팩	식기 (그릇, 식판, 컵, 수저 등)	
식품류	분유	이유식	아기 간식 (우유, 치즈, 요거트, 아기과자, 과일 등)			
기기/집기류	아기욕조	아기침대	아기서랍장 및 옷장		아기의자	놀이매트
	유모차	카시트	유축기	분유포트	체온계	
	코흡입기	치발기				
소모품류	일회용 기저귀	비누, 샴푸, 바디워시 등				
	영영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땀띠파우더, 크림, 로션, 오일 등)				유아 전용 세제	

문8-1. 앞서 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생후 12개월까지** 자녀 양육과정에서 꼭 필요한 육아용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용품이 몇 개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품목명을 직접 기입해주시시오. (예시: 방수요)
- ※ 상품명인 아닌, 품목명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시: 하기* (×) → 기저귀(○))
- ※ 필요 수량 작성 예시:
 - 1) 12개월 동안 1번만 필요한 경우 → 12개월마다 1개 필요
 - 2) 12개월 동안 2번만 필요한 경우 → 6개월마다 1개 필요
- ※ 앞에 제시된 육아용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행을 모두 입력하면 다음 행이 생성되는 형식으로 구현, 최대 10개 행)

피복류	배냇저고리	속싸개	겉싸개	아기목욕수건	아기이불 (신생아베개 포함)
	신생아모자	손발싸개	수면조끼	턱받이	가제 수건
	아기띠·힙시트·포대기		내복 (바디수트 포함)		외출복 (상하의 한 벌 기준)
수유관련용품 및 식기류	젖병 (젖병과 세트인 젖꼭지 포함) (별도 구매한) 젖꼭지			공갈젖꼭지	
	젖병건조대(소독 기능 없음)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식기 (그릇, 식판, 컵, 수저 등)
식품류	분유	이유식	아기 간식 (우유, 치즈, 요거트, 아귀과자, 과일 등)		
기기/집기류	아기욕조	아기침대	아기서랍장 및 옷장		아기의자
	유모차	카시트	유축기	분유포트	놀이매트
	코흡입기	치발기			
소모품류	일회용 기저귀		비누, 샴푸, 바디워시 등		
	영양이발진크림 및 보습제 (땀띠파우더, 크림, 로션, 오일 등)				유아 전용 세제

품목명 (직접 기입)	필요 수량 (생후 12개월까지)	
	소요주기	필요 수량
	()개월마다	()개
	()개월마다	()개
	()개월마다	()개
	()개월마다	()개

문8-2. **최근 3개월(지난 9월~11월) 동안** 작성하신 용품을 구매한 적이 있으십니까? 몇 개를 구매하셨으며, 개당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문8에서 입력한 품목명을 노출)
(구매 여부에 0을 응답한 경우에만 구매 수량, 구매 가격 입력창 활성화)

품목명	최근 3개월(지난 9월~11월) 구매 경험				
	구매 여부		구매 수량	구매 가격	입력하신 가격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O	X	()개	개당 ()원	*만 *천 *백원

II-1. 중고거래

문9. 아이가 태어나서 12개월이 될 때까지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귀하가 중고로 사거나 판매한 물품이 있습니까? 혹은 앞으로 중고로 사거나 판매할 계획이 있는 물품이 있습니까?

※ 아래에서 중고로 사거나 판매한(계획이 있는 경우 포함) 모든 물품을 응답해 주십시오.

(단, 물려받기 한 물품은 제외됩니다)

(문9에 응답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문9-1 활성화)

(문9와 문9-1 한 페이지에 구현)

피복류	1) 속싸개, 겹싸개, 아기이불 등 침구류	☐	2) 내의류 (바디수트, 손발싸개, 수면조끼 포함)	☐
	3) 외출복 (외출복, 신생아모자 등)	☐	4) 아기띠·힙시트·포대기	☐
수유관련 용품	5) 젖병건조대	☐		
기기/ 집기류	6) 아기욕조	☐	7) 아기침대	☐
	8) 아기서랍장 및 옷장	☐	9) 아기의자	☐
	10) 놀이매트	☐	11) 유모차	☐
	12) 카시트	☐	13) 유축기	☐
	14) 분유포트	☐		
기타	(물품명 기입)	☐	(물품명 기입)	☐
	(물품명 기입)	☐	(물품명 기입)	☐
중고거래를 한 물품이 전혀 없음		☐	→ 문10	

문9-1. 중고 거래로 절약된 양육비용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약 ()원 *만 *천 *백원

II-2. 대여하기

문10. 아이가 태어나서 12개월이 될 때까지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귀하가 대여하여 사용하였거나 앞으로 대여하여 사용할 계획이 있는 물품이 있습니까?

※ 아래에서 대여하여 사용한 모든 물품을 응답해 주십시오.
(문10에 응답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문10-1 활성화)
(문10과 문10-1 한 페이지에 구현)

수유관련 용품	1) 젖병건조대	☐		☐
기기/ 집기류	2) 아기욕조	☐	3) 아기침대	☐
	4) 아기서랍장 및 옷장	☐	5) 아기의자	☐
	6) 놀이매트	☐	7) 유모차	☐
	8) 카시트	☐	9) 유축기	☐
	10) 분유포트	☐		
기타	(물품명 기입)	☐	(물품명 기입)	☐
	(물품명 기입)	☐	(물품명 기입)	☐
대여하여 사용한 물품이 전혀 없음		☐	→ 문11	

문10-1. 육아용품을 대여하여 사용할으로써, 절약된 양육비용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약 ()원 *만 *천 *백원

II-3. 물려받기

문11. 아이가 태어나서 12개월이 될 때까지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물려받아 사용한 물품이 있습니까?

※ 아래에서 물려받아 사용한 모든 물품을 응답해 주십시오.

(문11에 응답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문11-1 활성화)

(문11과 문11-1 한 페이지에 구현)

피복류	1) 속싸개, 겹싸개, 아기이불 등 침구류	☐	2) 내의류 (바디수트, 손발싸개, 수면조끼 포함)	☐
	3) 외출복 (외출복, 신생아모자 등)	☐	4) 아기띠·힙시트·포대기	☐
수유관련 용품	5) 젖병건조대	☐	6) 식기(그릇, 식판, 텀, 수저 등)	☐
기기/ 집기류	7) 아기욕조	☐	8) 아기침대	☐
	9) 아기서랍장 및 옷장	☐	10) 아기의자	☐
	11) 놀이매트	☐	12) 유모차	☐
	13) 카시트	☐	14) 유축기	☐
	15) 분유포트	☐		☐
기타	(물품명 기입)	☐	(물품명 기입)	☐
	(물품명 기입)	☐	(물품명 기입)	☐
물려받아 사용한 물품이 전혀 없음		☐	→ 문 12	

문11-1. 육아용품을 물려받아 사용함으로써, 절약된 양육비용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약 ()원 *만 *천 *백원

Ⅲ. 의료서비스

문12. **아이가 태어나서 12개월이 될 때까지** 이용한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 아이가 이용한 보건/의료서비스만 포함되며, 산모의 보건/의료비용(예: 제왕절개 수술비, 산모 검진비 등)은 제외됩니다.

문12-1. **최근 3개월(지난 9월~11월) 동안** 아이는 몇 번 병원에 방문했습니까?

※ **입원과 외래(예방접종)**를 포함한 **병원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 회 방문
- ② 병원을 전혀 방문하지 않음

문12-2. **아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보건/의료비는 처방약을 포함하여 얼마나 들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의 비용을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병원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아이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일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 ※ 입원과 외래 방문 횟수를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방문한 적이 없으면 0을 입력해 주십시오.)

입원 ()회	총 ()일	3개월 동안 총 ()원	*만 *천 *백원
외래 ()회		3개월 동안 총 ()원	*만 *천 *백원

문12-3. **아이가 태어나서 12개월이 될 때까지** 약국에서 파는(처방받지 않은) **아이 전용** 해열제, 연고 등을 구매하신 적이 있거나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IV. 응답자 특성

문13. 귀하는 육아용품을 구매하실 때 어떠한 점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가격	5. 브랜드파워	9. 구매의 용이성	
2. 안전성 인증 표시 (영양성분 등 포함)	6. 제품 생산처(원산지)	10. 사후관리(A/S)의 신속성	
3. 아이의 선호도	7. 제품 디자인	11. 기타	
4. 제품 기능	8. 주변의 평판		

문14. 귀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출산비용·자녀양육비용 중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출산비용, 자녀양육비용을 포함한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하여 특정 비목을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귀하가 생각하기에 첫만남이용권으로 인한 추가 소득으로 출산비용·자녀양육소비가 가장 증가한 품목 등을 고려하시어 응답해 주십시오.
(이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아 사용하신 경우, 사용 금액이 큰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식비 (출생 자녀 분유, 이유식비, 식재료구매비 등)			
2. 피복비 (출생 자녀용 의류, 이불, 싸개 등 포함)			
3. 보건/의료비 (출생자녀의 치료 등 의료비, 영양제, 산모용 약제비(한약) 등 포함)			
4. 교육/보육비 (기관 이용, 육아도우미 비용, 교재교구비 등 포함)			
5. 여가 및 문화생활비 (자녀용 도서구매비 등)			
6. 개인유지비 (출생자녀용·산모용 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영유아용 로션, 물티슈, 화장지 등)			
7. 산후조리비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이용)			
8. 출생 자녀를 위한 기기/집기 (유모차, 카시트, 아기침대 등)			
9. 기타 ()			

문15. 귀하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부
② 모

문16. 귀댁의 영유아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 각각의 연령, 최종학력, 취업상태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연령에서 부재를 입력할 경우, 최종학력과 취업상태 입력창 비활성화)

구분	아버지	어머니
연령	☐ 만 ()세 ☐ 부재	☐ 만 ()세 ☐ 부재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전문대(2~3년제)졸업 ☐ 4년제 대학 졸업 ☐ 대학원 이상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전문대(2~3년제)졸업 ☐ 4년제 대학 졸업 ☐ 대학원 이상
취업상태	☐ 취업 ☐ 휴직 중(출산휴가, 육아휴직 포함) ☐ 미취업 ☐ 부재	☐ 취업 ☐ 휴직 중(출산휴가, 육아휴직 포함) ☐ 미취업 ☐ 부재

문17. 최근 3개월(지난 9월~11월) 기준으로,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만원 *만 *천 *백원

문18. 귀하의 현재 월평균 가구 소비 지출액과 자녀 양육비용은 얼마입니까?

※ 자녀 양육비용은 가구 내의 모든 자녀에게 들어간 비용을 합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양육비용은 식비, 피복비, 교육비, 의료비 등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월평균 가구 소비 지출액(양육비 포함)은 ()만원이며,
*만원 중에서 모든 자녀에게 들어간 양육비용은 ()만원임.

설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면담 질문지

■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보건복지부 수탁연구 과제로 “생애 초기 적정 양육비용 산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 이번 심층 면담은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필수 육아용품 및 서비스, 적정 양육비용 등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견은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아이 및 가구에 대한 일반 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면담자** 특성과 관련된 자료는 내용을 작성하여, **수당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도 ()구·군				
(아동의) 부 취업상태	① 취업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구직중 ⑤ 미취업 ⑥ 모 없음				
부 최종학력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2-3년제)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이상				
(아동의) 모 취업상태	① 취업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구직중 ⑤ 미취업 ⑥ 모 없음				
모 최종학력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2-3년제)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이상				
총 자녀수	() 명				
응답대상 아동 월령	() 개월	아동 성별	① 남 ② 여		
아동 출생순위	() 째 자녀				
월평균 총 가구소득	() 만원	월평균 양육비용 (해당 아동만)	() 만원		

※ 2번 이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2. 필수 육아용품 목록

2-1. 면담 자료 맨 뒤에 제시된 [별첨 1]의 육아용품 리스트를 보시고, 이 중에서 “필수” 품목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물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아래 제시된 육아용품 목록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신생아 용품으로 분류된 물품 중에서 연구진이 필수 품목은 아니거나 다른 물품과 통합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필수 육아용품 목록에서 제외한 물품과 그 사유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보시기에 이 중에서 “필수” 품목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물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분류	수량	삭제 사유 및 검토 필요 사항
바다수트	3~5개	내복 혹은 외출복으로 포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여객반이(트럼반이)	선택	턱받이랑은 다른 물품이나, 같은 카테고리로 갈 수 있을지 검토
알콜솜	10개	일반 가정용품 분류 가능, (실질 경우 기준 기간 설정 필요)
땀띠파우더(크림)	선택	영당이 발진크림에 포함
침뎅크림	선택	필수까지는 아니라고 봄
수유등		일반 가정용품 분류 가능.
살은 빨래 전용 냄비	선택	일반 가정용품 분류 가능.
임부복	2~3벌	임부 용품
임부속옷	2~3개	임부 용품
산후복대	선택	일반 용품
오버나이트 생리대	다량	일반 가정용품 혹은 임부용품
온습도계	1개	일반 가정용품 분류
장난감제균제	선택	필수 구매 품목은 아닐 수 있음. 일반 가정용품 대체 가능
기저귀쓰레기통	선택	필수 구매 품목은 아닐 수 있음. 일반 가정용품 대체 가능
세척솔	1~2개	일반 가정용품 대체 가능
젖병소독기	선택	필수 품목은 아님
보온병	1~2개	일반 가정용품 분류
분유포트	선택	필수 품목은 아님. 일반 가정용품에 해당
유아전용 세제 및 유연제	1개씩	필수 구매 품목은 아닐 수 있음. 일반 가정용품 대체 가능
유아전용 얼룩제거제	선택	필수 구매 품목은 아닐 수 있음. 일반 가정용품 대체 가능
아기세탁기	선택	필수 품목은 아님.
보행기		목록 추가를 검토했으나, 실제 거의 사용하지 않음. (바운сер로 포괄 가능)

2-3. [별첨 1]과 문2-2에서 필수 품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신 물품 이 외에도 “필수” 품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물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생애 초기(생후 12개월) 필수 육아서비스 목록

3-1. 아래는 생애 초기 필수 육아서비스 목록입니다(교육/보육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이 외에 생애 초기에 반드시 이용이 필요한 “필수적인” 육아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분류	중분류	설문 필요 사항
보건의료서비스	아동 병원비, 처방약	이용 횟수, 회당 이용 비용
	출산 비용	조사 필요성 검토 필요 (총액으로만 조사)
	산후조리 비용	이용기관(자택, 조리원, 도우미 등), 이용 기간,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산후관리 도우미 비용, 기타 마사지 등 산후관리 비용 등
기타	어린이 보험	개수, 월 납입 비용 (납입 기간?)
	사진(앨범)	조사 필요성 검토 필요 (총액 조사)
	돌잔치	조사 필요성 검토 필요 (총액 조사)

3-2. 위에 제시된 산생아기 필수 육아서비스 목록 중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서비스가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4. 적정 육아용품 수량 및 구매 주기, 비목 구분

- 4-1. 문2에서 필수 육아용품이라고 응답하신 물품의 적정 수량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 [별첨 1]과 문2-2의 리스트에 제시된 “수량” 부분을 참고하여,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 4-2. [별첨 1]과 문2-2의 리스트에 제시된 “구매주기”를 참고하여, 구매주기가 적합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구매주기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물품에 어느 정도의 구매주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4-3. [별첨 1] 육아용품 목록 중 “비목”을 보시면서, 비목 구분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비목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물품이며, 비목의 조정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5. 선물 받기, 대여하기, 중고물품 구매, 물려받기 등

- 5-1. 육아용품 중에서 선물받은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1-1. 앞에서 “필수” 육아용품/서비스라고 응답하신 것들 중에 어떤 것이 해당합니까?
5-1-2. 선물 받은 용품/서비스 중 “필수” 물품은 아니지만, 선물로 유독 많이 받는 물품이 있을까요?
5-1-3. 선물 받은 물품들로 인해 자녀 양육비용이 얼마나 경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5-2. 육아용품 중에서 대여하여 사용한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2-1. 앞에서 “필수” 육아용품이라고 응답하신 것들 중에 어떤 것이 해당합니까?
5-2-2. 대여하여 사용한 용품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요? 산생아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물품의 대여를 권하실만 합니까? 권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2-3. 대여하여 사용한 물품들로 인해 자녀 양육비용이 얼마나 경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3. 육아용품 중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3-1. 앞에서 “필수” 육아용품이라고 응답하신 것들 중에 어떤 것이 해당합니까?

5-3-2. 중고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요? 선생아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중고구매를 권하실만 합니까? 권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3-3. 중고로 구매하여 사용한 물품들로 인해 자녀 양육비용이 얼마나 경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4. 육아용품 중에서 중고로 판매한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4-1. 앞에서 “필수” 육아용품이라고 응답하신 것들 중에 어떤 것이 해당합니까?

5-4-2. 해당 물품은 처음 구매당시부터 중고 판매를 염두에 두시고 구매하신 것인가요?

5-4-3. 중고로 판매한 물품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요? 선생아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중고판매를 권하실만 합니까? 권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3-4. 중고로 판매한 육아용품들로 인해 자녀 양육비용이 얼마나 경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5. 육아용품 중에서 물려받아 사용한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5-1. 앞에서 “필수” 육아용품이라고 응답하신 것들 중에 어떤 것이 해당합니까?

5-5-2. 물려받아 사용한 물품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요? 차후에도 물려받아 사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5-3. 물려받아 사용한 물품들로 인해 자녀 양육비용이 얼마나 경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6. ‘첫만남이용권’ 활용 및 개선 의견

6-1. 해당 자녀의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들로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을 받으셨다면, 어떤 물품들을 구매하는데 활용하셨는지요?

6-2.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7. 정부의 현행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7-1. 향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 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면담 진행 과정에서 질문의 변경 및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첨 1] 필수 유아용품 목록

대분류	비목	종분류	수량	구매주기	용량조사필요(=1)	비고
신생아 기본용품	피복	배냇저고리	2~5개	일회성	0	
	피복	속싸개	2~3개	일회성	0	
	피복	겉싸개	1개	일회성	0	
	피복	아기이불	0~2개	일회성	0	물품명 수정 (기존 블랭킷)
	피복	신생아모자	1개	일회성	0	
	피복	내복	3~7개	분기	0	월 단위여야할지 검토
	피복	외출복	1~2개	분기	0	
	피복	손발싸개	1~2개	일회성	0	
	피복	수면조끼	1~2개	분기	0	
	피복	턱받이	2~3개	일회성	0	
목욕, 위생용품	피복	신발	1개	일회성	0	추가
	기기/접기	아기욕조	1개	일회성	0	비록구분 재검토
	피복	아기수건 (가제수건)	2~5개	월	0	수량 조정 필요
	개인유지비	물티슈	5팩	월	1	기준 기간 필요
	개인유지비	신생아면봉	1팩	일회성	1	애초 기준을 주는 것이 나을 수 있음
	기기/접기	채운계	1개	일회성	0	
	개인유지비	손톱정리세트	1개	일회성	0	
	기기/접기	코흡임기	선택	일회성	0	
	개인유지비	비누, 샴푸, 바디워시 등	1개씩	분기	1	반기여야할지 검토
	개인유지비	영양아발진크림 (땀따파우더, 크림)	1개	분기	1	일회성 여부 검토
	개인유지비	보습제(크림/로션/오일 등)	1개	분기	1	문구 수정
	개인유지비	일회용/천기저귀	다량	월	1	천기저귀 조사 필요 여부 검토, 추가로 '주'여야 하는지 검토
	개인유지비	손세정제	선택	분기	1	
	보건의료	의약품(연고, 해열제 등)		일회성	0	추가, 일반 가정용품이 아닌지 검토(아기용에 국한한다는 전제 필요)

대분류	비목	중분류	수량	구매주기	용량조사필요(=1)	비고
수유용품	기기/집기	젖병	5-6개	일회성	0	비목구분 재검토 (젓꼭지 생략), 반기 여부 검토
	개인유지비	젖병세정제	1개	분기	1	일회성 여부 검토
	기기/집기	젖병건조대	선택	일회성	0	필수여부 검토 필요
	개인유지비	수유패드	다량	분기	1	
	기기/집기	수유쿠션	1개	일회성	0	피복비? 비목구분 재검토
	기기/집기	유축기	1개	일회성	0	
기구· 침구류	식비	분유		월	1	주기가 '주여야' 하는지 검토
	개인유지비	모유저장팩		분기	1	비목구분 재검토
	기기/집기	공갈젓꼭지	1개	일회성	0	비목구분 재검토
	피복	신생아베개		일회성	0	
	기기/집기	아기침대	1개	일회성	0	아기요는 삭제(앞에서 조사)
	기기/집기	아기서랍장 및 옷장		일회성	0	
유모차류	기기/집기	기저귀정리함		일회성	0	
	피복	방수요	선택	일회성	0	
	기기/집기	놀이매트	1-2개	일회성	0	비목구분 재검토
	기기/집기	아기의자	1-2개	일회성	0	추가. 점보의자, 식탁의자 구분?
	기기/집기	유모차	1개	일회성	0	
	피복	유모차용 목쿠션과 불량킨	선택	일회성	0	
신모용품	기기/집기	키시트	1개	일회성	0	
	피복	기저귀 가방		일회성	0	
	피복	아기띠·합시트·포대기	선택	일회성	0	비목구분 재검토
	보건의료	튼살크림		분기	1	일회성 여부, 용량조사가 필요할지 검토, 비목구분(개인유지비) 검토
	피복	수유복	3-5개	일회성	0	

대분류	비목	중분류	수량	구매주기	용량조사필요(=1)	비고
	피복	수유브라	2~3개	일회성	0	
	피복	손목, 무릎, 발목 보호대	1개	일회성	0	
	보건의로	유두보호크림	1개	분기	1	일회성 여부, 용량조사가 필요할지 검토, 비목구분(개인유지비) 검토
	보건의로	화음부스프레이	선택	일회성	1	용량조사가 필요할지 검토, 비목구분(개인유지비) 검토
	피복	산모방석	선택	일회성	0	
	기기/집기	좌욕기	선택	일회성	0	
	완구	치발기 딸랑이	2~3개	일회성	0	
기타	완구	바운서	선택	일회성	0	
	도서	흑백초침책	1개	일회성	0	수량 및 일회성여부 검토
	완구	모빌	1~2개	일회성	0	
	도서	형감책	1~2개	일회성	0	수량 및 일회성여부 검토
	완구	형감인형		일회성	0	수량 및 일회성여부 검토
	식비	이유식		월	1	식료품 전체적으로 문항 추가.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는 경우(설문에서 패턴 반영 필요), 주기가 '주여야 하는지' 검토
	식비	우유/치즈/간식		월	0	서로 다른 패턴의 물품이 하나로 묶여 있어, 수량 책정이 어려움(설문에서 지출 비용으로 조사 필요)
식기류	기기/집기	그릇, 식판, 컵, 수저		일회성	0	식기류 추가. (여러 물품이 수량 책정의 어려움. 지출 비용으로 조사)

부록 3. 필수 육아용품 목록 선정 절차

〈부표 III-1〉 필수 육아용품 목록 선정 절차

분류	품목	연구진회의	부모면담	전문가지문	가구조사	최종산출품목	식제사유	추가사유
피복류	베넛저고리	○	○	○	○	○		
	속싸개	○	○	○	○	○		
	겉싸개	○	○	○	○	○		
	아기목욕수건	○	○	○	○	○		
	아기이불	○	○	○	○	○		
	신생아모자	○	○	○	○	○		
	손발싸개	○	○	○	○	○		
	수면조끼	○	○	○	○	○		
	턱받이	○	○	○	○	○		
	아기수건 (기제수건)	○	○	○	○	○		
	아기띠·힐시트·포대기	○	○	○	○	○		
	내복(바디수트 포함)	○	○	○	○	○		
	외출복	○	○	○	○	○		
	기저귀 가방	○	×	×	×	×	대체용품 활용 가능	문자 응답 없음
	방수요	○	○	×	△	○	활용도가 낮음	
	산모방석	○	○	×	×	×	임산부 물품	
	산후복대	×	×	×	×	×	임산부 물품	
	손목, 무릎, 발목 보호대	○	×	×	×	×	임산부 물품	
	수유복	○	×	×	×	×	임산부 물품	
	수유비라	○	×	×	×	×	임산부 물품	
	수유쿠션	○	×	×	×	×	임산부 물품	
	신발	○	×	×	×	×	임산부 물품	
	신생아베개	○	×	×	×	×	월령상 이용도 낮음	
	양말	○	○	×	×	×	활용도가 낮음	
							월령상 이용도 낮음	

분류	품목	연구진회의	부모면담	전문가피문	가구조사	최종산출품목	식제사유	추가사유
수용관련 용품 및 식기류	어깨받이(트림받이)	×	×	×	×	×	대체용품 활용 가능	
	엔보손수건	○	○	×	×	×	대체용품 활용 가능	
	역류방지쿠션	○	○	×	△	○	대체용품 활용 가능	문자 응답 높음
	유모차용 목쿠션과 블랭킷	○	○	×	×	×	기호 상품	
	임부복	×	×	×	×	×	임산부 물품	
	임부속옷	×	×	×	×	×	임산부 물품	
	젖병	○	○	○	○	○		
	젖병젖꼭지	○	○	○	○	○		
	공갈젖꼭지	○	○	○	○	○		
	젖병건조대	○	○	○	○	○		
	수유패드	○	○	○	○	○		
	모유저장팩	○	○	○	○	○		
	그릇, 식판, 컵, 수저	○	○	○	○	○		
	보온병	×	×	×	×	×	일상용품	
	젖병솔	○	○	×	△	○	일상용품	문자 응답 높음
	젖병집개	○	○	×	△	○	일상용품	(젖병세척용품)
식품류	분유	○	○	○	○	○		
	이유식	○	○	○	○	○		
	우유/치즈/간식	○	○	○	○	○		
	아기육조	○	○	○	○	○		
기기/ 집기류	아기침대	○	○	○	○	○		
	아기서랍장 및 옷장	○	○	○	○	○		
	아기의자	○	○	○	○	○		
	놀이매트	○	○	○	○	○		
	유모차	○	○	○	○	○		
	카시트	○	○	○	○	○		
	유축기	○	○	○	○	○		
	분유포트	○	○	○	○	○		
	체온계	○	○	○	○	○		

분류	품목	연구진회의	부모면담	전문가피문	가구조사	최종산출품목	식제사유	추가사유
	코출입기	○	○	○	○	○		
	치발기	○	○	○	○	○		
	기저귀갈이대		○	×	△	○	기호 상품	문자 응답 높음
	기저귀쓰레기통	×	×	×	×	×	대체용품 활용 가능	
	기저귀정리함	○	×	×	×	×	대체용품 활용 가능	
	살은 빨래 전용 냄비	×	×	×	×	×	대체용품 활용 가능	
	세척솔	×	×	×	△	○	대체용품 활용 가능	문자 응답 높음 (젓병세척용품)
	손톱정리세트	○	○	×	×	×	일상용품	
	수유등	×	×	×	×	×	대체용품 활용 가능	
	아기세탁기	×	×	×	×	×	대체용품 활용 가능	
	온습도계	×	×	×	×	×	일상용품	
	젓병소독기	×	×	×	△	×	대체용품 활용 가능 필요이상 고기능 제품	
	좌욕기	○	○	×	×	×	임산부 물품	
	일회용/천기저귀	○	○	○	○	○		
소모품류	비누, 샴푸, 바디워시 등	○	○	○	○	○		
	영양이발진크림 (뽀뽀우더, 크림, 로션, 오일 등)	○	○	○	○	○		
	유아전용 세제 및 유연제	○	○	○	○	○		
	젓병세정제	○	○	○	○	○		
	물티슈	○	○	×	△	○	일상용품	문자 응답 높음
	손세정제	○	×	×	×	×	일상용품	
	신생아면봉	○	×	×	×	×	대체 상품 활용	
	임쿨습	×	×	×	×	×	일상용품	
	오버나이트 생리대	×	×	×	×	×	임산부 물품	
	유아전용 일회용거기제	×	×	×	×	×	일상용품	
	장난감세균제	×	×	×	×	×	일상용품	
	침독크림	×	×	×	×	×	기호 상품	

분류	품목	연구진회의	부모면담	전문가피문	가구조사	최종산출품목	식제시유	추가시유
의약품류	기정용 상비약 (연고, 해열제 등)	○	○	○	○	○		
	산모영양제	○	○	×	×	×	임신부 물품	
	유두보호크림	○	×	×	×	×	임신부 물품	
	튼살크림	○	○	×	×	×	임신부 물품	
	회음부스프레이	○	○	×	×	×	임신부 물품	
도서 및 완구류	빨랑이	○	○	×	△		발달관련 용품	문자 응답 없음 (장난감으로 분류)
	형검인형	○	×	×	△		발달관련 용품	
	형검책	○	○	×	△	○	발달관련 용품	
	흑백조침책	○	○	×	△		발달관련 용품	
	모빌	○	○	×	△	○	발달관련 용품	문자 응답 없음
	비문서	○	○	×	△	○	발달관련 용품	문자 응답 없음
	보행기	×	×	×	△	○	활용도가 낮음	(쏘서/비문서/모행기)
품목 개수 (가정용 상비약 포함)		73개	60개	40개	40+15개	49개		

주: 1) ○는 필수용품으로 분류된 용품, ×는 필수용품에서 제외된 용품을 의미하며, △는 설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문자 응답에서 30가구 이상이 응답하여 용품을 의미함.
2) 육아용품 전체 목록은 선행연구에 포함된 물품을 합집합 형태로 재정리한 것임.

생애초기 적정규모 양육비용 산출 연구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